

제20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 (중(鐘)의 기원)외 75편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인사혁신처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



2017 제20회

공무원 문예대전

2017년 5월 인쇄

2017년 5월 발행

발행 인사혁신처

발행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Tel. 044) 201-8422 / Fax. 044) 201-8428

펴낸곳 문원미디어 Tel. 042) 242-0897 / 세종지사 Tel. 044) 863-3993

※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제20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 <종(鐘)의 기원>외 75편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



인사혁신처



극심한 산고의 진통 끝에 선정된 수상작품에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제20회 공무원문예대전에 입선하신 모든 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격무에도 불구하고 평소 연마하신 문학적 소양을 기꺼이 나누어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수한 수상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수상작품집을 발간하게 된 것은 더 없는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이한 공무원문예대전은 약관(弱冠)의 나이에 걸맞은 완성도와 풋풋함으로 공직사회의 생동감과 희망찬 미래를 문학이란 장르를 통해 매우 잘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공무원문예대전이 한 해 한 해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명실상부한 문학적 담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의 큰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20회 공무원문예대전에는 전·현직 공무원 1,484명이 참가하여 시, 소설, 수필, 시조, 동시, 동화, 희곡 7개 부문에 총 2,968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출품된 작품 모두 어느 것 하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완성도가 뛰어나 심사에 숙고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극심한 산고의 진통 끝에 선정된 수상작품에 큰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또한, 미 수상 작품에 대해서도 경합의 특성 상 선정하지 못한 아쉬움은 여전히 미련으로 남습니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 할애되는 여가를 문학 창작에 쏟아 주신 그 열정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드리며, 그 열정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견인하는데 커다란 추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입선작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참가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인사혁신처장

강동국



문학의 밝은 미래

문학은 인류 발명품 중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의 중요한 하나가 정신을 갖고 있는 것,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토양으로 나고 자라며 꽃피우는 것이 바로 예술이며, 그 예술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문학이다.

문학은 작가는 한 작가의 정신적 세계이며 크게는 동시대 사람들의 영혼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문학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장 귀중한 가치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성원이 되어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는 문학 진흥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문예대전은 국가가 문학 진흥을 위해 투자하는 구체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직접 맡아 이끌어 가는 봉사자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권력자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신, 정서, 의식, 가치관이 곧 사회와 국가의 방향타가 될 것이며 동력원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문예대전은 공무원의 정신을 바르게 세우고 정서를 순화·윤택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일을 원만하면서도 가치 지향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처방이 될 것이다.

금년에도 매우 많은 응모작이 들어왔다. 응모작은 총 3천여 편에 육박하고 있다. 이만한 분량이면 어떤 문학상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의미이다.

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을 가끔 볼 수 있다. 문학이 독자들로부터 외면되어져 끝내는 존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문명의 발달로 다른 기계적 매체에 문학의 영역을 침식당해 문학은 소멸될 것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인류의 지혜가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문학을 우리 인간들이 쉽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공무원문예대전에 많은 응모작이 쇠도한 것이 그 한 예이다. 그뿐 아니라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단체에서 시행하는 문학상에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원래 문학은 대중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름같이 많은 독자들을 이끌고 다니지는 않는다. 문학은 다만 상당한 정신적 교양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의 향유물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문학은 비교적 고독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은 모든 예술의 최상위에 위치하면서 그 아래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또 그 아래 문화는 그 다음 아래의 예술을 이끌어가기 마련으로 되어 있어서 중국에는 많은 문화예술을 견인해 가는 역할을 한다.

응모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제재들을 시, 시조, 소설, 수필, 동화, 동시, 희곡 등의 형식에 담아놓았다. 그런데 상당수의 작품들이 경험 자체를 필사해 놓은 듯한 느낌을 주어 안타까웠다. 문학적 승화, 곧 허구나 상상의 공간속에 실 경험을 또 다른 경험으로 이동시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문학이라 한다면 아직 수련이 덜된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띄어 아쉬웠다. 그러나 입상권에 든 작품들은 문학적 품위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반가웠다. 이분들께 한국문학의 앞날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문학애호 정신을 견지하고 치열한 수련을 쌓아 문학의 밝은 미래를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공무원문예대전을 준비하고 시행한 인사혁신처에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7년 5월

시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문 효 치**

발간사	인사혁신처장 김동국	4
심사총편	심사위원장 문효치	6

대상 수상작

심사평		14
대상	종(鐘)의 기원 순천남산초등학교 김현우	15

시

심사평		38
금상	순천만 맛조개 평택시 김경태	42
은상	이순신 경상남도 의령군 김양재	45
	처마 밑 고드름 서울오류남초등학교 김정식	49
	학교에서 영천 신녕초등학교 정기원	52
	가장자리 전)철도청 박청환	55
동상	북한강에서 괴산경찰서 이상재	58
	졸업사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김종범	61
	오두막집의 겨울밤 동안양세무서 장석민	64
	차를 마시다 안곡초등학교 권덕은	67
	목재 파쇄기에 대하여 전)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김태수	70
	문화 상회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유상록	73
	X레이 소견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강경식	76
	참나무와 주름버섯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안윤미	79
	아내의 장독대 장흥교도소 김현기	82

	감자탕 집엔 손님이 많다	영주소방서 김일하	85
	콩나물 시루	방송통신위원회 황덕조	88
	너희들이 내 삶의 詩인 것을	경북교육연수원 박현동	91
	어떤 소리	대구지방환경청 김희관	94
입선	노란 미소	전)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윤상선	97
	얼음다리	방산초등학교 차재연	100
	가라 앉는 유채밭에서	밀양 송진초등학교 이송이	103
	출장가는 길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이진섭	107
	섬 아닌 섬	전)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박창식	110
	거꾸로 매달린 사람	생연중학교 김흥기	113
	어떤 일출	전)북대구세무서 최범석	117
	말	안양교도소 김난귀	120

소설

	심사평		123
은상	몬스터를 잡아라	곡성고등학교 최정원	126
	삼각 김밥	대구상수도본부 달서사업소 김명자	149
동상	안개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류보선	173
	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정승호	195
입선	한 자 반	서울연지초등학교 정영호	218
	K박사의 연구-나이스드림의 부작용	전)조달청 김진일	241
	무게	특허청 최석규	259
	기억의 연습	매현중학교 한경애	281

수필

심사평			301
금상	봉노	포항동부초등학교 안희옥	304
은상	샘	경남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이규준	309
	문고리	포항이동중학교 손달호	315
	봄날의 흔적(痕迹)	한솔고등학교 곽상학	319
동상	치매	안양교도소 김난귀	326
	섬강(蟾江)	강원도 횡성군 임청근	331
	관거험로(關據險路)	인천세관 장광현	337
	사랑의 좁도리	대구광역시 동구 정기임	344
	인어 공주의 웨딩 슈즈	서울시 강남구 김나현	350
	시골산행	국방정보본부 김명진	357
입선	내 삶의 색과 냄새	충청남도 논산시 이래운	362
	영혼의 메아리	전)울산광역시 김갑주	369
	점핑마우스	보건복지부 전재필	374
	천기누설 죄	기상청 정상부	378
	별 하나	인천동구보건소 유수정	386

시조

심사평			392
금상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전)전북 진안 정천중학교 이용호	394
은상	복어	전)강원도 평창군 이우식	397
동상	독도(獨島)	유림초등학교 정미분	399
	청진	유안초등학교 엄영희	401
	독거(獨居)	전)울산광역시 김갑주	403
입선	2월	경상남도 거제시 김정식	405
	바다	전)부산 남일초등학교 최보일	407

동시

심사평			409
금상	소금꽃	성남 태평초등학교 김용우	412
은상	장마	충청북도 이창규	414
	고모, 부탁이 있어요	전)영광실업고등학교 정형택	416
동상	연필네 식구들	두마초등학교 김중우	418
	택배	전)전북 고창 대아초등학교 최성철	420
	무지개가 사는 곳	파주소방서 김기호	423
입선	비온 후	내대초등학교 김지수	425
	미술시간	전)철도청 박청환	427
	점자 블록 길	전)강원도 평창군 이우식	430

동화

심사평			433
금상	길고 긴 한 시간	별내초등학교 차유나	436
은상	눈물 금지령	인천 신대초등학교 정승례	446
동상	빨간 눈송이	인천 강화군 선원면 이여주	455
	빵, 빵, 빵!	대전천동초등학교 박수영	464
입선	곰돌이 집배원 리보의 하루	강원지방우정청 양구우체국 이재우	473
	나도 한국사람입니다	평택고용센터 조영은	486
	풍선이 된 종환이	매현중학교 한경애	500

희곡

심사평			509
금상	아무도 모른다	경상북도 영덕군 김두성	512
동상	곰치국 인생	이천시보건소 음유나	537
입선	단식	포천초등학교 우혜선	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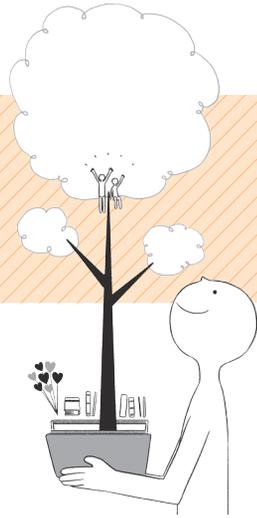
제20회 공무원문예대전

대상 <종(鐘)의 기원>외 75편

공무원
문예대전
수상작품집



대상 수상작



심사평

‘종(鐘)의 기원’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들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한꺼번에 죽고, 고등학생인 화자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USB에 저장되어 있던 포로노 영화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핸드폰에서는 원조교제를 했던 여자애를 찾아내 만나면서 일탈하게 된다.

소설적 구성으로 볼 때, 아버지가 만났던 여자의 가슴에 피어싱 된 종(鐘)의 소리를 복선으로 깬 점은 만만찮은 내공을 보이고 있다. 아쉬운 점은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은유나 비유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으면 하는 점이다. 약간의 외설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앞으로 기대되는 작가적 역량이 엿보였던 작품이다.

심사위원 : 이원규, 이영철, 최성배



순천남산초등학교
김 현 우



수상소감

마음만 먹으면 등단은 어렵지 않으며 꾸준히 쓰기만 하면 일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객기 넘쳤던 시절이 있었다. 한껏 부풀었던 풍선은 술자리에서 호기롭게 떠다니다 비틀거리는 내 발길에 뒤쳐곤 했다. 한해 두해 지나며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팽팽하던 꿈도 시들어 갈 무렵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 몹시 부끄러워진다.

찌그러져 온갖 잡동사니와 함께 바닥에 널브러진 풍선을 주워 입에 물고 깊은 숨 한번 들이 마실 때다.

종(鐘)의 기원

편의점 여담이문을 밀고 들어서자 문 안으로 종소리가 짜르랑거리며 쏟아진다. 그 여자애의 가슴에서도 종소리가 난다. 혀끝으로 가슴 끝 작은 봉오리를 스치듯 어루만지면 자잘하고 오돌토돌한 돌기들이 혀끝을 향해 꽃꽂이 서며 은은한 종소리가 울린다. 나는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파블로 프의 개처럼 그 애의 포도 빛 유두의 새콤달콤한 맛이 떠올라 입안에 침이 저절로 고인다. 지금 그 애는 유두에 그네처럼 매달린 조그마한 종을 기적(汽笛)처럼 울리며 내게 달려오고 있는지 모른다.

던힐 한 보루를 주문했더니 아저씨는 두말없이 담배를 건넨다. 만일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런 수고스러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방 서랍엔 담배가 항상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갑 가운데 한 갑 정도 빼내서 피운다 해도 별 문제는 없었다. 그것이 아버지가 무심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목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아버지가 죽은 후부터 거리낌 없이 담배 피울 수 있다는 것은 좋았다.

어머니의 화장대 서랍에서 나온 USB에는 포르노 영화가 몇 편 들어 있었다. 포르노는 밋밋하기 그지없다. 마음이 떠난 아버지를 그런 것들로 잡아보려 했을까? 그것들이 평범한 체위가 아닌 색다른 체위였다면, 그 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To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따위를 외우거나 미적분을 배우고 있을 터였다. 내

가 좀 더 성실히 수업에 임했다면 이혼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날 확률과 교통사고가 나서 그들이 둘 다 죽을 확률까지 정확히 계산해 낼지도 모른다.

그들이 죽고, 학교에 자퇴서를 서둘러 제출했다. 그렇다고 대학에 가지 못할 정도의 성적은 아니었다. 대학에 가야할 필요를 못 느꼈을 뿐이다. 나중에 후회한다고 이모가 만류했지만 아쉬움이나 서운함 따위는 없다. 나중에 후회한다고 해도 그 후회에 대한 걱정을 미리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찾아오는 여러 갈림길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흥분되는 일이다. 진정한 어른이 된 기분이다. 그것이 부모의 죽음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건 두려움과 설렘이 적당히 섞인 기분이다. 나는 여느 십대 아이들처럼 게임이나 텔레비전의 연예인에 죽고 못 살 정도의 철부지는 아니다.

그들이 법원에 함께 가던 날, 그들은 백년가약을 맺었던 처음의 선서처럼 같은 날에 죽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법원을 향하던 길이었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어머니의 그랜저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고속버스를 들이받았다. 웅장한 그랜저는 맥주캔처럼 가볍게 구겨졌다. 조금 더 웅장한 고속버스는 오른쪽 뒷바퀴 쪽이 약간 찌그러졌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어머니는 고속버스와 충돌한 뒤에 차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 즉사했고 아버지는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에 숨을 거두었다. 거리에는 성탄분위기를 한껏 띄운 불빛들이 명멸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의 기상캐스터는 화이트크리스마스가 될 확률이 꽤 높다고 전했다.

아버지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나는 A형인 아버지를 위해 피를 뽑아야 했을지 모른다. 불과 삼백 미터도 되지 않는 곳에 정형외과 병원이 있었는데

구급차는 그곳을 한참 지나서 다른 병원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학교에서 4교시 영어수업을 받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최상급에 관한 문장을 선생님 앞에서 외워야 했다. ‘미친 개’라는 별명의 선생님은 날짜에 맞춰 외울 사람을 지정하곤 했기 때문에 22번이었던 나는 약간 긴장하고 있었다. 그때 답임이 나를 밖으로 불러냈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답임은 내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부모의 죽음을 알렸지만 나는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았다.

점심 요기를 하지 못한 내 배는 영안실에서 자꾸 꼬르륵거리는 신호를 보내왔다. 배가 몹시 고했던 나는 우선 밥을 먹고 싶었다. 그 상황에 밥 먹는 게 대수냐고 누가 뭐라 한다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들의 장례를 치르던 날은 기상캐스터의 예측과 달리 포근해 눈 대신 비가 내렸다. 이모는 터럭게도 코를 풀던 손수건으로 자꾸 눈자위를 훔치며 ‘하늘도 네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했다. 만약 기상캐스터의 전망대로 눈이 왔다면 이모는 그들의 죽음과 날씨를 어떤 식으로 관련지었을까?



장례식장의 흐느낌 사이로 이웃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간간히 흘러나왔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인지 손님은 많지 않았다. 만일 어머니만 돌아가셨다면 라이온스 클럽을 비롯해 회장직함을 세 개나 갖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에 도장을 찍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많지 않은 문상객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주의 역할을 다 해야 했다. 조금만 자리를 비워도 완고한 큰아버지가 찾았기 때문에 나는 꼼짝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 했다. 죄인은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큰아버지에게 직수굿했던 것은 두 분이 가는 마지막까지 시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죄인은 누가 죄인인지 모르겠다. 새파랗게 어린 아들 험난한 세상에 홀로 떨어뜨리고 떠난 그들이 죄인이 아닌가. 아무도 내말에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 엉뚱한 소리를 지껄인다면 내 주먹은 무언가를 치고 싶어 안달할 것이다. 어찌면 그 무언가가 당신의 오지랖 넓은 입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애들이 아바타를 키우기 위해 밤을 지새울 때 나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애를 썼다. 어머니는 헬스클럽회원권을 1년 치나 끊어주었다. 비쩍 마르면 볼품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선천적인 우량아로 낳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그런 식으로 달래려 했다. 나는 어머니의 선택이 옳은 길이었다고 믿는다. 여자 애들이 ‘어우 징그러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근육질의 남자와 그 남자의 큰 가슴을 은근히 좋아하는 것을 다 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의 풍만한 젖가슴을 좋아하는 것만 큼이나 자연스런 일이다.

그들이 성급히 떠났을 때의 내 가슴은 근육이 어렴풋이 잡힐 정도였다. 근육질 몸매로 탈바꿈하는 게 어머니의 유지라도 받드는 것인 양 운동을 더 열심히 했다. 학교를 그만둔 나로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기도 했다. 그 탄탄한 근육을 보았다면 어머니도 상당히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 대신

내 품에 안겨 내 가슴의 근육을 더듬으며 잠자리에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이혼에 성공했다면 말이다. 그런 든든한 근육은 운동을 하지 않고 불규칙적인 생활까지 겹치자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 금세 강파른 몸으로 바뀌었다.

아무튼 상주 역할을 하기 위해 손님과 맞절을 하던 나는 다리가 많이 저려 힘이 들었다. 저린 다리를 주무르며 제발 담배 피울 시간을 좀 달라고 죽은 부모에게 빌었다. 교대 해줄 동생 하나라도 더 낳지 않은 부모가 잠시 원망스러웠다. 장례가 3일을 넘겼다면 나는 상복을 집어던지고 노래방 같은 곳을 찾았을지 모른다.

친척들은 그들을 선산에 안장해야 한다고 했지만 성묘하고, 별초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화장을 택했다. 나는 합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한 분의 유골은 산에 한 분의 유골은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에 뿌렸다. 그것이 두 분의 마지막 뜻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달천(達天)이라는 그곳은 지금은 연륙교가 놓인 곳이다. 내 사진첩에는 그들이 달천 앞 바다를 질주하는 보트에 선 채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다. 예닐곱 살쯤의 나는 엄마 가랑이에서 바닷바람을 맞은 채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배를 타본 적이 없었던 나는 보트의 질주와 강한 바닷바람으로 두려움에 떨며 엄마 가랑이에 잔뜩 웅송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헝클어진 머릿결 사이로 빛나던 미소는 그들이 분명 행복했던 한때였다. 나는 그들을 그때 그곳으로 보냈다.

아버지를 바다에 뿌렸는지 어머니를 바다에 뿌렸는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청개구리가 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이런 판단을 두 분 다 존중할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으나 죽음 이후, 이제 함께 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서야 서로를 끝없이 그리움으로 적

시고 젖어 들 것이다. 어쩌면 서로 맞닿은 산과 바다에 각각 뿌린 나를 대견해 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몹시 보고 싶거나 마음이 헛헛해진다면 그 바다가 보이는 산에 가면 된다. 거기서 향불이라도 피우듯 담배나 한 개비 피우고 올 것이다.

아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두 분은 정말 이혼에 성공했을까?

찌그러진 차에서 찾아낸 유품 중에 이혼서류를 찾지 못했다면 그들의 운명 같은 사랑—같은 날에 맞춰 죽을 정도의—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살았을 때 나는 밤 열두 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도 아마 두 분의 결심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을 보낸 후, 한동안 아침 여섯시에 꼬박꼬박 일어났다.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싫더니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데 저절로 눈이 뜨였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웠다. 일어서서 멍하니 인기척을 기다리다가 문득 그런 게 더는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담배를 피워 물며 아라베스크 문양의 벽지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어느 순간 나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걸 빼곤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마저도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돼 관됐다. 학교를 그만 둔 것이 후회가 될 지경이었다. 아무것도 할일이 없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누워 지냈다. 빨리 일어난다고 할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늦게 잔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아무 것도 없었다. 자연히 생활리듬은 여덟 시간쯤 늦은 유럽의 시차처럼 뒤로 늦춰졌다.

인터넷의 세계는 넓었다. 죽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살과 살이 쟁쟁(爭爭)거리는 속으로 얼마든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그 동영상 중 가장 이상한 체위나 엽기적인 성교를 보며 자위를 했다. 그들은 내 머릿속

에서 내 남성을 훑아댔고 날짜 지난 바게트처럼 딱딱해진 내 남성을 후배 위로 그들의 성기에 담뱃 집어넣었다. 그러면 사이트의 금발머리는 통성인지 교성인지 모를 소리를 한껏 질러댔다. 내 정자들은 스포츠신문 1면에 스캔들 터진 여배우의 얼굴을 향해 달려 나갔다. 그들은 얼굴 가득 정액을 뒤집어 쓴 채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새벽에는 차량이 뜬한 6차선 도로를 과속으로 달려대는 트럭이 많았다. 고인 물 튀기듯 함부로 쏟아낸 트럭의 굉음소리를 들으며 시뻘게진 눈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오후 서너 시나 돼서 잠에서 깨어나면 거실 창끝으로 손바닥만 한 햇살조각은 종종걸음으로 멀어져가 금세 이내 속에 녹아 들었다.



처음 그 애를 만난 건 아버지의 휴대폰을 통해서였다. 죽은 아버지의 휴대폰을 검색한 건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나 회상 따위의 감상 때문이 아니었다. 요금청구서가 날아왔고 아직 휴대폰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게다가 아버지였음에도 그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호기심이 발동했을 뿐이다. 나는 아버지에게 왔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약간 놀랐다. 그가 누구에게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아찌 나 보고픈데 언제 볼까?’, ‘왜 연락을 안 줘여, 바쁘신가요?’ 등 한 번호로 온 몇 개의 유치한 문자가 보였다. 스팸 문자는 아니었다. 장례를 치르던 중에 날아온 걸로 보아 발신자는 아버지가 죽은 걸 전혀 눈치 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문자를 보내 그 유치한 발신자를 집으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쩌면 무료한 학교생활에 지쳐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죽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내심 그 무료한 삶에 종식을 고할 때가 왔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동안 친권자의 권리라도 찾으려는 듯, 거추장스레 들락거리던 친척들은 다시 그들의 일상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남겨진 도화지의 흰 공간들을 어떻게든 내 식으로 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누군가를 마주칠 기회조차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 며칠 지나지 않아 학교생활이 그리워졌다. 그런 무료한 삶에 찾아온 그 애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경동한 치마를 걸친 여자애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보이진 않았다.

“애개, 니가 정말 날 불렀니? 너 돈 있어?”

그 애는 오히려 나를 보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담배에 불을 붙인 그 애는 입술을 삐죽이 내밀어 담배연기로 도넛을 연거푸 만들었다. 게다가

가 입술 사이에 걸린 연기들이 흩어지지 않게 능숙한 솜씨로 빨아들인 후, 내 얼굴에 혹 내뿜었다. 나는 턱밑까지 올라온 쌍소리를 겨우 억눌렀다. 그 애는 일그러진 내 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근데 너 장난 아니지? 나 졸라 비싸거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애는 나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다.

‘아이씨, 돈도 안 되게 꼬마애가 뭐냐, 짜증이네.’

그 애는 한두 살 차이쯤은 숫제 자기 아래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어찌면 나보다 한참 나이 많은 어른을 상대하다 보니 내가 어려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속에서 욱하고 욱 지기가 치미는 걸 지그시 누르고 지갑에서 오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그 애한테 던졌다.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 애는 돈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기다렸다는 듯 걸음을 벗었다. 매니큐어를 바른 그 애의 은빛 발가락이 드러났을 때 처음 생각과 달리 나는 그것을 깨물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언죽번죽한 그 애가 내 허리춤을 당겨 바지를 벗겼다. 그 애의 자연스런 행동거지는 이런 일에 이골이 난 듯했다. 아버지가 살았다면 그 애를 데리고 외곽의 유원지나 모텔 같은 곳에 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가 죽은 후 이모와 함께 유산을 정리하던 나는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다. 이혼 후 나와 어머니를 떼어두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음에 틀림없다. 어찌면 그 새로운 삶은 그 애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었을지도 모른다.

“안 씻을 거야?”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사실 여자애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여자애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욱실로 향했다. 세면도 구인지 조그만 가방을 갖고 들어간 그 애가 얼마 후, 목욕타월을 두르면서

나왔다. 옛된 얼굴과는 달리 적당한 물기를 머금은 몸에서 여인의 향이 물씬 풍겼다. 타월을 두른 그 애의 실루엣은 더 이상 소녀가 아님을 항변이라도 하는 듯했다. 날씬한 허리선 아래 부드럽게 부푼 탐스런 엉덩이, 타월을 감은 위로 부풀어 올라 금방이라도 빼꼼히 드러내고 말 것 같은 젖가슴에 내 남성이 어느새 벌떡 일어나 있었다. 나는 사각팬티 한쪽으로 빠져 나온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것을 팬티 속으로 슬쩍 밀어 넣었다. 텐트라도 친 듯 팬티의 가운데가 불룩 솟아올랐다. 그 애가 다가오는 걸음은 어서 영접하라는 신의 계시처럼 반짝였다. 신이라도 맞이하듯 조심스레 몸을 일으키고는 축축함이 묻어있는 그 애의 어깨를 그리지어 침대에 눕혔다. 입술을 포개자 그 애의 입술이 내 윗입술을 살며시 물고 흔들었다. 차르르르 울리는 햇바닥의 금속성이 시린 새벽 공기처럼 상쾌하게 느껴졌다. 눈이 많이 내리는 바닷가가 고향이라는 그 애의 입에서 짝조름한 해초 냄새가 나고 우렁쟁이의 알싸하고 향긋한 맛이 느껴지기도 했다. 너무 격렬한 의식을 치렀던 걸까? 소용돌이처럼 혀를 돌리며 끌어당기는데 그 애가 이 맛살을 찌푸리며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그 애의 입에서 혀를 뽑아냈다.

“피어싱 때문에 그래?”

“응, 아퍼. 너무 세게 하지 마.”

그 애는 입을 불룩이며 혀를 추슬렀다.

“미안, 나도 모르게 그만.”

그 애가 괜찮다며 씨익 웃어준다. 반말에도 조금 전처럼 거부감이 들지 않은 게 그 짧은 순간에 그 애와 무척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 처음 생각과는 달리 나는 본능에 몸을 맡겨버렸다. 아버지도 그랬을 것이다. 이성이 모든 것들을 통제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조용했을 것이다. 그들의 이혼이나 죽음은 없었는지 모르고 어찌면 내가 태어나는 일조차 없었

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에 관한 것을 묻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순간 그 애가 혀끝으로 콧바퀴를 애무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냥 입을 다물었다. 가려운 듯 부드러운 쾌감이 밀려왔다. 그 애의 혀끝 움직임에 따라 자그락거리는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오른쪽 귀가 서늘한 듯 가려웠고 오금마저 저려왔다. 그 애의 입술이 콧방울에 닿는가 싶더니 곧 혀로 코끝을 조심스레 훑아냈다. 혀에 박힌 피어싱이 언뜻 반짝였다.

그 애의 가슴은 확실히 컸다. 언젠가 자신의 몸에 아이를 지냈을 법한 탐스런 가슴이었다. 왼쪽 브래지어에 이어 오른쪽을 마저 벗기던 중에 브래지어 아래로 짜라랑 소리가 흘러내렸다. 유두를 관통한 동그란 피어싱에는 조그마한 은빛 종이 걸려있어 그 애의 가슴을 만질 때마다 종이 울렸다.

“여기 이 좋은 뭐냐?”

“글쎄, 세상에 대한 복음이라 하지 뭐. 너처럼 내 가슴 만지는 사람에게겐 축복이 있을 거야.”

그 애가 해죽 웃으며 대답했다. 그 애는 내게 톡 쏘는 탄산음료처럼 일상의 청량제가 됐다. 만일 그 애를 만나지 않았다면 학교를 그만 둔 것을 정말 후회했을 것이다. 몇 가지 분야에서 그 애는 나를 변화시켰다. 집에만 갇혀 지내던 나는 우선 전보다 외출을 많이 하게 됐다. 그 애와 마트에서 달걀이나 고등어를 사기도 하고 매운탕거리와 밀반찬을 샀다. 어머니가 살았을 때 남겨진 곰팡이 낀 음식 대신에 신선한 것들이 냉장고에 채워졌다. 곰팡이 낀 그들의 사랑은 깨끗이 정리되고 나의 파랗고 싱싱한 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애의 등장으로 어머니가 죽은 후 처음으로 집에서 차린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때까지는 패스트푸드나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때우곤 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음식을 곧잘 했다. 간이 안 맞기도 하고, 조

미료 향 때문에 혀가 얼얼한 적도 있었지만 대체로 먹을 만했다. 또 나를 위해 음식을 하는 모습은 맛에 상관없이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폭설이 내리던 날엔 그 애와 소담스러운 눈송이를 맞으며 공원을 뒹굴었다. 눈을 뭉쳐 눈싸움을 하다가 시들해지면 아무도 밟지 않은 미지의 세계인 양 선명한 발자국을 먼저 찍으려고 서로 앞장서서 달렸다. 우리는 젊었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열려있었다. 지친 우리는 붉게 시린 얼굴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근처의 포장마차로 향했다. 조립식 건물로 이루어진 포장마차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대금 산조를 연주하듯 휘파람 소리가 났다. 바닥의 소라껍데기나 굴 껍데기 따위는 선술집의 정취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 애가 시킨 산낙지에 소주를 먹었는데 다리가 잘린 낙지들이 꿈틀거리며 자꾸 접시 바깥으로 빨판을 찍어댔다. 우리는 낙지의 썩 달라붙은 빨판을 악착같이 떼어내 입안으로 가져갔다. 생명력이 강한 그것들은 입안에서도 꿈틀거리며 입천장에 빨판을 썩썩 붙여댔다. 꿈틀거리면 꿈틀거릴수록 자꾸 잘려나가는 느낌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는 기어이 더 꿈틀거리는 것을 찾아 입안에 넣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 애가 며칠째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이 나간 그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다. 그날, 그 애는 몇 시간째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몇 마디 말을 걸며 관심을 끌어보아도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기만 했다. 하는 수 없이 그 애를 그냥 내버려두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잠에서 깬을 때 이미 그 애는 보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찾고 싶었지만 그 애에 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그 무렵, 두영이 차를 끌고 찾아왔다. 아버지와 다뤘다는 그는 친구 하나를 달고 왔는데 그 친구는 번개라고 했다. 오른쪽 볼에 Z자 모양의 흉

터를 보고 나는 왜 그 친구가 번개인지 알 것 같았다. 흥터도 그렇지만 칼 다루는 솜씨도 번개처럼 빨랐다. 번개는 항상 잭나이프를 지니고 다녔는데 그걸로 사과를 깎거나 사과를 공중에 던져 칼로 명중시키는 묘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가 능글거리며 웃을 때면 오른쪽 볼에 있는 번개가 같이 꿈틀거렸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불량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묘하게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 그는 이를 동안 집에 머물다 갔는데 경찰에 쫓기고 있는 눈치였다.

“이 칼이 필요하면 말해.”

그는 우릴 보고 씩씩 웃으며 번개처럼 사라졌다. 두영이 왔지만 내 생활은 변한 게 별로 없었다. 두영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지만 그다지 흥이 나지 않아 다시 집안에 틀어박혔다. 그는 가끔씩 여자애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여자들이 바뀌었다. 그날도 그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번에는 작은 키에 조봇한 어깨의 귀여운 여자애였다. 그들 방에서 자잘한 웃음이 흘러나오길 몇 차례 잠잠해지다가 싶더니 잠시 후 여자애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텔레비전 소리를 키워보아도 잠시뿐 신음 소리는 장마철 논두렁을 허무는 물길처럼 거세게 터져 나왔다.

나를 욕구불만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것들로부터 탈출하는 길은 더욱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하는 일이었다. 나는 그 사이트에 나오는 흑인이 되어 여자배우의 항문에 거대한 남근을 집어넣는가 하면 개가 되어 여자의 몸에 성기를 밀어 넣기도 했다. 누구에게인지 모를 사정(射精)인지 사정(事情)인지 수음을 몇 번씩 하고 나면 의식이 혼곤한 상태로 쉬 잠이 밀려왔다.

초췌해진 얼굴에는 피곤이 밀물처럼 달려들었지만 그칠 수 없었다. 그 애가 돌아왔을 때에도 나는 성기를 쥐어짜며 용을 쓰고 있었다. 그 애가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담배를 입에 물고 매운 연기에 한쪽 눈을 찡그리며 성기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인기척을 내기가 무안했던지 한동안 그대로 있던 그 애는 내가 힐끗 쳐다보고 민망한 표정을 짓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내 거기를 소시지라도 입에 넣듯 통째로 입에 넣었다. 그 애가 내 그것을 입에 물고 움직일 때 독사처럼 서늘한 느낌이 와 닿았다. 그 애는 그것을 입에 넣고 어린아이를 대하듯 어르고 달랬다. 내 그곳이 익숙한 장난감인 듯했다.

“다음부터는 나한테 말해.”

어눌하게 말하는 그 애의 입이 들썩일 때마다 입안이 반짝거렸다.

“거기가 미칠 것처럼 부풀어 오르면 119를 부르란 말이야. 내가 금방 달려올 테니.”

연락만 되었어도 물론 그랬을 것이다. 나는 그 애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그 안으로 혀를 밀어 넣었다. 그 애의 입이 미끈거렸고 초여름인 듯 밤꽃향이 스멀거렸다.

그 애가 집에 돌아온 후, 우리는 셋이 함께 움직였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애가 돌아온 후, 두영은 여자애들을 더 이상 데려오지 않았다. 그 애는 어디를 다녀왔는지 물기 머금어 싱그러워진 이파리처럼 생기가 넘쳤다. 우리는 두영의 BMW를 타고 쇼핑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다. 물론 그의 아버지 차였다. 그는 범칙금 따위에 신경 쓰지 않고 거칠게 차를 몰았다. 누구든 자신을 추월하는 것을 못 견뎌 기어이 쫓아가 그 차를 앞질렀다. 뒤쫓아 오는 경찰차를 따돌린 것도 여러 번이었다. 그때마다 그 애는 자기가 더 신이나 소리를 꺽꺽 질러댔다. 손을 차창 밖으로 내민 채 멋진 그의 차를 타고 달리면 가슴이 뻥 뚫릴 법도 하건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 언제 그렇게 친해졌는지 그 애는 나와 함께 뒷좌석에 타지 않고 눈

치 없이 항상 두영의 옆자리에 먼저 앉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나는 으레 뒷자리에 앉았다. 뒷자리에 구겨져 있던 나는 때때로 그들이 흘리는 웃음이나 농담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 좌석 사이의 공간으로 머리를 자꾸 디밀어야 했다. 퐁퐁거리는 음악 사이에서 사운거리듯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액션 영화 좋아 해?”

두영이 음악 소리를 줄이고 물었을 때 대답이 갈렸다. 결국 두영과 그 애는 헐리우드 액션영화를 보러갔고 나는 코믹영화를 보았다. 영화는 하나도 웃기지 않았다. 영화는 내 눈과 귀를 자꾸 비껴갔다. 영화를 보는 내내 그들의 웃음과 눈맞춤이, 입맞춤이 떠올랐다. 영화를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영화를 보다 말고 나와서 담배 몇 개비 짬을 태우고 있을 때 그들이 밖으로 나왔다. 그 애가 두영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두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글대는 그 애의 모습은 낯설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저리도 밝은 모습을 한 적이 있었나 싶었다. 그 애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두영만의 무언가가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게 두영의 외제차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 애는 두영의 과장되고 허세가 있는 큰 동작들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웃기지도 않은 일에 온몸을 떨며 웃어대는 모습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그들과 피자집에서 치즈피자를 시켜먹었다. 샐러드와 푸딩을 내가 가져왔을 때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그윽한 시선이 느껴졌다. 거기에 내가 존재하는 나는 곧 어딘가로 증발해버릴 것 같았다. 희미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콜라를 빨대로 세차게 빨아 마셨다. 콜라와 뒤섞인 빨대 속의 공기가 파열음을 만들어냈다. ‘기껏’이라 할 만한 그 소리는 애잔하고 무력하기만 했다. 그들 사이에 내가 억지

로 끼어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애가 피자를 먹고 느끼한 속도 달랠 겸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해서 우리는 베스킨라빈스에 갔다. 나는 아이스크림보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소리를 질러대며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떠먹었다.

아이스크림 값은 내가 지불하고 싶었지만 두영은 내가 내미는 돈을 밀어내고 자기가 계산해버렸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두영이 자기 집에서 훔쳐온 돈들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돈이 바닥을 드러낼 때, 그 애에게 나만의 것을 사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애가 입게 될 옷과 액세서리는 내가 마법사처럼 지팡이를 휘두를 때에만 반짝거릴 수 있을 것이다. 두영에게는 기름값 따위의 꼭 필요한 용돈만 줄 것이다.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었다면 조수석에 그 애를 태우고 두영 몰래 드라이브를 즐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영이 탄다고 해도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그들 어깨 사이에 기를 쓰고 얼굴을 디미는 것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은행앞도 다 지고 잎사귀 몇 개가 가을바람과 발길에 뒤쫓 무렵, 두영과 그 애가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고 혼자 아파트에 덩그마니 남겨졌다. 하루 종일 인터넷 하고 포커게임을 하다 지겨워져 그만두고 거실에 비치는 햇볕에 몸을 말리며 밖을 바라보았다. 더 추워지기 전에 나들이를 즐기고 돌아오는 휴일 가족들의 풍경이 보였다. 강동거리며 뛰는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베란다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문득 헛헛해졌다. 언젠가 그 애가 한 말이 떠올라 그 애에게 119를 쳤다. 맹세코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애는 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고 오지도 않았다. 이번엔 전화를 해봤더니 신호가 가다가 금세 뚜뚜뚜 하고 끊어졌다. 두 번의 연락을 더 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배가 고파왔다. 집에서 요기를 할까 하다 운동화를 구겨 신고 집을 나섰

다. 고깃집에서 나오는 가족을 지나쳐 파리바케트에 들어섰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빵을 종류별로 넉넉히 샀다. 그 애나 두영이 오면 함께 먹을 생각이었다. 혼자 우적우적 빵을 씹어 먹기가 싫었다. 내 몸에서 나는 고소한 향기가 식욕을 돋웠다. 해가 갈수록 짧아져 사위가 금세 어둡신해졌다. 귀가하는 차들로 아파트 입구가 어수선했다. 그때 눈에 익은 차 한대가 스윽 지나갔다. 나는 그 차를 따라 성급히 뛰어갔지만 그는 날 발견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 차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자 나는 아파트 입구의 우편함 쪽에 숨어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몸을 숨기고 힐끗거리며 언제 뛰쳐나가야 그를 놀래줄 것인가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머리통은 하나가 아니었다. 계단 한두 개쯤 뒤에 처져있으면서도 두영의 손을 꼭 쥐고 올라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애였다. 그들이 입구 가까이 왔을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재빨리 올라갔다. 행여 그들과 마주칠까봐 거기서 한참을 멍그적거리다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갔다. 5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이미 집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지금껏 손에 꼬옥 쥐고 있던 종이 가방을 내팽개쳤다. 빵이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지나가는 택배 탑차 바퀴가 갈고 간 빵은 금세 아스팔트에 납작하게 눌러버렸다. 그 길로 포장마차에 가서 빵 대신에 소주를 들이켰다.

유치하긴 하지만 나는 두영이 그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가출은 그리 오래할 만한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 날 두영은 모임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한다고 하루나 이틀정도 묶고 올 것이라고 했다. 그 애도 불일이 있다고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어디에선가 합류하리라는 것

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만의 밀월여행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번개의 날렵한 칼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다.

일곱 시 반쯤에 두영이 먼저 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늦어도 두 시간 후에는 두영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터였다. 오랜만에 내 얼굴에 미소가 번질 정도의 괜찮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은 나는 냉장고에서 한쪽이 물러진 굴을 꺼냈다. 그리고 대가리를 자른 못 두 개를 굴 속에 보이지 않게 박아 넣었다. 그것을 두영의 차 앞바퀴 밑에 바싹 밀어 넣었다. 두영이 차를 빼면 당연히 그것을 밟고 지나갈 터였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두영이 그 애와 합류하기 전에 사고가 나아만 했다. 두영이 집을 나설 때, 일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스르륵 잠이 들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두영은 다음날 멀쩡하게 돌아왔다. 그만 기운이 쭉 빠졌다. 불과 십 분도 안 되어 그 애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있었음을 짐작하긴 어렵지 않았다. ‘별일 없었니?’라고 묻자 그가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 바래?’라고 반문해 순간 움찔했다. 그렇게 소망도 허공에 흩어져버렸다.

집에서 훔쳐온 돈이 바닥난 그는 자주 내게 돈을 빌렸다. 그 돈을 받으려는 생각은 없었다. 그가 빠른 시일 안에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이전처럼 정리될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도난차량 신고라도 했으면 싶다.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는 게 어때?”

년지시 물었는데도 그는 버럭 화를 냈다.

“치사하게 돈 때문에 그러냐? 걱정 마, 내게도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돈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가 계획한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의 편의점을 터는 일이었다. 언제 연락했는지 번개가 왔다. 어이없게도 두영은 번개와 나를 행동대원으로 임명했다. 그는 번개가 일을

다 알아서 할 거라며 그 옆에서 대충 바람만 잡아주면 된다고 했다. 아버지와 마주칠 위험부담도 있고 종업원과 안면까지 있으니 자기는 차에서 망을 보겠다고 했다. 거기에 대고 나는 절대 못하겠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 애까지 동참하겠다고 나서는데 나만 빠진다면 겁쟁이란 소릴 들을 것 같았다.

그 애가 먼저 들어간 후, 우리는 일행이 아닌 듯 조금 간격을 두고 가게 문을 들어섰다. 다행히 편의점에 그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곳에 차를 대라고 두영에게 문자를 날렸다. 번개는 잭나이프를 감추고 들어갔고 나는 쇠파이프를 뒤쪽 호주머니에 꽂아 점퍼 안으로 감췄다. 처음의 씩 내키지 않았던 기분과 달리 막상 일을 코앞에 두니 큰 운동경기이라도 나가는 것처럼 가슴이 뛰며 흥분이 됐다. 스스로 진짜 어른이구나 싶었다. 혈관으로 내달리는 핏줄기들이 갓 잡혀 올라온 생선처럼 푸드덕거리며 온몸에 넘치는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나는 모자를 눌러써 주체하기 힘든 그 생동감을 지그시 누르며 가게 안을 배회했다. 가게 출입문 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한동안 무료해보이던 종업원의 눈동자가 반짝하고 빛났다. 카운터 앞에서 허리 굽혀 신발 끈을 매는 그 애의 가슴이 금세라도 바닥에 쏟아질 듯했다. 그 애는 운동화 끈을 다 추스르고도 일부러 탄청 피우듯 허리를 굽혀 물건을 고르는 척했다. 중력을 이기지 못한 그 애의 가슴에 박힌 종업원의 눈알은 분명 ‘조금 더, 조금만 더’를 외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의 나는 무언가를 휘두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두영의 계획에 해살을 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꼭 참았다. 번개는 두영의 절친한 친구였고 그의 날카로운 칼끝이 언제 내 심장을 겨냥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종업원이 유달리 큰 그 애의 가슴에 군침을 흘리고 있을 때, 번개가 캔

맥주 하나를 집어 꼭지를 따며 신호를 보내왔다. 그 소리에 종업원의 눈이 잠시 번개를 향했다.

“잠깐, 계산하고 드셔야 하는데요.”

종업원이 폭탄이라도 터질 듯 새된 목소리를 냈다. 그 애 가슴에 팔려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건 아니었나보다.

“아, 그래요?”

나는 번개와 계산대로 향하며 쇠파이프로 계산대 옆에 있는 조그만 쇼케이스를 박살내버렸다. 그 바람에 그 안에 있던 बे지밀과 쌍화탕 따위가 깨지며 바닥에 쏟아졌다. 그 애도 아악 소리를 지르며 과장되게 바닥에 나동그라졌다가 도망치듯 바닥을 기었다. 나는 재빨리 왼팔로 그 애의 목을 감아쥐고 쇠파이프를 오른손에 든 채 “움직이면 다 죽여 버려.”하고 소리쳤다. 그 애의 머릿결에서 향긋한 샴푸향이 코끝을 타고 올라왔다. 향기에 젖어 코가 몽롱하게 취해들 찰나 그 애는 몸을 떨어대며 그럴 듯하게 연기를 하였다. 그 애가 진저리를 치는 게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종업원도 움찔하며 뒤로 피했다. 그때 번개는 칼을 꺼내 그의 입을 막고 돈을 요구했다. 종업원이 금고를 열고 돈뭉치를 순순히 앞에 내려놓았다. 번개가 돈을 집어 드는 순간, 그 애의 가슴을 누가 만지기라도 하듯 나지막이 종소리가 울렸다. 배가 많이 나온 아저씨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보였다. ‘쫓 댔다’ 생각하며 그 아저씨를 살피는데 어쩐지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다. 종업원의 입이 뭐라고 오물거리다 우리의 눈초리를 의식하고 이내 잠잠해졌다. 시선이 흐트러진 틈을 타서 종업원이 번개의 얼굴을 스캐너로 내리친 건 순식간이었다. 번개가 얼떨결에 칼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때 종업원이 의자 아래로 몸을 낮췄다. 카운터 아래에 비상벨이 숨겨져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나는 전광석화처럼

럼 몸을 날려 종업원의 등에 쇠파이프를 작렬시켰다. 퍽 소리와 함께 기우뚱하던 종업원은 머리를 땅에 박듯 고개를 움츠렸고 다시 한번 내리치는 내 쇠파이프에 고꾸라지고 말았다. 어느새 뒤에서 배불뚝이 아저씨가 나를 덮쳐왔다. 나는 그 배에서 뿔어져 나오는 가공할 파괴력에 밀려 상품 진열대를 치고 넘어졌다. 바닥에 머리가 떨어지며 갑자기 멍해왔다. 정신이 가물가물한 내 머리위로 바스락거리며 과자 봉지 따위가 쏟아졌다. 후다닥 하고 달리는 발걸음 이후 ‘헉’ 하는 신음소리가 났다. 오른쪽으로 불빛이 꺼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넘어져 있었다. 이내 여닫이 문소리와 함께 째랑째랑 소리가 났다. 거칠게 차를 모는 소리가 이어졌다. 한동안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 숨이 턱 막혔다. 일어서려고 바닥을 짚었는데 손에 끈적거리는 불쾌한 느낌과 길쭉한 무언가가 손에 걸렸다. 힘겹게 그것을 눈앞으로 가져왔다. 피 묻은 칼이었다. 다시 미끄러운 바닥에서 버둥거리며 상체를 일으키려 하는데 내 가슴을 누르고 있는 배불뚝이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 애와 번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인기척이 나지 않았다.

경찰이 어떻게 알았는지 순식간에 들이닥쳤다. 나는 배불뚝이에게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를 짓누르고 있던 배불뚝이는 의식불명이 되었고 그가 편의점의 사장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니 배불뚝이가 들어올 때 알바생의 눈이 커지며 오물거렸던 소리가 ‘사장님’이었던 것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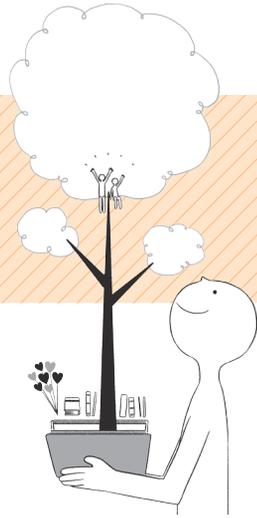
나는 경찰서에서 며칠째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다. 그들에게, 번개가 찢렸고 두영이 일을 꾸몄다고 말했지만 도대체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번개 같은 소리하네, 벼락 맞을 새끼’란 말만 돌아왔다. 나는 두영의 아버지를 찌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나는 번개의 칼을 쥐

고 있었다. 종업원은 그때 카운터 밑에 쓰러져있었기에 목격자라곤 그 애 뿐이었다. 번개가 스스로 사실을 밝힐 리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상황을 설명해줄 이는 그 애와 모든 일을 사주한 두영이밖에 없다. 아직 그들에게서 소식이 없었다. 적어도 그 애는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애가 출두하면 모든 경위를 사실대로 밝힐 것이다. 참을성이 많은 나는 조금 더 기다려줄 수는 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애가 또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는 모양이다. 어디에선가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진다.



시



심사평

심사 대상의 시 1,597편을 넘겨받아 세 사람의 심사위원이 심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비 공무원 편에서 2명, 공무원 편 중에서 6명을 선정하여 합계하여 순위를 정하였다. 응모편수는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를 쓰는 기본공부가 안 돼 있는 작품이 많았다.

시적인 형상화보다 주제의식이 앞서서 시의 조화를 깨뜨리는 시, 시의 표현방법 자체에 서툴러 진술에만 그치고 묘사보다 설명하려고만 하는 시, 일상을 늘어놓고 행갈이만 하면 시가 되는 줄 아는 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늘어놓거나 사랑고백을 그대로 쓴 글, 요설과 관념의 나열로 전달을 방해하는 시 등으로 앞으로 기본 공부를 충실하게 해야 할 필요성 있는 시들이 많았다. 그래도 삶의 굽이굽이에서 시심을 길어 올려 나름대로 표현해 보려고 애쓴 흔적들이 모여 있는 많은 글들이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읽혔다. 일터에서의 느낌과, 일에 대한 사명감 등이 의미 깊게 읽혔지만 시적인 표현과 작품성 때문에 선에서 제외되어 안타까웠다.

금상 수상작 「순천만 맛조개」는 맛조개를 캐며 법당에 공양하듯 공손하게, 허허개펄을 온 몸으로 받아내며 시집살이와 인생살이를 이겨내고 한 생을 살아온 할머니의 삶을 잘 형상화시켜 보여준다. 개펄에 엮드려 인생의 쓴맛 단맛을 가득 담아 세상을 깨내는 한 편으로, 쓴맛 단맛 권태와 설움을 개펄에 다시 풀어놓으며 삶과 화해하는 모습은 그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왔던 지혜로운 삶의 길이다. '솜이불처럼' 개펄을 덮어주는 자연의 위무를 결말로 제시하여 자연에서 위안 받으며 사는 우리들 삶을 읽어낼 수 있다.



은상 수상작 「가장자리」는 연못의 중앙과 가장자리를 객관상관물로 하여 가장(家長)의 자리와 자녀의 위치를 대비적으로 비유해 나가는 솜씨가 뛰어났다. 중앙과 가장자리, 큰 고기와 크고자 하는 고기와 치어와의 대비, 중앙에 가서는 가장자리를 잊어버리는 망각, 가진 자의 더 가지려고 하는 약자에 대한 태도 등에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간관계를,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풍자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은상 수상작 「이순신」은 역사 속의 이순신을 그리면서 그 내면 묘사는 좋았으나, 눈물로 시작하여 너무 나약하게만 이어지고 상승과 화해가 없이 마무리 되어 이순신의 이미지와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제목과의 불일치가 감점요인이 되었다.

은상 수상작 「처마 밑 고드름」은 처마 밑에 거꾸로 매달린 고드름을 객관상관물로 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삶과 잘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

같은 은상 수상작 「학교에서」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운동장의 나무들과 자연과 어우러져 날마다 날갯짓하는 아이들을 그리면서 기대를 담고 있어 다고 관념이 앞서기는 해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동상 수상작 「차를 마시다」는 어머니가 보내준 찻잔과 다구들로 차를 마시며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삶을 경(經)으로 받아 읽는 삶의 깊이가 잘 읽히는 작품이다. 동상 수상작 「너희들이 내 삶의 詩인 것을」은 제목처럼, 학생들의 힘겨움과 고통과 꽃 피우기 위한 발돋움을 잘 그려내어 스승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 동상 수상작 「문화상회는 장마당 한 칸에서 채소를 다듬던 처녀와 피난민을 연결시키고 그 처녀의 일생과 '문화상회'의 변화를 그려나가고 있다. 문화상회의 역사를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농촌의 변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그려주고 있다.

동상 수상작 「콩나물시루」는 콩나물의 생애를 통해, 서로 의지하며 배려하며, 꿈을 잃지 않고 어둠과 침묵을 이겨내는 바닥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 어울려서 위안이 되고 겨울 추위를 녹이며 스스로가 희망이 되고, 타자에게 희망을 주는 콩나물의 삶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동상 수상작 「X레이 소견서」는 병원 소견서의 형식을 빌어 시를 쓴 포멀리즘(formalism) 시다. 소견서의 형식을 그대로 쓴 덕분에 리얼한 전달력을 획득하고 있다. 현대인의 특히 청년



이후의 여성의 뼈 속이 비어 가는 골다공증을 자녀가 떠나고 남편의 관심마저 받지 못하는 빈 둥지 상태에서 오는 정신적 공허로 진단하고 처방까지 해 주고 있어서 흥미로우면서도 깨달음을 주는 작품이다.

동상 수상작 「참나무와 주름버섯」은 썩어가면서 새 생명을 키워내는 거름이 되는, 생명의 순환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열거 형식으로 쓴 작품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결연에서 다소 설명과 단정적인 문장이 감점요인이 되었다.

동상 수상작 「감자탕 집엔 손님이 많다」는 감자탕 집에서 고기 뼈의 등골을 뼈 먹는 행위를 자식이 어머니의 등골을 뼈 먹고 자라나는 것으로 묘사해 나가는 비유가 설득력이 있다. 자식을 키우면서 뺏속 등골을 다 빼주고, 스스로 자식의 밥이 된 어머니, 감자탕 집 빈 뚝배기에 쌓이는 뼈다귀를 보며 어머니의 사랑을 새겨 보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 대한 헌시이다.

그 외에 여러 작품들이 각기 알맞은 소재로 좋은 시를 빚어서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시는 설명하지 않고 이미지로 보여주는 장르이다. 거기에 주제가 있어야 하고 운율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표현하려는 대상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해야지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 하다 보면 글이 통일성을 잃고 산만해진다. 많은 응모자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족을 붙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자신과 타자를 모두 위무하는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 : 문효치(위원장), 양왕용, 이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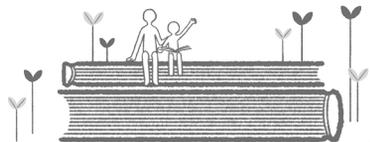
시

금상 순천만 맛조개 - 평택시 김정태

은상 이순신 _ 경상남도 의령군 김양채
처마 밑 고드름 _ 서울오류남초등학교 김정식
학교에서 _ 영천 신녕초등학교 정기원
가장자리 _ 전)철도청 박청환

등상 북한강에서 _ 괴산경찰서 이상재
졸업사진 _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김종범
오두막집의 겨울밤 _ 동안양세무서 장석민
차를 마시다 _ 안곡초등학교 권덕은
목재 파쇄기에 대하여 _ 전)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김태수
문화 상회 _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유상록
X레이 소견서 _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강경식
참나무와 주름버섯 _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안윤미
아내의 장독대 _ 장흥교도소 김현기
감자탕 집엔 손님이 많다 _ 영주소방서 김일하
콩나물 시루 _ 방송통신위원회 황덕조
너희들이 내 삶의 시인 것을 _ 경북교육연수원 박현동
어떤 소리 _ 대구지방환경청 김희관

입선 노란 미소 _ 전)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윤상선
얼음다리 _ 방산초등학교 차재연
가라 앉은 유채밭에서 _ 밀양 송진초등학교 이승이
출장가는 길 _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이건설
섬 아닌 섬 _ 전)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박창식
거꾸로 매달린 사람 _ 생연중학교 김흥기
어떤 일출 _ 전)북대구세무서 최범석
말 _ 안양교도소 | 김난귀





평택시
김 경 태



수상소감

한 줄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고, 한 편 쓰고 버리기를 반복하여 하나의 시가 완성 되었을 때, 한 명의 사람을 만나고 헤어짐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글들이 나를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서 시가 되고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순천만 맛조개

맛조개를 캐는 일은

법당에 공양하듯 공손해지는 일이다

반나절 웅크린 고양이처럼

몸을 돌돌 말아 앞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길이다

태양 아래 아무 것도 없는 허허 개펄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할머니

안동에서 순천으로 시집을 온 후

질퍽한 전라도 사투리 속에서 혼자

거친 숨을 쉬었던 할머니

오늘도 맛조개를 캐러 순천만으로 나가신다

맛조개 하나에 시집살이 하나 맞바꾸며

한 세월 모두 바다에 공양하신다

맛의 힘으로 숨어있는 맛조개를 캐는 일은

인생의 쓴맛 단맛 가득 담은 손으로 세상을 캐내는 일이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갈대숲처럼

어찌면 한없이 낮은 몸에서부터 부풀어 오르는

권태와 설움을 개펄에다 풀어놓는 일이다

개펄이 곧 세상이었으므로 할머니는
광주리에 인 모든 질퍽한 것들을
맛조개가 먹으라고 밀려오는 바닷물에 풀어놓은 것이다
초겨울의 햇살은 오래 전 돌아가신 증조모의 잔소리처럼 간지럽고
방파제에 한가득 맛조개를 풀어놓으면
순천만은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개펄을 숨이불처럼 다시 덮어 놓는다





경상남도 의령군
김 양 채



수상소감

상을 받는 일이란 저와는 동떨어진 남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문예대전에는 농사를 짓는 일처럼 지속적으로 응모하면서 글쓰기를 계속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글을 쓰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는 제가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보게 되었고,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삶을 더 들여다보기 위해 소설 <칼의 노래>를 읽으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아야 했고, 때로는 눈물 흘려야 했습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글로써 옮겨 보았습니다.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신

1

그냥 눈물 나는 사람
생각 없이 길을 걷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앉아
통곡하는 사람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야만 하는 현실
술 한잔에 날려버리고
앞으로 간다 기어서 간다
길이 없는 곳에도
풀을 베어 넘기며 앞으로 간다
살고 싶지 않아도 살아지는 생
아직도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혼자서 가야할 길
통곡하며 간다
기다려 줄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
아득한 바다에 홀로 남아
눈물꽃이 된 사람

2

하늘도 울고 땅도 울어
 잡초도 피지 않을 땅에
 꽃 한송이 피운다
 쳐 내고 또 쳐 내고
 짓밟아 만신창이 되어도
 일어나 꽃을 피운다
 불가능과 가능의 사이에서
 불꽃으로 피어나
 스스로 꽃이 된 사람
 그냥 눈물 나는 사람
 아득한 바다는 끝없이 아득해서
 아득하게 아름답다
 아름다워서 눈물겹다
 통곡의 피눈물로 꽃이 된 사람



3

모르는 적들이 흩어져 있는
아득한 바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새벽 닭 우는 소리에
술 한잔 시름을 달래며
동쪽 하늘에 뜨는 새벽 바라보았다
마쳐야 할 일들이
마쳐지지 않아 힘겨웠고
끝없이 다가오는 일들이 두려웠다
바다는 말이 없고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말이 없었다
몸에서 일어나는 병들에 짓눌렸고
병든 땅과 하늘에 짓눌렸다
마지막 바다는 오로지
어머니의 품에서 만들어진다고
화약냄새 진동하는 새벽 바다에서
그리운 어머니 얼굴 떠오른다



서울오류남초등학교
김정식



수상소감

오늘 아버지 날, 당선 소식을 접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년 「2016 서울교원문학 시 부문 선정」되었을 때 보다 더 기쁩니다. ‘아버지, 저 촌놈 시인이 되었어요’ 작고하신 아버님께 두 손 모아 크게 외치고 싶습니다. 학급문집에 실을 아이들 동시 지도를 하면서 담임 시를 곁들여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작년 7월 여름 날부터 습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따뜻한 감성’과 ‘양심’과 ‘우리함께’ 라는 생각을 갖고 교직생활에 충실하면서 따뜻한 메시지를 담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늘 곁에서 응원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용재, 우리 반 아이들, 학부형님들, 지인들, 친구들 그리고 내게 가장 소중한 당신, 어머니와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처마 밑 고드름

저 얼음꽃들
좀 봐
마음
팡팡 언 채
거꾸로 매달려 있어

처마 밑
꽃감처럼
한 실에 꿰어져
줄줄이
옆으로 나란히
달려 있네

기와 속
숨겨진 비밀
오금
저
린
채
검은 눈물
한
방
울



두
방
울
토
옥
토
옥
떨구고

회초리 든 햇빛에
이실직고 반성문 쓰며
거짓된 몸
깍
고
연결고리 문
풀
고
식은 땀
흘
리
며
처마 밑에서
투
옥
투
투
옥
투... ..





영천 신녕초등학교
정 기 원



수상소감

마라톤
풀코스 21회
하프코스 43회
10기로 4회
모두 68회를 완주 했다.
완주 때 마다 힘겨움에 하늘이 노랗게 다가온다.
하지만
힘겨움을 승화 시킨 더 큰 성취감은 온 몸을 짜릿하게 만든다.
그래서 매주 거르지 않고 주루에 나서는 중독자가 되었다.

시
습작
역시 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마라톤 중독처럼 말이다.

변변치 못한 작품
눈 여겨 봐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큰 채찍으로 여기고 더 여문 글을 써야겠다.

학교에서

이층 끝 계단 첫 방은 교장실이다.

문을 열면 스무 평 남짓한 공간이 들어와 있다.

책상과 의자는 창문을 등에 진다.

언제나 밖은 엇치락뒤치락한 방대한 꿈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정면으로 마주하면 눈물이 난다.

35년을 걸어왔지만 창밖 풍경의 운동장은 공급 받으려는 특별한 자리다.

아이들로부터, 느티나무와 은행나무와 백일홍으로부터,

미끄럼틀과 시이소와 하늘사다리로부터.

아이들은 언제나 푸드덕 날개 짓을 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날아오르기 위해 제법 긴 시간을 뛰어다니며

넘어지면 일어서는 정교함을 배운다.

내가 가르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궁금함을 품을 때까지.

목표는 가까이에서 허락되는 자신의 방법으로 날아올라,

극복하고 증명하며 인식하는 역사를 만든다.

그것은 꼭꼭 씹어 삼키는 운동장의 언어다. 전교생 85명이

무한동력이다.

수직으로 솟아오른 느티나무가 있는가하면 몸을 웅크린 은행나무 둘레로
백일홍이 후렴처럼 맴돈다. 거기, 높고 행복한 하늘이 있다.
한 계절이 지고 한 계절이 피어날 때마다 아이들은 웃고 웃는다.
울고 우는 아이들은 서로를 억압하지 않고 감성에 상상력으로
발돋움한다. 창밖은 한 폭의 초심이다.
미래와 온기가 담장을 새어나가지 않게 끊임없이 여민다.

하늘 사다리는 자유를 닦았다.

철봉을 옮겨 잡을 때마다 마음속에 고여 있는 격렬한 실재를 만나기 위해
놓치지 않고 전진한다. 여전히 목표를 향하여 전하고자하는 아이들의
몸짓은 시작되었다.

시이소는 정직을 닦았다.

한사람의 무게가 진실을 입증하며 어디가 처음이고 끝인지 알 수 없는
약속, 기우뚱거릴 때마다 혹은 떨어나오는 무게의 목소리. 미끄럼틀에서
스르르 미끄러진 아이들이 창밖 운동장에 가득하다. 멈추지 않기를.



전)철도청
박 청 환



수상소감

세상의 가장자리들에게...

어बी날에 수상소식을 접했다. 대선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했다.

가장자리에서 태어나 가장자리를 파먹고 떠밀려온 이곳이 중앙이었던가. 아흔을 바라보는 허리 굽은 가장자리를 찾아가 또 바리바리 사랑을 챙겨 왔다. 그 사랑과 희생으로 나는 다시 한동안 힘을 낼 것이다.

수상소감을 쓰고 있는 지금, 마침 TV에서 대선 개표방송이 한창이다. 부디 가장자리가 고향인 중앙이 가장자리를 잊지 않기를, 가장자리에게서 힘을 얻기를, 가장자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그나저나, '당선소감'이라니!!

마흔을 훌쩍 넘긴 어느 날, 집 근처 도서관에서 내가 한때 문학을 꿈꾸었다는 기억이 되살아났을 때, 딱 한 번 몽상하듯 그려 본 것도 같다.

동시부문도 함께 입선을 했으니 2관왕이라고 해야 할까. 과분할 따름이다.

미흡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가장자리들에게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가장자리

중앙은 항상 고요했다

무거웠고 깊었다

가장자리는 항상 번잡했다

가벼웠고 얇았다

중앙은 항상 먼저 채워지고 먼저 녹았다

나머지가 가장자리의 몫

큰 고기들은 중앙으로 몰려들었고

크고자 하는 고기들도 중앙으로 향했다

중앙이 때때로 침범 튀어올라 파문을 만드는 것은

가장자리의 플랑크톤을 약탈하려는 교묘한 술책

중앙을 키운 것도 먹여 살리는 것도

가장자리다

중앙은 망각의 장소다

치어들은 커서 중앙으로 향했고

중앙에 도착해서는

가장자리를 잊었다

그리고도 뻘뻘한 중앙은 때때로 가장자리를 찾아와

입 안 가득 먹이를 훔쳐 돌아갔다
 그러나 가장자리는
 중앙을 미워하는 법이 없다
 언제나 먼저 마르고 먼저 얼지만
 가장 늦게 녹고 가장 늦게 채워지지만
 비 온 다음 날처럼 연못이 빙빙해지면
 중앙으로 떠난 치어를 생각하며
 철병철병 뒤척일 뿐이다
 갈대를 부여잡고
 그리움을 숨기려
 스멀스멀 안개를 피울 뿐이다

연못의
 가장자리는
 家長자리다





괴산경찰서
이 상 재



수상소감

계절이 약속을 지켜내는 것을 보면 늘 경이롭다. 봄꿈에서 피어난 온갖 꽃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서둘러 살아가고, 또 당연히 떨어지고 흩어져 갈 것이다. 살아가는 일이 어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지는 물론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나 또한 글쓰기에 게을러지고 자신감은 약해져 시간마저 길을 잃었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늘 곁에서 웃음을 지켜 냈고 내게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 해 주었다. 내 곁에서 두근거리며 마음을 나누던 길 위의 모든 것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반드시 시작 되는 것을 나는 오늘도 믿는다.

북한강에서

물뱀이 고요를 물고 나아간다
 햇볕과 바람이 말려진 그물마다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의 그림자만
 어부의 손끝을 따라 엮어져 있다
 강어귀에 전설이 닿았던 나무들도
 그 속을 비워내다 쓰러져 가면
 강은 터전으로 일군 사람들 차지다
 나무의 빈 곳을 두드려 만든 배는
 강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으므로
 익숙한 안개의 군무를 지나
 물고기의 이동을 따라 갈 것이다

달빛은 줍꽃향기를 따라 번져갔다
 말질을 하던 사람들이 그물을 거둔다
 비린 생선들이 살을 허물어 익어갔고
 굴뚝연기는 별을 향해 내뿜었다
 강에 흩어져 있던 소문을 물어

수다스러운 새들이 돌아오는 동안
늪은 잉어들은 강을 뒤집으며
거친 숨으로 안개를 끌고 갈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강에 기억을 내리고
강이 터전을 거둬가기까지
강은 언제나 고요하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김 종 범



수상소감

'졸업'이란 행사를 치러본지 20년이 훌쩍 넘는데도
그 때의 낯선 두려움은 쉬이 잊히지 않는다.
어디 졸업뿐이겠는가, 베여서 아픈 것이 삶이라 배우고 있으니
다만 아프더라도, 스스로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을 뿐이다.
시는 그러한 때, 용기 북돋는 친구이니 곁에 두고 오래 볼 일이다.

부족한 글을 시로 봐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내게 일상에서 시어를 찾을 만한 조그만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은 오로지 부모님의 덕택이므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하여 삶의 기준점인 정화, 민재, 민솔에게 온전한 사랑을 전한다.

졸업사진

그대들 떠남을 준비하세요

이제 당신들은 은유 따위는 필요 없는 세상에

내동맹이 처질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그렇죠!

연못을 가로지른 징검다리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조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얼 했나 하는 자의식 따윈

중심선에서 살짝 비껴 전신 프로필 사진 속에 던져버려요

지나간 날들이 두려운가요, 그럼 이쪽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영원히 그 시간을 잡아드리죠

혹 나중에라도 이 사진을 보면 당신의 웃는 모습 너머

사진 속에 가두어 놓은 두려움을 깨우지는 마세요

좀 더 발전적으로

그런 후회 따윈 다시 하지마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살짝 웃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인화되어 규격화 되는 때 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할 것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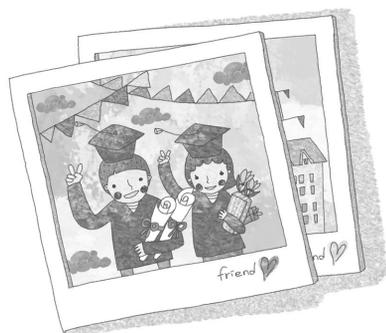
함부로 앨범 따윈 들추지마세요

꼭 꼭 눌러놓았던 지난날의 두려움이 당신들을 어떻게 습격할지

안전을 보장 못 합니다

그냥 이 순간에 존재하세요 넥타이를 고쳐 메고, 자 찍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동안양세무서
장 석 민



수상소감

어느 겨울밤 야근을 마치고 전철역으로 향하고 있다.
 고층 건물이 줄지어 서 있는 빌딩 숲의 이면 도로를 건너려면 찬바람이 세차게
 뺨을 훑고 지나간다.
 문득 아주 오래 전 어린시절 산골마을에서 살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른바 베이붐 세대로서 산골마을에서 자란 사람들은 겨울밤 산속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산속의 작은 오두막집, 겨울밤의 적막, 그 외로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빌딩 숲의 골목에서 맞는 겨울밤
 휘황한 네온사인, 요란한 음악소리, 알코올에 젖어두고 있는 사람, 사람들
 간간이 거리를 바쁘게 걸으며 귀가를 재촉하는 사람들은 숨이 가쁘다.
 주위를 돌아 볼 시간이 없다.
 작은 오두막집도, 뒤란의 대나무 숲도, 부엉이 울음소리도, 구들장도, 숨이볼도
 없지만 아직도 한 아이는 남아 있어 그 때의 그 꿈을 이루었는지 자문해 본다.
 도심 한복판의 빌딩 숲에서 대나무 숲을 떠올린 것은 아직도 외로움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아직은 영혼 전체가 도시의 먼지를 뒤집어쓰지는 않았음이다.
 그 아이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두막집의 겨울밤

깊은 겨울밤

뒤란 대숲에서 사그락 거리며

댓잎 부딪치는 소리

깊은 어둠속에서

소름 돋는 소리로 달려온다

이따금 부엉이가 서럽게 울면

이름 모를 산새들 추위에 떨다가

애처롭게 우는 소리들이

무서움 다닥다닥 붙여서

찬바람 뚫고 오는 밤

식어가는 구들장에 몸을 웅크리고

무거운 솜이불 뒤집어 쓴 채

겨울밤 슬픈 가락을 엿듣는다

먼 곳으로부터 출발한

찬바람이 산등성이를 훑고

강을 따라 내달리다가

산골마을까지 들어와 가쁜 숨 내뿜으며
먼 곳의 겨울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사뿐 사뿐 대숲에 눈 내리는 소리에
산새들 잠드는 시간
어둠을 눈 속에 하얗게 묻어두는
겨울 대숲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안고
산골의 긴 긴 겨울밤을
홀로 무서움 떨쳐내고 있는 아이는
부엉이만큼이나 서러움 속에서도
햇볕 받는 꿈을 꾸며 잠이 들던

아주
오래 전 그 겨울 대숲 속의
오두막집이 그리운
오늘!



안곡초등학교
권 덕 은



수상소감

잘 쓰려고 하다가
다 보여주려고 하다가
열정을 다해 쓰다가

이제는 그냥 쓴다
잠을 자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가꿔야 할 것은
글이 아니라
내 삶이라던 스승의 말씀
이제야 알겠다

어비날 어머니께 수상소식과 더불어 당선작을 보내드렸더니 아이처럼 기뻐하셨다. 감춰두었던 마음을 꺼내 부모님께 전할 기회를 주셨으니 문예대전 덕분에 불효녀가 모처럼 효도 한 번 했다. 나의 삶을 녹여 글을 쓸 수 있도록 오랫동안 손을 놓지 않고 끌어주신 권정우 교수님, 문우들, 나의 길벗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차를 마시다

중년의 어머니가

고스란히 상자에 담겨 내게로 왔다

때깔 고운 보자기를 풀자

쏟아져 나오는 찻잔들, 다구와 찻상

고단한 삶 속에서도 곳곳이 고개를 들고

친정집 진열장에서 빛을 내고 있던

어머니의 작은 조각들

야야, 인자 나는 다 필요없데이

차도 마실 만큼 마셨다 아이가?

찻잔도 손에 무거븐 나이가 된 기라

생의 허물을 또 한 번 벗고

저물어갈 채비를 하시듯

벗은 허물을 가지런히 정리하신 어머니

오목한 다기마다

고봉처럼 쌓여있는 어머니의 침묵들

또르르 찻물 따라내니

하나, 둘 깨어나 춤을 춘다

침묵은 허뿌리에 걸리고,

입 속에 스미고 내 몸을 돌아

나직한 경이 되어 허공을 울리고 있다

다시 한 번

두 손으로 보듬어 찻잔을 든다

미련 없이 벗어 낸 어머니의 허물을 받아 든

중년의 내가 할 일이라는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전)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김 태 수



수상소감

아직까지 고촌양묘장 한켠에서 돌아가던 목재파쇄기의 활기찬 기계음 소리가 귓전에 남아있습니다. 기계에 손방인 내가 근로자와 함께 보낸 지난 시간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 세상은 사람만이 주인이 아니고 모든 물상이 맞물려서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 사물에 대한 깊은 관찰이 있는 후에야 올바른 얹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목재파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화된 생각이 스며들어 시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새로 시작하고 있는 공부 때문에 예전만큼 시를 읽고 쓰지는 못하지만, 며칠 전에 보았던 어머니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제 시를 쓰지 않느냐고? 팔순이 넘어도 늘 책을 가까이 하시는 어머니, 작품 수상집 받으면 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박한 제 시를 작품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재파쇄기에 대하여

온몸은 쇠로 뭉쳐져 있으면서
 식성은 어울리지 않게 나무의 속살을 좋아한다.
 벌레들 구멍이 승승 뚫린 소나무 등치를 쪼개어
 입에 넣어주면 들어가기 바쁘게
 몸을 부르르 떨며 씹는 소리가 땅을 울린다.
 손발은 없고 입만 가지고 있어도
 탈나지 않고 부지런히 먹여주는 것이 고맙다.
 쌓아놓은 나무들은 많은데
 소화기능이 고장이라도 나면 큰일이다.
 찢뜩찢뜩한 송진이 목구멍에 붙는 것을 주의하라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무언의 눈짓을 보내기도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듯
 욕심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씹고 갈고 뺀는 모습이
 사람이 하는 짓 보다 낫다.
 소나무만 골라 먹는 것은 좋지 않아서
 가끔 수액이 많은 활엽수도 주고
 냄새나는 폐기목을 주어도

불평 한 마디 하지 않는다.

너도 나도 골고루 잘 먹어야 서로가 잘 산다는 것을
이 외진 공터에까지 어려운 세속의 사정이 전해지나 보다.
생장을 멈춘 나무들의 나이테가 안타까워서 그럴까.
병들어 죽은 나무들의 고통을 이해해서일까.
몸은 쇠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정 많은 사람처럼 나무들의 속살을 삼키지 않고
톱밥을 만들어 내어놓는 넉넉함에
축 처진 삶의 기운이 솟아난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유 상 록



수상소감

시는 태산보다 높다는 두려움으로 범접할 수 없는 또 다른 학문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입상 소식을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부족한 글에 사랑의 이름표를 달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씩 시골길 사이를 출퇴근 할 때마다 들성들성 놓여 있는 시골 상회를 마주하며 옛 시절 봄볕을 나날들을 회상한 소재로 하였습니다.

제 삶의 배경 음악으로 다가와 준 시, 앞으로 시를 저의 영혼에 양분으로 여기며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아내와 천사를 닮은 딸 예술이와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문화 상회

난리가 나던 그 해였던가, 피난민 열차가 설 적마다 억수같은 사람들을 부러놓고는 떠났다 한다.

사람들이 멧새처럼 터를 잡던 그 시절에, 처녀는 장마당 한 칸에서 채소를 따듬었다.

이숙해져 돌아오던 날마다 봄은 자꾸 어지럽기만 해서 걸음마다 달이 울렁이고

그런 밤에는 우거진 복숭꽃 마다 꼭 처녀귀신이 앉았다 했다.

저 너머 강변에는 몇번이고 큰 물이 지나갔다.

손이 아물던 색시의 점빵에서 아이들은 십리 사탕을 입에 물고 십리길의 재를 넘어 학교를 다녔다.

가난을 감춰 쥔 조막손들이 눈치를 볼 때마다, 소같은 눈을 꿈벅이던 신랑은 너털웃음을 웃었다.



해마다 진 빗꽃이 문에 날아와 말라붙으면 봄비가 몇 번이고 또
씻어내렸다.

덧칠을 잊어버린 창살 마디에 꽃물이 때가 졌다. 사람들은 빗꽃처럼 나고
자라 떠나갔고.

조약돌같던 점포들은 모두 이가 빠져버린 채, 공터에 남은 슈퍼 집
미닫이가 바람에 들썩인다.

노인네는 오늘도 떠나버린 이를 추억하며 누군가를 맞이하듯 문창을
닫는다.

이른 봄별이 정갈한 유리창을 넘어와 과자 박스의 빛을 바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강 경 식



수상소감

20대 중반 나의 보이스피싱?에 걸려 나와 결혼한 아내에게 늘 미안했다.
25년이 지난 작년 말 즈음 겨우 닳든 반지하나 끼워주고 고맙다는 말 대신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나를 만나 고생인지 생각하면 측은하기만 하다.
애들 다 키워놓으니 부모님 병간호에 다크써클만 늘어가는 아내를 보며
이래저래 나는 좌불안석이다...

이제 서서히 빛 값듯 채워주며 살 일만 남은 것 같다.
그 작은 고마움의 표현을 글로서 시작하려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가끔 SNS에서 박보검만 검색하며 웃는 아내가 귀엽게 밍기도 하지만
인생 후반전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므로 나는 섬기며 살아야만 한다.
그 고운 기회를 열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X레이 소견서

X레이 소견서 - 박보검 방사선과

Name : 김명신 Age/Sex : 51 Date : 2017.봄

이 환자의 뼈 사진을 확인한 결과 특이점이 발견됐음
 뼈 속이 비어 있고 가벼워진다는 건 조류의 전형인데
 파충류도 아닌 포유류에서 조류로의 진화는 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몇 안 되는 케이스임

특이변종이거나 애초 조류였음을 숨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환자의 남편에게 몇 마디 소견을 전할까 함.

이마트 계단에서 넘어졌다고는 하나 이 환자는 날 준비를 하는 것 같음

원인으로는 갈비뼈 속에 품었던 자식들 뛰쳐 나간 지 오래고

척추 마디마디에 디스크판 대신 받쳐주던 남편이 퇴행된 지 오래여서

묶여 있던 버릿줄과 매심줄이 드디어 환자를 놓아 준 것으로 사료됨.

날개죽지뼈로 퍼지는 갈비뼈가 우화등선의 초기단계를 벗어나면

날아야 하는 본능을 견잡지 못하므로 미리미리 아내의 뼈 속을

채워 넣기 바람

참고로, 이 환자 몸 세포 구조는 현찰과 고기를 좋아하게끔 진화
되었으니 뺏속에 채워 넣을 내용물은 그 두 가지와 접촉제 같은 당신의
관심이면 됨.

-----이 상-----

박보검방사선과의원. 오래된 선녀 구조 전문의: 박보검
DR. PARK'S CLINIC OF DIAGNOSTIC RADIOLOGY.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안 윤 미



수상소감

글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글을 쓰고 다듬는 시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글이 실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겨울이 지나간 자리엔 반드시 봄이 옵니다. 하지만 봄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가끔씩은 쉽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겨울이 있는 자리에서도 봄이 올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 기쁨을 드린 것 같아 행복합니다. 부족한 글을 높이 평가해주신 심사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쓰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나무와 주름버섯

시들음병에도 끄덕없이 50년을 살아온 참나무를 벌목꾼이 베어버렸다.
나무 밑둥만 덩그러니 남아 겨울을 참아내더니 결국에는 말라버렸다.
참나무 썩은 등결에서 주름 버섯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버섯은 나무를 빨리 썩게 만든다.
썩은 나무들은 또다른 거름이 되어
청설모도 주워먹지 않은 도토리에 싹을 틔운다.

겨울의 무서운 추위에 나뭇가지들이 말라붙었다.
말라붙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딱 부여잡고 있는
썩은 고치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있다.
빈껍데기인줄 알고 툭 쳤더니 그 속에서
한겹한겹 옷을 벗으며 나비가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

시내도로를 지나던 검은 차 한 대가 고양이를 쳤다.
무서운 타이어의 무게에 짓눌려버린 내장이 제 살갓을 빠져 나왔다.
고양이의 피가 늘어붙은 도로에 햇빛이 내려앉았다.
그곳을 지나던 굵주린 까마귀가
썩어가는 내장을 제 뱃속에 쓸어담고선 펄쩍펄쩍 날아오른다.

모든 썩은 것들에는 생명이 있다.

누구도 심지 않은 썩은 나무등걸에 으레 주름버섯이 자라는 것처럼.

주름버섯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듯 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생명은 계절의 순환처럼 이어진다.

봄이 온다는 것을 몰라도 겨울이 지나면 으레 봄이 온다.

봄은 겨울 속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썩은 것의 아픔은 봄이 겨울을 밀어낸 힘으로 사라진다.





장흥교도소
김 현 기



수상소감

옛 속담에 '되로 배워서 말로 풀어먹어라' 는 말이 있다. 사실 이 말은 나의 아버지께서 솔하게 강조하신 말씀이다. 많이 배우지 못한 당신께서 농투성이 가업을 잇게 되지만 돈벌이가 신통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지지리도 못한 자식새끼들 밥벌이 걱정애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라는 뜻으로 어림 헤아려본다.

재주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놈이 어찌다가 문학을 알게 되고 그 문학으로 하여 이따금 신열을 앓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기도 하지만 문학은 할수록 어렵다. 그렇더라도 이 길이 내 타들어가는 가슴 속 빈자리를 하도 큼직하게 차지한지라, 시부저기 내려놓지도 못하겠다.

해마다 공무원문예대전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시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님, 여직 서툰고여물지 못한 걸음걸이를 예쁘다고 봐주시는 심사위원님, 그리고 나를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께 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아내의 장독대

손 없는 날 아내가 장을 담근다
 눈가에 잔주름이 그윽한 아내는
 이제 갓 시집온 새색시처럼 맵시나는 생활한복을 입고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메주를 건져 낸다
 한 뭉치 지푸라기 솔로 팍팍 문질러 닦아내어
 쨍쨍한 햇볕에 메주를 말려서
 정성 가득히 장을 담그는 아내
 하늘 한 자락 잘 발려
 새끼손가락 휘저어 입맛을 짹짹 다시며
 꼼꼼하게 연신 장맛을 보고
 햇발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장독 항아리를 문질러댄다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행여 미쳐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사이에
 답답한 가슴을 쿵쿵 쳐대며
 햇볕에 보타져 장졸아 줄 듯
 해마다 아픔으로 되돌아올 기억을 쥘어두고
 아내의 마음도 저렇게 타닥타닥 보타지는 것일까

나는 온기 가득한 장독대 향아리를
무심코 들여 다 보다가
혹, 순간 뜨거운 숨결이 내 얼굴에 덮치고
문득 몽글몽글한 함박꽃이 환하게 피어
복이라곤 일복밖에 없었던 어머니가 비치고
늘 짝조름한 인생 술에 절여 막 살다가
강물처럼 떠내려간 아버지가 밀려오고
용알이가 한창인 큰 손주 놈
햇살이 시들 때까지 첨병첨병 물장구치며 놀다가고
찌-억 찌-억 갈라진 메주덩이 사이사이로
푸름 한 곰팡이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며
고스란히 삶의 깊은 손맛을 내는 아내의 장독대
이따금 어디선가 툭, 툭, 툭 꽃망울이 터지는 소리
장독대에선 보글보글 장 익는 소리가 나고
어느 덧 평퍼짐한 동네 아줌마 차림이 물씬 묻어나는 아내는
여직 아물지 않는 상처 하나 묻어두고
벽차게 차아 오르는 장처럼 아내의 삶도 저리 익어가는 것일까
오늘따라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고여 있는 신열이
저 하늘에도 푸르게푸르게 번지는 것일까



영주소방서
김 일 하



수상소감

시가 아름다운 꿈이었고 희망인 날이 있었습니다. 시를 모르면서 미친 듯이 시를 적던 날이었습니다. 이전 시를 조금 안다고 말했다가 아직 시를 모른다고 고칩니다.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 살며 체득한 간명한 진실인데 시가 시 답지 못할 때마다 객관적 성찰 없이 게을러지길 즐겼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한발 비켜서서 제 글을 들여다보니 얼굴이 환할하도록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상은 제 게으른 시심에 대한 격려의 말씀으로 여겨 다시 스스로를 다잡아 볼 요량입니다. 고단한 삶을 내려놓고 저만치 계시는 어머니께 이 시를 바칩니다.

감자탕 집엔 손님이 많다

감자탕은 등골 빼먹는 재미가 쏠쏠해
젓가락으로 후벼가며 빨아먹는 것인데
먹고 나서 구멍 송송한 뼈를 보면
내가 빼먹은 등골에 바람이 들어
밤마다 바람 소리로 앓으시던 어머니
굽은 등이 생각난다

일가의 기둥이라는 든든한 배경 앞에
나의 잘못은 묵인되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뺏속부터 가벼워진 어머니
어머니는 따뜻한 밥이었고
먹고 싶을 때 빼먹을 수 있는 등골이었기에
등이 시린 건 나이 탓이라 일축했다

몸꽃인양 번지던 주름
골 깊은 그 길 마디마디에
바람이 살고 있었다는 건
몸을 벗은 일생을 습골, 봉인하며 알았다

마주하고 앉아 저마다의 뼈를 발기는 사람들
좁처럼 숙인 머리를 들지 않는
중앙시장 끼고 돌아 허름한 감자탕 집

빈 뚝배기에
세상의 어머니가 중추적으로 쌓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황 덕 조



수상소감

부족한 작품에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저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콩나물시루



밭이 시렸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구멍 난 바닥에 제각기 몸을 뉘이고
꿈꾸던 시간들이 마르지 않게
서로의 여윈 발목을 끝없이 적셔주었다.

챗다리를 지나
물받이 자배기 속으로 떨어지는 물소리는
자주 꿈의 언저리를 적셨고
젖을수록 강해지는 꿈들은
조금씩 겨울의 빗장을 풀며 자랐다.

아무도 함부로 뿌리 내리지 않았다.
어깨에 어깨를 기대면서도
서로의 아픔과 기억을 더듬어 거리를 두고
서로가 일어서야 할 공간을 위해 몸을 움츠렸다.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한 줄기로만 살아 오를 것

바닥을 알 수 없는 어둠의 깊이와
무거움 침묵 속에서
제각기 허공을 향해 쏘아 올리던
작은 주먹 같은 별들

그리하여 마침내 어둡고 무거웠던 하늘을 밀어올리고
검은 보자기 속에서 헤아리던 시간과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겨울 아침을 녹이는 국 한 그릇,
어울려 위안이 되는 나물 한 접시가 되었다.
오래도록 꿈꾸던 자들의 열망을 모아
소박한 밥상을 다독이는 샛노란 희망이 되었다.





경북교육연수원
박 현 동



수상소감

오랫동안 시를 잊고 지내왔다. 교육연수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시를 찾아볼 여유가 조금 생기면서 오래 묵혀 두었던 습작 시들을 다시 읽고 고치게 되었다. 아직은 시를 매개로 세상과 세상 속에서 소통하는 나를 표현하는데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오랜 소망이었던 한 권의 시집을 엮어 보려면 더 많은 번민이 시간들이 필요하리라. 이번 수상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라는 좋은 자극이 될 것이다. 올해에는 내 삶에 의미 있는 시들로 채워질 한 권의 시집이 완성되기를 바라며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인사혁신처와 미흡한 시를 뽑아준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너희들이 내 삶의 詩인 것을

가난한 시골의 詩人 선생님을
꿈꾸었지만
학급 환경정리를 위해
시 한 편을 달라는 실장의 말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시 한 편이 없어 못내 부끄러워
빈 교실 먼지 낀 책상 위에
그 부끄럼을 끄적이다.
괴로울 고 꾀삼 답임으로
입시지옥의 수문장처럼 버둥대면서
하루 종일 순종만을 강요하는
그런 선생이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꿈이
악몽이 되는 요즈음의 나는
얼마나 또 어리석은 열심인지
그런데 아이들아
너희들이 즐리워 떨구는

그 안타까운 고갯짓이
하루에도 열두 번
절망과 희망을 반복하는
그 눈물겨운 삶의 무게도
세상 속의 나로 서기 위해
세상 속의 나로 꽃 피기 위해
가슴에 거름을 품어
아프게 움트는 것이기에
꽃 피기 직전에 내지르는
절절한 향기 같은 것이기에
그런 너희들을 일구는 내 사랑이
그런 너희들이 내 삶의 詩인 것을
난 무엇을 바라
또 다른 부끄럼을 끄적이겠니.





대구지방환경청
김 희 관



수상소감

출근길에 붉게 핀 냉쿨장미를 보았습니다. 장미 향기에 봄 햇살 더욱 싱그러워진 아침나절에 입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 한편으로는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이 있는 좋은 시를 쓴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나의 삶을 성찰하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많은 사물들과 소소한 풍경 하나하나에도 귀를 열어 관심과 애정으로 바라보려 애쓰겠습니다. 더욱 정진하라는 격려를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소리

동네 정육점에 들러
 돼지 목살을 사들고 집으로 오는데
 고기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 속에서
 꿀꿀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아내가 달아오른 불판 위에
 붉고 두꺼운 목살들을 옹기종기 눅히자
 고기들은 지글지글 소리 내며
 뜨거움에 마구 몸을 비틀었다

익고 있는 고기를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아내는 돼지처럼 먹는다고 핀잔을 준다

중심을 잃고 허둥지둥 살아온 흙 많은 남편임을
 아내와 한편이 된 눈치 빠른 돼지도 알고
 불판위로 너도 얼른 올라가야지 하며 소리칠 것 같아

고기 속속 잘 넘어가던 내 목젓은
죽은 돼지를 위해 경건하게 묵념하듯
그만 뻗뻗하게 굳어 버렸다

현실에 안주하며 짜부라진 내 귀와
어설피게 열려 있어 두려웠던 내 입을 자책하며
술기운에 아내에게 뉘두리만 길어진
창 밖 별들에게도 부끄러워지는 밤이었다.

술에 취해 집으로 오던 어느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있던 정육점 앞을 막 지나는데
정육점에 걸려있던 돼지들이
여태껏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마구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꿀꿀! 정신 차려! 꿀꿀꿀!





전)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윤 상 선



수상소감

저의 졸 시를 뽑아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공무원으로서 43여 년간 봉직을 갈무리 하고, 이제 인생 제2막을 갖 시작하였습니다. 늦깎이로 시인이 되겠다고 시에 대해 폭넓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음에도 무모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시에 대해 부끄러움이 가득합니다. 시를 차근차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습작을 하면서 시적 대상 그 모든 것을 대하는 해안을 배우렵니다. 진실을 배우려합니다. 시에 대해 부끄럽지 않게 황소걸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전남대평생교육원 이상호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노란미소

길가 보도블록 틈새로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
빠끔히 얼굴을 내밀고 있다

세월이 곱게 내려앉은 얼굴로
할머니는 신문지 좌판 위에 봄나물 한 줍씩 쥐어넣고
손님을 마냥 기다린다

오가는 이 없는 한 낮
봄볕에 할머니와 민들레꽃은
미동 없이 묵도 중,

무료한 듯 신문지가
심술궂은 바람에 펄럭거리자
잠시 휘청거린 나물이
민들레꽃을 덮친다

놀란 할머니는 손님인가 싶어
두리번거리다가 멧쩍은 듯
민들레꽃에게 눈길을 보낸다.

생의 간증이 이는지 페트병 물 한 모금 마시는 할머니,
민들레꽃에게 한 모금 적시자
해바라기처럼 노란 미소가 몽글몽글 피어오른다

환한 빛의 출구가 열이고 있다





방산초등학교
차 재연



수상소감

겨울은 늘 춥지만 지난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퇴근 후 강가를 걸으며
언 강물은 누구를 위한 다리일까를 생각했다.
누구를 위해 강물은 저렇게 추위를 감수하는 것일까,
그리하여 봄은 겨울을 물리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낳은 경이로운 선물일 거라는 인식에 다다랐다.
그 봄이 가고 어느 틈에 빠꾸기 울음이 들려오고 있다.

얼음 다리

건너갈 것들이 다 건너갔다는 건가
 건너올 것들이 이제는 없다는 건가
 강물이 얼음 다리를 풀고 있다.

올 겨울이 혹독했던 건
 튼튼한 다리가 필요했기 때문일 테지
 미지의 대륙을 찾아가는 순록의 떼나
 봄처럼 쓸쓸한 것들의 귀환이거나 아니면
 신(神)들의 적막한 행군이 있었을지도 몰라

별도 없는 밤
 그 발자국들이 새벽까지 건너는 소리를
 잠결에라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될 거야.

얼음 다리는 풀어지고
띠를 이룬 피라미들은 살이 통통하고
지붕이 날아간 집들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면
강물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리는 강둑을 걷자.





밀양 송진초등학교
이 송 이



수상소감

감정을 많이 필요로 하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아이들을 항상 일관된 감정으로 대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때문에 감정의 분출구를 마련해 나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를 쓴다는 일은 어지러운 감정을 정리하고 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사의 본분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연찬하는 과정으로써의 시 쓰기를 앞으로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의 본분과 다짐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라앉는 유채밭에서」라는 시는 밝고 상쾌한 봄의 전령사인 유채꽃과는 상반된 분위기의 시입니다. 감정의 극과 극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되는 시각적 심상과 흰나비가 주는 처연하고 아련한 분위기에 착안해서 탄생된 시입니다.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서도 때로는 타인의 슬픔도 공감해 줄 수 있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앉는 유채밭에서

어머니

그 봄 유채밭에서

내가 먼저 본 건 흰나비였나봐요

날개짓이 구불구불

무겁게 날던 그 나비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 밤중에 울리던 전화벨

전화의 울림이 공간을 울리고 마음을 울리고

내내 그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어 조용한 응답을 삼켜내요

전화기 너머 다급한 목소리들은

내 마음을 쥐고 흔들었지요

그 봄

우리는 함께 유채밭을 걸었지만

이제 봄은

다신 오지 않는다네요

올 봄도

샛노란 유채꽃이 내 키만큼 올라와

눈물은 가려줄 수 있지만

슬픔으로 적셔지는 공간에

흰나비들은 계속 날아와

날개를 적신 듯

날아가지 못하고 서성이며 비틀거려요

누군가는

흰나비 때문에 또 슬퍼하겠지요

지금 구부러진 내 어깨는

흰나비를 보고 슬픔을 직감하는 그 마음 말고는

피 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봤다면
흰나비같다고 했을거예요
샛노랗게 터지는 유채꽃 속에서
나 혼자만 차고 희게 시들고 있어요

어머니
노란 유채밭에서
노란 나비는 꽃인 듯 꽃그림자인 듯
즐거움에 터지듯 날아올라도
나는 다시는 날아오를 수 없을 것 같아요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이 건 섭



수상소감

차곡 차곡 머릿속에 쌓아놓은
지난 일상들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기억에서 희미해 질 무렵에

내 주위에 항상 같이 지내온
바다 산 나무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나를 위로해준 글
이들을 담아둘 앞날들의 작은 일상들을
가슴에 담아두기 위해
한글자 한글자를 하얀 종이위에 내마음을 풀어봅니다.

출장가는 길

머리 위에선 바람은 서럽게 소리치고
헤어나질 못할 슬픈 목소리로
자작나무 나뭇가지를 흔들며
한계령 굽이굽이 아스팔트에서 달러가는
나를 부르고 산아래 계곡을 돌아
동해바다로 흩어진다.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하얀 눈송이는
자작나무 흰 껍질 껍질 위에
지난 추억을 적서 놓으며 쌓이고
검은 아스팔트 위에다
차곡차곡 눈송이를 떨구며
지나가는 모든 자동차에
한계령의 이야기를 전한다.

굽이굽이 도로 옆에 서있는 나무들은
하얀눈에 제 추억을 이기지 못해
가지마다 고개숙이고
포근함으로 밀려왔던 아스팔트에서
오늘 가야할 목적지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

오늘도 동해바다를 발아래 두고
달려갈 나의 작은 하루 일과들을
한계령 도로위에서 자동차 굉음소리를
뒤로 뺏으며 한계령 넘어로 내달린다.





전)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박 창 식



수상소감

종종 신문지면이나 지하철역 등에서 좋은 시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지 모르니다. 그런 시를 쓰고 싶습니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인사혁신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섬 아닌 섬

산길 험해 예전엔 자갈치서 기선으로 찾아가던 곳

가슴 속 엉킨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날

그대 안부가 절절한 날, 송도로 간다

사시사철 하얀 옷고름 풀어헤치고

푸른 젓가슴을 내놓는 그 바다

밤새 젖은 별로 깜박이던 묘박지 외항선들도 꿀잠에 빠져들고

밀물에 끝없이 실려 온 상사가 켜켜이 쌓인 백사장에는

고운 모래가 눈물처럼 반짝거린다

고즈넉한 언덕바지 노송 한 그루, 해풍에 붙박인 채

굽은 등으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풍파가 그은 시간의 날카로운 빗금이

나이테로 점점 둥글어지는데

언제나 올까, 등이 굽도록 기다리는 임

파도가 설 새 없이 낮은 음표로 작은 모래 건반을 두드려도
납작 엷드린 밤은 불면을 뒤척거린다

언제나 올까

밤바다 가득 수놓은 금실 달빛을 거북섬 위에다 곱게 펴서
그대 사뿐히 지르밟고 올 구름다리 하나 놓아볼까

이국정취 물씬한 밤이 찾아와 꺼져가던 추억들에 불을 밝히면
섬 아닌 섬에서 손짓하는 그대

횃집 수족관에 갓 들어온 어리둥절한 고등어 한 마리가
이 밤, 바다로 돌아가는 길을 놓치고 있다



생연중학교
김 흥 기



수상소감

오래 전 딸아이에게 받았던 타로카드가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듯, 제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글을 쓰겠습니다. 오늘도 내 넓은 지갑 안 세들어 살고 있는,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생각합니다.

거꾸로 매달린 사람

일곱 살 딸아이 발그레 건네준
타로카드 그려진 ‘거꾸로 매달린 사람’
아빠, 이거 꼭 갖고 다녀야 돼!
그날 이후 내 낡은 지갑 안
세들어 살기 시작한 ‘거꾸로 매달린 사람’

꽤나 힘들 텐데 오히려 웃고 있는
눈동자가 얼굴의 1/2인
빨간 사과와 버섯 뒤로 한 채
왼손 흔드는 ‘거꾸로 매달린 사람’
나에게 어떤 엄청난 행운 안겨주려고
어린 영혼 깃든 것만으로 이미 축복일 텐데

뒷면에는 이집트 스피нк스 연상시키는 네 개의 석상
접은 날개 퍼덕이며 금시라도 날아갈 듯하고
행운의 별과 사랑의 별 교차하는
중양에 자리 잡은 중세 고딕식 천정(天庭)

아라베스크 무늬의 기하학적 창으로 마구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햇살

아빠의 마음 딸아이가 열어 본 것일까

언제부턴가 뒤틀리고 삐걱거리는,
 닳아빠진 구두 신은 듯 허청거리는,
 몇 번의 실직과 간경화
 아빠의 삶은 언제나
 부르지 않는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

웃음 잃지 말라고
 세상이 거꾸로 매달린 듯 흔들리더라도
 어린 동심(童心)의 부적
 던진 것일까

종종종

아주 가끔은 내 꿈 안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팔굽혀펴기를 하는

종종종

그럴 땐 하늘을 온통 들어올릴 듯한

거꾸로 매달린 그에게

방세 따윈 절대

받지 말아야지





전)북대구세무서
최 범 석



수상소감

입선 소감문을 쓰다니 쑥스럽습니다. 입선소식에 연이어 모 문예지로부터 신인상 선정소식을 전해 와서 기쁨이 두 배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글인데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출

동해의 용이 된 문무대왕이 알을 낳는다.

어둠 깊은 심연에서 터져 나오는 양수가

검은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수평선 너머에 환한 얼굴 살짝 비친다.

깊은 속울음으로 산란의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

아이처럼 어깃장 놓던 방계도 움직임 멈추고

수중릉 수비하는 갈매기도 날갯짓 멈춘다.

해변에 들어서서 이 순간 기록하는 카메라도

숨죽인 셔터소리만 조심스럽게 쏟아낸다.

드디어 전설의 용울음소리 그 파문이 밀려오고

금방이라도 단물 쏟아질 듯한 수밀도 하나

조금도 흐트림 없는 둥근 얼굴로 동실 떠오른다.

고통의 틈을 메우던 양수덩어리 흐물흐물

고빛사위에 썰기처럼 두 손으로 떠받치다가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보고 탯줄 잘라낸다.

산란이 끝나고 깊은 바다에서 솟아나는

허탈한 신음소리 출렁출렁 밀려오는데

막심 프라비차는 횃집마당에서 엑소더스를 연주하고
감은사에서 사라진 종이 소리 없이 울린다.
숨죽이며 지켜보던 갈매기 떼 일제히 날아올라
붉은 하늘에 까맣게 너울대며 축하비행을 한다.
동해바다에서 용이 되어 천년을 산 문무대왕이
이제는 눈부신 하늘의 전설이 된다.





안양교도소
김 난 귀



수상소감

문학소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는 일은 늘 바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정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퇴직 후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아주 잠시 학창 시절의 꿈을 떠올리고, 그래, 내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써 볼까? 그리고 두서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내 글을 나눈다는 것은 내 삶과 내 생각도 나눈다는 것이어서, 소심한 나에게 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모나지도 세울 것도 없는 일상의 평범 속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누구에게나 들려 줄 이야기거리를 찾아 표 나게 다듬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학의 끈을 잡아 보라는 신호로 알고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말

준비 안 된 마음이

준비 안 된 말을

아무렇게나 쏟아놓은 저녁

갑자기

누에고치가 되고 싶었다

입으로 뱉어낸

날 서고 모난 말들 거두어

부드럽고 견고한 나만의 성 안에서

평화, 용서, 이해의 물레를 저어

은빛 실타래로 녹여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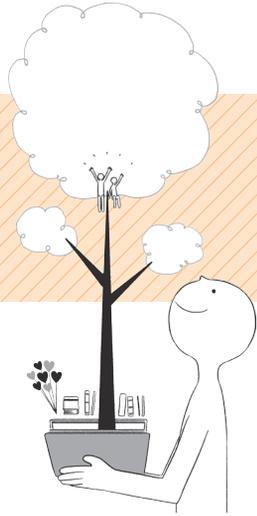


말로 덧난 상처 털 아문 자리
새 살이 돋게
가만가만 날개 짓하는
조그만 나비가 되고 싶다

봉인된 생각에 휘둘러
내 안의 나에 갇힌 나
삭제 없는 흔적이 숨 쉬는 공간
부끄러움이 너울거린다



소설



심사평

이번에 응모된 작품들의 특징은 다양한 주제와 독특한 소재들을 조합한 작품이 많았다. 가족의 해체, 취업, 직장생활, 죽음, 전쟁역사소설 등이 이를 말하고 있다. 이는 복잡한 사회기류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창작에 대한 건강한 발상이다. 일부 작품은 오래 전에 소설을 공부했거나 막연하게 창작의 욕망을 안고 온 분들이 쓴 작품이라서 이 시대 소설의 기대지평에서 동떨어져 구태스럽기는 하지만 주제를 향한 주저하지 않는 정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 응모작들은 참신한 문체, 시점의 과감한 변용, 시간축의 입체화, 화자의 병렬적 교대, 소설보다 탁월해 보이는 자작시의 삽입, 부치지 않는 편지형식의 고백체 등 최근 대학의 소설 강의에서 다루는 '형식 낯설게 하기'를 과감하게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소설이란 절대시간의 투자와 첫 문장의 시작부터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치열성이 요구된다. 그러한 측면으로 볼 때, 응모한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입상권에 들지는 못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작품들이 많았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힌다.

〈은상〉

‘몬스터를 잡아라’는 생존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의 삶을 밀림에서 몬스터를 잡는 원시 사냥 욕구의 게임캠프에 은유시킨 작품이다. 주인공인 그녀(게임캠프의 가명 황금마녀), 재미있기, 영웅본색의 개성이 분명하고, 구성의 열개가 치밀하다. 세 인물의 욕망과



행동과 언어 하나하나의 소설 구조에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정규직 자리를 찾지 못한 주인공 황금마녀의 삶의 신산함과 절박감이 강하다. 그것은 작자의 탁월한 문장력으로 여지없이 전달되며 독자로 하여금 심리적 동일시를 느끼게 할 정도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스토리 라인의 균형과 속도의 완급, 독자의 상상을 배반하게 하면서도 결국은 동의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 빛나는 작품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접속사가 남발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삼각김밥’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는 한자다. 결국 죽음에 임박한 한자가 암울했던 가정의 과거사를 보여준 작품으로 문장력이 뛰어나고 주제를 치열하게 이끄는 신인다운 패기가 돋보인다. 에피소드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주변 환경을 자연스럽게 묘사했다. 또한 나의 시점을 내면의 흐름에 깔고, 서사와 인물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매끄럽다. 특히 요즘 세태의 혼밥, 혼술 등 시대적 상황을 소재로 무리 없이 잘 끌었다.

〈동상〉

‘움’은 죽었다던 아버지가 뒤늦게 집에 돌아와 다시 불에 타죽는다. 목수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에 따른 가족의 슬픔을 딸의 시점으로 그려낸 이야기로 어색하지 않은 동화처럼 담담하게 서술하여 잘 마무리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잃어버린 세월 부분이 암묵적이어서, 인물의 형상화가 미흡하다. 하지만 단일한 주제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풀어나간 저력이 돋보인다.

‘안개비’는 폐지나 고물 등을 수집해 지난한 삶을 영위해 가는 남, 여 두 노인의 삶과 그러면서도 서로를 아픈 눈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따뜻한 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오토바이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손자로 인해 충격 받아 급성치매가 오고, 그를 불쌍히 여긴 관내에서 손자의 핸드폰으로 신호만 가는 핸드폰을 마련해 준다. 이후 연탄가스 사고로 죽은 노인과 남은 고양이를 품어주는 할매를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이 애처로우면서도 온기를 준다. 아쉬운 점은 독자를 의식해 지나친 설명으로 인해 소설적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다.

심사위원 : 이원규, 이영철, 최성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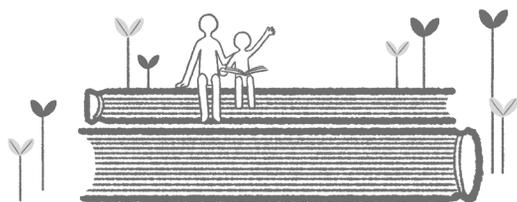


소설

은상 몬스터를 잡아라 - 곡성고등학교 최정원
삼각 김밥 - 대구상수도본부 달서사업소 김명자

등상 안개비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류보선
음 -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정승호

입선 한 자 반 - 서울연지초등학교 정영호
K박사의 연구-나이스드림의 부작용 - 전)조달청 김진일
무게 - 특허청 최석규
기억의 연습 - 매현중학교 한정애





곡성고등학교
최정원



수상소감

‘소설은 쓰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산다’는 어느 작가의 말처럼 작품 속 인물과 같이 살아가는 소설 쓰기만큼 황홀한 고통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소설의 자장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격려의 장을 마련해 주신 문예대전에 감사드리며, 늘 곁에서 묵묵히 지켜준 남편과 딸에게 지면을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미력하나마 제 글이 누군가의 삶에 위안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몬스터를 잡아라

사장이 햄버거 패티를 굽고 있는 그녀를 불렀다. 이번 달 월급이라며 흰 봉투를 내밀었다. 그녀가 잠깐 어리둥절해 서 있다 입을 열었다.

“월급날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요.”

“알아, 가게 사정이 곤란해서 말이야. 한 달분이야.”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달에 길 건너 상가에 햄버거 체인점이 개업하는 판에, 이번 달부터 건물 임대료까지 올려 달래.”

“혹시 제가 잘못된 거라도…”

“아니야.”

사장이 손사래를 쳤다. 그동안 고생했다며 교대 시간되면 퇴근하라고 허둥지둥 나가버렸다. 점심때가 다 됐지만 홀에는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손님 한 테이블이 전부였다. 주방에 돌아와 가스 불을 켜다. 프라이팬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로 씬 없이 올라왔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입술에 떨어졌다. 혀로 입술을 핥았다. 짹조름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름에선 언제나 짱 내가 났다. 건조기 안에서 바삭 말라 당분만 남은 과일처럼 물기 빠진 고깃덩어리로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한숨을 푹 내쉬며 고기를 뒤집었다. 아무래도 게임 캠프에 갔다온 것이 화근인 성 싶었다. 사장이 마뜩찮은 표정으로 다녀오라고 했을 때 눈치껏 처신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막급이었다. 불을 끄고 가게 밖으로 나와 계단에 쭈그려 앉았다.

첫째 날

몬스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신기루 같았다. 놈들을 포획하려면 남들보다 빠르고 신속해야 했다. 중요한 건 속도와 타이밍이었다. 주황색 티셔츠 등판에 게임 아이디를 붙인 참가자들이 몬스터를 잡기 위해 몰려다녔다. 그들 중 한 명이 흠어져 잡자고 소리쳤다. 아이디 ‘황금마녀’가 홀로렌즈를 끼고 광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강렬한 햇살과 습한 바람이 어우러져 후텁지근했다. 중앙 박물관 출입구 원기둥 사이로 몬스터 영상이 잡혔다. 아! 감탄사를 연발하며 황금마녀가 뛰었다. 저쪽에서 다른 참가자도 뛰어오고 있었다. 그들보다 먼저 몬스터를 잡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렸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몬스터를 포획했다. 빠리링. 팡! 소리가 울리며 칩이 적립됐다. 양 손으로 무릎을 짚고 숨을 헉헉거렸다. 뛰어오던 참가자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숨을 가다듬은 황금마녀가 횡단보도 쪽으로 갔다. 붉은색 점멸등이 커짐과 동시에 핑크색 몬스터가 차도에 나타났다. 손을 번쩍 들고 거침없이 차도로 뛰어들었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들이 클랙슨을 눌러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 몬스터를 낚아챘다. 급정거를 한 자동차 운전사가 창문을 내리고 그녀를 향해 미친년이라고 악을 썼다. 그녀는 운전자를 향해 미안하다고 고개를 굽실거리며 황급히 길을 건넜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상가 건물 사이로 질주하는 도롱뇽처럼 생긴 초록색 몬스터를 뒤쫓았다. 놈의 꼬무니를 쫓아 건물 모퉁이를 돌다가 달려온 자전거와 하마터면 부딪칠 뻔 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선 자전거 주인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노려봤지만 그녀가 이미 저만치 달려간 뒤였다.

게임 캠프 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다국적 게임 회사는 캠프 지

역의 GPS를 위성으로 수신 받아 영상으로 전송했다. 매 시간 접속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칩 보유율 순위가 화면 하단에 실시간으로 올라왔고 게이시판엔 연달아 몬스터를 잡은 그녀에 대한 댓글로 넘쳐났다.

사방이 몬스터로 넘쳐나는 여긴 정말 엘도라도, 기회의 땅이었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몬스터가 보이면 무조건 달려들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치긴 말건 상관없었다. 주택가 골목에서 흥분한 사람들의 말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소리 나는 곳으로 방향을 바꿨다. 몬스터 떼가 홀로그래픽 영상으로 잡혔다. 우선 칩이 높은 놈부터 노렸다. 얼룩무늬 재규어처럼 생긴 놈을 쫓기로 결정했다. 놈은 속도가 빨랐다. 놈에게 달려드는 참가자들이 제법 많았다. 그중에서 아이다 ‘영웅본색’이 놈에게 가장 근접해 있었다. 그에게 따라붙었다. 앞서 달리던 영웅본색의 옷을 잡아당겼다. 달리던 영웅본색이 뒤를 돌아보자 어깨로 그를 밀쳐버리고 내달렸다. 버튼을 재빨리 누르고 다른 몬스터가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남자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돌진해 오는 그녀가 부담스러운 듯 멈칫했고 여자들은 몸싸움을 걸어왔지만 수년간 온갖 아르바이트로 다져진 황금마녀의 힘을 당하지 못했다. 이동거리 최장, 칩 보유율 최대, 황금마녀는 어느새 게임 캠프의 영웅이 돼 있었다.

아이다 ‘개미핥기’가 경직된 얼굴로 사방을 주시했다. 모처럼 삼차원 그래픽 영상이 잡혔다.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교차된 몬스터가 지느러미를 흐느적거리며 유유히 들판에 떠다녔다. 개미핥기가 놈을 잡기 위해 잡풀이 우거진 비탈진 경사면을 뒹굴다시피 달려 내려가 풀숲을 헤집었다. 살갓이 따끔거렸다. 그러다 물경한 것이 밟히더니 발이 쑥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얼른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엉덩방아를 찧으

며 뒤로 벌렁 자빠졌다. 바지와 티셔츠에 흙탕물이 튀겼다. 몬스터가 사라져버렸다. 제기랄. 개미핥기가 눈독으로 올라와 넓은 풀 잎사귀에 손을 비비고 신발 바닥을 땅에 문질렀다. 산과 들의 짙은 초록이 공포영화에 나오는 살인 식물들처럼 느껴졌다.

오늘 아침 베이스캠프에 도착할 때만 해도 색다른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렘. 설계자가 캠프 개회식을 선언하고 게임의 규칙에 대해 안내할 때 타워 안은 쥐 죽은 조용했다. 설계자는 게임의 규칙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참가자들의 초기 레벨은 주사위 놀이로 결정된다. 레벨은 골드, 화이트, 블랙 세 개로 나뉘며, 이에 따라 몬스터 포획 가능 구역이 정해진다. 참가자들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몬스터를 사냥할 수 있으며 몬스터에 매겨진 값에 따라 칩이 적립된다. 첫째 날 게임 종료 후 칩 보유량 1위인 자가 성주가 된다. 칩 보유 순위에 따라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성주가 되면 소유지 선정의 우선권과 캠프장 내 모든 시설 운영권을 갖는다. 다음 날 뒤집기 퀴즈 대회 예선전이 벌어진다. 1차전은 오, 엑스 퀴즈로 선발하고, 통과한 사람들은 2차전에서 오지 선다형 문제를 푼다. 3차전에서 최종 두 명을 선발한다. 셋째 날 성주는 이들과 퀴즈 대회를 치른다. 성주가 질 경우 보유한 칩의 반을 이긴 도전자에게 주어야 하며, 도전자들이 질 경우 땅을 몰수한다. 땅이 없는 도전자들의 경우 성주의 노예로 전락한다. 퀴즈대회 예상 문제는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며, 정보 접근 권한은 레벨에 따라 제한된다.’

설명을 마치자 숨죽여 듣고 있던 참가자들이 불공평하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퀴즈 문제는 레벨 높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무슨 뒤집기 퀴즈냐며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게임의 규칙은 험

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조용히 하라고 설계자가 주의를 줬다.

“캠프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캠프 기간 동안 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선착순으로 무료 숙박 시설을 제공합니다. 무료 식권은 첫날만 주고 다음 날부터는 침을 주고 사먹어야 합니다.”

뒤집기 퀴즈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까? 누군가 손을 번쩍 들고 질문했다. 아니요. 희망자만 합니다. 희망자가 없으면요? 뒤집기 퀴즈 대회는 안 열립니다.

참가자들이 차례로 나와 중앙에 설치된 대형 주사위판을 돌렸다. 숫자가 나올 때마다 탄식과 환호가 교차했다. 몬스터 포획 구역에 따라 결과는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다. 엘도라도엔 몬스터들이 넘쳐났지만 불모지가 걸리면 몬스터를 잡을 확률은 거의 없었다.

개미핥기 차례였다. 마른 입술에 침을 발랐다. 주석을 매입할 때보다 더 떨렸다. 주사위를 던졌다. 무성하게 자란 풀숲과 논, 밭이 있고 산으로 둘러싸인 곳. 불모지였다. 시작부터 운이 안 따라 졌다. 세계적인 게임 회사가 주사위 따위로 구역을 배정하다니, 개미핥기가 마뜩찮은 표정으로 설계자를 쳐다봤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몬스터가 때를 지어 출몰했다. 여간해선 만나기 힘든 황재였다. 아이디 ‘영웅본색’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얼룩무늬 재규어처럼 생긴 놈을 잡기로 마음먹고 놈에게 달려들었다. 뒤에서 옷을 잡아당겨서 돌아보니 여자였다. 머뭇거리며 주춤하는 사이, 여자가 때를 놓치지 않고 팔꿈치로 그의 가슴팍을 찍어 눌렀다. 앞질러 나가는 그녀의 등판에 아이디 ‘황금마녀’ 글자가 선명했다. 경우 없고 욕심 많은 것들은 어디에

나 있기 마련이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밀쳐버릴 것을, 하고 후회했다.

이 게임은 단순해서 좋았다. 홀로렌즈를 끼고 몬스터가 나타날 때 쫓아가 잡으면 그만이었다. 발바닥이 뜨겁도록 몬스터를 쫓다보면 강렬한 에너지가 끓어올랐다.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이 사냥감을 포획했을 때 느끼는 자부심 같은 것이랄까. L그룹 공채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그랬다.

같은 과 동기들은 그를 영웅이라도 되는 양 추켜세웠다. 간혹 부러운 눈으로 비결이 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목에 잔뜩 힘을 주고 자기 소개서 쓰는 법이며, 면접 볼 때 요령들을 늘어났다. 하지만 막상 입사해보니 서열은 모든 가치에 우선했고, 월급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은 삶의 족쇄였다. 암만 열심히 일해 봐야 술자리에서 상사들 비위 못 맞추면 눈치 없고 사회성 떨어지는 모자란 놈으로 취급해 버렸다. 성실, 그건 일개미에게나 필요한 덕목이었다.

게임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렸다. 모바일에 순위를 검색했다. 영웅본색이 2위였다. 황금마녀가 1위였다. 아까 악착을 떨던 계집애였다.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지만 모든 영광은 1등의 몫이었다. 참가자들이 컨트롤 타워로 모여들었다. 황금마녀가 예상대로 엘도라도 땅과 성을 독차지하고 건물 및 부대시설의 운영권도 가져갔다.

개미핥기가 모자를 들어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문질렀다. 축축하게 젖은 주황색 티셔츠가 다갈색으로 변했다. 온종일 다리가 육신거리도록 뛰어다녔지만 몬스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칩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등판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티셔츠를 떼어내며 모바일을 들여다봤다. 참가자들 순위가 화면에 떴다. 스크롤바를 아래로 한참이나 내려 봤지만 아이다 개미핥기는 없었다. 염병할. 발부리로 돌맹이를 걷어찼다.

오늘 밤 당장 잠자리가 문제였다. 무료 숙소에 들어가려면 서둘러 킷트를 타워로 가야 했다. 창구 앞에는 줄이 길었다. 아무리 재미라지만 칩이 없어서 줄까지 서서 티켓을 받아야 하다니 부아가 치밀었다. 창구 옆 식당 출입문으론 칩을 보유한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드나들었다. 발급받은 표를 들고 숙소로 향했다. 1980년대 산동네를 재현해 놓은 세트장 같았다. 회색 슬레이트 지붕에 파란색 녹슨 철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마루 양 옆으로 남녀 방 하나씩이었다. 빛바랜 낡은 벽지에 비닐 장판이 깔린 방에 캐리어를 내려놨다. 귀퀴한 냄새가 났다. 완전 리얼하네. 재미할기가 방 안을 둘러보며 혼잣말로 투덜댔다. 뒤이어 들어오는 참가자들과 통성명을 했다. 실내 화장실은 여자들에게 양보하고 남자들은 바깥에 있는 임시 화장실을 이용하고, 수돗가에서 씻기로 했다.

무료 급식소에서 식판에 멸건 감자 된장국, 신 김치, 두부조림, 멸치를 배급받았다. 재미할기는 한 숟가락 뜨다 말고 음식물 찌꺼기를 통에 버리고 숙소로 돌아왔다. 밤새 웅웅거리는 모기 소리와 사람들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목덜미로 땀이 흘렀다. 선풍기 두 대가 툭툭거리며 회전할 때마다 더운 바람이 사람들 땀내를 실어왔다. 물건들이 무는 지 온 몸 여기저기가 가려워 살갓을 긁어대다 날이 밝았다.

영웅본색이 숙소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에어컨, 텔레비전, 소파가 놓여 있었고 작지만 냉장고와 식탁도 있었다. 안방 문을 열어보니 폭신한 더블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샤워 시설을 갖춘 화장실도 딸려 있었다. 대충 짐을 정리하고 식당에 갔다. 땅 소유주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식당 한 편에 무료 숙식 표를 나눠주는 창구가 있었다. 생각보다 줄이 꽤 길었다.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즐비했다. 참가자들이 식판에 음식을 퍼 담으며 황금마녀 이

야기를 했다. 연어 샐러드와 볶음밥, 갈비찜을 퍼서 자리에 앉은 영웅본색이 한 숟가락 뜨려다 말고 식판을 들고 일어났다.

성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리문 안에서 황금마녀는 요리사가 즉석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있었다. 영웅본색이 유리문을 두드리고 합석해도 되느냐는 물음에 황금마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이서 보니 화장기 없이 머리를 하나로 질끈 동여맨 얼굴이 옛돼 보였다.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그에게 국내 오성급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요리사라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 남자를 소개했다. 요리사가 미소 띤 얼굴로 치즈를 얹은 새우 샐러드와 대파 튀레 스테이크를 접시에 담아 내놓았다. 와! 황금마녀가 물개 박수를 치며 고기를 입 안 가득 베어 물고 오물거리며 어린애처럼 들뜬 표정을 지었다. 억척스런 첫인상과는 달리 천진한 구석이 있어 보였다.

“저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고기가 아이스크림 같아요.”

영웅본색이 피식 웃으며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난 직장 다녀요. 그쪽은?”

“우와, 좋은 데 다니시는 구나. 여기 들어가기 엄청 힘들다던데. 좋겠다. 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해요. 혹시 답에 아르바이트 구할 때 찾아가도 되요?”

“얼마든지. 서로 돕고 살면 좋죠. 순발력 있게 게임 잘하던데.”

“아깐 죄송했어요. 게임이다 보니...”

“아니야, 게임인데 뭘. 오늘 1위한 거 축하해요.”

“이 게임 완전 리얼해요. 홀로렌즈 낀 세상이 넘 좋아요. 안 벗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게임 신나게 한 번 즐겨볼까요? 불모지 사람들에게 우리 땅에서 몬스터를 잡는 대신 60%를 받으면 어때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오늘 성주와 땅 소유자가 정해졌는데 안 될 거 없죠. 땅 가진 사람들끼리 합의만 된다면. 오늘 밤 모임을 추진해 보죠.”

“재밌겠다.”

둘째 날

어젯밤 황금마녀 성에 모인 땅 주인들은 영웅본색의 의견에 찬성했다. 영웅본색이 아침을 먹기 전 참가자들을 모두 성 안으로 불러놓고 어제 결정된 사항을 전달했다. 땅이 없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규칙이라고 옹성 거렸지만 영웅본색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 그들의 말을 자르고 나섰다.

“땅 소유주가 빌려준 댓가로 얼마를 받든 뭐가 문젠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개미핥기가 따지듯 말을 받았다.

“아니 그래도 너무 하잖아요. 침이 없으면 식당이나 숙소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 알면서. 게임인데 야박하게. 여기가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암요. 게임이죠. 순위가 매겨지는 게임. 그럼 전쟁터 맞죠.”

개미핥기가 무슨 게임이 이따위냐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개미핥기가 숙소에 돌아가 몬스터 사냥에 나가지 말자고 앞장 서 말했다. 흥분한 사람들이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숙소로 돌아온 사람들은 땅 없는 설움을 성토하며 의견이 분분했다. 개미핥기가 침착하게 대처하자며 황금마녀와 영웅본색을 제외한 다른 땅 주인들한테 찾아가 연대를 제안하자고 했다.

“황금마녀와 영웅본색 땅에 아무리 몬스터가 많아도 둘이서 잡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력이 많으니 나머지 땅에서 열심히 몬스터를 잡

아 땅 주인들에게 40%를 지불하면 자기들도 칩을 많이 모을 수 있으니
우리 의견에 동의할 겁니다. 내가 땅 주인들과 협상을 하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땅 주인들을 만나러 가는 개미핥기를 응원했다.
하지만 개미핥기의 예상과 달리 땅 주인들은 그가 말을 건네도 시큰둥하
니 말을 얼버무리며 슬슬 피해버렸다.

개미핥기가 땅 주인들을 만나러 간 사이 영웅본색이 무료 숙소에 찾아
왔다. 그는 어차피 엘도라도의 소유주가 정해진 마당에 몬스터를 잡는 대
가로 얼마를 지불하든 순위는 바뀌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밥 굶어가며
생고생을 하려느냐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배고플 테니 성에 가서 공짜로
주는 아침 먹고 기분 좋게 몬스터 사냥이나 즐기자고 분위기를 띄웠다. 덧
붙여 일정량 이상의 몬스터를 잡은 사람에겐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했다.
못이기는 척 하나 둘씩 그를 따라나서기 시작했다.

개미핥기가 무거운 발길로 숙소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미 아침을
먹고 사냥을 나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개미핥기가 사람들에게 땅 주
인들과 협상이 잘 안됐다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괜히 속 끓이지 말고 몬스터 사냥이나 가자고 했다. 개미핥기가
하루만 버티면서 40% 선을 관철시키자고 했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개미핥기가 대문을 나서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배알도 없는 인간들이라
고 중얼거렸다. 그는 혼자 마루에 덩그러니 누워 이마에 팔을 얹고 눈을
감았다. 보통 때 같으면 피트니스 센터에 들러 새벽 운동을 마치고 사무
실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배팅 중목을 고를 시간이었다. 경쟁의 미덕은
승리에 있었다. 어설픈 기업 윤리를 들먹거리 봐야 패배하면 낙오자가 될
뿐이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무리 증강 현실 게임이라지만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다. 일어나 마루에 걸터앉았다. 모바일 게임에 접속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황금마녀가 1위였다. 불모지 사람들이 그녀의 땅에서 몬스터를 잡으면 자동으로 그녀에게 60%가 적립됐다.

개미핥기가 숙소를 나섰다. 끼니를 때우려면 불모지라도 나가봐야했다. 광장 분수대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왔다. 몬스터 사냥에 재미들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간간이 들렸다. 해변은 관광객들로 빼곡했다.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파란 바다에 검은 새떼처럼 무리지어 떠다녔고 알록달록한 비치파라솔이 해변을 따라 즐비했다. 그들 사이로 홀로렌즈를 끼고 뛰어다니는 무리들이 보였다. 엘도라도를 지나 불모지가 가까워지자 관광객들도 시야에서 사라졌다.

한낮의 태양이 오기를 부리듯 짹짹했다. 풀숲을 헤치고 산등성으로 올라갔다. 어제는 몬스터가 간혹 나타나기도 했는데 오늘은 통 안 보였다. 날 것들이 얼굴에 달려들었다. 손을 휘저어 물건들을 쫓으며 산 속으로 들어갔다. 모바일에 GPS 수신 이탈 지역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홀로렌즈를 벗고 무성한 잎사귀가 달린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골랐다.

착잡한 얼굴로 모바일에 다운 받아둔 문제지를 살폈다. 모두 허접한 정보들뿐이었다. 그래도 뒤집기 퀴즈 대회에 참여할 생각이었다. 이기면 황금마녀의 재산의 50%를 가져올 수 있고, 지면 그녀의 노예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손해 볼게 없었다. 어차피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었다. 설계자를 만나러 컨트롤 타워로 향했다.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지만 불모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황금마녀가 분수대에서 내뿜는 물줄기를 맞으며 팬더곰처럼 생긴 몬스

터를 쫓다가 바닥에 미끄러졌다. 놓칠 뻔한 몬스터를 그물 아이템을 써서 잡았다. 어젯밤 칩을 주고 산 아이템 덕에 어제보다 몬스터 잡기가 한결 수월했다. 게다가 불모지 사람들이 그녀에게 60%씩 낸 칩까지 더해져 엄청난 속도로 붙어났다. 그녀는 모바일에 표시된 자신의 칩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불 앞에서 킁킁대며 햄버거 패티를 굽고, 가게에서 손님들 치다꺼리나 했었는데, 버스를 기다리다 우연히 건물 옥상에 ‘몬스터를 잡아라’ LED 광고를 본 덕분에 캠프에 와서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될 줄 꿈에도 몰랐었다. 가르쳐야 할 고등학생이 둘이나 되는데 명문대도 아니고 서울로 대학 못 보내준다던 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올라와 지금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 남들처럼 어학연수는 고사하고 생활비에 학자금 용자 받은 이자까지 갚아야 할 빚이 태산이었다. 이번에 우승 상금만 타면 일 년 간 학비 걱정은 덜 수 있었다. 참가비 받으면 남들 다 신은 은회색 반짝이 샌들을 살 생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황금마녀는 홀로렌즈를 벗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몬스터를 잡다 말고 성으로 갔다. 요리사에게 팔빙수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투명한 크리스털 볼에 망고와 블루베리가 올려진 빙수는 아름다운 설산을 연상케 했다. 테라스에 앉아 빙수를 한 스푼 떠 입에 넣고 밖을 내려다봤다. 컨트를 타워 쪽에서 걸어오는 영웅본색이 보였다. 그녀가 반갑게 손짓하며 그를 불렀다.

“뒤집기 퀴즈 나갈 거예요?”

“글쎄.”

“난 성주라 퀴즈 문제를 모두 볼 수 있어요. 도전자들 이길 자신 있어요.”

“그렇겠지.”

“땅 주인들한테 오늘 저녁부터 숙소 임대료를 올리고 부대시설 이용료도 별도로 받아야겠어요. 저 좀 도와줘요. 대신 영웅본색님은 성에서 살면서 모든 시설을 맘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앞에 앉아 팔빙수를 떠먹던 영웅본색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얼마나 받으려고?”

황금마녀가 금액을 말했다. 영웅본색이 너무 비싸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렸지만 그녀는 어차피 게임 끝나면 안 볼 사람들인데 무슨 상관이나고 했다. 음식은 게임 회사에서 성주한테 무제한 제공해주는 것이니 오늘 저녁엔 안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 생각이라고 했다. 그때 사람들이 모이면 임대료 인상 건에 대해서 공지하라고 영웅본색에게 명령조로 말했다. 영웅본색이 양미간을 찌푸리며 스푼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안마당에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고기 냄새가 진동했다. 술잔이 오고갔다.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은 왁자지껄하게 몬스터 사냥 이야기로 열을 올렸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영웅본색이 박수를 치며 공지 사항이 있다고 주의를 집중시켰다. 오늘부터 건물 임대료를 30% 인상하겠다고 했다. 지불할 칩을 모바일로 지금 전송하라고 덧붙였다. 술이 확 깬다고 투덜대면서도 사람들은 모바일을 꺼내 영웅본색이 시킨 대로 했다. 온종일 몬스터를 잡았지만 실상 남는 게 없다고 불평을 늘어났다. 누군가 황금마녀에게 들으라는 듯 하우스 푸어가 따로 없다고 큰소리로 말했다.

바비큐 파티가 끝날 무렵 설계자가 참가자들을 컨트롤 타워로 불렀다. 설계자가 내일 점심 때 퀴즈 대회가 열린다고 모인 사람들에게 알렸다.

설계자가 황금마녀를 별실로 불렀다. 퀴즈 대회 자료집이라면서 증강 현실 게임 예상 문제집을 내밀었다. 황금마녀가 난감한 표정으로 사전만큼

이나 두툼한 책을 받았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상 문제로 치러지는 것 아닌가요?”

“그건 예선 자료였습니다. 성주와 도전자 간에 치러지는 본 퀴즈 대회 자료는 별도로 제공됩니다.”

“저만 주는 건가요?”

“아니요 도전자 두 명도 따로 불러서 줄 겁니다.”

증강 현실 게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던 그녀는 애가 탔다. 3박4일 동안이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비우고 캠프에 온 것 자체가 그녀에겐 도박이었다. 성에 돌아온 황금마녀가 황급히 영웅본색을 불러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셋째 날

창밖에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았다. 책상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던 황금마녀가 목을 뒤로 제치고 목덜미를 주물렀다. 눈을 지그시 감고 눈알을 좌우로 돌렸다. 다시 의자에 앉아 딱딱한 눈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어제 영웅본색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포스트잇을 붙여준 페이지를 펼쳤다. 오늘만 잘 넘기면 캠프의 우승 상금을 거머쥌 수 있었다. 손톱을 지그시 깨물며 시계를 쳐다봤다.

아침 일찍 일어난 개미핥기가 밖으로 나와 담뱃불을 붙였다. 열 명이 한 방을 같이 쓰는 터라 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어젯밤 황금마녀 성에서 벌어진 바비큐 파티에서 허겁지겁 고기를 먹은 게 잘못됐는지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담배를 몇 모금 빨고 나니 속이 좀 가라앉았다. 사실 그는 게임 출시 전부터 이미 증

강 현실 게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펀드 매니저에게 정보는 생명줄이었다. 정보가 많을수록 배팅에 유리했다. 퀴즈 대회가 끝나면 판이 뒤집힐테니 오후부터 멋지게 캠프에서 몬스터 사냥을 즐겨 볼 참이었다. 담배꽂초를 느릿하게 발로 비벼 끄고 방으로 들어가 문제집을 펼쳤다.

퀴즈 대회가 시작됐다. 인터넷 게임방 접속률이 급상승했다. 무대 뒤에서 황금마녀가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물어볼게 있어서 아침부터 영웅본색을 찾았지만 어디 갔는지 통 보이지 않았다. 퀴즈 대회를 보러 온 사람들로 타워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긴 처음이었다. 대회를 알리는 경쾌한 음악소리와 사람들 박수 소리가 꿈결처럼 귓전에 맴돌았다. 사회자가 참가자 아이디를 차례로 호명했다.

1번 황금마녀,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갔다. 강렬한 조명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앞이 하얗다.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몽롱한 상태로 지정된 자리에 섰다. 2번 개미핥기, 이어서 3번 영웅본색이 호명됐다. 황금마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대 위로 걸어오는 영웅본색을 봤을 때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퀴즈 쇼가 시작됐다. 사회자가 문제를 채 읽기도 전에 황금마녀가 벨을 눌렀다. 알든 모르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황금마녀의 점수판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다. 하지만 퀴즈를 풀수록 황금마녀가 벨을 누르는 횟수가 뜸해졌다. 게임 소프트웨어에 관한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 문제는 뜻조차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런 문제들일수록 개미핥기와 영웅본색은 여유 있게 벨을 눌렀다. 그들의 점수판 숫자가 앞 다투어 갱신됐다.

영웅본색이 중요하다고 표시해 준 부분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 후반으로 접어들자 황금마녀는 한 마디도 못하고 우체통처럼 서 있었다. 사

회자가 마지막 문제를 읽었다. 환청처럼 벨소리들이 들렸다. 사회자가 영웅본색이 가장 빨랐다고 말했을 때 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 옆에 선 영웅본색이 농담을 섞어가며 여유 있게 대답했다. 사회자가 뜬금없이 정답이라고 외쳤다. 눈앞에 모든 것이 증발해 버린 듯 깜깜했다.

폭죽이 터지며 팡파르가 울렸다. 금빛 종이 가 영웅본색 머리위에 눈처럼 흩날렸다. 관중들의 갈채가 쏟아졌다. 영웅본색의 함박웃음이 잔인해 보였다.

설계자가 황금마녀를 불러 영웅본색에게 약속한 칩을 지불하라고 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컨트롤 타워 밖으로 걸어 나오다 계단에서 있는 개미핥기를 봤다. 황금마녀가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뒤에서 오늘 저녁에 술 한 잔 하자는 말이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개미핥기와 영웅본색이 서로 손을 흔들며 아는 척을 하고 있었다. 낯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황금마녀의 어깨를 툭 치며 영웅본색이 말했다.

“니 말처럼 게임이잖아.”

넷째 날

황금마녀가 짐 가방을 챙기다 말고 꼼짝도 하지 않고 십 분 동안 바다에 주저앉아 방 안을 둘러봤다. 퀴즈대회에서 지는 통에 1위 자리를 영웅본색에게 내주고 나니 옐도라도도 뺏기고, 성에서 쫓겨나 건물 임대료를 내고 어제 이곳에서 잤다. 하루 만에 그 많던 칩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게임은 끝났다. 컨트롤 타워 중앙홀에서 점심 겸 종 파티가 열렸다. 뷔페가 한 상 가득 차려졌다. 무대 위에 관현악 연주자 네 명이 귀에 익은 잔잔한 영화음악을 연주했다. 본사에서 파견 나온 한국 담당 지부장이 수료

식에 앞서 간단한 연설을 했다. 캠프의 홍보 효과는 성공적이었으며, 보다 넓은 지역의 GPS를 수신 받아 게임 영역을 확장시키겠다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 측에서 수고한 대가로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비와 별도로 무료 게임 이용권과 몬스터 캐릭터가 새겨진 기념품을 줬다. 마지막으로 우승 상금을 받을 최종 우승자를 호명했다. 영웅본색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두 팔을 번쩍 들고 활짝 웃었다. 우승 트로피와 상금이 지급됐다. 그는 상금 액수가 적힌 커다란 우드락을 들고 지부장과 설계자, 관리자 등 몇 명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사장은 들어오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사장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계음만 반복됐다. 그녀는 건물 옥상에서 반짝이고 있는 LED 전광판을 올려다봤다. ‘몬스터를 잡아라’의 성공적인 캠프 홍보 효과로 다국적 기업인 게임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자막이 스크린에 가득했다. 지자체에서 앞두어 게임 회사와 계약을 맺어 관광 특수를 노리고 있다는 보도 자료가 뒤이었다. 그녀가 멍한 눈으로 전광판을 쳐다봤다. 홀로렌즈를 끼면 다시 게임 속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밤늦도록 인터넷 알바 사이트와 모바일 알바 앱을 뒤적이다 잠깐 눈을 붙였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씻지도 않고 모자를 눌러 쓰고 슈퍼마켓 앞에 놓인 생활광고지를 가지러 나갔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꽃이엔 광고지가 두 부밖에 없었다. 우유와 빵으로 대충 아침을 때우며, 구인 광고란을 꼼꼼히 훑어봤다. 몇 군데에 빨간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치고 전화를 돌렸다. 괜찮아 보이는 보습학원 몇 군데를 알아봤다. 어느 대학에 다니냐고 묻더니 사람을 구했다고 했다. 홀 서빙을 구하는 가게들은 끝나는 시

간이 너무 늦었다.

편의점 몇 군데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갖고 오라고 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라면 컴퓨터에 직종별로 작성해놓은 것이 백 개쯤은 있었다. 서울 올라와 모은 거라곤 그것뿐이었다. 최대한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부터 가볼 요량으로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쓸 만한 반팔 블라우스를 찾다 캠프 갔다 와서 아직 정리를 안 한 걸 기억내곤 방 한구석에 놓인 가방을 뒤적였다. 영웅본색이 준 명함이 보였다. 핸드백 안에 챙겨 넣었다.

지난 번 햄버거 가게가 좋았다. 오전 열시에 출근해서 저녁 일곱 시 정도에 퇴근할 수 있었고, 계산도 정확했다. 덕분에 새벽 타임으로 토익 강의를 듣고 휴학하는 동안 다음 학기 등록금도 얼추 모을 수 있었다. 밀쳐야 본전이니 한 번 더 가게 사장한테 찾아가 사정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이력서를 내고 잠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린 가게 앞에는 편의점답지 않게 오락기가 놓여 있었다. 말이 편의점이지 동네 슈퍼가 더 어울렸다. 지하철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했다. 이런 외진 곳에서 밤늦게까지 근무할 자신이 없었다. 더구나 중년 사내가 이력서를 받아두고 어느 학교 다니냐 나이는 몇 살이냐 자신을 오빠처럼 생각해라 하면서 능글맞게 웃을 때 잘못 왔구나 싶었다. 남자는 오늘부터 일해도 좋다고 했지만 그녀는 생각해보겠다고 일어섰다. 이력서를 두고 온 것이 내내 짹짹했다.

햄버거 가게는 여전히 한산했다. 계산대에서 주문을 받던 아르바이트생이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지나가다 들렸다는 그녀 목소리를 듣고 주방 안에 있던 사장이 그녀에게 코카콜라를 따라줬다. 콜라를 한 모금 들이키며 사장에게 아르바이트생은 안 구할 거냐고 물었다. 사장은 길 건너에 햄버거 체인점이 들어오면 상황을 봐야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맞은편 상가

건물도 이 건물주인 거라면서 젊은 놈이 부모 잘 만나 건물이 두 채나 되는데 임대료까지 올려 달라니 있는 것들이 더 지독하다고 욕을 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죽 들이킨 뒤 말을 이었다.

“펀드매니저라나 뭐라나 돈도 많이 벌겠구만. 젊은 놈이 돈독이 올랐는지 우리 가게가 있는데도 맞은편에 떡하니 햄버거 체인점을 열겠다니, 나한테 나가라는 소리 아니겠니? 더러워서. 그래도 일단은 버텨 봐야지. 불경기에 할 만한 장사도 없고. 수제 햄버거야 패티만 좋으면 그래도 장사는 되니까. 넌 가을에 복학해야지? 공부도 다 때가 있어.”

“몇 군데 이력서 넣고 오는 길이에요. 복학은 생각 중이에요.”

“졸업 늦어지면 취직도 잘 안 돼. 요샌 나이도 스펙이야.”

청량음료를 넘길 때 목구멍이 씹혔다. 사장은 그녀에게 가끔 놀러오라고 했다. 버스 정류장에 가려다 맞은편 상가 건물로 갔다. 새로 들어설 햄버거 가게 안은 공사가 한창이었다. 붉은 색 의자와 검은색 탁자가 매장 인테리어와 잘 어울렸다. 가게 앞 유리문엔 오픈 날짜와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가 붙어있었다. 연락처를 핸드폰에 입력했다.

몇 군데에 이력서를 냈지만 연락이 오는 곳은 없었다. 영웅본색이 준 명함을 몇 번이나 핸드백에서 꺼내 만지작거리다 다시 넣었다. 반지하 단칸방은 덥고 습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견딘다는 건 맨 몸으로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았다. 대학에서 복학 신청 기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핸드폰에 입력된 햄버거 체인점 연락처와 영웅본색의 연락처를 번갈아 쳐다봤다. 황금마녀가 망설이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통화버튼을 눌렀다.

뜻밖에도 영웅본색이 반갑다며 점심시간에 맞춰 자신의 회사 근처로 오라고 했다. 영웅본색이 근무하는 곳은 지하철역과 가까웠다. 그는 소문난 맛집이라며 근처 일식집에서 초밥과 돈가스를 사줬다. 캠프 끝나고 연락

하려고 했다며 잘 지내냐고 물었다. 이번 학기에 복학해?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물었다.

“아니요.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 중이에요.”

“그래? 그럼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새로 출시된 상품 홍보하려고 이벤트를 하거든. 거기 도우미를 뽑는데 한 번 해볼래?”

“정말요?”

“동기가 업무 담당자니까. 내가 지금 말해 줄게.”

그는 동료에게 전화 해 그녀의 일자리를 부탁했다. 아침 열 시부터 저녁 여덟 시까지 보름 동안이며 시급 외에 하루 두 끼 식대와 교통비를 추가로 준다고 했다. 그는 동료의 전화번호와 이력서를 제출할 곳을 적어주며 내일 가보라고 일러줬다. 그녀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다.

PC방에서 이력서를 한 부만 출력하려다 몇 장 더 출력했다. 지난 번 근무했던 햄버거 가게 사장에게 미안하긴 해도 새로 오픈할 햄버거 가게 구인 광고지에 붙은 연락처로 전화를 해볼 생각이었다. 건물주가 운영하는 가게에 취직하면 돈 떼일 걱정도 없고, 운영난 때문에 해고되는 일도 없을 것 같았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다. 세련되고 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의 남자가 그녀에게 이력서를 갖고 오라고 했다. 교양 있는 말투였다.

도심 한 가운데 우뚝 선 고층 빌딩은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눌렀다. 로비의 안내데스크로 가서 용건을 말했다. 경비원이 전화로 확인한 뒤 출입문 개폐기를 통과시켰다.

파티션이 준비한 사무실은 개미굴 같았다. 흰 와이셔츠를 입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이 일개미들 같았다. 그녀가 사무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주눅 든 표정으로 고양이처럼 발 뒤꿈치를 들고 소리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었다. 펀드매니저 이름이 적힌

유리문을 노크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개미핥기도 영문을 몰라 잠시 당황하는 눈치더니 혹시 이력서 내려 왔냐고 물었다. 그녀가 빨개진 얼굴로 네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개미핥기가 그녀에게 앉으라고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 개미핥기는 세련된 목소리로 우량주라며 전화로 누군가에게 자상하게 설명했다. 그녀가 주뻗거리며 어색하게 앉아있는 동안 부하 직원인 듯한 남자가 결재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전화를 끊자마자 조금 전과는 사뭇 판판으로 서 있는 남자에게 시장 분석도 제대로 못해 오냐며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삼십 분이 서른 시간처럼 느껴졌다. 개미핥기는 마치 그녀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부하 직원들 불러 업무를 지시했다. 그녀는 갖고 온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핸드폰 시계를 들여다봤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을 갈증을 느꼈다. 아무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저... 더 기다릴까요?”

“바쁘면 가 봐.”

개미핥기는 여전히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사무적으로 말했다.

“네?”

“.....”

몇 초 동안의 침묵이 흐르는 동안 누군가 자신의 어깨에 돌덩이를 얹어 놓은 듯 무거운 기운에 짓눌리는 기분이었다.

“이력서는 어떻게.....”

“놔두고 가.”

그녀는 엉거주춤 일어나 개미핥기의 책상 위에 이력서를 올려 두고 어색한 목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팔차선 도로를 질주하는 차들이 내뿜는 매연으로 하늘이 뿌연다. 햇살이 쇠창살처럼 내리쬐힌 거리엔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노란 햇볕 때문에 어지러웠다. 건너편 고층 빌딩 사이로 몬스터가 보였다. 현기증 때문일까 싶어 눈을 비볐다. 모바일 속 삼차원 그래픽 영상이 아니었다. 금빛 날개를 활짝 펴고 바다 속을 유영하듯 건물 사이를 유유히 날고 있는 황금 몬스터.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거대하고 아름다운 몬스터였다. 자석에 끌리듯 거침없이 차도로 뛰어들었다. 놓칠 수 없었다. 아니 놓치면 안 된다. 길 건너편에 거대한 몬스터가 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여긴 기회의 땅 엘도라도였다. 그녀에게 손짓하듯 몬스터가 황금 날개를 휘저었다.





대구상수도본부 달서사업소
김명자



수상소감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아, 봄이 이렇게 지나가는가, 깊은 숨을 몰아신다.

언제부터 난 홀로 외로웠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외로웠는지 외로워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게 외로웠다.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글을 쓴 것 같다. 글이 잘 되지 않아 가족을 힘들게 할 때도 있었다. 그런 나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부족함에 늘 이유와 핑계를 다른 곳에서 찾았다.

문득 꽃잎이 떨어진 자리를 본다. 푸른 풀잎 위에 붉은 꽃잎이 화사하다. 풀밭이 꽃밭으로 변했다. 꽃은 떨어져도 꽃이었다. 난 언제 꽃이 되나. 또 봄이 가고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았다. 글 쓰는 것에 자신이 없어졌다. 주저앉아 있었다. 당선 소식은 단비였다. 다시 일어났다. 문득 고개를 드니 연두의 잎이 싱그럽다. 꽃이 아니라도 보기 좋다. 그래 아직 꽃이 아니라도 어떠한가. 돌아보니 글은 나를 조금씩 성장하게 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삼각 김밥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중환자실 쪽이다. 이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병원의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진다. 뛰어가는 이의 다급함으로 미루어보면, 누구의 심장이 멈추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미 멈추었는지도 모른다.

머릿속에서 발소리가 멀어지고 있다. 발소리를 따라가던 생각이 내게로 돌아온다. 정신을 집중하고 천천히 눈을 떴다. 조심스럽게 화장실 한쪽 벽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화장실로 들어오던 젊은 여자가 힐끔 나를 쳐다보는 것이 거울에 비친다. 여자는 몸이 가볍고 혈색이 좋아 보인다. 여자를 의식하며 나는 몸을 깨끗하게 세우고 천천히 걸음을 앞으로 떼어 본다. 이제 어지러운 것은 사라졌지만, 발의 감각이 둔하다. 발뿐만 아니라 손에 닿는 대부분이 내 것이 아닌 듯 만져졌다. 얼굴은 화장을 했는데도 그늘을 뺏아들인 듯 칙칙하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가릴 수가 없다. 조금 전 파우더를 덧바르고 파우치를 가방에 넣고 돌아서는 순간, 몸이 팽이처럼 돌아나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시 어지러울까 두렵다. 생각해 보니 요즘 자주 어지러운 것이 단지 병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혹시 가슴에 시간의 바코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처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삼각 김밥 표면에 ‘폐기’바코드를 찍는 것이 좋았다.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날짜 위에 ‘폐기’라고 찍어 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뿐이지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기 전에는 삼각 김밥 하나 사먹을 때도 여러 번 내

가 좋아하는 것을 집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놓곤 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는 '폐기'라는 바코드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어 짧은 순간 행복했다. 인간은 때로 삼각 김밥 하나에도 행복을 느낀다. 삼각 김밥 외에도 여러 가지 샐러드와 주먹밥 등 폐기 상품이 나오는 대로 집으로 가져가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식사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다. 어쩔 '폐기'음식을 너무 먹어 바코드들이 오류를 일으킨 지도 모른다. 또 손님이 없을 때, 무료할 때 수없이 리더기로 바코드를 찍듯이 내 가슴을 눌렀다. 그래서인지 꿈속에서도 가끔 나는 바코드를 찍고 있었다. 편의점에 계산하는 로봇이 등장한다는 뉴스를 본 뒤, 그날 밤 꿈속에서 손님을 맞는 로봇을 보았다. 손님이 편의점으로 들어와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전용 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면 딱! 요금이 자동 계산되고 동시에 자동으로 포장되었다. 편의점에 걸어 다니던 로봇이 다가와 내 심장에 바코드를 찍었다.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다. 또 어떤 날은 바코드 리더기가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었다. 바코드 찍는 소리가 딱!딱! 띵 띵! 딱! 딱!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로봇이 머지않아 바코드를 찍을 지도 모른다. 그전에 나는 일을 그만 뒤야 할 것 같다.

지금 일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는 그동안 많은 편의를 봐주었다. 그 편이에 나는 점주의 사소한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었다. 편의점은 원룸 형태의 오층 건물이다. 큰 도로에서 한 십분 걸어 올라가면 학교 복문이 나온다. 복문 바로 아래 편의점이 있다. 복문 아래로 별집처럼 원룸들이 마치 타운처럼 세워졌다. 기숙사는 기숙을 원하는 학생의 십 퍼센트도 수용하지 못했다. 방법이 없는 학생들은 비싼 원룸에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한다. 학생들은 밥값을 아끼려고 값싼 편의점 음식을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편의점은 규모가 작아도 원룸 층 덕분에 매출이 괜찮다. 일층은 편

의점이고 맨 위층에 주인이 살고 나머지는 원룸으로 주로 근처 대학생들이 월세를 들어 산다. 내가 오랫동안 이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와 가까워 차비가 들지 않고 식비를 아낄 수 있는 장점 때문이었다. 불편한 것은 점주가 같은 건물에 살기 때문에 가정의 사소한 심부름을 시켜서 남아있는 자존심이 구물거릴 때다. 편의점 수익과 원룸의 월세는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는 수익구조라 점주는 해마다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봄과 가을에 갔다. 그때 점주는 중학생 아들을 내게 부탁했다. 점주는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여러 가지 생필품을 챙겨준다.

“아침에 학교 갔는지 좀 봐주면 안 될까?”

라고 점주가 말할 때,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어정쩡한 자세로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부탁이었고, 다음에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

“냉장고에 고기랑 여러 가지 반찬 만들어 두었어, 잘 먹어야 머리도 돌아가지. 같이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좀 해줘. 자기도 영양보충도 좀 하고…”

점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선심을 쓰는 듯 말했다. 처음 수학문제를 물어보던 점주의 중학생 아들은 이제 직장인이 되었다. 군대를 갔다온 후 복학한 뒤 올 봄에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 자신이 스스로 벌어먹고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자존심과 관련된 일이다. 아니요, 라고 말 할 수 있는 자유가 훨씬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점주가 아들 수학문제를 좀 봐달라고 할 때 나도 시험기간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부탁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오히려 나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강의가 없는 휴일에는 종일 알바를 했다. 하루 종일 서 있잖니 다리 아프지 좀 쉬어, 라며 점주는 올라가서 쉬었다

가 오라고 했다. 이제 한 식구나 다름없잖아, 그 말에는 쉬면서 시험 공부하는 아들을 좀 봐달라는 의미였다.

“공부하는 것 옆에서 보다가 모르는 문제 한 두 개만 봐주면 좋겠는데…”

수학 한 둘 문제에서 고등학교 때는 물론이고 대학 리포트까지 봐주어야 했다. 이제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점주의 아들에게 난 더 이상 해줄게 없다. 그러나 여전히 난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고 있다. 이상한 일이다. 나도 분주히 움직이고 바쁘게 뛰었는데 출발선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 뒤에서 따라오던 점주의 아들은 나를 추월해서 저만치 가고 있다. 내 얼굴에 병색이 돌아 점주는 싫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마스크를 눈 밑까지 했다. 마스크를 하고 있다고 싫어하는 손님은 없다. 마스크는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는 예방이고 나에게는 방어인 셈이다. 사실 편의점은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손님이 계산대에 물건을 놓으면 나는 바코드를 찍고, 손님은 모니터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고 카드를 내게 건넨다. 하지만 마스크로도 병을 가릴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수입원은 편의점이 전부지만, 곧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될 것이다.

콘크리트 바닥이 나를 밀어내는 듯 발이 땅에 온전히 닿지 않는 느낌이다. 진료실이 이층이라 계단으로 갈 수 있어 다행이다. 엘리베이터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은 끔찍하다.

천천히 올라 왔는데도 숨이 차다. 계단을 올라오면서 몇 번을 쉬었다. 병이 나기 전까지는 계단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보니 나는 늘 바빠 걷거나 뛰었던 것 같다. 그런 나를 보고 경진은 버스 안에서도 땀 거라고 했다. 그리고 보니 경진은 늘 여유롭게 걸었다. 여유로움은 말할 때도 나타

났다. 경진이 전화하면 언제쯤 선배 이야기가 나오나 그것에 신경이 집중되었다. 사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선배소식이였다. 선배의 소식을 듣고 싶어 전화할 때도 경진은 자신이 여행 다닌 이야기를 오랫동안 한 다음 글썽 잘 모르겠어, 라고 했다. 응급실에서 선배를 봤다는 이야기를 한 이후 경진은 다시 만났는지 물었다. 그게 끝이었다. 이제 선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끔 얼굴을 볼 수도 있다. 선배 진료실은 이층 복도 양 옆으로 있는 내과 병동 입구에 있다. 내가 오늘 가는 혈액종양내과는 선배가 진료하는 심장내과와 대각선에 있다. 내과든 외과든 병원 대기실에는 언제나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인다. 그나마 대기환자가 적은 심장내과 의자에 앉아 우선 숨을 고른다. 원래는 예약이 수요일이었는데, 선배와 마주칠까 봐 화요일로 바꿨다. 선배는 화요일에는 휴진이였다. 진료실 앞에 ‘외래강의’라고 붙어 있다. 내가 건강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십오 년만이었다. 선배는 정말 좋아 보였다. 이제 삼각 김밥 같은 것은 먹지 않을 것이다.

입안에서 비릿한 맛이 느껴진다. 몸은 위험해지기 전에 내게 수없이 징후를 알려주었다. 그런 신호를 나는 여러 이유를 붙여 무시하고 외면했다. 일어나 몇 발자국 떼지 않았는데 다시 어지럽다. 속도 메스껍다. 오늘도 눈에 익은 몇 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대기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접수대에 예약증을 내밀었다. 사무실 안 오른쪽 벽면 거울로 내 얼굴이 비친다. 목에 두른 흰 바탕에 자잘한 붉은 꽃 그림이 문득 낯설다. 십 오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몇 군데가 헤졌지만 화사한 붉은 꽃만은 그대로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고개를 돌렸다. 대기실에 앉을 자리를 살폈다. 순간 눈에 크게 최 순심 할머니가 보인다. 나도 모르게 반가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다행히 할머니 왼쪽 의자가 비었다. 나는 할머니

와 보호자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내 인사에 반응 없이 할머니는 하던 말을 계속하고 보호자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다른 곳을 바라봤다. 머쓱한 얼굴을 돌리려니 그제야 보호자가 잊고 있었던 물건을 챙기듯 왔어요, 라고 간단하게 성의표시를 한다.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 때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할머니는 갈수록 인상이 사나워졌다. 처음에는 늙은 사람은 지금 죽어도 괜찮아, 젊은 사람은 아직은 아니지, 라며 나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할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쓸쓸하다. 별일 아니 것에도 집착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과대하게 희망을 갖는다. 할머니는 가끔 병원에서 나를 보면 동지라도 만난 사람처럼 살갑게 해주었다. 다정한 할머니가 그림다. 하긴 사람은 자신의 일이 절박하면 마음에 바늘 하나 꼽을 여유가 없다지 않는가. 혹시 피해의식이 아닐까 생각하고 다시 인사를 건네자 할머니는 건성으로 고개만 까닥인다. 할머니의 발병시기가 나와 같았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는 주사실이나 환자대기실에서 자주 만났다. 처음에 할머니 보호자는 나를 수 있다고 계속 희망을 이야기 했다. 그런데 요즈음 입장이 바뀌어 보호자는 말이 없어지고 할머니는 적극적으로 민간요법도 병행한 이야기를 환자대기실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한다. 그런 할머니를 보며 보호자는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 그렇게 절절하게 애원하던 보호자가 아니었다.

“급성이라 진행이 빠르네요. 삼 개월 정도 사실 수 있다고 하는데..., 일 년 만이라도 더 사시면 좋겠어요.”

말하는 보호자의 눈빛은 간절했다. 환자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 순간만은 환자들 모두에게 희망이 있기를 기원했다. 그 기원 덕분일까? 지금 보호자가 말한 시한이 지났다. 할머니는 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졌다. 보호자가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보

호자를 끌고 온 것 같다.

"진짜 용한 기라, 굿하고 며칠 뒤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찍어본 의사가 놀라서 입이 벌어졌다고 안 그라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가까웠다. 할머니와 보호자의 눈치를 보면 이미 한차례 논쟁이 있었던 모양이다. 보이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다.

"지금이야 어떤 시대인데, 그런 미신을 믿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보호자가 할머니를 보고 그만하라는 듯 말을 낚아채 잘라버린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한숨으로 췌기를 박는다. 할머니가 이내 시무룩해진다. 그런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안됐지만, 한편으로는 보호자 심정도 이해가 간다. 내가 알기로 할머니는 여러 신약 처방을 받은 걸로 안다. 신약이 나오면 보호자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감당해야했다. 나는 비싼 신약은 엄두도 못 냈다. 갈수록 몸에 힘이 빠지고 저항력이 떨어져 힘든 일은 할 수가 없다.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힘에 부친다. 조만간 그만둬야 할 것 같다. 문득 함께 세미나를 준비하던 연구원들이 잘 있는지 궁금하다. 처음 얼마간은 그들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다. 그들은 다들 건강할까?

세미나 준비기간에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세미나가 무사히 끝나자 긴장이 풀렸는지 한꺼번에 피로가 몰려왔다. 처음 어지러울 때 수면 부족인 줄 알았다. 몸이 아픈 것은 좀 쉬어라는 신호라고 경진은 늘 말했다. 하지만 약국에서 진통제나 항생제를 사먹고 다시 일을 했다. 간혹 코피가 오랫동안 멈추지 않을 때가 있긴 했었다. 세미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몇 번 코피는 났다. 세미나가 끝나고 회식자리로 이동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 화장을 고치려고 거울을 보는 순간 코에서 피가 났고 툭, 붉은 피가 세면

대에 떨어졌다. 벽면에 붙은 화장지통에서 화장지를 뽑아 코를 막는 순간 어지러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나를 본 동료가 놀라 택시를 불렀다. 괜찮다고 하는 나를 동료는 택시에 밀어 넣었다. 정말 혼자 갈 수 있어,라며 가족의 연락처를 묻는 동료에게 걱정 말라고 했다. 가족,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 딱히 연락할 가족이 없었다.

초등학교 이학년 때 이혼한 후 엄마는 늘 바빴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억세고 허름한 통바지를 입은 엄마가 아닌 이혼하기 전의 엄마를 떠올린다. 가녀린 몸에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꽃무늬 양산을 받쳐 들고 학교 운동장을 걸어오던 그 엄마. 이혼 후 엄마는 학교에도 오지 않았고 꽃무늬 양산도 쓰지 않았다. 낮에는 신발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밤낮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다. 엄마는 아빠에게 복수하듯 돈에 집착했다. 돈을 벌면 그 돈을 외삼촌에게 위탁했다. 증권사에 다니던 외삼촌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번듯한 증권사가 합병했고 외삼촌은 퇴출되었다. 알고 보니 외삼촌은 성과가 형편없는 펀드메니저였다. 엄마의 돈은 주식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외삼촌이 투자한 회사가 회생신청 했는데 실패했다. 그 회사는 상장폐지 되었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엄마는 몇 년 화병으로 병원을 다녔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대학교 이학년 때였다. 장례를 치르고 정산하니 한 학기 등록금과 월세보증금 천만 원이 전부였다. 엄마와 살았던 집은 이리저리 담보대출로 한 푼도 남지 않았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급했다.

혼자 병원에 가면서 동료들의 그 안쓰러워하는 표정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난 어렸을 때부터 혼자 병원에 갔고 혼자 기념일을 지냈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졸업식장에 갔다. 몸이 편안한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어색했다. 그래서일까 그때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보이는 도시의 불

빛이 꿈인 듯 비현실감이 들었다. 응급실에 갈만큼 아프지 않은데 택시까지 타고 가는 자신이 너무 여유를 부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택시는 응급실 앞에 나를 내려주었다. 응급실은 또 다른 세계였다. 분주하고 소란스러웠다. 접수하고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갔다. 간호사가 비어 있는 침대로 안내하면서 당직의사가 곧 올 거라고 했다. 한참 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다. 한 눈에도 남자는 바빠 응급실 여기저기로 불려 다니는 것 같았다. 옆 환자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내 옆으로 온 남자가 가만히 나를 쳐다 봤다.

나도 남자의 얼굴과 남자가 걸고 있는 신분증을 번갈아 봤다. 몇 번을 봐도 ‘심장내과 의사 김 영 우’라고 적혀 있었다. 선배를 갑자기 만난다면 서로 어떤 얼굴표정과 행동을 할까 이런저런 상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는 걸으로는 담담했다. 아니 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선배의 담담한 표정이 더 놀랐다. 어색한 순간에 간호사가 왔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선배가 내게 물었다. 나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환자와 의사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간호사가 여러 가지 추가로 물어봤다. 생리가 언제 끝났는지, 최근에 나타난 증상이나 먹은 음식 같은 것을 물었다. 선배는 간호사가 내게 질문하는 것을 지켜보고 내가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가 간호사에게 혈액검사한 뒤 보자고 한 후 가볍게 나에게 목례하고 옆 환자에게 갔다.

“보호자는 어디 있죠.”

라는 간호사의 말에 선배를 쫓던 내 눈이 간호사를 바라봤다. 내가 아무 말이 없자 간호사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선배가 혈액검사 후에 내게 오겠

다는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에게 한 말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보호자요”

간호사의 말이 비로소 뚜렷하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내 가로저었다. 또 간호사가 고개를 가웃했다.

“혼자 왔어요.”

내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긴 간호사가 돌아섰다.

“따라오세요. 수납하시고 영수증 데스크에 주세요.”

간호사를 따라가면서 조금 전 간호사의 말을 머릿속으로 암기했다. 수납하고 영수증은… 입속으로 말하면서 뒤를 돌아봤다. 선배는 보이지 않았다. 앞서 걷던 간호사가 다하시고 아까 그 침대로 가세요, 라고 말하더니 데스크 안으로 들어갔다.

수납하고 빈 침대로 왔을 때 데스크 쪽에서 고함이 들렸다. 선배 옆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있었다. 선배는 데스크 안에서 바빠 움직였다. 선배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허둥댈 정도였다. 스포츠머리를 한 건장한 사내들이 데스크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 소리를 지르는 건장한 사내들과 환자들 사이를 바빠 움직이는 간호사들, 그 비좁은 곳을 무슨 검사를 받기 위해선지 환자용 침대가 어렵게 지나갔다. 건장한 사내들은 당장 수술할 수 있는 의사에게 연락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고함소리가 들릴 때마다 겁에 질린 간호사들은 전화기를 붙잡았다. 그런 중에도 밖에서 환자가 계속 응급실로 들어왔다. 그 아수라장 같은 곳에서 간호사들은 채혈하고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는다고 침대사이를 오갔다.

간호사는 아주 사무적으로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가 낮아 혈소판 때문에 지혈이 안 되고 어지럼증이 생겼다며 혈액주머니를 링거 대에 걸었다. 노란 혈소판이 천천히 떨어졌다. 노란혈액이라니 마치 나에게 앞으로

조심하라는 경고 같았다. 혈액주머니의 액체가 반쯤 줄었을 때 머리뚜껑을 열고 누가 얼음을 부어넣은 것 같았다. 한기는 수혈이 끝나고도 한참동안 이어졌다. 간호사가 환자용 침대보를 두 장 덮어주었다. 수혈이 끝나자 얼마나 어금니를 앙다물었는지 잇몸이 아팠다. 시간이 지나자 한기도 가라앉고 몸에 열이 나고 기운이 돌았다. 그동안 짓누르던 피로도 사라졌는지 몸이 가뿐했다. 몸이 개운해지니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다 잘 될 것 같은 막연한 희망이 보였다. 사실 영 가망 없는 희망이 아니었다. 세미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어쩌면 모교에서 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간호사는 어느 정도 몸을 수습할 수 있으면 옷을 입고 수납하라고 했다. 진료내역을 건네주던 간호사가 꼭 외래로 정밀검사를 받아야한다는 말을 했다. 나는 간호사의 말을 근성으로 듣고 눈은 계속 선배를 찾았다. 선배는 보이지 않았다. 선배에게 인사를 못하고 나온 것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어쩔 전화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같은 기대감에 한동안 마음이 들떴다. 그런 기대감이 나를 지금까지 지탱한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점점 수혈이 힘에 부친다. 그나마 오늘은 할머니와 함께 주사실에 들어가게 되어 다행이다. 타인의 혈소판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 한기는 거의 사투에 가까웠다. 따뜻한 담요 한 장이 절실했다. 발끝에서 시작하는 차가움은 뺨속을 타고 머리끝까지 파고들어 모든 뼈를 얼음으로 만들었다. 얼음은 갈라져 송곳이 되어 살을 찌르고 훼손했다. 그럴 때마다 보호자가 없는 나를 보살펴주는 것은 옆에서 수혈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나 간호사였다. 가끔 최 순심 할머니 보호자가 나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불행은 더 불행한 사람을 보면 조금은 마음의 위안이 생기는지, 그 광경을 보던 최 순심 할머니의 얼굴에는 잠시 어떤 배려에서 오는 여유가 보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두운 터널을 건너는 얼굴이 되었다.

한기도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다. 가끔 나는 심장에 바코드가 있는 듯 바를 갖다대본다.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다. 시간은 수면 상태로 느리고 흐릿하게 흐른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세상의 표면에서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만기 삼 개월을 앞두고 불입하지 못한 채 끝난 적금과 얼마간의 월세 보증금을 남기겠지. 그렇게 열심히 뛰고 달리고 했는데,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마지막 정산이 엄마보다 못하다니.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던 것 중 하나가 여행이었다. 엄마는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다.

경진이 여행지에서 보낸 준 사진 중에 코타키나발루가 눈을 사로잡았다. 코타키나발루, 사진 속의 경진은 붉은 노을 속에서 손가락으로 브이를 해 보이고 있었다. 해변은 붉은 꽃망울이 터져 땅과 하늘을 가득 채웠다. 경쾌하고 활달한 경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직 경진은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있다. 언제 올 거야, 라고 내가 물으면 언젠가는, 하고 가볍게 말했다. 경진은 늘 명쾌하고 분명했다. 인생복잡하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 간단하게 생각해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하고 죽겠어. 아마 하나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걸 늘 핑계거리를 찾다가. 그 말 때문일까. 그날 이후 적금을 들었다. 적어도 경진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떠날 용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삼년 뒤에 노을 속에서 경진처럼 나도 브이를 계획하였다. 경진은 그런 내 계획이 우스울 것이다. 경진은 그곳을 한 번 더 갔다 왔다. 사려 깊은 경진도 가끔 다른 사람이 다 자신과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 순간 경진의 말에 어떤 오기 같은 것이 생겼다. 오기였지만 적금통장을 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때로 자신을 지탱하는 것이 아주 사소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는 순간이다, 그전에

는 무조건 정규직인 전임강사가 되면 경진처럼 살 거라고 다짐했다. 시간 강사는 사대보험도 안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우리끼리는 그렇게 불렀다. 나처럼 편의점 알바나 식당 서빙이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강사가 많았다. 정규직이 된다고 해도 경진처럼 십 년 만에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다닐 수는 없을 것이다. 경진은 퇴직금이 떨어지면 돌아올 거라고 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걸어 다니고 또 가끔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했다. 여행이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왜 내가 떠나왔는지 집이 그림다고도 했다. 그래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떠날 수가 있지, 라고 말해주었다. 며칠 뒤 경진은 물집이 생긴 발가락과 검게 그을린 얼굴과 멧진 사막 소금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보내왔다. 걸었던 고통만큼 아름다웠어. 라며 흥분된 어조였다. 소금사막도 나를 사로잡았지만, 무엇보다도 코타키나발루의 붉은 노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실 소금사막은 내 지출 범위를 넘어섰다. 강렬한 태양보다는 내 어깨를 어루만져 주는 부드러운 붉은 노을. 지금이라도 병원 대신 코타키나발루로 갈 수 있을까? 윤 박사는 여행에 반대할 것이다. 윤 박사는 혈액종양전문의지만, 뾰족한 치료방법을 아직 찾지 못한 것 같다.

좁처럼 대기환자가 줄지 않는다. 예약시간이 지났는데, 불만이 있어도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길어지면 예약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짜증이 난다. 속이 메스껍다. 그래서 신경이 예민한지도 모른다. 몸에는 다 소화되지 못한 약이 조개 무덤처럼 쌓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식사 때가 지나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방부제 때문일지도 모른다. 편의점에 오는 엄마들 대부분은 삼각 김밥을 집는 아이에게 엄포를 놓는다. 자꾸 그런 음식을 먹으면 방부제 때문에 죽어도 썩지 않고 아니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윤 박사는 진료카드를 보더니 미간을 찡그린다. 혈소판 수치와 백혈구 수치가 더 떨어졌네, 라며 모니터에 있는 그래프와 수치를 바라본다. 난감한 표정으로 한 손으로 턱을 만지기만 한다. 그런 그가 지루하다. 나는 그와 같이 어떤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는 거짓 표정을 짓고 싶지 않다. 이민난 사막 한 가운데에 있고, 그 사막의 지도 위에 오아시스 좌표 따위는 없다. 그래도 윤 박사는 계속 사막을 걷게 할 것이다. 오늘도 윤 박사의 처방은 수혈이 최선이다.

주사실은 복도 끝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한다. 먼저 진료를 받은 최순심 할머니는 주사실에 누워 수혈을 받고 있다. 빈 침대에 가서 누우라는 간호사의 말에 나는 최순심 할머니 옆 침대로 갔다. 간호사가 팔을 들어 옷을 걷어 올리자 약간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간호사는 혈관을 찾지 못해 여러 번 주삿바늘을 꼽았다 뺐다. 잦은 채혈과 수혈로 이제 혈관도 숨은 모양이다. 간호사가 한 손은 내 팔목을 짚 쥐고 다른 손바닥으로는 잡은 팔목 위를 탁탁 친다. 희부연 팔목 위로 가늘고 연약한 푸른 정맥이 물속 수초처럼 희미하게 보인다. 계속 실패하자. 간호사가 초조한 듯 보였다. 나는 혈관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내 탓 인양 미안해졌다.

“혈관이 가늘어 힘들죠.”

내 말에 간호사가 아무 대꾸하지 않는다. 그러니 더 간호사에게 눈치가 보인다. 보호자가 없는 환자는 간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편한 노릇이다. 어디서 빌릴 수 있다면 보호자를 빌리고 싶었다. 외삼촌에게 연락도 없이 지내다 아프니까 와줘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외삼촌도 쉽게 재기하지 못했다.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었다. 마침내 간호사가 링거에 연결된 주삿바늘을 반창고로 단단하게 고정한다. 간호사가 돌아서면서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듯

다. 주삿바늘을 뽑기 전에 간호사는 내게 보호자는요, 하고 물었다. 나는 없다고 말했다. 전에 있던 간호사가 아니었다. 나는 갑자기 그녀에게 화가 났다. 어떤 누구에게도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나 싫다. 그런 대상이 되지 않게 나는 노력하고 노력했다. 속으로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라고 간호사에게 툭 쏘아붙이고 싶다. 나는 어금니를 깨물며 침대에 눕는다. 터무니없이 냉정해지는 마음 한편으론 뜨거운 무엇인가가 터질 듯이 치밀어 오른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오나가나 동정을 받는 신세가 되다니. 복잡해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링거에 연결된 고무 튜브를 본다. 노란 혈액은 천천히 한 방울씩 떨어진다. 어쩌면 저 노란 혈액은 내 안에서 꽃처럼 피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지도 모른다. 점점이 떨어지는 노란 방울은 개나리 꽃잎 같다. 개나리는 봄이 되면 담장 밑이나 축대 밑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마치 봄의 전령 같은 꽃이다. 잠간이지만 선배가 내 인생의 노란 개나리였다. 요즈음 선배와의 일은 사소한 것까지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다. 정말 그 시간이 존재하는 것일까. 내 기억의 오류는 아닐까. 선배와 함께 먹었던 삼각 김밥...

편의점 벽 시계가 열두 시를 가리키면 나는 마음이 바빠졌다. 삼각 김밥은 폐기라고 찍힌 그 순간부터 부폐가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교대하고 서둘러 선배가 있는 도서관으로 갔다. 시험 때는 도서관을 24시간 개방했다.

우리는 월파원 달빛 속에서 삼각 김밥을 먹고 다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 내가 건네 삼각 김밥을 선배는 말없이 중간에 빨간 띠를 한 바퀴 돌려 떼어 낸 후 양쪽으로 잡아 당겨 포장지를 매끈하고 완벽하게 벗기어 내게 먼저 먹어라 주었다. 선배에게 간식을 주는 핑계로 그를 만날 수 있어 좋았다. 선배는 모를 것이다. 내가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편의점

근무 시간을 저녁타임으로 바꾼 것을. 학교 근처 편의점은 24시 영업한다. 원룸이 많았고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다. 선배도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다가 잠시 월파원을 걷었다. 월파원은 야외박물관이다, 월파원을 잠시라도 걷다보면 새로운 기운이 생긴다고 했다. 선배의 말로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월파원에 상서로운 기운으로 남아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시간의 질량에 대해서 말했다. 복잡한 물리학을 이해 할 수는 없었지만, 선배와 이야기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몰랐다. 선배는 외사촌인 경진이 집에서 다녔다. 경진이 집은 학교 서문 쪽 부유한 주택 촌에 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집에 들어가 보고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는 이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진이 우리아빠가 부자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부자인거야, 라고 했던 말이 이해되었다. 경진의 집은 안에 들어가면 사람을 위축시켰다. 삼각 김밥을 먹는 선배의 옆모습에 마음속에서 수많은 꽃들이 폭죽처럼 터졌다. 선배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주로 경진의 입에서 선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작은 도시에서 생선 노점을 하는 어머니는 선배가 의사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다. 선배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고 먹는 시간 외에는 공부에 매달렸다. 선배를 보기 위해서 나는 아르바이트가 없는 시간에는 도서관으로 갔다.

시험 기간이었다. 늦은 시간 월파원 아래 연못가에서 둘이 삼각 김밥을 먹었다. 마지막 시험이라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선배는 다른 날과 달리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이야기 도중 멈춰버렸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눈치였다. 선배는 가방에서 무엇인가 꺼냈다. 스카프였다. 그는 포장을 벗기고 스카프를 내 목에 감아 주면서 축스러워했다. 밥값이라고 했다. 다음 학기부터 본과 수업인데 병원에 부속된 강의실에서 수업이 있다고 했다. 둘이 잘 돼서 만나면 좋겠다. 그가 한 여러 이야

기 중에 그 말만 기억났다.

졸업 후 경진은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고 백 여 곳에 면접을 보고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했다. 난 대학원에 진학했다. 석사를 마치고 전문대학에 강의도 나가게 되었다. 그것으로는 학비와 생활이 어려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가 없었다. 몇 년 뒤 경진은 사는 게 너무 권태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배가 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모두들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해서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다. 나도 그렇게 무난하게 달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끝이라니. 질량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다. 선배의 말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을 너무 앞당겨 쓴 것일까. 내 시간이 어디로 이동하는 것인가.

열이 식으면서 몸에 한기가 들기 시작한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한기는 뺏속까지 파고든다. 내가 몸을 떨자 최 순심 보호자가 발치에 있던 환자용 이불을 끌어 목까지 덮어준다. 몸이 따뜻해지니 눈이 절로 감긴다. 이대로 잠들어 깨어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잠결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머리를 관통한다.

"간호사, 간호사! 사람 죽는다고. 이 피! 피!"

최 순심 할머니의 숨넘어가는 소리가 주사실을 쩡쩡 울린다. 나는 겨우 눈을 뜨고 할머니 쪽을 본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할머니와는 달리 간호사는 담담하게 주사바늘을 다시 뽑고 반창고로 고정한다.

"그러다가 또 빠지면, 다른 주삿바늘로 바꿔 어서! 피가 한바가지는 되겠어. 이일을 어찌나. 이일을 어찌..."

할머니는 금방 어떻게 되더라도 할까봐 큰소리다. 잠결에 할머니가 몸을 뒤척이다 주사바늘이 빠져 혈액이 역류되어 침대시트를 적신 것 같다. 내가 보기에 많은 양의 피가 시트에 묻어 있다. 할머니는 보호자가 자신

이 죽기를 바란다고 억지소리를 한다. 보호자는 지루한 시간을 견디다가 잠시 눈을 붙인 것 같다. 할머니 소리를 듣다 못한 보호자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할머니는 연신 주삿바늘이 꼽힌 손을 바라본다. 그동안은 나도 수없이 두려웠고 공포에 가위가 눌린 적도 있었다. 끝날 것 같지 않지만 결국 끝나는 일이다. 문득 월파원에 가고 싶어졌다.

나는 버스를 타고 모교에 왔다. 본관까지 천천히 걸었다. 몸 안에서는 노란 혈액이 터지기 시작한 것 같다. 몸에 힘이 생긴다. 본관에서 보니 왼편에 월파원이 있고 그 위에 도서관이 보인다. 오른쪽 아래로 연못이 있다. 연못 의자는 등나무 파고라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나는 왼편으로 걸어갔다. 야외박물관 월파원은 사방으로 길을 만들어 놓았고 잔디밭에는 불상, 석탑, 비석, 문인석, 주춧돌 등 각종 신라 시대 석조문화재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천 년의 시간 동안 비에 씻기고 바람에 풍화된 모서리가 둥글게 마모된 석탑이 많다. 다스한 햇살이 사방으로 퍼진다. 부드러운 바람이 뺨을 어루만져준다. 문득 천 년의 시간이 내 몸속으로 스며든다. 여래좌상 앞을 지나던 이십 대의 여학생이 걸음을 멈춘다.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한다. 무엇인가 원하는 사람의 몸에는 힘이 느껴진다. 당당하고 건강해 보인다.

나의 원은 무엇이었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 역에나 내려서 들판이나 꽃길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코타키나발루를 가보는 것 정도다. 어렵지 않은 것인데 쉽게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주삿바늘을 더 이상 꼽을 자리가 없을 때까지. 수혈을 받을 수 없는 날이 올 때까지 살아남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

새 한 마리가 탁 위에 앉는다. 어쩌면 저 새는 천 년 전에도 저 자세로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른 곳으로 날아가 봤을까? 새는 날아 조금 전 여자가 합장한 여래좌상의 어깨 위에 앉는다. 새를 보던 눈이 피곤하다. 모처럼 많이 걸어서 다리도 빠근하다. 앉을 의자를 찾아본다. 연못가에 의자가 보인다.

연못은 노을에 조금씩 물들다가 온통 붉어졌다. 연못에 비친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다. 문득 연못 속에 스카프를 목에 두른 내가 있다. 스카프를 풀어 가만히 손으로 쓸어본다. 선배는 무슨 생각으로 내게 스카프를 주었을까? 밥값 단지 그것이 전부였을까? 그동안 삼각 김밥 잘 먹었고, 우리 잘 돼서 보자. 난 선배 말처럼 잘 돼서 만나고 싶었다. 몇 년 전 경진이 선배가 결혼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오빠가 효자잖아, 고모 소원대로 같은 의사와 결혼했어. 오빠도 고모도 고생 많았는데 잘 됐지. 그 뒤로 나도 오빠를 보지 못했어. 고모는 가끔 오는데 집안 일이 있어도 오빠 내외는 안 와. 아마 바쁘겠지. 오빠가 결혼하고 고모도 장사를 그만두었어. 오빠 사돈덕이 싫어했나봐. 고집 센 고모가 장사를 접은 것을 보면 오빠 자존심이 먼저였겠지. 눈으로 안 봐서 그런 가 선배가 결혼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큰 도로 건너 집으로 올라가는 입구 편의점 유리문을 통해 안을 본다. 요즘 편의점이 보이면 습관적으로 안을 보게 된다. 대부분 젊은 학생인데 가끔 나이든 사람이 노란조끼를 입고 바코드를 찍고 있으면 어떤 안도의 숨이 나온다. 가방에 삼각 김밥이 만져진다. 오전 교대할 때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꼭 폐기하라고 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적으로 당부했다. 어쨌든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

면 꼼꼼히 살펴야한다.

유독 그해 여름이 무더웠다. 설사가상으로 매장에 에어컨이 고장 났다. 서비스센터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었다. 유통기간이 지난 것에 폐기코드를 찍고 몇 개를 가방에 넣었다. 방송에서는 몇 십 년 만에 온 더위라고 했다. 서비스센터에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 방문은 다음날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 냉장고 한쪽에 밀어 넣었다. 다시 냉장고를 열어 혹시 손님 손에 닿을까봐 제일 뒤쪽에 배치했다. 오후에 손님이 많았다. 더군다나 편의점 안이 밖이나 다름없이 덥자 예민해진 손님들은 인상을 찌푸렸다. 냉장고 쪽에서 큰소리가 났다. 얼굴에 연신 땀을 닦으면서 검정 라운드 반팔 티에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삼각 김밥을 손에 쥐고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다. 나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식파라치였다. 내가 넣어두었던 김밥이었다. 더군다나 폐기 등록한 김밥을 재판매하다니. 사과와 변명이 통하지 않았다. 결국, 점주가 내려와 십 만원을 손에 쥐어 주었다. 그 뒤로 점주는 유통기간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노란조끼를 입은 낮익은 얼굴이 나타난다. 창백한 얼굴이 유령 같다. 노란조끼는 주변에 불이 꺼지자 삼각 김밥을 까먹는다. 노란조끼를 입은 여자를 자세히 보니 나다. 나는 소스라쳐 몸을 떨었다. 다시 편의점 안을 들여다보니 바코드를 찍는 여자는 고등학생인 듯 나이가 어려 보인다. 선배가 외면한 것은 편의점 안의 창백한 유령이 아닐까. 선배의 그 시간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고 난 통조림처럼 만들어 놓았다. 응급실에서 만난 후 한 달 뒤, 이층 내과병동에서 우연히 선배를 만났다. 지금 생각하니 선배 진료실도 이층이니 우연이 아니었다.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반갑고 또 조금은 부끄러웠다. 그때는 병이 심하지 않았다. 반가운 나는 선

배 쪽으로 다가갔고 선배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나도 가던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선배가 내 앞을 지나갔다. 그게 전부였다. 의사와 환자. 그때의 우리는 그 정도의 사이.

가방 안에 삼각 김밥이 생각났다. 또 병의 원인이 삼각 김밥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 동안 폐기 된 편의점 음식을 너무 먹었다.

지나가는 사람과 어깨가 살짝 부딪혔는데 돌아보지 않는다. 다들 바쁘게 썬베이어 벨트 위의 부품처럼 레인을 따라 가는 사람 같다. 사람들은 모두 인형같이 무표정이다. 천천히 나는 골목을 걸어올라 갔다. 가끔 다니던 길이라서 그런지 낯설다. 도로변과는 달리 골목으로 올라갈수록 율림 사이가 좁아진다.

나는 이 골목을 벗어나지 못했다. 어쩌면 더 형편없는 곳으로 가야할지도 모른다. 아주 가까운 시일 내로, 주택가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아침보다 더 형편없어 보인다. 비릿한 냄새가 났다. 속이 역겨워서 고개를 돌렸다. 전봇대 옆에 투기한 쓰레기더미에서 악취가 난다. 또 어디선가 고양이 소리가 났다. 신음소리 같았다. 전봇대 바로 옆 벽과 벽의 틈 사이에 무엇인가 움푹이는 것이 보였다. 전봇대 빛으로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가 보였다. 덩치가 큰 고양이가 벽 사이에 낀 꼴이 되었다. 자세히 보니 몇 달 전에 사라진 양양이다. 입술 주변에 칼로 베인 듯한 큰 상처가 있는 것이 분명 양양이다. 편의점 밖 아이스크림통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참치 캔이나 소시지를 주었다. 한번은 뚜껑을 다 제거하지 않은 참치 캔 때문에 고양이 입술에 상처가 났다.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참치 캔이 아니었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놓고 간 것 같았다. 그 이후 나는 수시로 고양이 밥을 확인했다. 고양이 상처는 오래갔고 흉터가 남았다. 가만히 보니 살이 찢는 것이 아니라 불룩한 배는 임신이다. 어디서 어떤 고양이에게

임신이 된 것일까. 불룩한 배 때문에 벽 사이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 벽 안 쪽은 넓었다. 그냥 안쪽으로 몸을 밀면 상처가 생길 것 같다.

나는 우리 편의점으로 갔다. 문을 열고 간단하게 설명한 뒤 냉장고 옆에 있는 박스 두 개를 들고 고양이한테 갔다. 내가 이리저리 손으로 박스를 고양이 몸 옆으로 밀어 넣어도 고양이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지 그대로 있었다. 벽과 고양이 사이에 박스 한 면을 밀어 넣었다. 조심스럽게 박스를 잡고 안쪽으로 밀었다. 다행히 고양이는 넓은 곳으로 나왔다. 박스를 고양이 앞에 세웠다.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박스 안으로 밀었다. 박스는 넉넉해서 고양이 서 너 마리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때 고양이 눈에 광채가 났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사람이 있으면 낳은 새끼를 죽인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다시 고양이가 눈치 채지 않게 벽에 기대어 벽과 벽 사이를 살폈다.

오늘밤에 고양이는 새끼를 낳을 것이다. 내일이면 고양이는 가족이 생기겠지. 고양이도 내가 준 삼각 김밥을 많이 먹었다. 나는 힘내라는 말을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고양이가 무사해야 하는데. 집으로 오는 내내 그 생각을 했다. 그 순간에도 혹시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지 자꾸 뒤를 돌아봤다.

면역에 취약하기 때문에 밖에서 돌아오면 우선 씻어야 한다. 따뜻한 물 줄기가 피부에 닿는다. 따뜻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문득 순심 할머니에게 인사도 않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내가 나올 때까지 할머니와 보호자는 서로 말도 않고 있었다. 할머니는 갈수록 수혈 시간이 길어졌다. 혈관이 약해서 그런지 나이가 있어 그런지 수혈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수

헐하곤 했다. 할머니도 같이 온 보호자도 점점 말이 없어졌다. 그들은 끝이 보이지 않은 터널 속에 있는 사람 같았다. 나도 마찬가지다. 불행한 것은 결코 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앞으로만 가야한다는 것이다. 발병 초기에 보호자가 할머니에게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가족여행도 많이 다니자고 했다. 할머니는 그러다가 더 나빠지면 큰일 날 소리라고 펄쩍 뛰었다. 할머니는 일 년 동안 주사바늘을 꼽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것이다. 노트북을 연다. 소식을 먹으면서 해변을 볼 수 있는 근사한 호텔을 검색해본다. 여행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은 하루 일과 중의 하나다. 아침에 커피 마시기 좋은 호텔라운지를 검색한다. 저녁이면 해변으로 나가 일몰을 봐야지. 몸이 점점 피곤해진다. 잠이 든 순간 내 몸속에서 혈소판이 다 깨어지는 꿈을 수시로 꾸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걸어온 길을 떠올려본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 늘 일을 했는데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나는 선배처럼 나아지지 않았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다. 대학에 다니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못해봤다. 잠이 안 온다.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여행상품 예매하기를 누르려는 순간 고양이 소리가 들렸다. 또 누군가 응급실로 가고 있는지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고양이 때문에 울리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이번 고양이 소리는 달랐다. 새끼를 낳았는지 울음소리가 다르다. 나는 일어나 가방에 삼각 김밥을 챙겼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류 보 선



수상소감

많은 예술적 활동의 속성이 그러하겠지만 글쓰기는 고독과 깊이 상관된 작업이다. 홀로 처음도 끝도 없는 세계를 탐험하다보면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기능하기도 힘들고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이라도 제풀에 지쳐버리기 쉽다. 그러므로 스스로와 타인에 대하여 쉽게 정의내리지 않으려는 야성적 사고만이 이 세계를 구원하는데 있어서 계승자에게만 전수되는 비전의 마법이자 그를 매너리즘에서 구원하기 위한 치료약일 것이다. 이번 상이 내가 추구하는 글쓰기의 방향성에 대하여 세상에 던진 질문에 주어진 응답이라 여기고 아직 남아있는 긴 모험의 여정을 탐미토록 하겠다.

안개비

이른 새벽부터 산 아래 동네에는 장막처럼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분가루처럼 미세한 빗방울이 눈앞을 가리고 코와 입으로 스며들어와 몇 발짝 옮기기도 숨이 찼다. 하지만 김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리어카를 끌며 열 번도 넘게 언덕길을 오르락내리락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연신 흐르는 땀을 닦는 노인의 모습은 흡사 소나기를 흠뻑 맞은 고목나무 같아보였다.

그는 오늘따라 다리가 더욱 무거웠다. 빗물에 불어터진 폐지를 줍다 잠깐 정신이 나간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길게 한 숨을 내뿜고는 내친 김에 꼬깃꼬깃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허름한 조끼 주머니에서 꺼내 물었다. 깊숙이 담배연기를 빨아들였다가 ‘후!’하고 내뿜자 답답한 가슴이 조금 이나마 진정되는 듯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껌씹하기 짝이 없었다.

“망할 놈의 할망구!”

오전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면 점심 때 즈음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약국건물에서 폐지가 나올 시간이 되었다. 노인이 건물 주변의 쓰레기를 치워주었기 때문에 약국도 그가 폐지를 가져가는 것에 입을 대지 않았다. 조금 전에도 당연히 건물 앞을 지나가며 주변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건물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이 웬 추레한 할망구가 손수레에 자신이 정리해놓은 것들을 착착 주워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보소! 그거 내가 가져가려고 모아놓은 거요!”

김 노인은 다급한 마음에 박스를 집어 드는 노파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런데 이 할멈이 가는귀가 먹었는지 자신의 말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오히려 종이 박스를 차곡차곡 접어 수레 위에 쌓는 것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노파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짝 틀어쥐었다.

“아니, 시방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요?”

그제야 할멈은 동작을 멈추고는 김 노인을 돌아보았다. 약간 얼이 빠진 것 같은 표정의 노파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짹 지르며 거칠게 손을 빼냈다.

“어딜 잡는 거야?! 어딜?”

“뭐..... 뭐시라?!”

새끼 벤 암고양이 같이 드센 노파의 반응에 당황한 김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몇 걸음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영큼한 영감쟁이 같으니라고! 내가 폐지나 줍고 다닌다고 얄보는 거여?! 감히 어딜 잡아?!” “이, 이 할망구가 미쳤나? 남에 물건에 손을 댔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어디다 대고 헛소리야, 헛소리가!”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대머리 약국 주인이 문을 열고 힐끔 내다보는 모양이 김 노인의 뒤통수에 어른거렸다. 주변을 시끄럽게 해서는 자신에게 이롭지가 않을듯하여 노인은 무작배기처럼 방방 날뛰는 노파를 달래려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이보소. 그러지 말고 잠시 내 말 좀 들어보소. 원래 여기는 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터를 닦아 온 곳이다 이 말이오.”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 폐지에 주인이 어디 있나요? 먼저 보는 놈이 임자지! 그 짝이 온 동네 고물에 침 발라 났다요? 욕심도 정도껏 부러야지. 그러다 벼락 맞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는 청소도 하고 또.....”

“폐지에 뭘 노무 주인이 있다고 득세요? 득세가!”

노파는 실 틈을 주지 않고 김 노인을 몰아붙였다. 당최 말이 통하지 않을 성 싶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도 하나 둘 모여들어 두 노인의 싸움을 흥미롭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마음이 다급해졌다.

“하, 이것 참. 내가 정리해놓은 걸 보면 모르겠는가?”

혹시나 약국 주인이 자기편을 들어줄까 싶어 힐끗 뒤를 돌아보기도 했으나 그는 볼록 튀어나온 배를 쓰다듬으면서 폐지 따위야 누가 가져가든 별로 상관없다는 듯 심드렁한 표정으로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다. 이럴 때 한 마디라도 거들어주면 좋으련만 김 노인의 바람과는 다르게 상황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큰 리어카에 꽤 묵직한 폐지더미들을 쌓아놓은 자신과 달리 작은 손수레에 신문지며 별 무게도 나가 보이지 않는 허접스레기들을 싣고 있는 노파는 주위사람들이 보기에 동정표를 얻을 만 했다.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한두 마디씩 그녀를 거들기 시작했다.

“영감님, 거 양보하시죠. 리어카에 꽤 많이 모으셨구만.”

“적당히 나눠가지세요. 혼자 다 하시면 됩니까? 할머니가 먼저 보셨는데 반반씩 하시면 되겠네요.”

“하하, 그게 아니구, 여긴 내가 몇 년째 이렇게 청소도하고 정리도하고.....”

김 노인이 얼굴이 벌게져서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는 사이에도 할멈은 바지런히 종이 박스를 접어 손수레에 싣고 있었다. 수레가 작아 더 이상 실을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할멈은 꺽꺽거리며 무게가 나가 보이는 큰 박스들을 접어 빈틈에 쑤셔 넣고 있었다. 그는 그걸 보며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어흠!’하고 큰 기침을 내뱉고는 그만 자리를 떠버렸다.

오늘은 재수 옴 붙은 날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만 다시 할뎀을 생각하면 꽤 씹하기 그지없었다. 도대체 어디서 저런 되먹지 못한 것이 나타나서 이 창피를 보게 한단 말인가? 몇 년 동안 온 동네의 쓰레기를 청소해주면서 인심을 얻어 이제 폐지를 수거해가는 날도 받아놓을 만큼 단단히 자리를 잡은 판인데 웬 휘방꾼이 갑자기 나타나 그동안의 노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김 노인은 담배를 땅에 비벼 끄고는 가래침을 탁 뱉었다. 다음에 만나면 본뎀을 보여줘야지! 지랄 맞은 할망구 같으니라고!

노인이 비에 축축하게 젖은 빈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항상 어둑하니 늦은 저녁이 다 되어서였다. 하루 종일 모은 폐지와 빈병, 고철들을 고물상으로 가져가서 값을 매기고 그것으로 그날그날 필요한 생필품들을 사서 돌아가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물 값도 떨어지고 경쟁도 치열해져서 하루 돈 만 원 벌이가 쉽지 않았다. 자신에 비해서 한참 젊은 축인 오육십 대도 폐지를 모으러 돌아다니는 판이다. 형편이 그러하니 남들보다 일찍 나와 온 몸이 빠근하게 돌아다녀야 저녁 찬거리라도 살만한 품삯이 손에 떨어지는 것이다.

김 노인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보증금 백 만 원에 월세 십 만 원 짜리 단칸방으로 여름엔 쪽창을 열어도 푹푹 찌는 날씨 탓에 선풍기 없이는 숨을 쉬기 어려웠다. 그나마도 전기세를 아낀다고 잘 틀지 않았기에 방 안은 저녁이 되어도 낮의 열기가 가시지 않아 밤이고 낮이고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안개가 짙게 끼는 언덕에 위치한 탓에 천정과 벽에 시커멓게 피어대는 곰팡이도 더위 못지않은 괴로움이었다. 이런 지경인데도 밀린 월세를 맞추느라 김 노인은 찬물에 말은 누른 밥에 신 김치를 찬 삼아 저녁을 때우기가 일쑤였다.

오늘도 수입이 형편없는 터라 빈손으로 집에 올라가는 길은 다리가 천

근만근이다. ‘집나간 손주 녀석이라도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기라도 할 텐데.’ 이십년도 훨씬 전에 전기 기술자였던 외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뜬 후 며느리는 집을 버렸다. 암에 걸렸던 시어머니와 갓난 아들을 돌보기가 버거웠으리라. 게다가 물려받을 재산은 커녕 빚만 잔뜩 쌓여있는 집안이었으니 말해 무엇 하랴. 어찌 보면 자신이 못한 탓이었다. 김 노인은 젊었을 적에는 사우디에서 건설 노동자로도 일했었고 태평양을 누비는 원양어선을 타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꽤 착실히 돈을 모아서 규모 있는 전파상을 내기도 했으나 이리저리 보증을 잘못 서준 것이 화근이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채권자들에게 가게를 넘기게 되었고, 남아있던 집은 아내의 병원비로 날아가 버렸다. 김 노인의 정성어린 병구완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린 손주 하나만 덩그러니 그의 몫으로 남았다. 그 후로 칠십이 넘은 나이에 어린 것을 돌보느라 아파트 경비부터 배달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건만 머리가 크고 나서부터 손주 녀석은 밖으로만 나돌았다.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가끔씩 얼굴에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이고 돌아와서 고꾸라져 자기도하고, 술 취해 와서는 용돈을 타 가기도 하더니 삼 년 전부터는 아예 집에도 발길을 끊어 버렸다. 혹시나 잘못된 것은 아닌지 경찰에 신고도하고 시시때때로 지구대에 들러 안부를 묻곤 하였지만 그때마다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다. 전화는 받지 않고 그저 공허하게 신호만 울릴 뿐이었지만 김 노인은 매일 잠들기 전 한 통씩 전화를 넣고 돌보기를 쓴 희미한 눈으로 문자를 찍어 남겨놓곤 했다.

‘몸 건강히 있느냐? 할애비도 잘 있다. 일 없으면 집에 한번 들러라.’

하지만 언제나 문자에는 답이 없었다. 발신 신호가 가는 것만으로 손자가 잘 있으려니 하고 믿는 수밖에. 무릎이며 어깨며 온 몸에 파스를 붙이

고 나서야 김 노인은 잠을 청할 수 있었다. 혹시 내일 손자 녀석이 찾아오는 않을까 싶어 용돈을 주려고 꾸깃꾸깃한 만 원짜리 몇 장을 장판 밑에 고이 모셔두고는 눈을 감았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집 밖 담장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것이 나기 시작했다. 김 노인은 설 잠이 깨어 몸을 뒤척였다. 고양이 새끼인가? 좀 있으면 멈추겠거니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그치지 않고 더 울어대는 통에 잠이 완전히 달아나버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곧 일어나서 동네를 돌아야 할 시간이다. 김 노인은 대충 옷을 챙겨 입고는 밖으로 나가보았다. 가로등이 비치는 담장 밑을 살펴보니 등짝은 검고 배는 흰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눈을 뜨지도 못하고 처량하게 울고 있었다. 부슬비를 흠뻑 맞아 털이 속까지 축축하게 젖어있었다. 어미가 버리고 간 것인지, 배가 고파 우는 것인지, 노인이 한참을 보고 있는데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걸 어쩐다? 김 노인은 일단 밖에 나갈 채비를 마치고 다시 나와 보았으나 녀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눈곱이 가득 낀 파란 눈을 껌벅거리길 뿐이었다. 외견상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무더운 날씨에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몸뚱이가 바싹 말라비틀어져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거 원, 밥이라도 먹여 보내야겠군.

노인이 밥을 물에 말아주자 밥알을 하나 둘 주워 먹는다. 하지만 새끼라 서인지 곧 퉁퉁거리며 뱉어내는 통에 삼키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다. 김 노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급히 근처의 구멍가게로 달려가서 우유 한 통을 구해왔다. 그리고는 작은 그릇에 나누어 담아 고양이 앞에 내밀었다. 그제야 녀석은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그릇 앞으로 다가가 할짝거리며 우유를 핥아먹기 시작했다. 노인은 당분간 집에 녀석을 놓아두기로 했다. 기력만 찾으면 이내 밖으로 나가 버리겠지. 들짐승이 무삼 정이 있겠누? 노인

은 혹시나 어제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이 되어 서둘러 일을 나섰다.

다행히 염치없는 여편네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순조롭게 동네를 돌며 쓰레기를 치우고 해가 어둑해질 때 즈음에는 리어카에 한가득 폐지며 고물을 싣고 가서 값을 매길 수 있었다. 조금이나마 마음이 든든해진 김 노인은 마트 앞을 지나다 작은 참치 캔 하나를 샀다. 사람도 먹지 못하는 것을 웬 짐승에게..... 이런 생각도 하였으나 마음 한 구석 집나간 손주 녀석이 어디서 배라도 굶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걱정에 같은 새끼인 갓난 고양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끼를 버리고 맘 편히 갈 것 같으나? 무심한 것들..... 그러다 보니 일찍 세상을 뜬 자식과 마누라 생각이 나 또 다리가 무거워졌다.

어쩌다가 인생이 이리 박복하게 풀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팔십을 바라보는 노인이 더 바랄 것이 무어 있겠냐는 생각에, 또 젊은 시절 오대양 육대주를 누벼보았던 그이기에 지나온 세월에 후회나 미련은 없었다. 따지고 보면 인간사가 어디 뜻대로 되는 것인가? 닥치는 대로 살아왔으니 좋은 것도 보았고 나쁜 것도 보았다. 하지만 아직 내 두 다리로 벌어먹고 있으니 힘은 들어도 방구석에 누워 먼 길 떠나기만 기다리는 노인네들보다야 나은 편이라고 스스로 위로도 하였다. 게다가 적적하던 차에 어린 짐승이 찾아왔으니 제 발로 나가기 전까지는 돌보아주리라고 마음먹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녀석은 접시에 따라주었던 우유며 물에 말아주었던 밥알을 싹 먹어치우고는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있었다. 노인이 손을 대자 살짝 고개를 들고는 혀로 손바닥을 핥기 시작했다. 한참을 그러다가 몸을 노인에게 기대 비벼대는 것이 무척이나 앙증맞았다. 마트에서 사온 참치 캔을 따서 밥에 섞어 접시에 놓아주었더니 녀석은 자그마한 입으로 한입 두입씩 오물거리며 금방 먹어치우는 것이었

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손자 녀석도 어디선가 배라도 주리지 않고 지내기를 바랐다.

장마철이라 자주 비가 내렸지만 김 노인은 대단한 폭우가 아닌 다음에는 일을 쉬는 법이 없었다. 십년은 넘게 입어온 우비를 속에다 비닐을 덧대고 그것을 청 테이프로 이어 붙인 다음 단단히 걸쳐 입고는 집을 나섰다. 고양이먹이는 접시에 넉넉히 놓아두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비는 새벽녘부터 부슬부슬 내리더니 아침이 되자 빗줄기가 굵어졌다. 차라리 일찍이 퍼붓는 비는 낮이 되면 그치는 법인데 대개 이런 비는 하루 종일 오락가락한다. 허나 이런 것 저런 것 따져가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하루 쉬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오늘 쉬어서 내일 거들 것이 없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김 노인은 어김없이 슈퍼마켓과 책방 앞을 지나 약국 앞에 당도했다. 일주 점심때가 되어가니 하루 일중 삼분지 이는 마무리한 셈이어서 마음이 어느 정도 느긋해져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던 그 할멈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꼴사나운 여편네가! 그는 부리나케 리어카를 끌고 가서는 한바탕 피부울 심산으로 할멈에게 다가섰다. 한번은 몰라도 두 번씩이나 밀린다면 다음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 바닥이다. 할망구가 계속해서 약국의 폐지를 차지해간다면 그것은 자신의 턱 밑에 시퍼런 칼을 들이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노파는 비에 젖은 종이 박스를 힘겹게 잡고 있었다. 김 노인은 그 꼴을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기차화통을 삼아먹은 것처럼 짹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보소! 내가 전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인제는 어렵겠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말이야! 여기는 내가 몇 년째 걷어가는 데라고 말했는데 어디서 굴러먹다가 은근슬쩍 흘러 들어와서는! 양해도 없이 이러면 어찌겠다는 거여? 진짜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허나 여전히 노파는 말없이 폐지를 주워 담을 뿐이었다. 김 노인은 이제는 더 이상 봐줄 것이 없겠다 싶어 몸으로 할멈을 밀쳤다.

“에라이! 망할 여편네야! 그거 당장 손에서 놓으란 말이다!!”

노인은 그녀의 손에서 거칠게 폐지를 빼앗아 들었다. 그 바람에 할멈은 비틀거리더니 뒤로 주저앉아버렸다. 그러고는 이내 일어나지 못하고 고개만 들어 노인을 노려볼 뿐이다. 얼굴에 핏기가 없이 누런 것이 어딘가 단단히 아픈 듯 했다. 그리고 보니 이 빗속에 우비는커녕 안 쓰느니만 못한 절반은 찌그러진 우산을 손수레에 꽂아놓고 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 사정을 봐준단 말인가?

“내가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안 돼! 좋게 말할 때 물러나란 말이여!”

노파는 일어나려 안간힘을 쓰는 듯했다. 하지만 비에 흠뻑 젖은 몸인데다가 다리가 풀려 바닥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김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잽싸게 폐지 더미를 리어카로 옮겨 실었다. 행여나 할멈이 일어나 휘방을 놓기 전에 빨리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이다. 폐지를 다 싣고는 리어카를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려는 순간이었다.

“이보요, 영감님. 잠시만 기다려보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노파가 김 노인을 불렀다. 노인은 몇 발짝 더 가다가 힘없는 목소리에 다리가 붙들려 걸음을 멈추었다. 비에 젖어 허우적대는 모습이 어딘가 죽은 마누라를 닮아서일까? 허나 그는 아직 노기가 풀리지 않는 얼굴로 획 돌아보며 일갈했다.

“무슨 할 말이 있기에?! 미안하다는 말이면 받아줄 것이고 아니면 하

질 말아!”

노파는 간신히 손수레를 붙잡고 엉거주춤 일어나고 있었다.

“또까 사정 좀 봐주세요. 내 전번에는 미안하였소.”

“아, 미안한 줄 아는 사람이 온 동네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날 창피를 준 것이여?”

“미안하다고 안 그랴요. 내가 저그 아랫동네에 살다 와서 여그는 잘 모르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다 시피 요새 인심이 좀 박하요? 나도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 그런 것잉께, 사심은 없었구만.”

김 노인은 온순하다 못해 잘못을 저지르고 주인 눈치를 보는 강아지처럼 애잔해진 노파의 눈빛을 보자 기분이 조금 가라앉았다.

“흠흠..... 그럼 그렇다 치고 할 말이 뭐시오?”

노파는 부끄러운 듯 말을 잊지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었다.

“아, 할 말이 뭐시냐고 묻지 않소? 비까정 이로코롬 퍼붓는데 언제까지서 있을 참이오?”

“미안해서 그라지라. 내 사실 얼마 전에 다리를 빼어서 일을 못한지라 이틀을 굶었소. 오늘 한 번만 더 양보해주면 안 되겠소? 염치없지만 서두.....”

김 노인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구부정하게 서서 비를 맞고 있는 노파를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못 먹어 누렇게 뜬 이에게 무슨 두역시니가 된 양 모진 소리를 할 것인가? 그는 구겨진 신문지 몇 장 담겨진 것이 전 부인 노파의 손수레를 번쩍 들어 리어카에 실었다.

“따라오소.”

“아..... 어째 그런다요. 잘못했다 안 하요. 손수레는 돌려주세요.”

“따라오면 돌려 줄 테니까 얼른 따라오소.”

노파는 마지못해 노인을 따라 오긴 했으나 다리가 불편한 탓에 걸음이 느렸다. 사거리의 신호등을 건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만 발을 헛디뎠다. 넘어지고 말았다. 길에 나뒹구는 노파의 비명소리에 김 노인은 재촉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할멈은 무릎이 아픈지 영 일어나질 못했다. 마침 신호가 바뀌려는 찰나였다. 비속에서 난데없는 장애물에 짜증이 난 차들은 뺑뺑거리며 돌을 채근했다. 김 노인은 당황하였으나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 노파를 번쩍 안아들었다. 열 살 어린아이만큼이나 나갈 것인가? 노파의 마른 몸은 물에 젖은 폐지 더미 하나보다 더 가벼웠다. 그는 그녀를 리어카 뒤에 실었다. 폐지 더미 사이 등을 기댔만한 공간에 앉히고 자신의 우비를 벗어 입혀주었다. 누렁기만 하던 노파의 얼굴에 붉은 기가 돌았다.

“미, 미안해요.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김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리어카를 끌고 차들이 경적을 울리는 교차로 한 가운데 우뚝 서서 다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그 사이 쏟아지는 비는 더욱 거세졌다.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당도한 곳은 시장 앞 시래기 국밥집이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간질였다. 점심도 거른 터라 절로 침이 꿀꺽 넘어갔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노파를 부축해 수레에서 내렸다.

“여, 여긴 뭇 따시 왔대요? 내 손수레만 돌려주세요. 그냥 갈랑께.”

“가만있으시오. 내말 듣기 전엔 안 되지.”

김 노인은 반 강제로 할멈을 가게 안으로 밀어 넣었다. 가게 주인은 비에 흠뻑 젖은 노인 둘이 물을 똑똑 흘리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질겁했다.

“아이고! 그리 젖어서 들어오면 가게 다 버리는데!”

노인은 그 소리에 멈칫 서서 주인의 눈치를 보았다.

“그럼 가게 앞 포장에서 한 그릇하면 안 되겠는가?”

퐁퐁한 주인 여자는 영 탐탁하지 않은 얼굴로 쏘아보다가 가게 앞에 포장을 친 자리로 등을 안내했다. 노인은 혹시 노파가 넘어질까 싶어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가게 안에서 들고 나왔다.

“난 점심을 먹어서 배가 부르니 한 그릇만 뜨끈하게 말아주소요!”

곧 뜨끈한 시래기 국을 담은 뚝배기와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이 허연 김을 내며 식탁 위에 놓였다. 노파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어째 이런데요. 어째..... 내가 밥 구걸을 한 것이 아니다.”

“아무 말 말고 드시오. 얼굴을 보니 이틀이 아니라 사흘은 굶은 것 같은데. 우리 나이에 그렇게 굶었다가는 저승사자가 어서옵쇼하고 버선발로 마중 나오제.”

막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래기 국과 밥이 앞에 놓이자 노파는 망설이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수저에 손이 갔다. 김 노인은 짐짓 모른 척 물을 따라 마시며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한 손갈 두 손갈 손이 바쁘게 움직이며 시래기 국에 밥을 말아 노파는 입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이가 시원치 않은지 국에 들어있던 멸치는 씹지 못하고 뱉어냈다.

흘깃 옆으로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삼 천 원 하는 밥값을 내기 위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 개수와 크기를 가늠하고 있었지만 웬지 마음 한 구석은 뜨뜻해져오고 있었다. 마누라가 살아있으면 이백정도 되었을 텐데..... 갑자기 못난 자신을 만나 평생 고생만 하다 병고에 시달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세상을 뜬 아내 모습이 떠올라 콧날이 시큰했다.

어느 새 국에 밥 한 그릇을 푹딱 해치운 노파는 스스로 엄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들릴 듯 말듯 모기 같은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노인에게 건

냈다. 그리고는 부끄럼 잘 타는 새색시처럼 결눈으로만 힐끔거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노인도 그 모습을 바로 보기가 쑥스러워 비스듬히 앉아서는 툭 말을 던졌다.

“이가 많이 안 좋은가 보우? 잘 씹질 못하니.”

“그 짝은 이가 좋으시오?”

“뭐 나도 그럭저럭이지. 그 멀치 대가리 같은 건 내가 좀 싸가야겠수. 집
에 어린 것이 하나 있어놔서.”

김 노인은 휴지를 한 장 빼어 멀치대가리며 뼈를 정성스럽게 싸서 웃웃 주머니에 넣었다.

“아유, 내 먹던걸 아일 중단 말이우?”

“고양이새끼라 비린 걸 좋아하지.”

“고양이를 다 기르시우?”

“그럼, 내 말동무요.”

“정이 많으시우. 고양이새끼까지 거두시구.”

노파가 칭찬 섞인 말을 건네자 김 노인은 ‘허허’ 소리 내어 웃었다. 둘 사
이에 서먹하던 분위기가 한결 나아진듯했다.

“올해 몇이오?”

“늙은이들끼리 나이는 물어 뵈 한데요?”

“뭐 통성명이나 할까 해서 그러지.”

“올해 일흔 둘이우. 계미년 닭띠. 그러는 그 짝은 어찌 되시오?”

“난 경진년 용띠. 일흔 일곱.”

“아파 그리 안 보이는데. 얼굴이 시커메서 나하구 비슷한 줄로 알았소.
꽤나 잠수셨구만.”

“뭐 매일 햇볕에 그을리니 시커멓제. 나이야 알게 무언가? 이름은 어찌

되시우?”

“최말련이우. 한문은 모르겠구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써주신 한글로 최말련이우. 그 짝은?”

“김일우요.”

“소 한 마리? 어딴지 힘이 장사더니 이름 값 하는 갑소?”

노파의 실없는 농담에 김 노인의 새까만 얼굴이 붉어졌다.

“뭘 젊었을 적에야 힘 좀 쓰긴 했지만..... 이제 뭐 힘이 남아 있간디?”

“짐 옮기는 것을 보니 아직 쓸만하더만..... 그런데 자식들은 어찌구 이렇게 험한 일 하시우?”

“.....”

김 노인은 갑작스런 노파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찬물을 소주 마시듯 한잔 마시고 나서야 입이 열렸다.

“원래 셋을 보았는데 둘은 어려서 죽고 하나 남은 외아들은 사고로 잃었 수다. 마누라도 병으로 오래 전에 죽었고. 손주 녀석 하나 남았는데 다 커서 지 앞 가름 잘하고 있으니 나 하나만 건사하다 가면 그만이요.”

손주에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까지 이야기하기는 남사스럽다 싶어 노인은 말을 아꼈다.

“그라셨구만. 징한거. 징한거. 영감님은 그 외중에 손주라도 하나 건졌으니 혈혈단신인 나 보담은 훨 낫구만이라. 나도 아들 둘이 먼저 가버렸소. 영감쟁이도 몇 년 전에 그놈들 따라 가버렸고.”

“남자도 힘든데 여자 몸으로 고생이 많았겠구면.”

“아, 다 늙어서 여자 남자 가리는 거유? 그 짝이나 나나 다 고생이지.”

노파는 방금 거뜬하게 식사를 하여 힘이 나는지 화색이 조금 돌아오는 듯 했다. 김 노인은 속으로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친김에 궁금한 것을

더 물어보고 싶어졌다.

“고향이 어디요? 말투가 나하고 비슷한 듯한데.”

“완도요. 완도 아시요?”

“아다마다. 나는 해남인데.”

“아따, 얼추 한동네 양반이었구만. 그래도 거 짝은 육지라 좀 살기가 나왔을 것인데.”

“뭐 사람 사는 거야 비슷하지. 그런데 팔도사람 다 모여 산다는 서울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인생이 참 우습소.”

김 노인의 말에 노파는 그동안 겪은 인생역정이 떠오르는 듯 멍멍한 표정이 되었다. 한숨을 푸욱 내쉬고는 안개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밖을 뚫어저러 쳐다보았다. 흙이불을 여러 겹 덮은 듯 자욱한 안개에 가려 밑둥이 잘려진 가로수가 줄지어 선 거리의 풍경은 마치 꿈속에서 뿌리 없이 허공에 떠 있는 나무들을 보는 것처럼 괴기스러워보였다. 그것은 거센 비바람이라도 불어 닥치면 흔적도 없이 스러져버릴 것처럼 점점 흐릿해져갔다. 만감이 교차하는 듯 노파의 희미한 눈동자에 감정이 복받쳐 차올랐다가 급세 사그라졌다. 노인이 앞에 앉아있기 때문이리라.

“그라지라. 어릴 적 고향에서 철모르고 뛰놀 때야, 나이 먹어 이렇게 기구하게 풀릴 줄 누가 알았겠어라?”

“산목숨 목구멍에 거미줄 칠 일이야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옛말인가 보우. 나라에서 도와주기는 해도 약값에 집세에 뭐에 이리저리 막고 보면 이제 이거라도 못하면 어쩔까나 싶소. 아직 다리에 힘 풀린 적은 없다만 서두.”

노파는 김 노인의 말에 수줍게 웃었다.

“나이 먹어 힘자랑이우?”

“뭐 자랑은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 참, 그 짝 거처가 어디우?”

“아따. 시방 남에 거처는 알아서 뭐 하실라구?”

“통성명도 한 마당에 늙은이들끼리 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찌다 한 번씩 들여다보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니우?”

“뭐..... 시장 끝에 간판 집 지나서 첫 번째 골목 세 번째 집이우.”

“거 참 복잡하기도 하구만. 난 여기 시장길 가로질러 쪽쪽 올라가면 산 자락 밑에 골목 첫 번째요.”

“높이도 사시는군. 저 큰 리어카 끌고 올라갈 수는 있수?”

“아직 끄떡없는걸.”

두 노인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다. 김 노인은 노파의 다리가 걱정되었다.

“집까지 걸어갈 수는 있겠수?”

“괜찮으니 어여 가시우.”

“잠깐만 기다려보소.”

김 노인은 노파를 잠시 세워두고는 헬레벌떡 근처 슈퍼로 뛰어 들어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왔다. 노인은 노파에게 그것을 내밀었다.

“이거 가져가시우.”

“이게 다 뭐시오?”

“주전부리.”

노파가 봉지 속을 들여다보자 빵이며 우유며 과자 따위가 그득했다. 김 노인이 품 속 깊이 감춰두었던 비상금을 털어낸 것이었다.

“아유, 미안해서 못 받수.”

“아, 미안하면 다치질 말던가 해야지.”

그는 억지로 노파의 손에 비닐봉지를 들렸다. 상처투성이인 시키면 손이

덥석 작고 앙상한 손을 잡아 흥시처럼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손은 거칠었으나 마음은 속살처럼 따뜻했다. 김 노인은 노파를 두고 뒤돌아서 성큼 성큼 걸어가다 문득 생각난 듯 걸음을 멈추었다. 돌아보니 노파는 절뚝이며 골목 안으로 사라지려는 참이었다. 노인은 노파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난 새벽 4시쯤 나오는데 몇 시쯤 나올 거요?”

하지만 노파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필시 가는귀가 먹긴 했나보다. 김 노인은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켜 걸음으로 그녀를 뒤따라 갔다.

“내일 볼 수 있겠소?”

노파는 김 노인이 다시 앞에 떡 나타나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일이 무슨 날이우?”

“험험..... 아무 날은 아니구 몇 시에 나올 거란 말이오. 다리가 그래서 야 일이 될지는 모르겠다면.....”

“그게 영감님하고 무슨 상관이우? 오늘 국 한 그릇 얻어먹었으면 됐지 나도 염치 있는 여편네요.”

김 노인은 쑥스러운 듯 다른 곳을 보는 척하며 말을 이었다.

“되도 안 한 시래기국 한 그릇 먹은 것 가지고 무어..... 그러지 말고 그냥 나하고 같이 다니면 어떻겠소? 내 리어카에 앉아서 박스만 정리해 줘 두 나도 한결 수월하고.”

“.....”

노파는 노인의 뜻밖의 제안에 또 얼굴이 빨그레해지면서 고개를 돌렸다.

“한번 생각해보시우. 당장은 아니래두..... 낯겨들랑 같이 다녀도 좋고.”

“생각해보겠수.....”

“그럼 난 가요. 몸조리 잘 하시오.”

김 노인은 이런저런 말들을 더 내뱉고 나서는 부리나케 리어카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갔다. 뒤통수에 노파가 골목길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 어른거렸다. 물에 젖은 폐지가 꽤나 묵직했지만 오늘 만큼은 다리에 힘이 더 붙는 것 같았다. 절로 콧노래도 흥얼거리는 것이 얼마만인지 스스로도 신기했다.

집에 돌아오니 고양이 새끼는 또 구석에 웅크린 채 잠을 자고 있었다. 놀아둔 먹이는 이미 깨끗이 먹어치운 뒤였다. 며칠 새 울음소리에 힘이 붙고 털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꽤나 건강을 회복한 것 같았다. 손주 녀석만 돌아와 준다면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굶주린 어린 짐승을 거둔 것이 웬지 여러모로 잘 한 일로 여겨졌다.

노인은 비에 흠뻑 젖은 옷도 말리고 쪽방에 나는 장마철 곰팡내도 잠을 껌 여러 달 동안 쓰지 않은 연탄아궁이에 불을 넣었다. 한동안 내린 비 때문에 연탄은 잔뜩 습기를 머금고 있었으나 다행히 겨우내 아껴 쓰고 남은 번개탄이 있어서 불을 붙일 수 있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듯 노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고양이는 마치 집을 나간 손주가 돌아온 것처럼 노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따스한 체온과 보드라운 털이 턱밑을 간질였다. 낮에 비를 많이 맞아 몸이 으슬으슬했던 차라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어린 짐승을 꼭 껴안았다. 어린 시절 손주를 품에 안은 듯 실로 너무나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한 잠자리였다.

아침의 짙은 안개가 어지러이 돌아가는 새빨간 불빛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먼지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구급차와 경찰차가 산동네 끝자락에 당도한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였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대다가 쪽방이 언덕 위의 좁은 골목길 안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 아닌 소란에 잠이 달아난 구경꾼들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모여들었다.

“여름에 웬 연탄을 피워서 쫓쫓.....”

“그러게. 옷을 말리려고 그랬나?”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를 한 주인집 여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여자는 굳은 얼굴로 안절부절못하다가 경찰을 보자 그이제야 안심이 되는 듯 얼굴색이 돌아왔다.

“사망자는 언제쯤 발견하셨나요?”

“아침 7시 정도요. 영감님 월세가 석 달이 밀려서 보통 저녁에 찾아가서 언제쯤 해결되는지 물어보곤 했는데 오늘은 웬일로 아침인데도 밖에 리어카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쉬시는가 하고 문을 열어 봤는데, 어휴.....”

“노인 혼자 살았나요?”

“몇 년 전에 손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뒤로는 쪽 혼자 살았죠. 아시다시피 이런 동네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평소에 우울하거나 어둡게 보이지는 않았나요?”

“글쎄, 원체 말수가 없는 양반이 되어와서..... 특별히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던데.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니 만나기도 힘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는 못했어요.”

“혹시 유서 같은 것은 없었나요? 아니면 유언 비슷한 말이라도.....?”

“아니요. 그런 건 전혀.....”

“그렇군요. 저희가 살펴보니 연탄배관이 노후가 심하더군요. 그래서 연탄가스가 미처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으로 스며든 것 같습니다만,

요즘엔 워낙 이런 일이 많다보니까 혹시나 해서요.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으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노인의 시신이 좁은 방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구급차에 실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경찰관은 순찰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에게서 건네받은 수첩을 뒤적이던 옆자리의 동료가 고개를 갸우뚱 하였다.

“핸드폰에 보니 손자한테 매일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던데, 손자는 삼 년 전에 죽었다며?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 자네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나본데 죽은 노인이 관내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야. 삼 년 전에 손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는데 자기가 실종신고를 하고는 계속 경찰서에 찾아와서 손자가 잘 있는지 물어보곤 했거든. 모두들 안 됐다 싶어 그 장단에 맞춰 준거지. 걱정 말고 전화도 하나 마련해서 손자번호라고 가르쳐 준 거야. 신호만 가는 걸로. 사고로 손자가 죽은 것에 충격을 받아 급성 치매인가 하는 게 왔나 보드라고. 집 주인 말로는 겉으론 멀쩡한데 손자 이야기만 나오면 꼭 살아있는 듯이 말을 해서 그런가보다 했다는데, 아무튼 안됐어.”

“그럴 수도 있겠지. 외로운 노인이라 말동무도 없고 쓸쓸했을 텐데 주변에서 그런 거라도 신경을 써준 게 어디야.”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엔 그것도 쉽지 않지.”

경찰차와 구급차는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커튼처럼 너울대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며칠이 지난 후 노인이 살던 단칸방에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다. 다리가 아픈 노파가 쉬었다 가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손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온 것이다. 수레에는 노인에게 주려고 산 것인지 담배 한 갑과 복숭아

몇 알이 담겨있었다. 새끼고양이 뭉으로는 마른 멸치 한줌도 주머니에 넣어왔다. 간신히 쪽방 문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굳게 마음을 먹은 듯 큰 소리로 김 노인을 불렀다. 그러나 수차례 불러도 대답이 없자 노파는 쪽방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새끼고양이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녀석은 낯선 사람을 보고도 졸린 듯 눈만 껌벅거렸다.

“어디를 간 것이여? 손주 보러 간 것인가?”

노파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기운이 빠져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주인 없는 빈 방에 누웠다. 그러다가 새끼 고양이가 슬픈 듯 울음을 울자 혀를 차며 녀석을 불렀다.

“쫓쫓, 너도 혼자 있으니 외로운 것이제? 너희 할아버지는 널 혼자 두고 어딜 가셨다냐? 윤석아, 이리 와서 할미하고 같이 기다리자.”

노파가 손을 내밀자 고양이는 마치 잃어버린 어미라도 만난 듯 반갑게 ‘야옹!’소리를 내며 비틀비틀 다가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양증맞게 볼을 비벼대는 녀석에게 마른 멸치를 주어가며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노파는 피곤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어린 짐승을 안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어느새 밤이 되자 깊고 고요한 숨소리만이 문틈으로 흘러나왔다. 어찌면 그것은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조금씩 숨이 새나가며 바다 깊숙이 가라앉는 소리 같기도 하였다. 때마침 희뿌연 밤안개가 산등성이에서 유령처럼 스멀스멀 기어 내려왔다. 안개가 쪽방촌을 세상에서 지워 버리려는 듯 뒤덮어버리자 더 이상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남편을 잃은 곡부인 양 밤새도록 흐느끼는 안개비는 사연이 길어 줌처럼 그칠 것 같지 않았다.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정 승 호



수상소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이 지면에 다 적지 못하는 점 양해드립니다.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제 인생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글을 쓰며 고민하고,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상까지 타서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을 제 반쪽과 나눌 수 있어 더욱 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음

불은 삼시간에 번졌다. 십여 년 전에 지은 집은 방염처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대부분이 나무로 이루어진 집이었다. 낙우송으로 짜인 마룻바닥과 층계참에 판이 하나 빠진 계단, 조금은 썩긴 했지만 쓸 만하던 재래종 소나무 창틀, 통 소나무가 받치고 있던 지붕, 마루에 누워 천정을 올려다보면 까마득하게 보이던 들보의 상량문, 아직까지 어렴풋한 향을 품은 부엌의 향나무 선반들과 거실에 놓은 주목나무 앓은뱅이 상 같은 것들. 불길은 새빨갭게 넘실거렸다. 숨 가쁘게 집을 살라먹는 주홍빛은 거대하고 예뻐다. 살면서 그렇게 큰 불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저 불속에 타는 게 우리 집만 아니었다면 참 볼만한 광경이었을 텐데. 분명 그때까지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다. 우지직하고 집이 기우는 소리가 나면서 소나무 기둥들이 불을 이기지 못하고 스러졌다. 그제야 나는 외치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 물론 그런다고 아버지에게 들릴 턱이 없었다.

나는 그날엔 집을 잃었고 아버지를 잃은 것은 그날 보다는 더 오래 전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아버지가 돌아온 것부터는 이야기해야겠다. 거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버지가 현관 앞에 귀신처럼 서있었을 때 금방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현관문을 여닫은 것이 언니인 줄로만 믿었기 때문이었다. 언니가 장 보면서 깜빡 잊은 정종을 사러 나선지 채 오 분도 안 됐을 때였다.

“지갑 놓고 갔지?”

하고 물어도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제기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배 한 알의 균형을 맞추다가 낚새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그제야 아버지가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아버지였다. 처음 살 때는 검색이었지만 빛이 바랄대로 바래어 상하의가 모두 하늘색에 가까워진 개량한복 차림에 새끼손가락 두 마디가 없는 왼손을 감싼 피죤색 흰 장갑까지, 내가 기억하던 아버지의 모습 그 이상이었다. 내 기억 속에 두루뭉술하게 살던 아버지는 눈코입도 희미했는데.

내가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나를 물끄러미 보던 아버지가 신을 벗고 낙우승으로 된 마룻바닥으로 들어섰다. 신을 벗느라 고개를 숙이자 일찍이 백발이 성성하던 술 많은 아버지의 정수리가 보였다. 그런 것은 내 기억으로는 근처에도 다다르지 못하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성큼성큼 들어와 흰 전지가 깔린 제사상을 흘끔 쳐다보더니 그랬다.

“배고프다, 밥 먹자.”

나는 아버지의 얼굴이 들어있는 영정사진과 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는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다. 영정사진이 될 줄은 몰랐던 증명사진의 딱딱한 표정과 별 다르지 않은 얼굴. 틀림없이 아버지였다.

“네 언니는?”

아버지가 상 반대편에 놓인 수저와 밥그릇을 자신의 앞으로 옮겨오며 심드렁하게 물었다. 나는 아버지의 그 물음에, 그 간에 있었던 일을 합쳐서 언니가 작년에 집을 갔다고 답해야 할지, 그냥 방금 전에 정종을 사러 나갔다고 말해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고민했다. 그러는 사이에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언니는 낫선 사내의 등을 의아하게 쳐다보더니 정종을 떨어뜨려 현관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버지가 돌아왔어, 라고 내가 새삼 입을 떼서 말해 줄 필요도 없이 언니 얼굴은 질식한 사람처럼 퍼랬다.

“늬들 어미는 어디 갔냐?”

아버지가 언니를 향해 물은 것 같았으나 언니는 대꾸 없이 제 밥그릇만 바라보고 젓가락질을 했다. 아버지가 나를 쳐다보기에 나는 어깨를 으쓱해보이며 대답했다.

“엄마도 나갔어, 아버지 사라지고 삼 년 뒤에.”

“그것도 에미라고.”

아버지는 입 안에 조기 가시를 튼 뺨듯이 엄마 욕도 시원스레 했다. 그 점도 예전과 다름없었다.

“엄마도 죽은 줄로만 알고 있어.”

“지미, 뉘지긴. 지 자식새끼들 대팽기고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

밥 먹는 내내 그릇들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던 언니가 고개를 반짝 들었다.

“그걸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위에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이 농담인지 아닌지는 구별할 수 없었다. 언니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대화는 거기서 잠시 틈이 생겼다. 예전에도 아버지가 그런 농담 같지 않은 투로 우스갯소리를 할 때가 있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의 진위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을 아끼고 각자의 생각에 빠졌다. 아버지는 자신의 얼굴이 담긴 액자를 보다가 말을 툭 던졌다. 저 거 치워라. 보기 거북하다. 나는 영정사진을 들어다가 내 방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아버지 술 사올까?”

“됐다, 다 큰 기집애가 뭘 밤늦게 싸돌아 다녀.”

내가 묻자, 통명한 핀잔이 돌아왔다.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징조였다. 이

제 이 동네도 사정이 많이 바뀌어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떠나고 없지만 예전에 사람들은 아버지를 두 가지로 알아줬다. 유 목수라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집 한 채를 근사하게 지어내는 꾀이면서, 연중에 집을 짓는 그 한 달을 빼고는 술독에 빠져 사는 한량이었다. 우리 집은 썩 풍족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틈틈이 일을 하는데도 그랬다. 그 일이라는 게 죄다 술에 얼근하게 오른 아버지가 술자리에서 구두로 약속한 ‘씨-비스’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술 한 잔 걸치고 하는 약속들은 술이 깨며 그냥 흘러버리면 그만인데 아버지는 이 친구네 딸 혼수, 저 친구네 아들 책상을 짜주며 그런 약속들을 반드시 지켰다. 물론 엄마는 속이 탄다고 가슴을 퍽퍽 두드렸다. 그렇게 엄마의 한탄이 한 소절만 시작해도 아버지는 다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어딘가의 술자리로 향하고는 했다.

그랬던 아버지가 원래 술을 마다할 줄 알던 사람마냥 굴었다. 나는 아버지가 맞는가 싶어서 그를 가만히 살폈다. 아버지는 장갑 낀 왼손으로 오른손 등을 벽벽 긁다가 후줄근한 면장갑을 벗어던졌다. 새끼가 있었을 자리는 여전히 짧고 뭉뚱하게 비어있었고 오른손으로 휘두르는 망치에 맞아 성한 데가 없는 왼손가락들과 뼈 위로 기묘하게 흥이 진 손등도 그대로였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맞네.”

“그럼 누구 애비겠냐.”

“아니 난.”

거기까지만 말하고 ‘아버지가 죽은 줄로만 알았지’ 하는 뒷말은 삼켰다. 우리의 식사는 매우 느렸다. 나는 평소에 젓가락이 잘 가지 않던 나물들까지 괜히 한번 뒤적이며 아버지와 언니를 흘끔댔다. 아버지는 음식을 아주 조금씩 먹었다. 한 번 씹 맛만 보듯이. 원래 아버지의 식사습관이 저랬던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 기억할 만큼 아버

지랑 식사를 느긋하게 한 적도 없는 것 같았다. 음식을 한 술씩 뜨는 것을 마치고 나서 아버지는 베개를 가져오라며 거실에 드리누웠다. 내가 베개를 가져오는 동안에 언니는 꼼짝 않고 조금씩 헤집어진 제수거리들만 쳐다보고 있었다.

언니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평소에는 쓰지 않는 반상을 접어놓고 보일러 온도를 적당히 맞췄다. 거실이 누운 아버지가 신경 쓰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돌아왔네.”

묵묵히 설거지를 하던 언니의 손길이 푹 멎었다.

“너는 저 사람이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해?”

“진짜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는걸.”

언니가 고개를 획 돌려 거실에 모로 누운 아버지를 봤다. 그새 잠이 들었는지 아버지 등이 일정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십 년 만에 다시 나타나니? 화장까지 마쳤던 거 기억 안 나? 난 못 믿어, 저 사람.”

“그럼 아버지 귀신인가 봐.”

언니는 아연한 얼굴로 나를 돌아봤다.

“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버지 제삿날이잖아. 한 번 와보고 싶었는가 보지.”

내 말에 언니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믿지 않으면 어쩔 텐가. 그렇게 의심이 든다면서도 언니도 아버지를 내쫓을 생각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매사에 안달복달 하는 언니는 좀 지켜왔다. 겨우 세 살 터울이면서 내게는 현실 감각이 없다고 늘 핀잔을 줬다.

“아버지가 있으면서 집도 봐주고 하면 좋지 뭐.”

언니는 한참이나 말을 꺼낼 듯 말 듯 하더니 그냥 설거지를 마저 했다.

아버지가 돌아왔으므로 나는 오랜만에 잠을 설치지 않았다. 낯은 창이 바람에 부대끼는 희미하고 기분 나쁜 소음도 그다지 거슬리지 않았다. 최근에는 그런 바람소리가 들리는 밤이면 언젠가 이 집에 무너져 흔적도 없 어지는 날이 오는 게 두려워 온전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침에 다시 사라지지 않은 아버지를 보고서는 나는 그제야 아버지의 손부터 붙잡아 봤다. 놀라울 만큼 차갑지는 않았으나 나무 등걸처럼 거친 피부에는 온기도 없었다. 아버지는 뭐하냐며 손을 빼내고 말았지만 그러는 아버지의 무심한 말투마저 나는 무척 반가웠다. 그게 아버지의 재림인지 환생인지 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이제부터라도 아버지가 집을 다시 고쳐주길 기대했다.

집은 제법 세월의 더께가 앉아있었다. 아버지가 손수 지은 집이라 나무로 만들어 진 데가 많아서 시간이 갈수록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늘었다. 그러나 아버지 없이는 어떻게 갈아 치워야 하는 줄도 몰라서 나무들이 무너져 내리고 삭도록 둘 수밖에 없었다.

“여기 언제부터 이랬냐?”

아버지는 나무로 된 마룻바닥을 체중을 실어 꼭 눌러 보고 있었다. 판자 하나가 덜을 때마다 심하게 꺼지는 부분이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쪽을 피해서 다니는 게 익숙해진 터라 그게 불편하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버지 거기 말고도 손 볼 데 많아. 층계참 판자도 하나 빠졌고 비 오면 화장실에선 물도 새. 얼른 고쳐줘.”

“니가 지금 몇 살이냐.”

“스물 둘.”

“대학은 갔냐?”

“안 갔어.”

아버지는 엉뚱한 질문만 하더니 계속해서 내려앉은 판자를 푹푹 밟았다. 오래된 집의 비명이 끼익끼익 났다.

“니 언니는 어디 나갔냐.”

“언니는 집에 돌아갔지.”

“집? 무슨 집.”

“형부랑 사는 집.”

“시집은 언제 갔대.”

“작년에.”

아버지는 이번엔 천장을 올려다봤다. 마룻바닥과 같이 나무로 된 천장에 군데군데 물 번진 자국과 곰팡이가 때처럼 끼어있었다. 들보에 걸린 상량문이 까마득하게 높게 보였다. 상량문은 원래 들보에 직접 쓰는 거라던데. 들보를 상량할 적에 상량문을 직접 적을 수 없어서 나중에 상량판을 따로 만들어 걸었다. 꼭 상량문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아버지 고집 때문이었다. 글 잘 쓴다는 그 친구에게 부탁해야 한다면 아버지 고집으로 상량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상량을 먼저하고 상량식은 나중에야 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아버지 대표 안주거리였는데, 아버지와 글 잘 쓴다는 아버지 그 친구 정씨 아저씨와의 술자리 무용담으로 끝나고는 했다. 잘 쓰는 글씨가 어떤 글씨인지 나는 몰랐다. 그래서 모년 모월 모시로 시작하는 구

불구불한 한자들이 내 눈에는 그저 그렇게만 보였다. 아버지가 들보를 하나씩 훑어보며 물었다.

“니 언니는 대학 갔냐.”

“언니도 안 갔어.”

아버지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화단은 돌보는 이 없어 지난 해 수풀 위로 다시 풀이 아무렇게나 돋아나 무성했다. 풀 숲에 나무들이 몇 그루 버티고 서있었지만 어설피게 풀이나 뜯을 줄 아는 내 정원 관리로 정도로는 영 부실한 채였다.

“저 오동나무, 니 언니 시집 갈 때면 서랍장 하나 감은 할 요량이었는데 말이다.”

아버지가 턱짓으로 가리킨 오동나무 두 그루는 유난스럽게 지난히 자라고 있었다. 잘 자라기로 유명한 나무도 기름지지 못한 땅에서는 명성이 소용없는지 내 키와 비슷하게 멈춰서 가지에 비해 큰 잎을 처량하게 펼터였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런 뜻이 있는지는 몰랐다. 그리고 이제와 알게 되었어도 별다른 감흥이 일지는 않았다. 그저 조금 새로웠다. 아버지의 거칠고 까만 얼굴이 무표정하면서도 껍 아쉬운 듯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늘 우리와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다.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 뒤편으로 심었다던 저 나무들이 우리 자매와는 더 가까운 편이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창밖을 보다가 안방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가 버렸다.

그의 이야기를 이쯤에서 해둬야겠다. 그는 내게 주문을 하고나면 향나무 결의 무늬들을 구경했다. 그는 이 구조물이 나무로 되어있는지 플라스틱

인지도 관심이 없는 타인들과는 달랐다. 나에게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대면하는 손님은 딱 두 종류였다. 통 향나무가 없어진 카운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과 향나무 결을 꼼꼼히 살필 줄 아는 그. 그는 식물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라면서 감상적인 테가 있었다. 그는 과학 잡지에 흔하게 실린 현미경 사진을 보다가 울컥하는 때가 있다고 했다. 저 사진을 얻기 위해 눈이 빠져라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수 천 장의 사진을 찍었을 누군가의 시간들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살아있는 식물세포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 담의장풀 이파리 뒷면을 벗겨, 보리 튀밥 같은 기공을 관찰해 본 것이 다라서, 나는 그의 말이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그는 현미경을 수 천 번 들여다 본 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구나하며 어렵듯이 짐작해 볼 뿐이었다. 그는 식물 전문가이면서 하루가 멀게 연극을 보러오는 관객이면서, 철학자였다.

“식물들도 수명이 있어?”

“식물들도 죽고 싶을 때 죽어. 오히려 살고 죽는 일에 식물은 더 냉정한 편이야. 그들은 전체를 위해 죽어야 할 때를 알아.”

나는 종종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했고 그러면 이런 철학자의 답이 돌아오고는 했다. 식물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그의 정중한 태도가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가 하는 말들은 어느 전문가답지 않았고 나조차도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졌지만 그 뜻을 헤아리고 있자면 점점 어려워 질 때가 많았다. 그렇게 그가 내게 되돌려준 답들은 또 다른 생각들로 번지기 일쑤라, 그와 하는 대화는 맥락이 없고 이어지는 시간이 길었다.

그는 떡갈나무 이파리를 뒤집어 잎맥을 확인하고는 창조자의 센스에 감탄하거나 꽃이 진 자리에서 세월을 읽었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 가

능하면 목수의 아내가 되고 싶었지만 그나마 목수에 가까운 사람이 나무를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아버지 다음으로 그가 나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았다.

그는 낮 시간을 보내는 그의 연구실의 일화나 그 시기에 공연 중인 연극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나는 내 관심 외의 것에 맞장구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와 나 사이에 실로 통하는 언어들만 나무에 관련된 것뿐이었다. 어쨌거나 나무였기 때문에 대화는 그만지만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벽에 부딪히는 경우는 왕왕 있었다. 그는 숨쉬며 살아있는 나무들을 이야기 했고 나는 아버지의 손을 거쳐 간 죽은 나무들을 이야기했다. 그러다보면 대화는 비슷한 곳에 다다라 비슷한 이유로 끝이 났다.

“넌 가끔 매우 동물 같아.”

그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그가 무슨 뜻으로 꺼낸 말인지는 몰라도 괜히 화가 났다. 아버지가 일으켜 세운 수많은 기둥에 대해서 이야기 하거나 특히 고목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우리 집에 대해 이야기하면 묵묵히 내 말을 듣다가 그는 그런 말을 꺼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다.

“넌 안정된 서식지에 고집스레 눌러 앉으려고 하잖아.”

“그럼 난 식물 쪽에 가깝지. 뿌리 내리는 건 식물이지 동물이 아니잖아. 동물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동물 아니야?”

“넌 움직일 수 없어? 아냐, 넌 될 수 있는 한 붙박여 있으려고만 해. 그리고 걸보기에만 붙잡혀 있을 뿐이지, 식물은 기회만 있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해. 최대한 다양한 곳으로 가려고 애써. 한 개체의 뜻만이 아니라 식물 전체의 뜻이 그래. 씨를 널리 퍼뜨리고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는 게 식물들의 목표야. 하다못해 뿌리라도 뺏고 가지를 틈워 올리지.”

나는 동물 전체에 대한 그의 힐난이 타당하지 않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물며 식물도 한 곳에 뿌리를 박고 사는데 동물이라고 동지를 고수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잖은가. 그러나 반박들을 쉽게 생각해 내지 못했다. 그리고 반박할 기회도 없었다. 그렇게 일방적인 비난이 끝나면 그가 인사도 없이 획 나가버리고는 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럴 때면 다음번에 카운터 앞에 다시 서서 향나무 곁을 들여다보는 순간까지는, 그가 싫었다.

언니의 의심은 병적인 수준이지만 나도 돌아온 아버지가 약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온 지 사흘 째 되는 날, 언니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 일지도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물었다. 그것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처럼 한참 어물거리고 모르는 말을 돌리다가 물은 것이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이 사람이 아버지가 맞노라고 우기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언니에게 이 아버지는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전하지도 않았다.

우선 아버지는 잠들지 않았다. 지난 사흘 간, 나는 아버지보다 일찍 잠 들고 아버지는 나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다. 아버지는 아예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인지도 몰랐다. 아버지가 마룻바닥에 모로 누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아버지 자?’ 하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대답이 곧장 돌아왔다. 그리고 아버지는 생각이 없다는 핑계로 제사상 이후로 어떤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제일 이상한 점은 술을 일절 찾지 않는 다는 거였다. 술이라면 양주고 소주고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애호하던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어색하긴 했지만 그게 특별히 불편하진 않았다. 뭐, 귀신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자리간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 뭘 먹는 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 없고, 나는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없던 아버지가, 그것도 멀끔한 정신으로 종일 집에 있는 것은 많이 어색한 풍경이었다. 아버지는 끼니도 잇고 잠도 잇은 채 집의 면면을 살피고 다녔다. 특히 부엌에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는 좀 놀랍기까지 했다. 부엌에 아버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다.

“아버지 어디 안 나가 봐?”

“여태 나가 있다 왔는데 어딜.”

하긴 그 말도 맞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불현듯 뒷붙였다.

“아버지, 나무는 안 깎아?”

아버지의 투박한 오른손은 향나무로 짜 놓은 부엌 선반의 갈라진 틈을 더듬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방식으로 종일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손으로 더듬고 두터운 나무들을 한 아름 안아가며 여기도 꽤였네, 저기도 깨졌네 하면서.

그 때에도 내 말은 고스란히 넘겨버리고는 선반만 살폈다. 꼬박 사흘을 들여 집 안팎을 살피는데 쓰는 아버지를 줄줄 따라다니니까 아버지가 툭 명스레 물었다.

“너는 학교도 안다니면서 집에서 뭐하냐.”

“월요일은 원래 쉬어.”

“왜.”

“극장이 월요일엔 쉬니까.”

“판따라냐?”

“아냐.”

내가 일하는 카페는 소극장에 딸려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이 뉘였다. 아버지에게는 무대에 서는 배우나 티브이에서 노래하는 가수나 구별 할 것 없이 판따라였을 테며, 더군다나 나는 연

극배우 할 재목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여러모로 아버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워 보여서 내 판엔 머리를 굴려 아버지와 통할만한 화제로 돌렸다.

“아버지, 나 일하는 곳도 나무가 많아. 사실 그게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일 해. 거기는 가스레인지도 안 쓴다? 불난다고. 그래서 전기로 된 렌지를 쓰는데 그걸 인덕션이라고 하더라고. 그걸로 요리도 하고 그래. 우리 집도 그걸로 바꿀까봐. 아무래도 가스레인지는 그것보다 불나기 쉬울 거 아니야.”

아버지는 대답 없이 향나무 선반에 매달린 경첩이 헐거워진 모양새를 확인했다. 나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아부지. 우리 카페에도 이만한 높이로 향나무로 된 바가 있어. 계산도 하고 조리대도 하고 테이블로도 쓰는 거. 그거 드나드는 문이 좀 말썽인데 그것도 아버지가 고쳐주면 좋을 텐데.”

“이제 목수 질 안한다.”

그건 끝도 없이 무심하고 정돈 된 어투였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손은 자신이 십여 년 전에 대패질을 해 놓은 결을 계속 쓸어보는 것이었다.

나는 목수가 아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 그래서 낯설어진 그 등에 뭐라 더 묻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에게 아버지가 돌아왔노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표정은 이상했다.

“아버지가 돌아와?”

“응, 나흘 전에.”

“아버지 제삿날에?”

그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찾으려는 기색을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만 본 게 아니라 우리 언니도 봤어, 우리 아버지 맞아.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 있지. 아버지 그대로야.”

사실 나의 말에는 사소한 거짓이 있었다. 아버지가 잠을 잊은 사람처럼 군다거나 별 생각 없다는 핑계로 무엇도 먹지를 앓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게 진짜 아버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살짝 하고는 있지만 깊게 생각해 보기는 싫다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나는 그에게 털어 놓을 것인지 고민하며 몇 단어를 입안으로 우물거리다가 그만두었다.

“뭘, 어쨌든 아버지가 왔으니까 이제 집을 손 볼 수 있어. 우선 낙우송을 구해야 할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큰 종류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알아봐야지. 층계참이랑 마룻바닥이 낙우송이거든. 아버지가 다시 만들 마음만 먹으면 금방 새것처럼 변할 거야.”

그는 내가 신나서 떠들듯 말든 아랑곳 않고 음료가 담긴 컵을 들여다봤다. 나 혼자 떠드는 것도 지칠 때 즈음에 그가 입을 뿔었다.

“그 집에서 나오는 게 어때?”

“뭘? 왜?”

“그 집을 떠나서 진짜 나무를 키우면서 사는 게 어떠냐고.”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왜 그래야 하는데?”

나는 어안이 병병했다가 이내 화가 났다.

“왜 인지 또 얘기 안 해줄 거야?”

그는 종종 오래 침묵했다. 나는 이런 침묵이 쌓일 때마다 그가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제일 처음에 떠오른 말들을 눌러 담았다. 그걸 이야기해서 나와 싸우기 싫다는 뜻이었다. 재차 그에게 왜인지를 물었지만

그는 다 마신 잔을 들여다보고만 있다가 또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다.

나는 그와 그렇게 헤어지고, 초저녁부터 매우 언짢았다. 그래서 언니의 달래고 구슬리는 말들은 전혀 달갑지 않았다. 식탁 위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불만 가득한 나는 언니의 어떤 말이든 방어할 준비를 하고 한껏 기분이 나쁜 태를 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덩그러니 앉아 있었지만 늦은 식사에도 우리들에게도 별 흥미가 없는 듯 했다.

“이제 그만하고 이 집 팔자.”

마침내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부러 아버지가 있는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낸 언니의 심중이 껄뽀해서 더 열불이 났다.

“또 그 얘기야? 여긴 우리 집이고, 난 다른 데 안가. 언니는 그걸 왜 몰라?”

“내가 왜 몰라. 이 집 말고도 우리 집 할 수 있잖아. 이제 그만 하자. 응?”

“아버지는 할 말 없어?”

내가 아버지를 찾자 언니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아버지가 내 편을 들어 주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벌써 나흘 째, 아버지는 자신이 깔고 다듬은 나무들을 살폈다. 살필 뿐이었다. 낮은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기 까지 해서 먼지 쌓인 창틀의 구석을 살피거나, 이 집의 흘러간 이야기들을 듣는 것처럼 소나무 기둥에 한참 귀를 대고 서 있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이 말 한 것을 그대로 지킬 모양인지 지하의 작업실로는 걸음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일은, 어찌면 모레에는 아버지가 끌과 망치를 칠 것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달래는 중이었다.

“지하실 열쇠 어디다 뒀냐.”

아버지가 지하실 열쇠를 찾자 나는 옳다구나 싶어서 냉큼 열쇠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열쇠를 언니 앞에 밀어놓았다.

“드릴 넣어둔 선반 맨 위 칸 주머니에 니 어미도 모르는 금붙이 있다. 팔아서 니 동생 대학 보내라.”

언니는 오도카니 앉아있었다. 나는 먼저 부엌을 박차고 나왔기에 언니가 그 열쇠를 챙겼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때 그런 이야기를 어쩌서 하고 싶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사다리를 밟고 선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형겁을 빗자루에 휘감아서 현관 등 주변의 거미줄을 떨어내고 있었다.

옛새째부터 아버지는 청소를 시작했다. 집 안팎을 정성스레 끌고 닦아 놓으니 새로 같아 붙이진 않았어도 집에서 운이 나는 것 같았다.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나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아버지 콧잔등엔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올라간 사다리를 붙잡고 서서 다 닳은 아버지의 저고리 단을 봤다.

“내일은 아버지 옷 사러 나갈까?”

“됐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왜, 이 옷 너무 낡아서 보기 싫어.”

“이미 저 세상 간 사람이 거적 떼기면 어땡고 비단옷 입으면 뭐가 달라진다드냐.”

나는 아무 말 못하고 저 세상을 운운하는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아버지는 거미줄을 다 떨어내고 현관 등 스위치를 올렸다. 눈이 부셔서 눈을 가늘게 만들었다. 여전히 아버지는 큰 목수로 보였다.

나는 세어 볼 것도 없으면서 괜히 손가락을 펼쳐 헛수를 헤아렸다. 벌써

십사 년 전이었다. 강원도 모처의 허름한 화장터에서 타올라 뿔조각 몇 개로 남았던 아버지. 그 장례식장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기억에 희미하지만, 시신을 태웠다고 해서 처음부터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쳤던 기억은 남아있었다.

“아버지 다시 어디가?”

“가야지.”

“안 가면 안 돼?”

“이미 간 걸 어떻게 안 간다냐.”

“다시 왔잖아.”

‘온 것처럼 있으면 되잖아.’ 거기까지 말을 잇지는 못했다.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아버지가 눈에 띄게 흐리멍덩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칸을 디디며 약간 휘청거렸다. 나는 아버지를 붙들 요량으로 손을 뻗었다. 아버지는 붙잡히지 않았다. 아버지의 팔뚝이 차지해야 할 삼차원의 공간을 내 손이 통과 해 나갔을 때 아버지가 아프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나도 아버지도 말없이 흐릿한 아버지의 오른팔 께를 내려다 봤다. 눈물이 일렁여서 더 흐릿해 보였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어이구 말만한 년이……. 많이 컸는가했는데 아직도 고대로네. 지 아버지 죽었을 때는 울지도 않아서 어려서부터 독한 년인 줄만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구만.”

나는 계속해서 울었다. 아버지의 낡은 옷자락이, 새끼손가락 반 마디가 사라진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투명한 손이 나를 서럽게 했다.

아버지가 객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를 사로잡은 생각은, 묘하게

도, 응당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아버지의 몸이 견디질 못하는 상태였다.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는 강원도 어딘가에서 일거리를 찾아 해매는 중이었다고 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홀로 저녁나절에 해주는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이었다. 그 때의 나는 전화 받는 것을 어려워했다. 수화기에 대고 하는 통화의 형식들은 아직 초등생 삼학년인 내게 낯설고 어려운 것이었다. 특히 상대가 어른이었을 때는.

전화를 바꿀 어른이 계시는지, 언제 돌아오시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너희 엄마는 대체 어디 있는지 같은 질문을 몇 개 째 묻고서는 거의 인내심이 다 했는 모양이었다. 그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장 모 병원으로 오던지 하라고 말했다.

나는 분명 충격을 받았던 것 같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심경은 모호하다. 수화기를 붙들고 하는 통화가 낯설어서 긴장했던 것일까? 갑자기 화가 난 것 같은 어른의 목소리에 당황했던 것일까? 한 가지 기묘했던 것은, 아버지의 죽음 그 자체는 충격이 되지 못했다. 나는 통화가 끊겼을 때 나오는 기계적인 신호음을 들으면서 엉엉 울었다.

다큐멘터리는 은행나무 가지위에 수북이 쌓인 나뭇가지 덩어리를 보여줬다.

까치는 동지를 몇 번이고 고쳐서 씹니다. 그들은 한 번 집을 정하면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운 것은 아니었다. 어차피 아버지는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나는 그냥 세상에 내팽개쳐진 것은 아니었다. 내겐 집이 있었다. 아직 집은 있었다.

그는 음료를 주문하는 대신에 퐁퐁 부은 내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봤다. 나는 질문을 털어냈다. 그를 기다렸던 이유였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기도 해?”

“예수 그리스도는 삼 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런 거 말고, 과학적으로 가능한 말이야.”

“식물들한테는 흔한 일일 수도 있지.”

“어떻게?”

“겨울이 오면 한 번 죽잖아. 그리고 봄에 다시 살아나고.”

“그건 죽은 게 아니야.”

“맞아.”

내가 화를 내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는 뜸을 들이다 답했다.

“그럼 이건 어때. 씨는 하나의 개체가 되기 위해서 모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스스로 말라죽어. 식물한테는 물이 생명의 근원인데, 다시 싹을 틔우기 위해서 그걸 완전히 포기해. 한번 말라 죽는 거나 다름없지 뭐.”

“왜 그렇게 하는데?”

“혼자서 어엿하게 살아보려고.”

나는 사과 씨 크기 정도 되는 작고 검고 반질반질한 씨앗 하나를 떠올렸다. 작은 씨 하나가 나무가 되기 위해 스스로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온몸의 수분을 빼내는 인고의 시간을 견딘다는 것이었다. 머릿속에 떠오른 작은 씨앗에서 그보다 더 작은, 눈물 같은 물방울들이 똑똑 떨어지는 이미지가 그려졌다. 그가 입을 뗐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누군데.”

“내 여자친구.”

그는 얼마 전에 사귀게 됐다는 그의 여자 친구 얘기를 몇 가지 꺼냈다. 같은 대학 학부생이고, 나와 같은 나이이고, 꽃을 키우는 실험실에서 인턴을 하고, 그리고 한참 망설이다가 그 애도 부모님은 없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잠자코 있었다. 그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배신한 것일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침묵이 조금 더 흐른 후에 그는 여자 친구를 밖에 나가서 보겠다고 나서며 내게 정중한 인사를 했다.

“나는 이제 여기 오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건 작별인사였고 내게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었다.

집안은 생동감 있는 푸른빛으로 넘치고 있었다. 온통 푸른 거실에 어리둥절하게 서서 이끼가 카펫처럼 깔린 바닥과 잎들이 달린 들보 같은 것을 둘러봤다. 오래전에 베어지고 깎여 죽은 채로 집을 채우고 있던 나무들이 되살아난 것이었다. 나는 뒤늦게 그게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무들은 살아야만 한다는 듯이 수피마다 가득히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바닥의 마루판자는 이끼가 덮인 채로 연듯빛 싹이 돋아 있었다. 어느 가구에서 나온 가지에는 심지어 꽃도 피어 있었다. 소나무 기둥에서 솔가지가 나와 끝에 푸른 솔잎을 무성히 달았고, 향나무 선반에서는 구불구불한 나무껍질이 붉게 갈라져 나왔다. 해나무 장식장에서 돋은 파란 가지 끝에는 흰 꽃망울들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처음 샀을 때처럼 짙은 감색으로 돌아온 개량한복 저고리가 적당히 풀을 먹어 뺏뺏했다. 아버지는 처음 현관에서

있을 때처럼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를 따라 천장을 봤다. 솔 향이 나지 않는 게 이상하리만큼 솔가지로 뺨뺨한 들보들 사이로 낡은 사랑관이 붙어 있었다. 모년, 모월, 모일, 모시 입주상량. 아마 그렇게 쓰여 있을 묵서명만은 살아 숨 쉬는 나무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낡고 죽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서서 나가는 시늉을 했다.

아버지 가계?

내가 물었다. 아버지가 나를 돌아봤다.

언니 말 잘 듣고, 니 방 창문은 잘 열리냐.

응, 창문은 잘 열려.

그래, 그럼 너는 거기로 나가라.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셨다.

나는 눈을 떴다. 연기가 자욱했다. 송진에 불이 붙은 매캐한 냄새가 났다. 싹싹 거리고 탁탁 튀기는 소리가 들렸다. 땀에 흠뻑 젖도록 방안은 더웠다. 내 방 창문은 침대 머리맡으로 나 있었다. 나는 창문으로 기어 나왔다. 화단의 젖은 흙이 맨발로 느껴졌다. 대문 밖의 누군가가 나를 발견하고 소리를 쳤다. 저기 사람 있어요! 저만치에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다가왔다. 가스밸브를 잠가요, 여기 좀 도와줘요! 사람들은 계속 서로를 부르고 외쳤다. 나는 기침을 하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대문 밖으로 나왔다. 손에 아무개가 건넨 생수 한 통이 쥐어졌다.

우리창이 터지고 깨지는 소리가 났다. 집을 둘러싼 구경꾼들이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고 젊은 여자 하나가 그 소리에 놀라 비명을 질렀다. 창문마다 새어나온 붉은 빛들이 혀를 빼고 집을 먹어치우고 있었다. 불길은 이층 높이보다 높게 솟아서 검은 하늘 위로 커다란 불씨를 튀겼다. 사이렌은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하고 골목을 시끄럽게 메우기만 했다. 그렇게 커다

란 불덩어리는, 예쁘기까지 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기둥이었던 소나무가 기울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집을 떠받들고 있던 기둥들이 빠개지는 소리를 내며 가라앉았다. 나는 그제야 매운 불길에 대고 외치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 물론 아버지는 오래 전에 없는 사람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돌아 올 수가 없었다.

누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미담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보잘 것 없고 사소하다. 그 날에 나의 집이 불타 없어진 이야기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왔었다.





서울연지초등학교
정 영 호



수상소감

학교생활과 육아에 붙들려 살다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접하게 된 공무원문예대전 소식. 제 마음속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한 단계에 불과하지만 글쓰기에 대한 꿈을 계속 꿀 수 있는 기회를 준 공무원문예대전에 감사드립니다. 곁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준 사랑하는 아내와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효성, 효원 두 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자반

아크릴 어항 속에서 바라보는 바깥 세계는 신기하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리란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어 더 스릴감이 느껴진다. 나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임에도 모든 것이 낯익었다. 책꽂이에 꽂혀있는 성경책은 앞에서부터 세 번째 장까지만 손때가 잔뜩 묻어있다는 사실과 벽에 걸린 사진 속 여자와 아이의 이름까지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절대자가 된 것 같았다.

아이 유치원에서 준비한 아빠와의 추억 여행에 온 것이 조금은 후회되었다. 길이 막힐 것이 뻔한데도 꼭 서울에서 춘천까지로 일정을 잡아야 했을까. 휴게소도 없는 국도의 어느 길을 주행하다 오줌이 마렵다는 아이들의 성화에 버스 세우기를 벌써 세 번째. 목적지에 도착도 하기 전에 녹초가 되어 있는 옆 자리 아빠에게서 동질감을 느끼며 우리는 또 하염없이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 내린 곳은 어느 시골 마을의 넓은 공터였다. 공터 위로는 천막이 쳐져있었고 천막 안에는 얇은뱅이 식탁이 열을 맞추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음식은 많이 있으니 마음껏 드시고 더 갖다 드세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인사말이 신호탄이 되어 아빠와 아이들은 배식 행렬을 시작했다.

“화장실 다녀올까?”

“아빠, 아까 차에서 내려서 갔다 왔잖아요.”

“그럼, 손이라도 씻고 오자.”

나는 식탁에 놓인 생수병 하나를 집어 들고는 하릴없는 사람처럼 식사 장소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인삼을 재배할 때 쓰이는 검은색 차양막이 쳐진 구조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맑은 가을날인데도 겨우 잠자리 한 마리만이 빙글 머리 위를 돌다 날아갔다.

“아빠, 어디서 손을 씻어요?”

그제야 성의 있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마을회관처럼 보이는 건물의 화장실로 들어갔다.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에 얼른 손에 물만 묻히고는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아빠, 저게 뭐예요?”

대답 대신 아이가 가리키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까 버스에 탄 채 지나쳤던 아스팔트 도로 위에 정말 뭔가가 있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내려다보니 작은 곤충이었다. 그곳은 주위에 비해 움푹 팬 곳이었는데 곤충이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아마 찌진 부위의 직경이 꽤 커서 정작 곤충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빠, 잡아가요.”

야단맞기 싫어 마지못해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곤충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마침 들고 있던 생수병의 물을 쏟아붓고는 작은 곤충을 집어넣었다. 갈색 빛깔의 곤충이 사납게 노려보며 낮처럼 생긴 앞발로 물통 벽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우와!”

아이의 곤충의 위협적인 행동에 감탄하며 내 손에서 물통을 낚아채 내 달리기 시작했다.

“윤찬아, 은유야! 우리 아빠가 잡아 줬다, 이것 봐라.”

언제 어떻게 생겨나고 자랐는지도 모른 채 탁한 물속에 잠긴 물풀의 줄기를 잡고 먹을거리만 생각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낮처럼 생긴 앞발을 든 채 무엇이든 내 앞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숨이 차면 끈지 끝을 물 밖으로 잠깐 내놓고 숨을 쉬러 나갔다 오는 게 내가 하는 반나절 운동의 전부였다. 그러다 지쳐, 물풀 밑동에 머리를 찡으며 졸다 깨다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칠흑 같은 밤이 다가와 있었다. 신기하게도, 졸려서 흐려져 가던 내 두 눈은 언제나 밤이 되면 더욱 또렷해졌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밤을 기다렸다.

밤이 되면 나는 되도 않는 사냥은 그만 두고 물풀의 줄기를 타고 위로 위로 올라갔다. 며칠째 이무 것도 먹지 못해 주린 배를 움켜쥐고서도 나는 기어이 물풀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적막한 사위를 한 바퀴 둘러보고는 언제나처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영롱한 달빛과 별빛이 참 아름다웠다. 그 때만큼은 나도 저들처럼 하늘에 살고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정말 하늘을 날고 싶었다. 풀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힘으로 하늘을 날고 싶었다. 온 몸에 힘을 주며 몸을 짹 펼쳤다. 그리고 잠시라도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 풀끝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그렇게 언제까지나 떠 있고 싶었다. 내가 별인 것처럼, 달이 나인 것처럼.

아이는 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아까 잡은 곤충을 내려놓을 줄 몰랐다. 좁은 생수통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곤충을 따라 생수병을 자꾸 눈앞으로 돌려댔다. 병 안에 있는 녀석은 돌아도 돌아도 아이의 큰 눈만 보이는 것에

당황했을지도 모르겠다. 아이가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물었는데도 곤충의 이름은 확실치가 않았다. 선생님들은 기껏해야 딱정벌레라느니 매미 애벌레라느니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그럴듯한 이름을 내뱉을 뿐이었다. 그나마 가장 정확한 것은 아이의 관찰력에 기댄 예상뿐이었다.

“아빠, 앞다리가 사마귀처럼 날카로운 걸 보니 다른 곤충을 잡아먹나 봐요. 그리고 입에 뽀족한 침도 달려있어요.”

아이는 잠깐 생수병을 건네는 찰나의 순간조차 아쉬워하며 내게 물병을 건넸다. 낮처럼 생긴 앞발은 아까 확인했고, 배 쪽을 향해 접혀있긴 했지만 정말 바늘처럼 생긴 무언가가 주둥이 부분에 달려있었다. 네 말이 맞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에게 병을 돌려주는데 녀석의 가운데다리가 1개 밖에 보이지 않았다. 물론 아이에게 딱히 이야기해주지는 않았지만.

수면에서부터 파동이 느껴졌다. 잠자리였다. 나는 얼른 가운데다리와 뒷다리로 잡고 있던 물풀을 놓고, 있는 힘껏 물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잠자리 한 마리 차지하겠다고 식식거리며 물 위로 자맥질해 오르는 내 모습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너무 오랜만의 먹이라 다른 이에겐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이미 소금쟁이들이 잠자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물 맴이처럼 파장을 만들며 제자리를 돌아대는 잠자리와, 힘이 빠지길 기다리며 뒤를 노리는 소금쟁이 떼. 잠자리가 산란을 마친 후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잠자리의 먹잇감이 되었을 하이에나들.

그러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물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른 내가 잠자리를 앞다리로 움켜쥐고 다시 자맥질하자 소금쟁이도, 잠자리도 நீ이 나간 것처럼 보였다. 나는 유유히 내 자리로 돌아와 바늘처럼 생긴 뽀족한 입을 잠자리의 가슴에 꽂아 넣고 톱툰 녀석의 체액을 빨기 시작했다.

동물관이니 체험관이니 두세 군데를 돌고 나니 밖은 벌써 어둑해져 있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은 무척 조용했다. 아빠고 아이고 교사고 할 것 없이 모두 굶아떨어진 탓이다. 문제는 오늘이 토요일이란 사실일 뿐.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고난의 귀경길에 운전기사와 나, 그리고 애꿎은 곤충만이 충혈된 눈으로 잠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두 시간여를 더 달린 끝에 우리는 아침에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왔다. 오늘 여행의 의미와 목적을 되새기는 원장님의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난 그저 구토를 유발하는 관광버스의 진절머리 나는 냄새에서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그리고 버스의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 손을 붙자고 뛰다시피 비좁은 버스 안을 빠져나왔다.

“야휴, 아버님! 오늘 준비한 선물은 가져가셔야죠.”

내 손에는 1kg짜리 쌀 한 포대가 전해졌다. 한 손에는 쌀 포대를 또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터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여자는 마침 집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

“토요일이라 길이 막혀서.”

“애 데리고 갈게.”

“그래.”

아이의 손을 건네받은 여자는 금세 고개를 돌려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뭔가 여자를 잡아끄는 듯 화들짝 놀라며 걸음을 멈추었다.

“엄마, 나 오늘 아빠랑 자면 안 돼?”

여자는 매우 난감한 표정으로 아이가 아닌 나를 쳐다보았다.

“오늘은 아빠랑 잘 테니까 내일 아침에 엄마가 데리러 오면 되잖아.”

난 아직까지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물병을 빼앗다시피 낚아채며 말했다.

“이건 내가 보내줄게.”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여자의 얼굴에 잠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다.

“가자.”

여자의 한 마디에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아이도 내게는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는지 물병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내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물속에서 꾸벅거리며 즐기고 있는데 물풀 아래에서부터 떨림이 전해져왔다. 뭔가가 물풀을 잡고 기어 올라오는 모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의 최선이란 공격뿐이다.

두어 달 전, 내가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된 날이었다. 나뭇가지를 닮은 게아재비가 신기해 보여 다가갔다가 녀석의 날카로운 앞발 공격에, 나는 내 목숨을 가운데다리 한 쪽과 맞바꾸어야만 했다. 그리고 사냥을 실패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내 가운데다리를 내팽개쳐 버리는 게아재비를 보며, 그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가라앉는 내 오른쪽 가운데다리였던 물체를 보며 나는 내 삶속에 기꺼이 긴장이라는 녀석을 초대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게아재비의 역할을 맡을 차례가 왔다. 나는 서슴없이 물풀 아래쪽을 향해 앞발을 치켜든 채로 정지해있었다. 잠시 후 물풀의 흔들림이 강하게 느껴지며 하나 남은 가운데다리에 뭔가가 닿는 순간, 앞다리로 그 무언가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녀석은 내 왼쪽 앞발에 몸을 관통당한 채 버둥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녀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른쪽 앞발의 갈고리로 녀석을 더 세게 움켜쥐고 두 앞발을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제야 녀석의 옆모습이 어렴풋하게 눈에 들어왔다. 약충(若蟲). 다른 어린 동족이었다. 나는 흠칫 주춤거리다 본능적으로 주둥이를 녀석의 배에 꽂아 넣었다. 그리고 야들야들한 녀석의 체액을 빨아대기 시작했다.

“딱정벌레”

“매미 애벌레”

아닌 줄 알면서도 검색창에 써 볼 만한 정보가 이것뿐이었다. 물론 이 녀석은 그냥 딱정벌레도 매미 애벌레도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아까 아기가 했던 말과 내가 관찰했던 기억을 더듬어 단어를 조합하기 시작했다.

“낮”

“낮 앞발”

“낮 앞발 곤충”

“낮 앞발 곤충 침”

“낮 앞발 곤충 침 주둥이”

그제야 비슷한 곤충 사진이 나왔다. 사진 속 곤충은 등에 알을 업고 있었지만 알만 없다면 잡은 곤충과 모양이 비슷해 보였다. 녀석의 이름은 ‘물자라’였다. 땅에서 기어 다니는 녀석을 잡아왔더니 이름이 물자라란다. 나는 물병에 얼른 다시 생수를 채워주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공사로 처리 곤란했던 금붕어를 잠시 맡아 키우느라 사두었던 아크릴 수조를 꺼내었다.

등딱지가 가렵기 시작했다. 언젠가부터 몸이 가렵기 시작하면 나는 옷을 벗곤 했다. 그러면 나는 부쩍 커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등딱지가 특히 더 가려웠다. 언제나처럼 물품을 붙잡고 등에서부터 옷을 벗기 시작했다. 잠시 후 뒷다리까지 빼내며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마쳤다. 그런데 뒀

가 등 부분에 묵직한 것이 느껴졌다. 그런 생각도 잠시, 나는 여는 날처럼 물풀을 사다리 삼아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물풀의 옆 라인에 전에 없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웅덩이 바닥의 포식자 왕잠자리 애벌레였다. 녀석도 보통은 나처럼 웅덩이 바닥을 바라보며 가만히 기다렸다가 주변을 맴도는 작은 곤충들을 끝이 송곳니처럼 날카로운 아랫입술로 잡아먹는 부류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물 밖으로 나온 녀석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늘이었다. 종이 다른 녀석인데도 이상하게 동질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보니 녀석은 왕잠자리 애벌레였지. 게아재비나 장구애비, 소금쟁이에 나까지 이 좁은 웅덩이 속 대부분의 포식자들은 알에서 깨어났을 때의 모습이나 어른벌레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녀석은 잠자리가 되면 아랫입술이 없어지고 큰 날개도 생긴다.

그리고 마침 내 눈앞에서 녀석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는 과정이야 나와 비슷했지만 역시 녀석에게는 비장의 무기인 날개옷이 있었다. 주글주글하던 날개에 피가 돌며 서서히 펴지는 장면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지만 그 모습은 역시 내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너는 날아라, 나는 기어서라도 가련다.

비참함에 매몰되다 못해 비참함이 나를 잡아먹기 전에 나는 다시 물풀의 끝까지 기어올라 하늘을 향해 몸을 던졌다. 상쾌했다. 마치 잠자리가 되어 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오늘만은, 더도 말고 오늘만큼은 아래가 아닌 위로, 그것도 안 되면 옆으로라도 더 나아가고 싶었다. 아니,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물자라”

제대로 된 검색어 덕분에 물자라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낱말은 부성애, 사진은 아까 봤던 알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었다. 곤충조차도 부성애라니, 나도 모르게 코웃음이 쳐졌다.

“물자라 먹이”

물에 사니까 올챙이나 작은 물고기가 먹이라는데 영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기껏해야 내가 알고 있는 작은 물고기는 송사리밖에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정작 파는 곳이 없었다. 올챙이는 결국 개구리로 자라버릴 테고, 좀 더 검색을 해보니 물자라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밀웜이라는 갈색거저리 애벌레를 먹이로 준다고 했다.

“갈색거저리”

사진을 보니 갈색거저리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오히려 검은색에 가까운 작은 딱정벌레였다. 물자라에 비하면 크기도 작고 날카로운 앞발도 없는 그럭저럭 순해 보이는 곤충이었다.

“갈색거저리 애벌레”

“우웬!”

사진만 보고도 구역질이 나왔다. 꾸물거리는 애벌레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게다가 모양이 거의 구더기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작은 사진을 클릭하였다. 확대된 밀웜은 그나마 구더기와는 좀 달라보였다. 몸 전체가 웬지 구더기보다는 더 단단해 보였고, 여러 마디로 나뉜 몸에는 갈색 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다. 하지만 머리 쪽에 6개의 조그만 다리가 몰려있는 것은 결코 양증맞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식용곤충이라니. 하지만 진저리를 쳐대는 고개와는 달리 나는 이미 검색한 밀웜 구입처에서 ‘바로 구매’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풍당!”

내 앞으로, 꾸물거리는 물체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생전 처음 보는 곤충이었지만 이름을 알 것 같았다. 밀웬! 나는 어느새 바닥까지 가라앉은 녀석을 앞다리로 낚아채어 제자리로 돌아왔다. 녀석은 황금빛 광택이 나는 키티질에 싸여 있었지만 곧 내 주둥이를 통해 제 몸의 체액을 흘려주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녀석이라 제법 빠는 맛이 났다. 솔직히 지금껏 먹어왔던 곤충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살기 위해 먹었던 내게, 먹기 위해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시 스쳐지나갔다. 게다가 녀석은 몸 전체가 하나로 연결된 단백질 덩어리였다. 몸의 어디에든 일단 주둥이만 꽂으면 머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모든 체액을 다 빨아먹을 수 있어 좋았다. 실로 오랜만에 포만감을 느끼며 빈 껍데기를 놓아주었다.

구청 도시환경과 노점상 단속반. 공익 요원과 노점상 단속을 나갔다.

“물건 치우세요. 물건 치우세요.”

내가 물건을 빨리 치우라는 방송을 하고 차에서 내려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뒷짐을 쥐고 있자 공익 요원이 물었다.

“주사님, 사진 찍을까요?”

내가 고개를 끄덕거리자 공익은 노점상이 물건을 치우는 모습과 물건을 차에 실어 길거리가 정리된 모습을 찍었다. 그렇게 노점상이 트럭에 물건을 싣고 자리를 뜨고서야 우리도 차에 올랐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흘려들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거 물건 좀 파는 게 어떻다고, 사진까지 찍혔으면 어차피 과태료 날아 올 텐데 그냥 장사하지 짐은 왜 싸누.”

처음에는 민원인이나 노점상보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옆에서 지껄이는

이들이 더 짜증났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시시하다.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나라의 녹을 먹으며 하는 일이 이진데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먹고 살겠다고 노점상이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지, 노점상 좀 치워달라고 민원을 내는 마을 주민이나 상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정도 정확히 모르면서 생각나는 대로 지껄여 대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지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배가 좀 부르니 어젯밤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분명 물 위로 뛰어내렸던 것 같은데 나는 어느새 하늘을 날고 있었다. 내가 살던 구정물 웅덩이를 내려다보며 나는 분명 날고 있었다. 그러다 잠시 쉴 겸 내려앉은 아스팔트 바다. 다시 날려고 몸부림 쳐봤지만 날 수 없었다.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걷고 또 걸었다. 기실 이렇게 오래 걸어본 적도 처음이었다. 기껏해야 물풀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는 게 전부였던 내 생애. 하지만 자꾸만 왼쪽으로 기우는 몸. 사라진 오른쪽 가운데다리가 아쉬웠다. 게다가 붙잡고 올라갈 조경수 하나 없는, 사방이 시커멓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정말 이상한 곳이었다. 밤은 아침이 되었고, 아침은 그렇게 낮이 되었다.

내게 맡겨진 임무 중 노점상 단속이 한 날개라면 또 다른 날개는 현수막 제거였다. 나는 두 날개로 나는, 균형 잡힌 살뜰한 식단을 즐기는 공무원이었다. 월요일 아침이면 현수막 밑물이 책임 구역을 뒤덮는다. 그러면 퇴근 시간까지 다시 현수막 썰물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나와 공익 요원의 두 번째 임무였다.

“주사님, 저 플랭카드 다 떼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지금의 요원이 지난 수요일에 발령 났으니 현수막 제거에 있어서만큼은 오늘이 그와 나의 첫 호흡이었다.

“저건 플랭카드가 아니다.”

“네?”

이런 자질구레한 설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니. 그나마 두어 번의 설명으로 이해를 하는 어른 한 명이기에 망정이지. 나는 귀찮았지만 2년 만에 다시 새 학기 첫날 학급 규칙을 설명해주는 일대일 눈높이 선생님이 되어 주기로 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문답법이다. 그냥 알려주는 것에 비해 스스로 생각해 보면 뇌리에 훨씬 더 강렬하게 박히는 법이니까.

“다른 말 알고 있는 것 없어?”

요 며칠 사이에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눈치 챘는지 제 판에는 이것저것 생각하는 눈치였다.

“플랑카드?”

나는 고개를 저었고 공익은 또 다른 정답을 찾아 헤맸다.

“아, 플랜카드! 저도 사람들이 플랭카드 플랭카드 할 때마다 플랭이란 말이 프랑스 말쯤 되나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냥 영어였네요. 계획을 적어놓은 카드라는 뜻의 플랜카드!”

공익의 의기양양한 미소를 보며 나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공익이 혼자 생각해서 플랜카드라고 말하는 단계까지 왔으니 나름 만족스러웠다. 나는 일부러 직접 읽어보라고 인터넷 국어사전에 올바른 낱말을 검색해 주었다. 뜻과 순화어, 맞춤법에 예문까지 읽어보라고.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공익은 말없이 손가락만 움직여댔다. 뿔로통하니 대충 읽어보고 넘겨주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배우려는 자세가 보여 희미하게 내 입 꼬리

가 올라갔다.

물론 현수막 제거하는데 플래카드면 어떻고 플랜카드면 어떻겠느냐마는. 나는 웬지 받침 없는 낱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기어 이 다른 낱말은 넘어가더라도 플래카드만큼은 이야기하고 만다. ‘ㅇ’이나 ‘ㄴ’같은 다리를 갖지 않아도 정상일 수 있다, 내가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고 의족을 낀 채 절름거리도 내 생각이, 내 의견이, 아니 어찌면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옳을 수도 있다는 말을 돌려 말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배너, 현수막, 걸개에 불과하겠지만.

다음번 학습은 아마 우리가 흔히 쓰는 엉터리 영어쯤이 될 것 같다. 플래카드의 원뜻은 배너 정도가 맞고, 진짜 플래카드는 피켓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아니면 날 보고 자꾸 주사라고 하는데 공무원 직급부터 알려줘야 할까. 어차피 나도 언젠가는 6급이 될 테니까 미리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말이다.

내 머리 위로 차들이 지나다녔다. 반나절을 걷느라 지쳤는데도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없던 힘이 다시 생겼다. 시커먼 그림자가 나를 덮쳐올 때의 그 기분이란. 하지만 그것도 여러 번 겪다보니, 매번 나를 지나쳐 버리는 매의 쫓지 그림자가 보일 때는 극도의 짜릿함이 느껴졌다. 이번에도 살았구나하는 안도감과 함께.

그러다 어느 순간, 천천히 들린 내 몸은 빈 물통 안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는 두 인간과 함께 바퀴 달린 직육면체의 몸에 삼켜져 한참을 지나고서야 소화되고 배설되었다. 그리고 다시 삼켜진 곳. 아까와는 다르게 큰 인간의 표정이 제법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

했다. 나에게도 내가 삼켜져야 할 웅덩이가 따로 있었으니.

빠져 나가기 위한 몸부림.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하늘을 날고 싶어 높은 곳을 찾아 걷던 것뿐인데 사망이 딱 막힌 수조 속에 갇힌 신세라니.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현실이 터무니없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더욱, 아크릴 벽에 부딪쳐 봤자 아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내 몸은 자꾸 멋대로 움직였다.

일명 ‘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참 많았다. 솔직히 뭐가 뭔지도 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물생활’ 도구의 메카라는 청계천 수족관 거리를 찾았다. 그곳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우선 이곳저곳 밖에서 구경을 했다. 수조, 여과기, 바닥재, 수초, 유목, 블랙시판……. 인터넷에서 이름만 꺼내온 정보들을 되새김질하며 초보터를 내지 않기 위해 다양한 시각 정보들을 머릿속에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보았던 상호가 눈에 들어왔다. 주인이 친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물생활’ 용품 가격이 주변보다 싼 편이라는 낙원 수족관.

“잠깐 구경 좀 하겠습니다.”

뜰채로 수조 속 죽은 물고기를 꺼내 물방개 통에 던져주던 사장은 나에게 잠깐 눈길만 주고는 우글거리며 먹이에게 달려드는 물방개 무리를 무심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물고기들과는 다르게 곤충들에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았다. 물자라를 검색하다 주워들은 게아재비며 장구애비라는 수서곤충의 이름을 실물과 대충 맞춰보며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한 곳에 내 발걸음이 멈추었다. 수조에 가려 보이지 않는 사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물자라 암컷만 살 수 있나요?”

반대쪽에서도 목소리만 들려왔다.

“물자라는 암수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수조 꾸밀 만한 것들 좀 보여주세요.”

가게를 나올 때는 내 두 손이 무척이나 무거워져 있었다. 그리고 보니 나는 왜 집에 있는 물자라를 수컷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침에 반쯤 먹다 남긴 밀웜에 다시 주둥이를 꽂고 있는데 갑자기 세간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장판은 관상어한테나 깔아줄 법한 산호사. 가구로는 붕어마름 세 촉과 화산석에 활착된 이름 모를 수초, 숨을 곳이 많은 관석과 사방으로 가지가 뻗어있는 유목에 블랙시판까지. 또 천정에는 부유식물인 생이가래 열 촉이 떠다녔다. 24시간 조명과 난방 역할을 맡은 100W 히터와 여과기에서 깨끗한 물까지 공급받으니 제법 괜찮은 인테리어가 완성되었다. 아니, 솔직히 혼자 살기에는 지나칠 정도였고 게다가 이런 45cm 크기의 낡은 아크릴 수조에는 어울리지 않는 돈지랄이었다. 자동 먹이 급여기까지 달아놓으니 이 집 주인의 소중한 애완동물이 된 기분마저 들었다. 이따 돌아오면 벽이라도 긁어대며 재롱이라도 떨어줘야 할 것만 같았다.

“아이 좀 맡겨도 될까?”

“얼마나?”

“지방에 일이 좀 생겨서.”

“몇 시?”

“유치원 끝나면 데려갈게.”

여자를 처음 만난 건 7년 전이었다. 고시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한창

고시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였다. 고시원 총무가 해놓은 밥과 밑반찬을 식판에 담아 가다 식당 입구에서 여자와 마주쳤다.

“그걸로 식사가 되겠어요?”

여자는 내 식판을 낚아채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공용냉장고에서 ‘내꺼’라는 스티커가 붙은 락앤락 통을 꺼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간장에 절여놓은 게 한 마리를 꺼내어 김이 오르는 밥 위에 척 하니 올려주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먹음직스러운 간장게장보다 여자가 엄지와 검지를 번갈아 빠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었다.

그렇게 몇 번인가 반찬을 얻어먹은 이후로 여자는 내게 식판이며 수저, 빨랫감까지 달라고 했다. 자연 내 방에서는 자질구레한 집기들이 사라져 갔고 텅달아 내 머릿속에서는 달달 외우고 있던 활자들이 하나둘 잊혀져 갔다. 물론 일의 결국은 늘 그렇듯 내 통장과 여자의 동반 증발로 끝이 났다. 하지만 몇 년 모아놓은 장애수당도 아깝지 않았고 아예 고시 2차 시험을 보지 못한 것에도 아쉬움이 남지 않았다. 여자가 내게 남기고 간 한 달은 그런 것들보다 더 강렬했다. 아무런 육체적 교감이 없었는데도.

고시 공부를 때려치우고 도전한 공무원시험에 특별전형으로 합격하여 구청에서 하는 일에 적응할 무렵 여자가 찾아왔다. 내 소재야 내 의족까지 보여주며 꽤 친하게 지냈던 고시원 총무에게 물어보면 금방 나올 테니 여자가 찾아온 것이 하나도 놀랍지 않았다.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여섯 살짜리 아이도. 그녀는 여전히 예뻐다. 텅달아 아이도 무척 귀여웠다.

“당신 아이야.”

“아빠!”

나는 두 사람에게 방긋이 웃어주었다. 그렇게 헤어진 후 한 달 만에 나타난 여자는 아이 유치원에 가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퇴근하는 길

에, 아이를 맡아달라는 여자의 전화를 받았다.

아이가 오기까지 2시간 남짓 남아있었다. 나는 낙원 수족관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유목에서 여과기로, 여과기에서 히터까지 산책을 나왔다. 처음 몇 번인 가는 발을 헛디뎠 물속으로 곤두박질치다 이제는 공간을 지나쳐 오는 것에 제법 익숙해졌다. 이번에는 올라온 김에 자동 먹이 급여기의 상태 표시창까지 확인해 보았다. 하루에 한 번, 한 마리씩의 밀웬이 나오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처음 이 집 주인은 하루에 세 끼씩 꼬박꼬박 밀웬을 챙겨주었다. 물론 며칠 지나지 않아 바닥과 수면에는 손도 대지 않은 밀웬 시체들로 채워졌다. 그제야 인간은 지금의 공급량이 최선임을 알게 된 것 같았다.

급여기 안은 꿈틀거리는 밀웬들로 그득했다. 군침을 삼키며 급여기 위까지 오르니 물속에서는 안 보이던 집안 이곳저곳이 눈에 들어왔다. 내 집보다 인테리어가 엉망이었다. 무엇보다 책상 한 편에 모셔놓은 거대한 빈통이 흉물스럽기까지 했다. ‘내꺼’라니. 이 집에 나를 제외하고 ‘니꺼’ 아닌 게 있거나 한 건가. 날개를 퍼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내 귀찮아졌다. 기껏 날아봤자 방안일 텐데 날아서 뭐하냐는 생각이 내 발을 자꾸 물속으로 끌어당겼다.

“어, 또 오셨네.”

“물자라 암컷 한 마리만 사러 왔습니다.”

“그 양반, 물자라는 암수 구별이 어렵다니까.”

“제가 좀 알아온 게 있으니 알아서 골라가겠습니다.”

주인은 내가 수조에 붙어 앉아 물자라를 한 마리씩 잡아 뒤집는 장면을

어깨 너머로 빠끔히 내다보고 있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배 끝부분을 아생식판이라고 하는데 암컷은 정삼각형이고, 수컷은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하더군요. 크기도 암컷이 보통 더 크고 색깔은 오히려 옅다는데 뒤지다보면 이 녀석은 확실히 암컷이다 싶은 게 한 마리쯤은 나오겠죠.”

예닐곱 마리를 잡았다 놓아줬다를 반복한 끝에 느낌이 오는 한 마리를 찾았다.

“요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얼마가요?”

“덕분에 나도 좀 배웠으니 그냥 가져가쇼. 한 마리면 겨우 교통비밖에 안 되니.”

주인은 물이 반쯤 담긴 비닐에 공기 주입기로 공기를 양껏 몰아넣고는 비닐 끝을 뱅그르르 돌려 묶어주었다. 그리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비닐을 내게 던지듯 떠맡기고는 수조에 붙어 앉아 침병대기 시작했다. 나는 비닐 안에 암컷 물자라 한 마리만 텅그러니 넣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판석 사이에 들어가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뭔가가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기묘한 파동이었다. 먹이 들어올 시간은 아니었지만 묘하게 잡아끄는 향에 머리를 내밀었다. 암컷 물자라였다. 체액이 빨린 채 빈 껍데기로 떠다니는 암컷 물자라 약충의 몸은 대충 훑어 본 적이 있었지만 성체 암컷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는 닳없이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달려드는 암컷을 향해 앞발을 휘둘러볼 새도 없이 뒤를 허락하고 말았다. 사실 나는 공격에 대한 의지조차 없었다. 암컷은 그런 내 생각이나 의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어느새 내 등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등 위에 자꾸만 자신의 콩지를 붙였다 떼

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수조 벽에 비춰지는 내 등에는 자꾸만 쌀알들이 올라서고 있었다. 그리고 암컷이 등에서 내려섰는데도 내 등에서는 계속해서 이물감이 느껴졌다. 날개가 돋았을 때처럼.

“아빠, 곤충은 어떻게 됐어요?”

“물자라다.”

나는 턱으로 수조를 가리켰다.

“왜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물자라인 거예요?”

물자라를 찾아 이리저리 눈을 돌리던 아이에게 그제야 물자라가 눈에 들어온 모양이었다.

“와, 그런데 아빠!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예요. 어, 그런데 한 마리 등에는 뭐가 붙어있어요.”

아이는 있지도 않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연신 좋아 죽는 소리를 해댔다.

“너, 아빠는 만나니?”

“아니요.”

아이는 어른들 대화의 행간도 곧잘 읽어냈다.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뭘 하면 되지?”

“다음 주 가정통신문 읽어 보시고,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 반대 동의서에 찬성 서명해 주시면 돼요. 식판 설거지는 제가 씻고 나와서 할게요.”

“엄마 없어도 괜찮겠니?”

“에이, 아빠가 있잖아요.”

아이의 대답은 명랑했지만 뒤돌아서서는 모습에는 여자를 잃은 7년 전 내 모습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오늘도 나는 수면 위로 기어 올라왔다. 평소의 산보와는 다르게 오늘은 목적이 있다. 이 집 주인은 식구가 늘었건만 먹이를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내가 나서는 수밖에. 유목에서 여과기로, 여과기에서 히터로. 한 음 한 음 꼼꼼히 건반을 눌러가며 최종 목적지인 자동 먹이 급여기에 도착했다. 요즘 들어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 때문에 산책도 쉽지 않다. 하지만 간혹 꼬무락거리는 녀석들의 진동이 짜릿하다. 1일 1회에서 1일 2회로 급여기 숫자를 조작하고 다시 음계를 밟으려는데 열린 창문 새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차갑다. 이제는 여과기가 만들어내는 인공 바람에 익숙해져 버린 내게 자연 바람은 참 새로웠다. 새끼들에게는 이런 찬바람이 안 좋겠지. 이제는 산책을 나오는 것도 참아야겠는 걸. 다음 번 산책은 아마도 새끼들이 부화하고 난 다음쯤이려나. 나는 아무런 미련 없이 따뜻한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병 조퇴를 하고 오랜만에 장을 봤다. 아이를 데리러 가기 전에 찬거리를 준비해 놓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조퇴라는 생소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비닐을 어깨에 걸쳐 메고 내딛는 한 발 한 발이 새로웠다. 횡단보도 앞에 각종 반찬을 파는 노점상이 보였다. 그것도 내 책임구역에 말이다. 뒷벽에는 버섯이 반찬의 이름과 가격이 적힌 현수막까지 걸려있었다. 나는 당당하게 노점상 앞에 가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얼마죠?”

주인은 15,000원이라고 쓰인 가격표를 가리키며 친절하게 다시 한 번 가격을 알려주었다.

“한 접시 주세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반찬통을 열자 눅눅한 냄새가 올라왔다. 물론 대

충 한 번 씻고는 간장게장을 넣었다. 간장게장 반찬통에는 여전히 “내꺼”라고 쓰여 있었지만 이제 이 간장게장은 진짜 내 거다. 여자가 그랬듯 손가락에 묻은 간장을 쪽쪽 빨아보았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현서가 간장게장을 좋아하려나.”

혼잣말이 귓구멍을 통해 들어가다 고막을 간질였다. 이내 내 등에는 소름이 돋아 올랐다. 현서를 데리러 가야하는 시간이 가까워오자 내 손은 더 분주해졌다. 싱크대 밑에 처박아 두었던 1kg짜리 쌀도 꺼냈다. 그저 아빠가 손수 준비한 음식을 좋아해줬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곳은 정말 따뜻하고 포근하다. 엄마 뱃속보다도 더. 저기서 길쭉하게 생긴 꿈틀이의 체액을 쪽쪽 빠는 물자라가 내 엄마, 우리 엄마다. 냄새로 알 수 있다. 지금은 어딘가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하루 동선이 엄마와 비슷한 걸 보니 이 사람이 아빤가 보다.

투명한 알껍데기에 싸여 바라보는 세계는 왜곡되어 보인다. 내 옆, 그리고 그 옆, 그 옆의 옆까지 내 주변은 온통 알뿐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대충 저런 모습이겠거니 생각한다. 알 밖에서 보는 세상은 어떨까? 참 궁금하다.

이곳은 제법 살기 좋다. 엄마 집보다 더. 저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내 엄마, 우리 엄마다. 엄마 뱃속에는 아빠(내가 알기로는 세 번째)가 다른 동생이 또 자라고 있으니,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아빤가(네 번째, 엄마한테는 첫 번째인가) 보다.

아직은 모르는 것투성이인 내 불완전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왜곡

되어 보인다. 내가 다니는 유치원의 아빠 없는 윤철이와 엄마 없는 희수, 그래서 나도 대충 저런 모습으로 비춰지겠거니 생각한다. 내가 아빠들처럼 어른이 되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 참 궁금하다.

한 자 반의 아크릴 어항 속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 신기하다. 내가 곤충에게서 이런 동질감을 느끼리란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어 더 긴장감이 느껴진다. 나는 매번 반복되는 광경임에도 다른 장면을 기대한다. 등에 알을 업고 암컷을 쫓는 수컷과 기실 암컷은 그런 수컷을 귀찮아한다는 사실을 뻔히 아는데도 말이다. 마치 내가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아니 나는 것을 잊어버린, 그것도 아니면 일부러 날지 않으려는 물자라라도 된 것 같았다.





입선



전)조달청
김진일



수상소감

습작도 많이 안 했는데 이런 좋은 소식을 접하게 돼서 기쁩니다. 나름 세태소설이라고 썼는데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작품 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품의 모티브가 되어주신 김동인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K박사의 연구-나이스드림의 부작용

아들놈의 성기는 둔덕처럼 불룩한 뱃살에 파묻혔다. 수음을 얼마나 해냈는지 음모도 몇 가닥 없었다. 저 몸으로 발톱은 어떻게 깎을까. 도대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기는 한 것일까.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옆자리의 아들놈을 힐끔거렸다. 근래 들어 감량을 많이 했지만 내가 보기엔 아직 부족해 보였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문제라고 했던가. 이 날 카롭고 섬뜩한 경구가 온몸을 파고들자 다시 온탕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아들놈의 때수건을 뺏어 등을 밀어줬다. 밀어달라 하고 싶었던지 아들놈이 씩 웃으며 젖은 머리카락을 위로 넘겼다. 아들놈에게 자기 친구가 벌써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생각났다. 독하게 마음을 먹는다면 살은 얼마든지 뺄 수 있지만 대머리는 정말이지 난감하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아버지가 이런 상념을 하든 말든 아들놈이 한가히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핫김에 아들놈의 등짝을 내리쳤다. 하지만 아들놈은 나를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측면의 사우나실 쪽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리고 보니 사우나실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적잖은 사람들이 비명을 내질렀다. 비명 소리는 천장의 울림으로 과장되고 기괴하게 들렸다. 예감이 안 좋았다. 변고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바닥에 쓰러진 사람은 내 또래의 같은 빌라 주민이었다. 그렇게 친하진 않았고 복도나 현관에서 만나면 수인사를 나누거나 가끔 담배를 같이 피웠던 정도였다. 국책은행 지점장 출신에 유일한 취미는 배드민턴 그리고 혼기를 놓친 40대 초반의 외동딸이 있다는 것. 그에 관해 알고 있는 전부였

다. 그런 그가 사우나 안에서 혼절해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멍하니 그를 내려다봤다. 나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세신사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119에 신고는 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심폐소생술 같은 거 하시는 분 없으세요?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여서요.”

“아빠, 수의사도 의사잖아요. 좀 어떻게 해봐요!”

눈치 없는 아들놈이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다.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봤다. 무언의 압박을 받으니 한순간에 범죄 용의자가 된 것 같았다. 얼떨결에 그의 코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맥박을 짚어봤지만 가망은 없어 보였다. 그래도 식은땀을 흠치며 심폐소생술을 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와중에도 심란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죽음에 다다른 내 또래를 보며 막연한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가장 최근의 정기검진 결과를 기억하기 위해 애썼지만 머릿속은 이미 백지상태였다. 다행인 것은 대머리와 마찬가지로 질병에 관한 가족력 또한 없다는 거였다. 그때였다. 아랫배에 슬슬 신호가 오더니 이내 변의가 맹렬히 솟구쳤다. 오늘은 웬일로 잠잠하다 싶었다. 아랫배를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웃으며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천만다행으로 119대원들이 이제 막 도착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한 채 나는 화장실로 뛰어갔다.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이 목욕탕 현관에서 나왔다. 119대원들이 시신이 실린 들것을 조심스레 구급차 뒷문에 안치했다. 지나던 행인들이 구급차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내 구급차가 요란한 경광등 불빛을 뿜으며 사라졌다. 멀어져 가는 구급차를 한동안 바라봤다. 죄책감 같은 건 아니었다. 오랜 경험을 미루어 상태를 확인한 순간, 죽었을 거라 직감했었다. 아들놈

의 말처럼 수의사도 의사니까. 구급차에 시선을 떼지 못한 이유는 자식의 혼사를 보지 못하고 떠난 부모를 실제로 목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그는 나처럼 심하게 불안에 떨진 않았을 것이다. 그의 과년한 딸은 저기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요구르트를 빨아대는 아들놈과는 사정이 많이 달랐다. 행정고시 차석 출신으로 특허청에서 근무하다 얼마 전에 대형 로펌의 변리사로 채용됐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골드미스’인 것이다. 아들놈이 번듯한 직장만 있었다라도 이렇게까지 속앓이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내 속도 모르는 아들놈이 요구르트를 내밀며 말했다.

“아빠, 죄책감 갖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시원하게 이거 마시세요.”

“넌, 내일모레면 마흔이라는 놈이 아직까지 아빠가 뭐냐! 어떻게 된 게, 맘에 드는 게 한 개도 없냐?”

아들놈이 내 공박에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경제력은 둘째치더라도 저렇게 철없는 모습을 더 이상 묵과하기 싫었다. 자식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부모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니까. 고개를 푹 숙인 아들놈이 내 뒤에서 터벅터벅 걸어왔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집에 거의 도착할 즈음이었다. 그냥 맞고 가기엔 버거운 비였다. 아들놈을 향해 뒤돌아서려는데 어느새 내 앞에 와 있었다. 커다란 노란색 우산을 펼친 채로. 언제 풀이 죽었냐는 듯 아들놈이 나를 향해 씩 웃었다.

“저기, 말입니다. 혹시 수면유도제가 말이에요. 아, 그게 부작용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이를테면……”

약대를 갖 졸업했을 법한 젊은 여자 약사의 의욕 넘치는 눈빛을 보자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신참답게 약사는 내 머뭇거림에도 불구하고 수면 유도제 복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차분히 알려주었다. 돌아보니 내 뒤로 많은 사람들이 처방전을 들고 서 있었다. 도저히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마침 약이 다 떨어진 사실을 떠올렸다. 하는 수 없이 약사에게 ‘나이스드림’을 달라고 했다.

젊은 여자들의 대담한 노출을 보니 그제야 여름이 오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벌써부터 열대야가 걱정되기도 했다. 그 얘기는 똥을 한없이 싸는 한이 있어도 나이스드림을 어김없이 복용해야 한다는 거였다. 이제부터는 뒤처리도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다. 자칫했다간 살 주변과 엉덩이가 땀띠로 도배될 수도 있었다. 나이스드림 한 알을 뜯어 자세히 살폈다. 항히스타민 계열의 디펜히드라민염산염 50mg, 수면진정제에 비해 내성과 의존성이 적은 부드러운 수면유도효과, 무색투명한 액상의 내용물을 함유한 연청색의 불록한 타원형 연질캡슐, 무엇보다 애증 같은 신묘한 명약. 약물 중독자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기생충학 권위자가 인생 말년에 잦은 똥으로 고생할 줄이야.

노년층에서 으레 나타나는 잠이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었다. 불면은 평생의 난제이자 숙제였다. 증상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들놈이 나오는 악몽을 수시로 꾸기 시작한 뒤로 더 심해졌다. 악몽을 꾸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정년퇴직한 시기와 맞물렸었다. 퇴직 전에는 연구에 치여 또 학장으로서의 대외적 업무에 치여 제풀에 지쳐 열은 잠이라도 잤었다. 퇴직은 뭔가 치일 게 없어진 중대 사건이었다. 그만큼 상실감이 컸으며 당연히 더욱 못 자게 되었다. 누구나 그렇듯, 손주가 탄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목가적인 노후를 기대했었다. 그리고 육아에 치여 잠들어 손주의 우렁찬 울음소리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었다. 어느 순간, 무난하고 평범한

것을 기대하는 일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들놈에 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연이은 불면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불면은 손에 꼽히는 건강의 적신호였다. 내 건강은 아들놈의 안위와 직결되는 것이니 당연히 해결해야 했다. 이제 와서 수술실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아들놈의 출산을 감행한 아내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여동생을 탓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역만리 칠레로 이민을 간 남동생이 아들놈을 검사해주길 바라는 것도 무리일 테고, 최대한 오래 살기 위해 숙면을 취해야 한다는 것. 답은 그거 딱 하나였다. 신경계도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찾았다. 친하게 지내는 약대 교수에게 얘기를 했더니 당장 나이스드림이라는 수면유도제를 복용하라고 알려주었다. 가급적 약은 안 먹자는 주의였지만 이 마당에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나이스드림을 사서 한 알을 삼킨 다음 곧바로 침대에 드러누웠던 걸로 기억한다. 반신반의는 그러나 하나의 신념이 되어버렸다. 나이스드림은 말 그대로 나에게 ‘나이스’를 넘어선 ‘원더풀’한 숙면을 선사했다. 꿈 없는 몇 십 년 만의 숙면을 고작 알약 하나로 해결하니 좀 허망하기도 했었지만 그것보다 나이스드림을 알게 된 희열이 더 컸다. 희열은 견잡을 수 없는 중독으로 이어졌다. 중독의 대가는 영락의 상징인 빨간색 압류 딱지나 치료감호소 독방에서의 유편 생활이 아니었다. 엉뚱하게도 장의 지나친 활동이었다. 제자들의 결혼식 주례사 낭독 중일 때, 명예교수 임용된 기념으로 한 공개강의를 할 때. 이렇듯 변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변비약은 있지만 반대로 똥을 안 나오게 하는 약은 왜 없을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 약이 떨어지면 일련의 상념을 털어내고 어김없이 좀비처럼 약국으로 느릿느릿 향하는 내 자신을 볼 때면 미치도록 화가 났다. 그러나 마법 같은 나이스드림을 도저히 끊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2년 가

끼이 복용해온 것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약국을 지나 빌라들이 밀집한 골목으로 들어서니 느닷없이 똥 냄새가 열
게 풍겼다. 벌써 괄약근을 통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던 말인가. 재빨리
손을 엉덩이에 갖다 댔다. 그러나 아무 이상이 없었다. 자세히 보니 골목
한가운데에 정화조 차량이 떡하니 서 있었다.

회관 안으로 들어가니 벌써부터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날씨가 더운지
옷통을 벗은 채 술 마시는 놈이 있는가 하면 취해서 벌써 굶아떨어진 놈도
있었다. 어림해보니 자주 오는 멤버들은 다 있는 듯했다. 놈들은 각각 닭
다리를 손에 쥐고 있었다. 나는 밥상 쪽으로 다가갔다. 밥상 위의 커다란
압력솥 안에 닭백숙이 들어 있었다. 끓인 지 얼마 안 됐는지 김이 모락모
락 났다. 자리에 앉자 노수만이 내 어깨를 만지며 말했다.

“김 박사야, 어서 다리 하나 잡거라. 토종닭이 역시 실하고 맛있네. 조
만간에 개도 잡아먹을 거야. 보신탕이면 환장을 하잖아? 너도 참, 별종이
야. 보신탕 먹는 수의사라. 히히히. 더 걸작인 건 보신탕을 그렇게 좋아하
는데 술은 입에도 못 댄다는 거지.”

“.....”

“너, 그리고 말이야. 명색이 우리 기수 동창회장도 하는 놈이 좀 심한
거 아니냐?”

“또, 뭐가?”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회관에 달랑 선풍기 하나가 말이 되냐? 회장이기
도 하지만 우리 중에서 자네가 제일 여유가 많잖아. 에어컨 하나 사서 기증
하면 안 되겠냐? 알아봤는데 중고는 가격이 저렴하더라고.”

노수만의 이죽거림에 다른 놈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이어 순식간에 자

기들끼리 내가 당연히 에어컨을 사야 한다는 증론을 모으고 있었다. 눈뜨고 코 베인 기분이었다. 학창 시절에도 나를 은근히 괴롭혔던 노수만이였다. 저런 마귀 같은 놈이 한때나마 경찰이었다니. 다행인 것은 업주에게 뇌물을 받아 불명예로 옷을 벗었고 연금도 반 토막이 났다는 거였다. 요즘엔 세쌍둥이 손자들의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출근하는 눈치였다. 노수만이 실실거리며 최신 스마트폰으로 다른 놈들에게 뭔가를 보여줬다. 보나 마나 손자들의 사진이나 동영상이었지. 범죄자에게 열패감을 느끼니 갑자기 열이 올랐다. 마른침을 연신 삼키니 갈증도 심하게 났다. 막걸리가 담긴 양은주전자를 내려다보니 근거 없는 오기가 발동했다. 이참에 약에서 술로 바꿀까 하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약이나 술이나 취해서 자는 건 마찬가지였다. 가만, 장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건 막걸리도 매한가지 아니던가.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나는 환김에 양은주전자를 사발에 따라 벌컥 들이켰다. 막걸리의 살얼음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 막걸리가 이렇게 맛있었던가. 연거푸 막걸리를 마셨다. 놈들이 하나같이 나를 놀란 토끼 눈으로 바라봤다. 그중에 노수만이 가장 놀란 것 같았다.

“천천히 마셔. 막걸리가 제일 무서운 술이야. 넘어가긴 잘 넘어가지만 한순간에 흑 간다.”

노수만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자니 승리감에 도취된 것 같았다. 승리감이야. 조금 우습기도 했다. 옛날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순사가 되어 고작 무궁화 한 개로 끝나버린 인생에게 승리감은 무슨. 오늘은 그저 나이스 드림 없이 자고 싶을 뿐이었다.

잠에서 깨어나니 머리가 갈라질 것 같았다. 게슴츠레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흰색 가운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었다. 순간, 아직 꿈에서 털 깨어난 것 같은 착각이 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했던 수련의 시절의 꿈을 자주 꾸었다. 부릅뜬 눈으로 정신을 수습하니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다. 왼쪽 팔뚝에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고 아들놈이 내 병상 옆 보호자 침대에서 쏘그려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사태가 파악됐다. 혼절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온 것이다. 이게 다 빌어먹을 노수만 때문이다.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데 담당 의로 보이는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이제 좀 정신이 드세요? 이를 동안 내리 주무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폭음하지 마세요. 응급실에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환자분께선 알코올을 분해할 능력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담당의의 말에 아들놈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더니 울먹거리며 나를 부둥켜안았다. 눈치 빠른 담당의가 열린 자리를 비켜주었다.

“아빠!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술을 마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아들놈의 갑작스런 기습에 그만 눈물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자식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나약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미세하게 떨리는 아들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마음을 독하게 고쳐먹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아들놈이 그렇게 잤으니 갈증이 엄청 심할 것이라며 정수기 쪽으로 달려갔다. 그랬다. 역시 가족밖에 없었다. 노총각이든 백수든 그래도 내가 의지해야 할 존재는 아들놈뿐이었다. 나 역시, 살아 있는 동안에 아들놈의 든든한 울타리로 버텨야 하는 것이고, 이 명료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은 느낌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또 하나의 진리를 깨우쳤다. 물조차 안 먹고 이틀을 내리 자며 똥을 싸지 않은 것이다. 이 모든 사

달의 원인은 역시나 똥이었다. 안 먹으면 안 썬다? 이토록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그래, 이제부터 철저히 금식이다. 아들놈이 어느새 물이 든 컵을 나에게 내밀었다. 잠시 망설이다 컵을 들이켰다. 도저히 이를 동안의 조갈증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운전대를 부여잡고 한숨을 몰아 쉬었다. 며칠을 호박죽과 물만 먹어 기력이 쇠해 잠깐 졸았던 것이다. 우선 차를 가까운 갓길에 세웠다. 조금만 더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저릿해졌다. 하늘이 도운 셈이었다. 공교롭게도 카오디오의 라디오뉴스에서 70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갱신기간 단축과 적성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운전면허증을 꺼내서 확인하니 면허를 딴 지 40년이 조금 안 된 상태였다.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똥을 안 싸려다 한순간에 과실치사자로 전락할 뻔했으며 내일모레면 칠십을 바라보게 되었다. 얼마 전에 끊은 담배가 절실히 생각났다. 재떨이를 뒤졌지만 쓸 만한 궤초는 없었다. 꼬르륵. 오늘도 어김없이 울리는 배 곱시계였다. 궤초 찾기를 포기하고 배를 매만졌다. 다행히 먹는 것을 줄이니 확실히 똥 싸는 횟수가 줄기는 했다. 그러나 극심한 공복의 후유증이 상당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역시 나날이 떨어지는 당 수치였다. 대시보드 안의 사탕도 다 떨어진 상태였다. 마침 코앞에 편의점이 있었다. 차에서 내렸다. 장마가 끝난 폭염의 기세가 극에 달하는 듯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한데요. 불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라…… 충격에 그만 목덜미를 부여잡았다. 바지에 똥을 싸면 이런 기분일까. 편의점 출입문을 열려는데 옆을 지나던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사내놈이 나에게 건넨 말이었다. 대못을 박은 목수치고는 어울리지 않게 숫집은 인상에 게다가 공손한 어조였다. 자세히 보니 아직 고등학생 같기도 했다. 아무리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해도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사내놈의 흡연을 방조할 순 없었다. 아니, 솔직히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다. 할아버지라는 호칭만 없었더라면 불의와 타협해 금연과 상관없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듀폰 금장라이터를 내밀었을 것이다. 교수 직함을 아직 유지 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니 더욱 화가 치밀었다. 공부의 또 다른 후유증은 다름 아닌 시도 때도 없는 울화였다.

“저기요, 할아버님.”

내가 반응이 없자 사내놈이 치명타를 날리고 말았다. 동방예의지국의 후손이 여기 있었다. 인상과 비례하는 깍듯함이 화를 가라앉히진 못했다.

“자네, 몇 살인가?”

“네?”

“고등학생 아닌가? 자네가 성인이라는 걸 증명하게.”

“할아버님, 저 어제 군대 전역했습니다.”

사내놈이 침착함을 유지하며 지갑에서 전역증을 꺼냈다. 나는 전역증을 보는 등 마는 등 했다. 애초부터 사내놈의 나이에는 관심이 없었다. 관심은 오로지 부당한 호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 쏠려 있었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사내놈을 뜯어보았다. 강한 햇빛을 계속 받으니 야속하게도 점점 서 있기가 버거웠다. 제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를 젊음을 유지해 온 자부심이 신기루처럼 망연히 사라지려는 것 같았다.

“할아버님, 확인하셨으면 돌려주시죠.”

“인마! 자꾸 말끝마다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왜 할아버지야? 어? 손주가 있어야 할아버지지. 내 말이 틀렸으면 어디 반박을 해봐!”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무더위로 인한 불쾌지수가 기폭제가 되었다. 사내놈이 묵묵히 내가 내던진 전역증을 줍고 있었다. 사내놈은 아마도 신학대에 복학할 예비 목회자일 것이다. 최대한 화를 삼키며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사내놈에게 또다시 항변했다. 내 언성에 거짓말처럼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몰려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적대적으로 바라봤다. 악몽처럼 조금 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잠깐의 현기증에 전봇대를 짚었다. 나와 사내놈을 향해 휴대폰을 들이대는 중학생 조무래기도 있었다. 아무래도 일이 잘못 돌아가는 듯했다. 차를 포기하고 재빨리 전방의 지하철역 출입구로 내려갔다.

체중계에 찍힌 숫자를 보니 한숨만 나왔다. 체중계에서 내려와 곧바로 러닝머신에 올라탔다. 연이은 폭식으로 며칠 사이에 체중이 4kg이나 불었다. 자연스레 똥 싸는 횡수는 예전과 다름없는 상태로 돌아오고 말았다. 절대 굶지 말고 다이어트를 하라는 가정의학과 의사들의 말을 실감했다. 원치 않은 다이어트를 하려다 이제 정말로 다이어트를 하게 될 판이었다.

이번 달 공무원연금 소식지를 다 읽을 즈음에 아들놈이 집으로 들어왔다. 아들놈은 어깨에 뭔가를 메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애완견 이동가방이었다. 이내 아들놈이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양증맞은 갈색 푸들 강아지가 튀어나왔다. 아들놈이 다짜고짜 푸들을 나에게 안겨주며 말했다.

“요즘 보니 살 좀 찌신 것 같아서요. 예쁜 걸로 하나 분양받았어요. 이놈 이랑 같이 산책 많이 다니세요.”

푸들이 내 얼굴을 거침없이 핥고 있었다. 아들놈의 갑작스런 선물에 난 감했다. 이제껏 반려동물은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었다. 상투적이지만 이

를테면 이런 논리였다. 가수가 자신의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지 않고, 개그맨이 귀가해 부인을 애써 웃기지 않으려는 심리 같은 것 말이다. 솔직히 동물이 좋아 수의대에 간 게 아니었다. 따지고 보면 수의사가 되어 집안을 일으킨 것도 이 망할 똥 덕분이었다. 그저 실소만 나왔다.

채변봉투를 손에 쥐고 퐁파리가 우글거리는 변소에 쪼그려 앉았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언제나 머릿속이 아득해지곤 한다. 나는 언제나 반에서 구충제를 가장 많이 받는 학생이었다. 친구들의 놀림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은 지렁이였다. 뱃속에 들어 있는 지렁이 같은 놈들보다 더 원망스러웠던 것은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말고 농사일을 도우라고 채근했다. 그럴수록 당연히 반대로 나가고 싶었다. 가난을 타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부라고 결론을 내렸다. 파스퇴르의 전기를 우연찮게 읽은 뒤 엉뚱하게도 원흥 같은 기생충과 회충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어졌다. 어찌 됐든 명분은 명확했다. 채변검사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만큼 기생충과 회충을 박멸하는 것이 내 커다란 사명이라고 열여섯 살 때에 처음 생각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대부분의 수의대가 학비가 싼 국립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의대를 목표로 미친 듯이 공부했다. 결과적으로 엉뚱한 오기가 숙명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그리고 이 망할 애증의 똥 역시도 나에게 숙명일 테고……

아들놈이 덩다며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다. 반쯤 열려 있는 아들놈의 방을 바라보니 문득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다행히 아들놈은 샤워를 매우 오래 하는 편이었다. 푸들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아들놈의 방으로 향했다. 책장 안의 빛바랜 세계문학전집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3단으로 되어 있는 상아색 원목 책장은 문학을 비롯한 다방면의 책들로 빼

곡했다. 그중 한 개를 집었다. 아들놈의 작품이 최종심까지 올라간 문예지였다. 아직도 등단한 것처럼 기뻐했던 아들놈의 얼굴을 기억한다. 아들놈의 호들갑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 문단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문예지라는 것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꼭 등단이 될 것이라 나에게 걱정 말라고 했다. 그게 벌써 5년 전의 일이었다.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길을 알아보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희망고문이라는 신조어는 전적으로 아들놈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다. 한줄기 희망이 처참한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의 아이러니를 잠시 생각해봤다. 동쟁이가 되어버린 기생충학 박사의 아이러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아들놈의 휴대폰이 올린 것은 문예지에 실린 심사평을 꼼꼼히 읽고 있을 때였다. 내 사랑 수진~이라고 액정화면에 떴다. 두 눈을 의심했다. 누가 봐도 연인에게 걸려온 전화라 생각할 것이다. 아들놈에게 애인이 있다? 심장이 곤두박질쳤다. 무슨 용기가 났는지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벨 소리가 끊겼다.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최근 통화 기록에도 내 사랑 수진~이 대부분이었다. 확증을 잡기 위해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사진첩으로 들어갔다. 사진첩은 온통 아들놈과 내 사랑 수진~으로 추정되는 여자가 같이 나온 사진들뿐이었다. 기껏해야 20대 중, 후반으로 밖에 안 보이는, 평균 이상의 외모였다. 이런 멀쩡한 아이가 아들놈을 왜 만날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에 앞서 아이에게 고맙다 말하고 싶었다. 테레사 수녀가 따로 없었다. 아이는 어쩌면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단체에 정기적인 송금도 할 것이다. 흘러내리는 미소를 주체할 수 없었다. 샤워기에서 물 쏟아지는 소리가 그쳤다. 나는 재빨리 아들놈의 방을 빠져나왔다.

이후 아들놈의 휴대폰을 틈틈이 훑쳐본 결과는 이랬다. 아들놈과 수진

이라는 아이는 문예창작과 입시, 과외 선생과 제자로 처음 만났다. 관계의 진전은 공고롭게도 수진이 아들놈과 같은 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하면서 부터였다. 물론 그전에 살집이 넉넉한 남자가 수진의 이상형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야겠지. 그 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만든 30년 전통의 합평 모임에서 둘은 재회했다. 재학생과 졸업생이었으나 둘은 그에 상관없이 서로의 단편소설을 신랄히 비평했다. 그러나 둘은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기도 했다. 그렇게 미운 정과 고은 정이 들어 1년 전부터 지금의 관계로 발전한 것이다.

실실거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아들놈이 잘하면 장가를 갈 수 있겠어. 당연히 손주도 볼 수 있는 거지. 결혼하면 분양받은 용인의 임대 아파트를 주면 되겠어. 거기가 산이 많아 글을 쓰기 좋을 거야.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벌써부터 부모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한 것 같아 울컥했다. 그렇게 한동안 감상에 젖어 있는데 벤치에 앉아 있던 푸들이 내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배고프다는 신호였다.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가지고 있던 육포를 푸들에게 내밀었다. 푸들이 한달음에 육포를 먹어치웠다.

“그래, 많이 먹어라. 네가 온 후로 많은 게 달라졌다. 이제 약 없이도 잘 잔단다. 복덩어리 같은 녀석.”

사실이였다. 아들놈의 연애 소식을 접한 다음 날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며 평소보다 훨씬 잘 잤다. 그다음 날, 긴가민가한 마음에 나이스드림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정말이지 큰 기대는 없었다. 그러나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다. 복용한 것과 다름없이 맨 정신에 숙면이 온 거였다. 우연인 것 같아 연이어 복용하지 않고 잤으나 결과적으로 숙면이 온 건 마찬가지였다. 약을 끊었다는 해방감보다 더 좋았던 건 당연히 엄청나게 즐

어든 똥이었다. 역시 인체는 정직했다. 요즘은 3일에 한 번 변기에 앉을 때도 있다. 아들놈의 조언대로 지금처럼 푸들과 달밤의 체조를 한 뒤로 체중도 예전의 상태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안정을 찾은 셈이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낸 신념이기도 했다. 스마트폰의 이질적인 터치감이 싫어 8년째 폴더폰을 쓰고 있으며 주식 투자라면 쳐다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오랜 공직 생활이 가져다 준 타성일 것이다. 변화를 싫어하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타성. 이번 일로 새삼스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인간이 생존을 위해 먹고, 싸고, 자야 한다는 어김없는 사실 말이다. 잠깐,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 포괄해야겠다. 저기 저렇게 조그만 푸들도 똥을 싸니까. 체구에 어울리지 않는 큼지막한 똥이었다. 어쩐지 오늘 많이 먹는다 했다. 일을 마친 푸들이 나를 뵈히 바라봤다. 바지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똥을 치웠다. 매번 하는 것이지만 언제나 곤욕인 것도 사실이었다. 다행히 배변 훈련을 시작한 뒤로 집에서는 항상 패드 위에서만 용변을 보고 있다. 그래도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똥을 치우려 한다, 손주의 기저귀를 갈기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다시 실실 웃기 시작했다. 공원 안은 구애를 위한 수컷 매미들의 맹렬한 울음소리로 들썩였다.

갑작스런 변의가 찾아온 건 **출념기를 한창 하고 있을 즈음이었다.** 인상을 쓴 채 배를 움켜쥐었다. 새벽녘에 엄습해온 이 지독한 불청객 앞에 망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언제나 방심은 금물이라고 했던가. 산책만 하면 될 것을 무리하게 뛰어서 이런 낭패를 볼 줄이야. 아! 당장이라도 나올 것 같았다. 푸들이 내 위중한 상태를 알아챘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마의 식은땀을 닦으며 헤아려보았다. 이 근처에 화장실이 어디 있었더라. 만약에 있더라도 이 시간까지 개방해놓은 화장실이어야 했다. 막막했다.

우선 상가들이 밀집한 쪽으로 향했다. 뛰면 나올 것 같아 경보 선수처럼 최대한 빠르게 걸을 수밖에 없었다. 뒤에서 푸들이 애타게 짓으며 나를 따라왔다. 그제야 아직 목줄을 안 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푸들이 걱정됐지만, 내가 더 걱정이 됐다. 바지에 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상가건물 안의 화장실은 하나같이 잠겨 있었다. 나는 난간을 부여잡고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왔다.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후미진 곳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조그만 주차장이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그때였다. 미쳤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바지에 싸면 찢지 절대 그럴 수는 없었다. 푸들과 같이 산다고 푸들처럼 살 수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폰 보급률을 바탕으로 한 온국민의 투철한 기자 정신이,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전신주에 엉켜 붙은 CCTV라는 조직화된 거대한 망루가, 대형 세단이든 경차든 항공기의 전유물인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룸미러에 걸어야만 하는 현대인들의 불신이 나는, 두려웠다. <블랙박스로 본 세상>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신상이 노출되는 상상을 잠시 하니 끔찍했다. 그럴 바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을 택하겠다. 반드시 이 난관을 벗어나야 했다. 신중해지자. 머리를 쓰자. 부숩버리는 한이 있어도 화장실에 들어가야 한다. 철문은 부숩버리기 쉽지 않다. 유리? 유리문! 아, 왜 그곳이 이제 떠올랐을까. 다행히 여기서 지척의 거리에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제 곧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큼지막한 자갈돌을 들고 동문회관에 도착했다. 몇 만 원 정도의 유리 값 변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노수만의 말처럼 차고 넘치는 게 돈이었다. 연금에 부동산에 그리고 연구와 논문을 조작한 대가로 대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챙겼다. 이렇게 돈을 편안히 쓰기 위해 벌여놓은 돈 말이다. 믿을 수 있는 것은 가족과 돈뿐이었다. 자갈돌을 힘껏 문을 향해 내던졌다. 유리문이 와장창 깨지는 동시에 보안업체에서 설치한 경보음이 울렸다.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후끈한 열기와 보신탕 냄새가 훅 끼쳤다. 곧바로 화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변기에 앉자마자 똥이 무지막지하게 쏟아졌다. 어떻게 이런 양을 몇 십 분 동안 참을 수 있었을까. 하여간 행복할 뿐이었다. 휴지걸이 옆에 설치된 재떨이 위로 쓸 만한 꾀초가 있었다. 꾀초에 듀폰 금장라이터의 불을 붙였다. 비데의 따스한 물줄기를 맞으니 금세 노곤해졌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저 멀리서 보안업체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동인의 K박사의 연구라는 단편소설목을 차용했습니다.



특히청
최 석 규



수상소감

문학이 다른 학문과 두드러진 차이점은 내면에 삶을 숨겨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노래든, 자기 이야기든, 타인의 풍설이든, 혹은 픽션이든 장르는 상관없습니다. 알랭 드 보통은 '영혼의 미술관'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발견한다면 그 순간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에서의 이해와 감상 이전에 '무엇'이 먼저 심장으로 불쑥 들어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설은 그렇게 '무엇'을 문장과 문장 사이에 섬세하게 묻어 놓고 독자를 기다립니다. 비록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더라도 말입니다. 제 글이 활자가 될 때마다 늘 같은 바람이지만 이 소설 '무게'도 부디 많은 이들에게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무게

누나는 읽던 신문을 공처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옛이나 먹으라고 해! 가운데 손가락을 쳐들고 소리쳤다. 6인용 병실 안 사람들이 쾅한 표정으로 우릴 쳐다봤다. 눈을 크게 깜빡거리 화낸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누나는 내 눈을 보고 있지 않았다. 뒤통그러진 얼굴은 이미 창밖을 향해 있었다. 닭 가슴살처럼 생긴 하얀 구름을 한동안 노려보던 누나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둥글둥글한 커다란 등짝이 올라갔다 털썩 주저앉았다. 구겨진 신문지를 꺼내 다시 읽기 시작했다. 왼쪽 발가락을 까닥거리 누나를 불렀다. 신문을 내 얼굴에 가까이 대 주었다.

성인 남자의 심장 무게는 평균 300그램 정도이며…….

누나는 의학 상식 코너를 바라보는 엉뚱한 내 눈길을 알아차리곤 신문 한 귀퉁이를 다시 네모나게 접어 바깥 얼굴 앞에 가져다 놓았다.

제15회 아름다운 우리 가족 수기 공모전 수상작.

당선자 사진과 심사평이 구깃구깃 보였다.

누나는 내 몸뚱이를 왼쪽으로 90도 돌려 눕혔다. 상하의를 모두 걷어 찢히고 가슴, 배, 등, 엉덩이를 마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오늘따라 병실을 찾은 환자 가족들이 많아 실내는 후텁지근했다. 뭉글뭉글 땀이 솟은 등을 박박 문지르며 누나는 계속 구시렁댔다.

“예심에 400편 접수됐고 본심 6편 뽑는데 겨우 이틀 걸렸대. 하루에 200편, 10시간을 꼼짝 않고 읽어본다고 해도 한 시간에 20편, 한 편당 3

분이야. 말이 돼? 저것들은 타인의 삶의 무게를 평가하는데 겨우 3분 걸렸어.”

누나는 분이 풀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난 신음소리를 내며 등쪽의 고통을 호소했다. 십년 묵은 때를 벗겨 내듯 벽벽 밀어 대는 통에 등이 아렸다.

두 달 전, 밤잠 설치며 쓴 우리 이야기를 빠른 등기로 보낼 때만 해도 누나는 희망에 차 있었다. 하지만 ‘3분’ 만에 ‘삶의 무게를 평가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은 잔뜩 골이 난 것 같다. 내 사타구니와 성기를 닦기 시작할 때부터는 예심 탈락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했다.

“마감일 임박해서 보낸 게 문제일지도 몰라. 우편물이 늦게 도착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날 접수된 원고가 너무 많아서 내 것을 빠뜨렸을 수도 있잖아. ……보낼 때 향수는 뿌렸던가?”

누나는 원고에 닭 비린내가 배진 않을까 걱정했다. 냄새가 심사위원의 심기를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면 손을 세 번 비누로 씻고 두 번 세정제로 닦은 후 손으로 쓴 종이를 봉투에 넣었다. 겉면에는 특별한 날에만 쓰는 향수도 뿌렸다.

누나는 늘 사소한 것에 신경을 썼다. 내가 응급실에서 6인실 장기 요양 환자 병실로 옮긴 후부터 증상은 더 심해졌다. 징크스의 개수도 나날이 많아졌다. 하루는 치킨 배달을 나가다 보도블록 사이에 피어난 들꽃을 그 육중한 몸무게로 몽개 버린 대참사가 벌어졌다. 발밑의 어린 꽃들은 누나에게 지뢰밭과 다름없었다. 누나는 꺾어진 꽃대를 어떻게든 일으키려 애를 썼다. 그렇지 못하면 내가 다신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병실에 종일 누워 누나를 기다리는 일은 지루했다. 무료한 기다림은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 있었다. 우리는 중구 대사동 산동네에 살았다. 원래는 회갈색 시멘트 색의 넓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몇 해 전 무슨 자원 봉사 단체에서 담벼락을 하얗게 칠하고 거기에 동화어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나무와 꽃을 그려 넣어 주었다. 사진 찍기 좋은 벽화 너머 작은 집에서 누나와 난 함께 살았다.

동네는 멀리서 보면 알록달록한 선물상자 같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쓰레기 자체였다. 집과 집 사이를 구분 짓는 뾰뾰한 골목은 링거를 달고 사는 환자의 울퉁불퉁한 혈관을 닮았다. 좁고 가파른 길 때문에 청소차는 중턱 이상 올라오질 못했다. 대신 미화원들이 직접 걸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갔다. 하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우리 집 앞에는 며칠에 한 번씩만 왔고 아예 올라오지 않을 때도 많았다. 그래서 골목길에는 늘 젖은 쓰레기 냄새가 났다.

일고여덟 살 정도였을 것이다. 나는 누나가 오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 저녁만 되면 큰길에 내다보이는 안방 미닫이 창문을 열어 놔다. 하지만 초여름부터는 그럴 수 없었다. 썩은 내가 안에 자꾸 들어온다는 이유로 누나는 창문을 못으로 박아 고정시켜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옥상이었다. 그곳은 장독대, 종이 상자와 각종 폐품이 가득했다. 머리 위로는 열기설기 연결된 빈 빨랫줄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거미줄처럼 이어진 전화선이 있었다. 내 눈에 비친 달동네 하늘은 신기했다. 그것은 선으로 구분되어진 파란 조각 그림 퍼즐과도 같았다.

옥상은 비좁았지만 그래도 작은 아이 하나 앉을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은

있었다. 나는 어디서 반쯤 부서진 의자를 주워 와 킁킁거리며 장독 사이에 올려놓았다.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다가도 누나가 오기 삼십 분 전부터는 종일 그 자리를 지켰다. 아랫동네부터 불그스름한 노을이 올라올 즈음, 누나는 모습을 나타냈다. 코끼리처럼 뚱뚱한 몸은 멀리서도 금방 눈에 띄었다. 누나가 알아볼 때까지 난 옥상에서 손을 흔들어 댔다. 운동회 날 하늘의 만국기처럼 온몸을 펴려거렸다.

누나가 늦게 집에 오던 날, 옥상에서 잠이 든 적이 있었다. 저녁 햇볕에 따뜻하게 데워진 장독을 끌어안고서 깜빡했는데 눈을 떠보니 이불 속이었다. TV 앞에는 아침상이 차려져 있고 늘 그렇듯이 밥그릇 옆에는 전단지가 놓여 있었다. 뒷면에는 희망으로 가득한 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짧은 우화가 적혀 있었다. 어떤 날은 누나가 직접 쓴 동화도 있었다. 내용은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에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지들은 책상 서랍에 차곡차곡 쌓여 갔다. 지금도 어느 한구석에서 오래된 집면지와 함께 화석처럼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누나가 내 낡은 책상을 버리지 않았다면 말이다.

어릴 적 제일로 싫어했던 것은 목욕이었다. 누나는 일주일에 두 번 나를 씻겨 주었다. 나이와 달리 몸은 조숙했는지 그때 벌써 내 성기 주변엔 털이 나기 시작했다. 아빠와 처음으로 공중목욕탕 갔을 때 일은 지금도 생생하다. 난 머리카락 같은 어른들의 음모를 보고 무성한 털이 곧 능력과 힘의 상징이라고 믿었다. 고추에 털이 많아지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사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수풀처럼 풍성해질 때까지 비밀로 하리라 마음먹었다. 내가 능력 있는 어른이 되었음을 깜짝 이벤트로 밝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불행히도 계획은 금방 수포로 돌아갔다. 한 가닥 튀어나온 고추 털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내가 아

나라 누나였다. 수건으로 사타구니를 닦아주다가 알게 되었다. 난 나도 모르게, 누나! 꼬추에 털 났어! 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때 왜 누나의 얼굴이 붉어졌는지 난 이해하지 못했다. 못하는 것 없고 모르는 것 없는 누나는 그때 겨우 열여덟 처녀였음을 알지 못했다.

누나는 나보다 열두 살이 많다. 올해 내가 스물두 살이므로 누나는 딱 서른넷이 된다. 옛날 같으면 진작 시집을 가고 조카도 낳았겠지만 여태 싱글이다. 누나는 밤늦게까지 시장에 있는 ‘한마음 치킨’에서 닭을 튀긴다. 하지만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땐 강남의 젊은 직장 여자들처럼 항상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녔다. 차이점은 오래전 남대문 시장에서 7만원을 주고 사다는 것뿐이었다. 누나는 틈만 나면 물에 희석한 세제로 가방의 겉과 속을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찌든 양념 닭강정 냄새와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항상 맡게 되는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의 체취는 지워지지 않았다.

루이비통 가방은 지니의 마술 램프와 비슷했다. 방바닥을 비비적대며 방과 후 활동비에 대해 꾸물꾸물 말했더니 가방 속에서 고무줄로 돌돌 말린 지폐가 나타났다. 야구 글러브, 축구화, 학용품 같은 것들이 튀어나온 적도 있었다. 특히 생일날처럼 특별한 날에는 더 놀라운 것이 들어 있었다. 예를 들면 제6판 최신 로봇 대백과사전 같은 것이었다. 표지에 건담 로봇이 홀로그램으로 박혀 있어 햇빛 아래에서 흔들면 워 부스터가 무지갯빛 위용을 뽐내는 멋진 책이었다. 첫째 장에 있는 초합체 마술 로봇 강가이지부터 기동전사 건담 미래세기 시리즈에 나오는 기동무투전 G까지 난 책장이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읽었다. 돈 벌면 꼭 이런 로봇 살 거다, 라며 친구들에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하지만 내 인생 최초의 장기 구매 계획은

금방 바뀌었다. 가방의 헤진 부분을 조각 가죽으로 기우는 누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난 먼 훗날 고추에 털이 무성해지면 로봇 대신 먼저 루이비통 가방을 사야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띠 동갑 어린 동생은 열여덟 누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종종 생각해본다. 몇 살 때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한번은 시장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누나 심부름으로 슈퍼마켓에 라면과 식빵을 사러 갔다가 방향을 잃었다. 가로 질러가면 가깝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미로 같은 시장 속으로 들어갔다. 통로를 빙빙 돌다 보니 낯선 동네가 나왔다. 좁은 골목길을 집 잃은 강아지처럼 헤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저물어 길은 어두워졌고 가로등도 하나둘 켜졌다.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팠다. 주머니에는 누나가 준 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구두쇠 누나가 무서워 돈만 손에 꼭 움켜쥔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멀리 허둥지둥 뛰어 오는 누나의 모습이 보였다. 달려가 누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누구의 심장 소리인지 모를 쿵쿵거림이 온몸의 세포로 퍼졌다.

“준 돈으로 택시라도 타고 왔어야지!”

누나는 손바닥으로 내 조그만 엉덩이를 마구 후려쳤다. 엉덩이에는 갓 지렁이 같은 손자국이 났다. 난 맞은 곳이 쓰리고 아파, 그보다 더 통통 부은 누나의 붉은 눈두덩을 보지 못했다. 누나는 나를 업고 집으로 향했다.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다. 누나가 대답했다.

“소리를 들었어.”

“무슨 소리?”

“네 징징대는 소리.”

“징징대는 소리가 집까지 들려?”

“그래.”

“어떻게?”

피곤이 몰려왔다. 눈꺼풀이 무겁고 주변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난 누나의 답을 듣기도 전에 폭신하고 둥근 등에 기대 잠이 들었다.

누나의 청춘은 푸르지도 찬란하지도 않았다. 오래된 닭튀김 기름처럼 거무튀튀했고 시장 아줌마의 엉덩이처럼 축 처져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체육 시간이 있는 날 아침, 내 체육복이 다 찢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뿐만 아니라 함께 빨은 옷들도 많이 상해 있었다. 낡은 세탁기가 문제였다. 난 온갖 짜증을 부렸다. 무서운 체육 선생의 얼굴이 눈앞에 왔다 갔다 했다. 누나는 집에서 입는 자기 체육복을 빌려주었다. 옷을 입어 보니 허리통과 소매가 한 뼘은 남았다. 그래도 짙은 남색에 흰색 줄무늬가 양쪽으로 그려져 있어 얼핏 보면 학교 체육복과 비슷해 보이긴 했다. 하지만 바지 안에 여성용 엉덩이 패드가 덧대어 있다는 것은 체육 시간이 될 때까지 몰랐다. 운동장에서 몸 풀기 체조를 하는데 체육 선생이 날 불러냈다. 팔다리는 문어 다리처럼 흐느적거리고 엉덩이 쪽이 흑인 여자처럼 푹 튀어 나온 폼새가 이상했던 모양이었다. 선생은 애플 힙이 도드라진 엉덩이를 하얀 지휘봉으로 쿡쿡 찌러도 보고 손으로 푹툭 쳐보기도 했다. 엉덩이

뽕 넣어? 이 새끼, 변태 아니야? 선생은 체육복 윗도리 안쪽에 쓰여 있는 누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네 이름이 김미자냐? 선생은 함부로 누나의 이름을 불렀다. 반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다. 그날 이후 내 별명은 뽕녀 김미자가 되었다. 누나와 난 그렇게 같은 이름을 썼다.

중학교 3년 동안 누나는 학교에 두 번 왔었다. 첫 번째는 육성회 회장 아들과의 싸움 때문이었다. 주먹다짐을 벌인 이유는 내 교과서에 엉덩이가 툭 튀어나온 별거벗은 여자를 그려 넣고 그 위에 누나 이름을 써 놓은 녀석의 장난 때문이었다. 친구는 한쪽 눈이 시퍼렇게 부어올랐다. 경찰도 왔다 갔다. 누나는 교무실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조아렸다. 누가 담임선생인지도 모른 채 의자에 앉아 있는 모든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누나는 한 번도 본적 없는 검은 여성 정장을 입고 있었다. 뚱뚱한 몸매 때문에 옆구리 살집은 순대처럼 빠져나왔고 스타킹 신은 다리는 상한 소시지처럼 보였다.

“아무리 부모 없이 살아도 그렇지 어디서 감히 주먹질을 해대요?”

상담실에서 얻어맞은 친구 엄마가 소리쳤다. 누나는 얼굴도 똑바로 쳐들지 못했다. 그저 한여름 태양 아래 내던져진 지렁이처럼 엉덩이를 이리저리 꿈틀대기만 했다. 한 시간 가량 속죄의 시간이 끝나자 누나는 짝퉁 루이비통 가방 안에서 예쁜 리본으로 묶인 상자 두 개를 꺼내 친구 엄마와 담임선생에게 건넸다. 특별 제작한 상자 안에는 허니 버터 맛과 매운 맛 닭강정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양념이 밴 끈적거리는 상자 밑바닥에 단골에게만 주는 스티커가 달라붙어 있었다는 것을 누나는 몰랐다. 스티커에는 10번 부르면 오리지널 치킨 1인분을 무료로 준다고 쓰여 있었다.

두 번째로 누나가 학교에 온 것은 소풍날이었다. 반별로 관광버스에 올

라타 출발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헬레벌떡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 오는 누나의 모습이 보였다. 옷차림으로 보아 일하는 중에 온 것 같았다. ‘한마음 치킨’이란 글자와 어미 닭과 병아리가 그려진 붉은 앞치마를 나부끼며 수많은 버스 속에서 나를 찾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누나는 용케 알아보았다. 던지다시피 도시락 가방을 건네주고 다시 시장으로 뛰어갔다. 닭튀김을 늘 반찬으로 싸가지고 가는 것이 싫어 그날 아침 일부러 도시락을 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친구들은 치킨 한 조각 얻어먹으러 주변에 몰려왔다. 뚜껑을 열었을 때 모두 에이, 하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하얀 쌀밥과 김치, 오징어채, 계란말이가 보였다. 소풍날 평범한 도시락을 싸온 친구는 나뿐이었다.

병원에 들어온 후 네 번의 겨울이 지났다. 난 꼼짝없이 누워 있으면서도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병문안 온 사람들의 복장과 그들이 몰고 온 바깥의 냄새로부터, 시간아! 넌 여전히 별일 없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작년 겨울,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할아버지를 만나러 자식들이 온 적이 있었다. 예닐곱으로 보이는 손주는 독한 병실 냄새가 싫었는지 가만있지 못하고 안팎으로 들락날락했다. 그러다 문득 내 곁으로 다가왔다. 베란다의 관상용 식물처럼 가만 누워 있는 나를 뻔히 바라보았다. 낮이라 누나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병실 간병인도 자리를 비운 터라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눈을 깜빡여 인사를 했다. 꼬마는 가끔씩 하품을 하고 입술을 씹룩거리는데 내 표정을 살피다 슬그머니 다가와 발가락을 쿡, 짚었다. 꼬마는 내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때였다. 아이가 입고 있는 점퍼 소매 끝에 매달린 바둑알만한 눈덩어리가 엄지발가락 위로 툭, 떨어졌다. 사람들의 깊은 한숨과 눈물이 공기 중의 수분과 엉겨 붙어 응결된 한 조각 얼음은 여전히 따듯한 피가 흐르는 내 발가락 위에서 녹아 갔다. 그것은 한겨울 밖에 세워 놓은 짐자전거 손잡이처럼 차갑다가 곧 불처럼 뜨거워졌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의 기억은 누나의 입을 통해 만들어졌다. 누나가 말해 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리했다. 둘은 충남 보령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고 중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던 어머니는 매사 성실한 아버지 모습에 반했고 긴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에 이르렀다.

엄마, 아빠는 이곳으로 이사 온 후 시장 어귀에 가게를 냈다. 처음에는 생닭을 대량으로 받아 가공해 중간 유통 상인에게 납품하는 일을 했다. 일은 고되고 힘들었다.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할 시간이 없었다. 그때 어머니는 만성 위장병을 얻었고 아버지는 허리를 다쳤다. 고민 끝에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미자네 통닭집’이라는 작은 가게를 차렸다. 나는 누나가 중학생 일 때 태어났다. 그리 바쁜 시절에 어떻게 늦둥이 낳을 생각을 했는지 혹

은 단순한 실수였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복덩이가 태어났으니 앞으로 만사가 형통할거라며 아빠는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런 믿음 덕분에 인지 가게는 꽤 잘 풀려 나중에 반찬 장사도 함께 벌였다. 단체 주문이 있는 날이면 누나도 일을 도울 만큼 바쁜 나날이 계속됐다. 그 시절은 제법 행복했다, 라고 누나는 평상시 입버릇처럼 말했다. 적어도 큰길 사거리에 같은 고향 사람인 오 씨가 철물점을 열기 전까지는 그랬다.

오 씨는 우리 가족에게 잘했다. 아빠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엄마는 그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다. 오 씨는 누나 생일날에 옷을 사주었고 내겐 장난감 축구공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었다. 엄마는 팔다 남은 치킨, 나물과 전, 김치 등을 오 씨에게 종종 가져다주었다. 허리 부상이 도져 아빠가 몇 주간 가게에 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다. 엄마는 줄곧 철물점으로 출근했다. 가게 일은 순전히 누나가 도맡았다. 엄마에게서 닭 비린내 대신 분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엄마가 오 씨와 함께 사라진 후, 아빠는 술에 입을 대기 시작했다. 인사불성이 되는 날도 많아졌다. 처음에는 다 내 탓이야. 내 탓, 이라며 자책했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 남매에게서 원인을 찾았다.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나의 교복 치마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내가 벽에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집안에 해장술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오 씨와 뒤통수를 닮은 사람을 보았다는 이유로 아빠는 주먹을 휘둘렀다. 술에 취한 아빠는 아빠의 얼굴을 한 괴물이었다. 폭행이 시작되면 누나는 달려와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는 나를 끌어안았다. 난 이제 막 봉긋 솟아오르기 시작한 누나의 젖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눈을 꼭 감았다. 시야가 차단되자 소리는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누나의 등쪽에서 쿵쿵쿵, 북소리가 났다. 아빠의 발걸질 소리와 누나의 앓는 소리가 내안으로 파고 들어왔다.

어느 맑은 주말 아침, 아빠는 문 닫힌 가게 안에서 죽었다. 썩은 내가 난다는 주변 상인의 신고로 셔터를 뜯고 들어가 보니 기름이 흐르는 바닥에 해체된 닭처럼 사지를 벌리고 엎드려 있었다. 상의 안주머니에는 한 통의 서류가 발견되었다. 사망의향지시서였다. 맑은 정신 아래, 나의 자의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의사와 가족에게 본인의 소망대로 아래와 같이 실행해 주길 바란다, 로 시작되는 서류는, 의식이 없어진 상태가 되더라도 인공 기계 호흡 같은 의미 없는 연명치료는 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났다. 아빠의 마지막 소원은 들어줄 사이도 없이 사라졌다. 두들겨 맞을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끽끽 소리만 냈던 누나였지만 사망의향지시서를 붙잡고는 통곡을 했다.

누나는 곧장 학교를 자퇴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처음엔 액세서리 판매나 의류 쪽 일을 알아보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 결국 ‘미자네 통닭집’으로 돌아왔다.

아빠의 흔적을 닭 내장 제거하듯 깨끗이 지우기 위해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 원래 상호까지 바꿀 생각은 없었다. ‘한마음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것은 한 사건 때문이었다. 어느 날 시장에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 왔다. 선두 깃발에는 ‘한국 전통 시장 체험’이라 쓰여 있었다. 여러 가지 닭강정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던 금발 여자가 누나에게 영어로 뭐라 물었다. 누나는 우리말로 답했다.

“데리야키 맛은 한 개에 1,500원, 나머지는 1,000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드세요.”

여자가 고개를 갇웃거리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옆 자리에 앉아 친구와 시시덕거리던 내게 누나가 물었다.

“야! 마음이 영어로 뭐냐?”

난 건성으로 답했다.

“하트.”

친구가 끼어들었다.

“하트는 심장이고. 마음은 마인드잖아?”

누나는 눈을 깜빡이며 뭔가 생각하더니 금발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어 마인드가 라이크하는 걸로. 오케이?”

그때였다. 마인드라는 말과 동시에 누나는 손으로 자기 가슴을, 금발 여자는 자기 머리를 가리켰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멧쩍게 웃었다.

관광객들이 떠난 후 난 영어 선생에게 들은 말을 누나에게 해주었다.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서양인은 머리를 가리키는 반면, 한국 사람은 심장을 가리킨대.”

누나가 새 튀김을 건져내면서 물었다.

“왜?”

“……아, 몰라. 복잡한 건 묻지 마.”

“난 알 것 같은데.”

친구가 강정을 날름 집어먹으며 끼어들었다.

“뭘데?”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존나 무겁잖아.”

“그래서?”

“제일 무거우니까 몸 제일 넓고 큰 곳에 있겠지. 여기 가슴. 히히히.”

놈은 두 손을 동그랗게 말아 자기 양쪽 젖꼭지에 붙였다.

“저질 새끼!”

난 친구의 뒤통수를 쳤다. 녀석은 입속의 씹던 튀김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킁킁했다. 우리 대화를 듣던 누나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쏘아보았다. 하지만 곧이어 이유가 분명치 않은 탄식을 흘렸다.

며칠 후 ‘한마음 치킨’이라는 간판이 막 개봉한 비누 냄새 같은 것을 풍기며 가게 입구에 걸렸다.

내 나이 때의 누나가 그랬듯이 나도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종종 일을 도왔다. 누나는 가게 앞에서 고객을 했고 난 닭을 튀겼다. 사등분 내 튀겨 낸 닭들은 간장 맛부터 달콤한 맛까지 여러 가지 소스에 버무려져 무지개 동산처럼 쌓여 갔다.

주말 오후였다. 대학생 한 쌍이 오더니 허니 머스터드 닭강정과 해물 어묵을 주문했다. 여대생은 들고 있던 두꺼운 책을 옆에 내려놓고 닭 모이쪼듯 강정을 이쑤시개로 찍어 먹기 시작했다. 난 그녀의 책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누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소설 이론과 작법: 게오르크 루카치와 피츠제럴드 편.

누나의 입술이 제목을 반복해 읊조렸다. 여학생은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물었다.

“여기 얼마예요? 아줌마.”

“오천 오백 원이요.”

“강정 두 개 남았는데, 손도 안 났으니 이걸 빼 주세요, 아줌마.”

“일단 접시에 담기면 팔린 거예요.”

누나는 심술궂은 부녀회장 아줌마처럼 대답했다. 말끝마다 아줌마를 붙이던, 누나와 기껏해야 서너 살 차이 밖에 나지 않을 법한 여학생은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들이 간 후 누나는 행주로 자리를 훑치고 먹다 남긴 강정을 다시 튀김 더미 위로 쏟았다. 그리고 가스 배달 집, 순두부 배달 전문집, 저금리 급전 대출, 시장 번영회 계모임 전화번호 같은 메모지가 빼곡히 붙어 있는 한쪽 벽면에 긴 책 제목을 토박토박 적었다.

누나는 이야기를 좋아했다. 종류는 가리지 않았다. ‘빨강머리 앤’을 읽은 날엔 앤의 친구 다이애나가 되어 길버트를 함께 욱하기도 했고 ‘나의 유럽 원정기’를 읽은 날엔 독일 미텐발트의 커다란 바이올린 조각상 아래 앉아 있거나 마드리드의 산 미구엘 시장 주변 곁골목을 상상 속에서 걸었다. 재미있게 읽던 책의 결말이 자기 맘에 안 들 때는 괜한 심술도 부렸다. 누나가 본격적으로 글이라는 것을 쓰기 시작한 것은 칠팔년 전부터였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한 적은 없었다. 누나는 작가를 어떠한 아픔도 자산이 될 수 있는 직업이라 믿었다. 그것은 밀천이 들지 않는 희망이기도 했다. 고등학교 중퇴 학력도, 나이보다 열다섯 살은 많아 보이는 퐁퐁한 외모도, 늦게까지 닭을 자르고 튀기고 양념을 버무리는 피곤한 일상도 누나를 막진 못했다. 밤에는 기다시피 앉은뱅이책상으로 가 글을 썼다. 책상의 불빛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던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짜증을 부렸다.

“작가 돼서 돈 벌면 내 방이나 하나 마련해 줘.”

“글 써서는 돈 못 번다.”

“근데 왜 써?”

누나가 만들어 낸 이야기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결말은 하나같이 행복했다. 난 매일 밤 무언가를 끼적이는 누나의 뒷모습을 보며 잠 들었다. 사각거리며 종이를 스치는 연필 소리는 자장가 같았다. 원고지 위를 뛰어다니며 연필과 춤을 추는 누나. 꿈속의 누나는 날씬했고 아름다웠다. 그런 꿈은 지금도 종종 꾀다.

가게는 그럭저럭 굴러 갔다. 하지만 비슷한 업종이 주변에 많이 생기다 보니 경쟁이 심해져 배달을 할 수 밖에는 없었다. 중고 바이크를 구매해 저녁 시간에는 내가 주문 배달을 나갔다. 누나를 사랑하는 동생이 없는 시간 쪼개 집안일을 도와준다면 생색은 냈지만 사실은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서였다. 도로를 질주할 때면 몸에서 지독히도 떨어지지 않는 답 비린내와 사춘기 남자라면 하나쯤 가질 고민과 아픈 가족사에 대한 타인의 편견이 날아가 버리는 것만 같았다.

금요일 밤이었다. 대학교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라 주문이 많았다. 난 세탁소 사거리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했다. 노란색 신호등을 보고 전속력으로 내달리던 중 오른쪽에서 오는 학원 승합차에 받혔다. 바이크는 찌그러진 깡통처럼 되었고 나는 수 미터를 날아가 보도블록에 떨어졌다. 눈을 떴을 땐 응급실에 있었다. 제일 먼저 본 것은 누나의 못생긴 얼굴이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한 상태였다. 2주가 지나자 발가락을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나 괜찮아, 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할 수 있

던 것은 겨우 왼쪽 엄지발가락을 까딱거리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효과는 좋았다. 누나는 내 발가락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깨어났어요! 살아났다고요!”

홍분한 누나에게 담당 의사를 붙잡고 말했다.

“환자 분은 대뇌피질이 대부분 손상을 입어 운동기능이나 의식이 완전히 정지되었습니다. 현재 뇌간만 살아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숨쉬고, 음식물 소화시키고, 심장이 뛰는 것 밖에는 하지 못해요. 움직이는 것은 손가락, 발가락, 눈을 깜빡이거나 재치기를 하는 정도죠. 안타깝지만 동생 분은 어떤 말을 해도 무엇을 보여줘도 더는 듣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의사는 외계인이 지구인에게 말하듯 설명하고는 다른 병실로 회진을 나갔다.

몇 달이 흘렀다. 모든 것이 아주 조금씩 일상이 되어 갈 무렵, 장의사처럼 차려 입은 사람들이 병실을 돌며 팸플릿을 나눠줬다. 누나는 내용을 읽어보다가 벅벅 찢어 버렸다. 새 생명 기증 협회에서 준 장기 이식에 대한 홍보 전단지였다. 누나가 내 귀에 대고 조그맣게 속삭였다.

“재들이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나 봐. 무식한 것들.”

누나의 생각은 늘 옳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언제나 맞는 말이었다. 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 심장으로 보고, 심장으로 듣고, 심장으로 생각했다. 마음은 넓고 큰 가슴 한복판, 흉부 안에 있었다. 폐에서 췌소리가 나는 노인과 새벽마다 진통제를 찾는 아줌마 사이에서 난 식물이 되었다. 하지만 한 번도 생각을 멈춘 적은 없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열어 놓은 창문으로 벚꽃 냄새가 몽글몽글 밀려오는 화창한 봄이었다. 누나가 낯선 사람을 데리고 병실에 왔다. 다부진 몸에 키도 크고 멋진 턱수염을 기른 남자였다. 둘은 이야기하는 내내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다. 누나의 얼굴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긴장감이 서렸다. 그는 시장 근처 전자상가에서 핸드폰 가게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이는 동갑. 위로 누나는 둘. 농담을 잘함.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 취미는 요리. 이번에 새 차를 샀음. 가끔씩 낚시를 가긴 하지만 자주는 아님.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잘 해줌.

누나는 병원에 들어 온 이후 가장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

“너도 인사해야지.”

난 귀찮았지만 하는 수없이 눈썹을 찡긍하고 발가락을 꼬지락거렸다. 누나의 낯빛이 추석날 하얀 송편처럼 환해졌다. 손을 잡아 주면 좋아한다는 말에 남자는 내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체구와 달리 추운 걸 지독히도 싫어하는 누나가 어떻게 이토록 찬 손을 내내 잡고 있을 수 있었는지 의아했다. 누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는 내 손을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물수건으로 자기 손가락 하나하나를 꼼꼼히 닦았다.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난 눈을 껌뻍거렸다. 입술 위가 간질거려 왼쪽으로 서너 번 찡긍거리기도 했다. 남자가 병실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다.

“이렇게 지낸지 얼마나 됐죠?”

“4년 정도 됐어요.”

“깨어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죠?”

“환자 누나와 결혼 할 사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보호자분들의 기대와 달리 몇 년 만에 벌떡 일어나 정상인처럼 사는 영화 같은 케이스는 백만분의 일도 안 돼요. 대개는 한두 해 안에 합병증으로 명을 달리하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사실 기적이예요. 더군다나 이 환자 경우는 대뇌와 소뇌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해 식물인간보다는 뇌사에 가까워요.”

“그렇군요. ……요즘 상태는 어떤가요?”

“근육도 많이 줄고 소화기 쪽도 약해졌어요. 게다가 심장이 지나치게 커지는 합병증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매부가 될 남자는 턱수염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또 물었다.

“병원비도 많이 들겠네요. 그죠?”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누나의 방문은 불규칙해졌다. 늦게 올 때도 있었고 며칠씩 오지 않을 때도 많았다.

일요일 오후였다.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 왔다. 당직 의사가 응급조치를 했다. 심장 비대증으로 인한 허혈성 급성 심장 질환이었다. 누나는 며칠 동안 내 곁을 지켰다. 평소처럼 대소변을 받아 주고 깨끗한 수건으로 온몸의 땀을 닦아주고 두 시간마다 몸을 돌려 자세도 바꿔 주었다.

어스름한 새벽, 작은 소리에 눈을 떴다. 보조 침대에 쏘그리고 누운 누나의 잠꼬대였다. 가끔씩 끄, 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돌아누운 누나의 접힌 목덜미에 땀이 흥건했다.

난 누나를 위해 눈을 깜빡이고 하품을 하고 방귀를 끼고 발가락을 움직였다.

봄바람을 타고 장난 같은 감기가 찾아왔다. 감기는 약해진 폐에 바이러스를 뿌렸다. 폐렴으로 발전하면서 며칠 동안 의식을 잃었다. 마지막 날에는 뇌일혈이 왔다. 누군가의 발에 밟혀 부러진 들꽃처럼 난 누워 있었다.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자발 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과 뇌간반사의 소실, 뇌파검사에서 30분 이상 평탄 뇌파라는 이유로 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장기 기증을 해도 좋다는 가족동의서에 서명을 하던 날도 누나는 내 몸을 닦아주었다. 머리로 감고 면도도 했다. 손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눈덩어리를 가져다 댄 듯 차갑고 뜨거웠다. 작별인사를 하고 싶어 발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이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품이나 재채기도 나오지 않았다. 새 환자복으로 갈아입히던 중 누나가 얼굴을 가슴에 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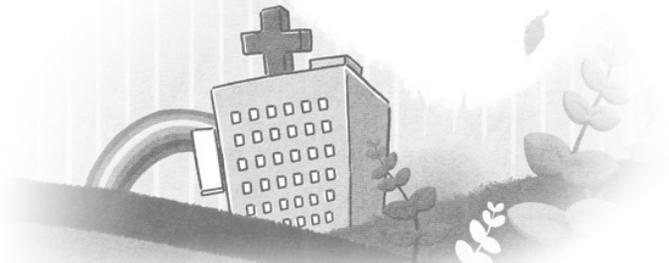
누나는 세상의 모든 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드럽고 둥근 뺨을 문질렀다.

피부는 따듯하고 촉촉했다.

가슴이 열렸다. 집도 의사는 폐동맥, 대동맥, 상하대정맥이 잘려 나간 내 심장을 손에 들었다. 수술실 천장 불빛이 붉은 살덩어리 위로 봄비처럼 쏟아졌다. 오랜만이 느껴 보는 따스함이었다. 간호사가 무게를 잴다.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632그램이에요. 선생님.”

의사는 저울의 디지털 숫자를 직접 확인했다. 성인 남자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날 바라보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말은 수술용 마스크 안에서 사그라졌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날 들어올렸다. 크고 무거워진 심장은 얼음으로 채워진 장기 이송용 보관함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입선



매현중학교
한 경 애



수상소감

일을 하면서 때로는 감정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큰 위로를 받고 하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 모든 공무원문예대전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문화가 있는 따뜻한 삶을 꿈꾸어 봅니다.

기억의 역습

세상사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법은 좀처럼 없다.

컹컹 개 짖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가 아득히 들린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지구가 통째로 날아가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갑작스런 지진이나 사나운 비바람이라도 휘몰아쳐서 세상 만물을 이리저리 형클어주기를 바랐지만 태양은 오히려 침대 깊숙이까지 힘차게 쏟아져 들어왔다. 평화로운 아침이 참으로 비현실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계단 쪽에서 쿵쿵 묵직한 어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이다. 쿵쿵 쿵. 가슴이 벌렁거린다. 곧이어 털이 곤두선다. 비로소 내가 살아 있다는 현실감을 온 몸으로 느껴지면 호흡이 멎는 듯한 순간 발자국 소리가 차츰 귀에서 멀어져 간다. 눈을 감고 온 신경을 집중하여 발자국 소리의 향방을 가늠해 본다. 발자국 소리가 잦아드는 것을 확인하자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던 가슴을 위무하듯 약간 펴본다.

일이 터진 걸까.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설령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해도 아무도 모른다면 그 일이 정말 객관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가? 세상은 시시콜콜한 남의 일에 관심이 없다. 나만 함구하면 그 사건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누가 본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계를 쳐다보았다. 시침과 분침 모두 11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몇 시인가, 잠시 혼란스럽다. 열한시가 조금 안되었다는 사실을 깨닫

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불안한 새벽의 시간이 가고 아침이 지난 지도 한참 된 것이다. 무슨 일이 다했다면 벌써 일이 벌어지고도 남을 시간이다. 아침부터 낯선 사람이 집으로 오거나 급히 나를 찾는 불길한 전화 따위는 없었던 것 같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집안은 평온하다.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자 숨 쉬는 것이 좀 더 편안해짐을 느낀다.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텔레비전을 볼 수도 없었고 잠은 더더욱 잘 수 없었다.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이 불안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다.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었고 집에 있을 수도 없었다.

일단 밤새 뒤척이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뉴스 헤드라인은 모조리 훑어 내려갔다. 없다. 다시 한 번 본다. 토막 기사까지 샅샅이 뒤진다. 없다. 안심이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다. 세상의 무관심은 때로 진실을 바꾸기도 한다.

아내는 내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면 오늘처럼 늦은 아침식사를 차렸다. 아내는 반찬을 식탁에 나르며 내 얼굴을 힐끔 쳐다본다. 어제의 일을 아는 걸까? 괜스레 움츠러든다.

날씨가 좋네요.

아내는 예전에는 하지 않던 날씨 이야기를 꺼낸다. 대꾸하지 않는다.

봄인데, 이런 날 집에서 잠만 자고 있을 거예요?

아내가 혼자 낮게 중얼거린다. 가끔 소소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아침부터 피곤한 남편을 귀찮게 하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나를 떠보는 것 같다.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줄 알면서 그냥 시험 삼아 하는 말이 틀림없다. 내 대답 따위 상관없다는 듯이 서두르며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는다. 내가

집에서 빨리 나가주길 바라는 눈치다. 혹시 눈치 챌 것은 아닐까? 그 일에 관련된 단서를 찾아보려는 것은 아닐까. 동물적 감각이 뛰어난 아내가 물증을 찾아 내어 턱하니 코앞에 들이밀 것만 같다. 어정쩡하게 주방에 서 있다가 식탁에 놓인 물병으로 손을 뺄치려는 데 검붉은 빛이 감도는 손톱 끝이 눈에 들어온다. 밤새 물어뜯은 탓에 손톱은 짐승의 먹잇감처럼 거칠게 찢겨져 있다. 찢겨진 손톱을 보니 아무렇지도 않던 손에서 갑자기 통증이 느껴진다. 통각이 시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한다.

드디어 상차림의 대미를 장식할 숟가락이 놓인다. 나와 아내의 수저가 정답게 마주 놓인다. 예전의 식탁은 나에게 늘 혼자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던 공간이었다. 숟가락 한 개에 젓가락도 없이 반찬이라곤 달랑 김치찌개 하나가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밥과 국, 반찬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평범한 여느 가정집처럼 느껴진다. 잠시, 행복감에 젖는다.

하지만, 식탁에 마주앉자 어색한 숟가락질만 오간다. 노란 계란말이를 보자 침이 고이긴 했으나 목구멍에서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려고 젓가락질을 해보지만 오히려 구토를 유발했다.

아내는 말을 걸어오지 않는다. 새삼스레 종알종알 떠들어대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것저것 시시콜콜 묻지 않아서 좋았다.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은 무용하고 정작 필요할 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내는 나의 결정적 약점을 눈치 챌 사람처럼 아주 현명하게 처신하였다. 아내는 어젯밤의 내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며 휴무일도 아닌데 출근하지 않는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않았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내 차가 늘 세워두던 자리에 없는 것을 봤을 테지만 역시 알은 체를 하지 않는다. 말 없음이 때로는 사람을 더 긴장시킨다. 아

나는 밥을 먹다 말고 나를 뻘히 쳐다보았다. 나는 황급히 눈길을 피했다. 분명 아내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다 알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지 지켜보려고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하는 듯했다.

아내가 있다는 것은 내 삶이 지극히 평범한 삶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주는 중요한 요소였다. 내 삶은 지극히 정상이었다. 누구도 나를 단죄하지 않았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시간이 지나면 어젯밤 사고도 내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질 것이다. 아내 또한 차츰 의심을 멈추리라.

어제는 이상하리만치 일이 잘 풀렸다. 가구 주문이 많아서 열다섯 집이나 납품을 해야 했지만 수입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힘든 줄 몰랐다. 게다가 가는 집마다 가구를 들여놔야 할 자리를 말끔히 치워 놓았고, 미리 준비한 시원한 음료를 챙겨주기도 했다. 집을 비우거나 전화를 안 받아서 애먹이는 일 없이 일이 척척 진행되었다. 한밤중이나 끝날 줄 알았는데 8시가 조금 넘어서 일을 마쳤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돌이켜 보니 이만하면 내 인생도 그리저럭 괜찮은 것 같아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지어졌다. 이번 일은 사람들을 오래 보지 않아도 되니 좋았다. 가구를 배달하고 조립하는 일은 몸에 잘 맞는 옷처럼 나에게겐 제법 잘 맞았다.

나는 원래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다. ‘원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면 말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한다. 저 사람은 원래 느려 혹은 원래 말이 없어, 라고. 나에게 대하여 그렇게 잘들 알고 있단 말인가. 나도 모르는 나를.

나를 어떠어떠한 사람이라고 낯선 타인들이 쉽게 단정하는 것이 역겨웠다. 내가 행동이 민첩해지고 말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내가 변했다고 하겠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변한 거라고 수군대겠지. 처음부터 민첩한 모습만 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원래 행동이 빠른 사람이라고 할 것이 뻔하다. 사람들은 원래 남의 일면만을 보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매일 변하고 있는 인간을, 그들은 어떻게 안다고 원래 그렇다고 단언하는가. 나만 해도 그렇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다른 내가 거울 앞에서 있다. 분명 어제와 같은 나이지만 어제의 나와는 다르다. 어제의 기억과 오늘의 기억이 다르듯이 말이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술자리가 생기게 마련이고, 술자리에서 술이 한잔 두잔 오가다 보면 얼큰하게 취할 때가 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전 날 술자리에서 했던 말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면 몹시 당황스러웠다. 그 일을 혹시 말한 것은 아닐까 하고 입이 쓰고 조바심이 났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다 보니 내 주변엔 늘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외톨이인 나를 약간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아무런 패거리도 없는 내가 자신들에 비해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연약한 존재로 보인다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 연약하다는 것은 곧 선량함을 내포하는 것 아닌가. 내가 선량해 보인다니 괜스레 흡족하였다. 누군들 악마가 되고 싶겠는가.

사람들은 저 성격에 어디 여자나 만나겠어? 결혼하기는 힘들지, 하며 떠들어댔지만 나는 친척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와 어렵지 않게 결혼을 했다. 부모님이 유산으로 남겨준 낡은 아파트가 꽤 시세가 올라 새 살림을 시작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아내는 반찬가게에 진열된 상품처럼 훌륭

하게 요리를 해냈고 집안은 언제나 말끔했다. 그릇은 반짝반짝 빛이 났고 집안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다. 결혼한 지 이 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내를 보면 아직도 설렌다. 그녀가 내 차지가 된 것이 마냥 신기하다. 처음부터 아내가 마음에 든 것은 아니었다.

아내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별로였다. 눈꼬리가 살짝 치켜 올라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강한 이미지를 풍겼다. 둘 다 말수가 적어서 어영부영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 여자는 아니다 싶었다. 정중하게 헤어지기 위해 적당한 인사말을 고르고 있었다. 이만 일어서자는 말을 하려는데 긴장한 탓인지 헛기침이 나왔고, 물을 마시려고 손을 뻗다가 그만 물 잔을 엎어버렸다. 엎질러진 물은 내 바짓가랑이로 쏟아져서 모양새가 영 이상해졌다. 내가 어쩔 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웃어대기 시작했다. 뭐가 우습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우스운가.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때는 알지 못했다. 아내의 웃음은 의도하지 방향으로 나를 이끌었다. 운명이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순간에 방향을 바꾸는 모양이다. 아내는 자신의 이를 다 드러내고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에는 이상하게도 연약함이 묻어났다. 그 이유를 나는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가지런한 치아들 사이에 난 작은 이가 아내의 인상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오른쪽 송곳니 자리에 유치가 덜 빠졌는지 다른 이의 절반 정도 크기 밖에 안 되는 작은 치아가 있었다. 묘하게도 그 유치를 보는 순간 여자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순수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다. 전에 모르던 부성애가 작동되는 기분이 들면서 동시에 내 안의 야릇한 남성성이 느껴졌다. 아마 그 유치가 아니었으면 단연코 아내와 결혼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주택가에 마지막 가구를 배달하고 한적한 논두렁 사이로 난 가로수 길을 지나치고 있었다. 가로등은 고장이 났는지 한참을 달려야 드문드문 한두 개 켜져 있을 뿐이어서 슷제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사방이 어둑어둑하여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다.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린다는 아내의 말을 떠올리며 액셀을 좀 더 세게 밟았다. 그 때 갑자기 쿵 하며 무엇인가가 차에 부딪히며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뒤로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심장이 먼저 벌렁거렸다. 너무 놀란 나머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을 수가 없었다. 차는 15미터 가량을 더 지나서야 멈추었다. 고개를 돌려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차에 부딪혀 쓰러져 있는 물체 쪽을 보았다. 얼핏 자전거 바퀴 같은 둥근 형체가 보이고 머리가 허영게 보이는 것이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게 분명했다. 사방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다. 어서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인생은 영원히 반복되는 것인가.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어 간신히 차에서 내리면서 사고 지점을 보았다. 피가 흥건히 고여 도로를 물들이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헉!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나는 이 사고가 아주 큰 사고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나의 행복을 한 순간에 불행으로 바꾸어 놓을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을 직감했다. 위급하고 경황이 없는 순간에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살 길을 찾는 법이다. 아까와 달리 민첩하게 움직였다. 우선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방은 어둡고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은 없었다. 시골길에 CCTV가 있을 리는 만무하였다. 나는 내리려던 발을 다시 차에 집어넣고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도망쳤다. 어떻게 집에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아프다고 해두었다. 며칠 후에는 사표를 낼 생각이
다. 누군가 내가 운전하는 배달용 탑 차를 보고 덜컥 잡으러 올 것만 같았
다. 보닛과 라이트가 부서진 차를 고치지도 못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
석에 주차해두었다. 내 삶이 늘 그랬던 것처럼 나의 차도 남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멈추어 섰다. 아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나를 떠날 것이 틀림없다. 그 녀석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비밀을 아는 순간 잠시나마 나에게 머물렀던 모든 것이 다 떠날 것만 같았
다. 비밀은 사람을 외롭게 한다. 하지만, 그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인간은
철저히 고독해진다. 비밀은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도달하지 못하고 공중
에 산산이 흩어지고 만다. 그래서 비밀은 영원히 타인에게 도달할 수 없
는 또 다른 진실을 대면해야 한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비밀 고백은 마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고해
성사를 연상케 하였다. 약간 두려움에 차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일렁임, 일
종의 설렘 같기도 한 무엇이 가슴 속에 소용돌이쳐서 조금 떨리는 음성으
로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내가 어떤 아이를, 병신으로 만들었어.

내가 던진 말의 파장을 숨죽여 음미하자니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말하는 듯했다. 사뭇 진지하여 어떤 고결함마저 느껴졌다. 그 엄
숙한 순간에 친구 녀석은 어처구니없게도 여전히 즐린 표정이었다. 그 날
은 고등학교 3학년 진급을 앞 둔 봄 방학 중 어느 날이었다. 학창시절 유일
하게 친했던 K와 함께 독서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공부를 위한
뚜렷한 목적보다는 그저 하룻밤 녀석과 함께 있고 싶어서 만든 자리였다.
그 날, 간간이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 굉음처럼 커다랗게 들리는 아주 고

요한 새벽에 왜 하필 그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르겠다. 독서실에 마련된 휴게실 소파에 앉아서 졸린 눈을 간신히 뜨고 있는 친구에게 불쑥, 말이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난 그저 실수로 그 아이의 자전거를 툭 치기만 했을 뿐인데, 정말 그냥 슬쩍 쳤을 뿐인데 그 아이가 탄 자전거가 심하게 요동치며 흔들리더니 어느 집 담벼락을 들이받고는 넘어졌어. 그 아이는 잠시 정신을 잃었는지 한 동안 꿈쩍도 안 했어. 난 너무 무서워서 담장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았어. 그 아이에게 가 보려고 해도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 무언가가 나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어. 너무 무서웠어. 그 때 내 나이 고작 열 한 살이었으니까.

내가 두려움에 떨며 숨어서 그 곳을 한참 주시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고개를 조금 움직이는 게 보였어. 나는 그제야 멈추었던 숨을 내쉬었던 것 같아.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거든. 그 아이는 목을 가누고 아주 천천히 일어서더니 멍한 눈빛으로 내가 서 있는 쪽을 쳐다보는 거야.

이상하지? 그 순간이 내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 지금도 생생해.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나는 거기 그 골목에 그대로 서 있는 기분이야. 나는 좀 더 깊숙이 몸을 숨겼어. 분명 내가 보이지 않도록 깊이 숨었는데도 이상하게 그 애 시선이 내 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어. 사람들이 흔히 '발가벗고 서 있는 기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때 제대로 알게 되었지. 사람은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겪어야만 제대로 안다고나 할까, 그 나머지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야.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 한동안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드디어 그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 그리고 아주 느릿느릿 자전거를 끌며 집으로 돌아갔어. 그 때 나를 쳐다보던 표정은 아직도 또렷이 기억 나. 그 아이의 표정은 낯이 나간 것 같기도 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무심한 표정 같

기도 했어. 나로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종잡을 수 없었어. 분명한 건 그 애의 시선이 내 쪽을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였지. 시원을 바라보는 듯한 초점 없는 텅 빈 눈빛이 어디를 보는지 확실치 않았어. 아무튼 나는 다행이다 싶었어. 숨어 있는 내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았으니까. 내가 자전거를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렇게 순순히 돌아갈 리 없었으니까.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다시 친구 녀석의 얼굴을 살폈다. 다행히 녀석은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루한 영웅담을 억지로 듣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였다. 녀석의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이 나를 점점 더 흥분시켰다. 나는 좀 더 말하고 싶어졌다.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그 때 비밀의 전부를 내 입으로 말하려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일생일대의 커다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멈출 수가 없었다. 오래 참았다가 터진 소변줄기처럼.

사실은 내가, 그 아이의 자전거를 발로 힘껏 찼어. 그것도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일부러. 모든 게 다 그 녀석 때문이야. 그 녀석이 자전거를 빌려주지 않았어. 나도 그 아이의 파란 새 자전거를 타보고 싶었어. 근데 개 아빠가 아무한테도 자전거를 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면서 아주 잠깐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거야. 기가 막혔지. 딱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오겠다고, 몇 분이면 된다고 비굴하게 한참을 사정했는데도 나보다 두 살이나 어린 녀석한테 거절당하자 심한 모욕감에 몸이 떨렸어. 그래서 그랬나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내가 악마가 된 것 같았어. 심장이 펄떡거리고 눈에 불이 일어나면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일시에 폭발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나는 골목에 숨어 있다가 그 아이의 자전거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순간, 새파란 자전거의 뒷바퀴를 발로 힘껏 걷어 차버

렸어. 아주 순식간이었지. 나도 내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일은 벌어진 거야. 아주 작은 분노에서 시작되었는데 알 수 없는 충동이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야. 일이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알았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 친구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가는 것을 봤지만 나는 열에 들떠서 계속 떠들어댔다.

그 일이 있고 한 동안 그 아이가 보이지 않아서 나도 그 사건은 그만 잊어버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한두 달 지나서였다, 우연히 들었지. 그 아이가 이상해졌다는 거야. 수시로 줄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것은 줄다가 자꾸만 고개를 처박고 고꾸라진다는 거야. 그 아이는 나보다 두 살 아래였으니까 아홉 살이었지. 처음엔 그냥 너무 졸려서 깜빡 잠이 들었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길에서 있다가도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 부모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거야. 뒤늦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부랴부랴 유명한 한의원과 대학병원을 데려가서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그 아이의 병은 아주 특이한 경기(驚氣)의 일종이라고 했는데 용하다는 병원을 수소문해서 죄다 데리고 다니며 치료를 했지만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어. 아이의 눈빛은 점점 초점을 잃어버렸고, 결국 두세 살 아이 정도의 지능만 남게 된 거야. 경기를 계속하면 뇌손상을 입는다고 하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나’였어. 그 아이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묘하게 안도감이 들었어. 한편으로 그 아이에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실실 웃음이 나왔어. 흐흐흐. 이젠 그 이야기는 아무도 모를 테니까 말이야. 그 아이와 나 둘 중에 한 명이 발설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내가 말할 리는 없고, 나 말고 그 아이만 남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사

건은 영원히 침묵 속에 묻히겠지. 얼마나 다행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잘못이 아닐지도 몰라. 그때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머리가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자전거에서 떨어졌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 아이도, 그 아이 부모도 날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 설령 나로 인한 일이었다고 해도 그건 우연이었잖아? 나도 몰랐어.

누구나 살면서 실수하잖아... 안 그래?

그 때 나는 이야기에 너무 심취해 있었다. 새벽의 고요함 때문이었을까. 그 고요함을 견디기 두려운 나머지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난다는 두려움조차 잊었나 보다. 하지만, 나는 친구의 눈빛이 각성이라도 한 듯 서서히 두려움에 가득차서 동공이 벌어지는 것을 봐야 했다. 친구는 아침도 먹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 녀석은 나를 피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비밀을 발설하는 것은 사람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은 절대 타인과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진리를 깨달았다. 타인은 이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저 무심할 뿐이다.

오늘 약속이 있나 봐? 조심스레 아내에게 묻는다.

응, 고등학교 동창 모임.

아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화장을 고치면서 대답한다. 아내 곁에 서 성대며 생각한다. 이렇게 일찍부터 동창모임을 한다고? 아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몰랐는지 알았는데 기억

이 희미해진 것인지 헷갈린다. 아내의 친구를 본 적도 아내의 친구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다. 아니 들은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중요하게 여긴 적은 없었다. 아내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었다.

아내는 외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침묵으로 나를 움짱 달짝하지 못하게 묶어두고 있었다. 어쩌면 아내는 내가 먼저 고백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침묵의 세계에서 나는 수없이 아내에게 고백을 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이제 아내는 더 이상 나를 기다려주지 않기로 한 건가. 처음에는 무심한 아내가 좋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지옥을 만들었다. 아내가 완전한 타인처럼 느껴진다. 아내와 내가 타인이 아니었던 적이 한 순간이라도 있었던가. 그래도 아내에게 서운하다. 나 또한 아내에게 완전한 타인이었을 테니 서운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데도 말이다.

아내가 외출하자마자 컴퓨터를 켜다. 인터넷뉴스를 꼼꼼히 검색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기사는 없다.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걸까?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정신이 몽롱하다. 작은 문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위층에서 쿵쿵 뛰어다니는 아이들 발자국 소리에도 심장이 멎는 것만 같다. 차라리 목격자가 나타나서 이 고통을 어서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것은 지나가고 또 조용히 잊혀질 것이다. 고마운 '기억'은 이 사건을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어 줄 터.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고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고통이 아니라 아내였다. 아내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웃으며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숨이 타들어간다. 경찰서에 실종신고

를 할 수도 없었다. 실종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내 사건도 함께 세상에 드러날 것이 두려웠다. 어디에 있는 걸까. 아내가 모든 것을 알아차린 걸까. 그래서 그 녀석처럼 내 곁을 떠난 걸까.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아니면 신이 내 죄를 벌하고자 나에게서 선량하고 연약한 아내를 빼앗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아내가 꼭 죽은 것만 같다. 무서운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마치 그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다.

아내가 사라진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다. 시간이 지나자 아내가 사라진 것이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처럼 느껴졌다. 한 번도 어질러진 적 없이 깔끔하여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집안을 보았을 때, 아내가 침대에서 마치 접대부처럼 의무적으로 잠자리를 할 때 나는 이미 아내가 떠날 기미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부터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었나 보다. 만난 지 한 시간도 채 안 돼 아내와 결혼을 결심한 것이 후회되었다.

차라리 훌가분해진 기분이다. 일어날 일은 언젠가는 일어나는 모양이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움켜쥐고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지자 용기가 났다. 시간은 멈춰야 할 곳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조금 심장이 뜨거워진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옷을 차려입고 사고가 났던 그 가로수 길로 향했다. 그 곳에 가봐야 할 것 같았다. 범인은 반드시 범죄현장을 다시 찾는다고 하더니 내가 그 꼴이다. 사고지점 앞까지 택시를 타고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 근방에서 내렸다. 차량은 많지 않았고 걸어가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사고지점을 향해 걸어갔다. 용기를 내어 사고가 난 지점을 찾아 또렷이 응시했다.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아이가 거기에 서 있었다. 그 날의 모습과 똑같이 나를 향해 무심히 눈길을 주고 있었다. 그 골목에 유폐되어 있는 열한 살의 내가 보였다. 꿈쩍 못하고 수초 간 멈춰 있던 나를 움직인 것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나는 뒤돌아 달렸다. 도망칠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가고 싶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어째서 그 아이가 거기에 있을까? 거긴 분명 교통사고가 났던 장소다. 그런데 이상하다. 생각해보니 아무런 사고의 흔적이 없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본다. 내가 사고를 치던 날 본 것은 사람이 아니었던가? 분명 자전거와 함께 머리가 허연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그곳은 아주 어두웠다. 머리카락 색을 분간할 정도의 밝기는 아니었다. 그 날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였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에서 나는 그 물체가 노인이라고 너무 성급하게 단정지었다. 그리고 자동차는 보닛의 앞이 아니라 옆쪽에서부터 찌그러져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간과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차로 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내 차 옆면을 들이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제야 그 사실이 떠오르다니! 아득했던 정신이 돌아 오는 것만 같았다. 교통사고라면 도로 위에 하얗게 표식이 그려져 있었을 테고 더욱이 뺑소니 사고라면 흔히 볼 수 있는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여러 장 걸려 있어야 했다. 그 곳엔 아무런 사고의 흔적이 없었다. 가로수 길은 여느 날과 다름없었다. 그 날 내가 차로 친 것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더 늦기 전에 나는 다시 그 가로수 길로 가서 제대로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아이는 아직도 거기 있을까.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다. 이제 되돌아온 시간 속에서, 그 골목길에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다. 어쩌면 아

내도 그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쿵쿵쿵.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린다. 불길하다.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인터폰 화면으로 앞에 선 남자가 경찰신분증을 내민다

무슨 일이죠?

김영순씨 남편이죠?

네, 그렇습니다만.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경찰이라는 말에 허둥대며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발에 차이는 것이 있었다. 펜치다. 이런 곳에 웬 펜치람. 경찰이 보면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 얼른 펜치를 현관 서랍장에 안에 집어넣고 문을 연다. 문을 열자 화면으로 보던 모습보다 더 건장해 보이는 남자 둘이 집안으로 들어섰다.

아내 분이 어디 계시는지 아시나요?

실은 아내가 이틀째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마침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죠?

음, 그랬군요.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는 잠시 뜬 입을 닫은 후 비장하게 말한다.

부인이 사망했습니다. 시신이 오늘 새벽 남부저수지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타살로 추정됩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잠시 화면이 흔들리는 듯하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많이 놀라셨겠지만 수사를 위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부인한테 최근 무슨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원한을 살 일을 했다든지, 최근에 돈 문제나 뭐 다른 짐작되는 문제는 없었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아내를 죽였다는 건가요?

그게, 이상한 것이 부인의 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부인을 죽인 다음에 이를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잇몸을 보니 이가 아주 작은 것 같더라고요. 어린애들 유치만하던데, 아니 왜 그러세요? 뭐 짚이는 게 있나요?

아내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 약속이 있나봐?

화장대 서랍에 숨겨둔 차량용 블랙박스의 메모리가 없어진 뒤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에 눈길이 간다. 아내는 분명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사고 친 장면을 본 것이다.

응, 고등학교 동창 모임.

이른 아침부터 여자들이 만나서 할 일이 뭐가 있지?

내가 집요하게 물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다.

요즘 당신 좀 이상해요.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아내의 말투가 심상치 않다.

아니,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요?

아내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좋겠어요. 우린 아직도 낯선 타인 같아요. 부부사이에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말해 봐요. 같이

해결해요.

아내가 다그쳤다.

무슨 소리야, 뭘 털어놓으라고,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순간 당황하더니 체념한 듯 일어섰다.

그리고는 멍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힘없이 말하면서 얼굴을 돌리는데 하마터면 소리칠 뻔하였다.

그 아이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그 날의 눈빛, 시원을 바라보는 듯한 텅 빈 눈빛이었다.

아내는 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다. 아내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 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 아내는 내 비밀을 다 알고 나를 떠나려는 것이다. 나중은 없다.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려고 하자 나는 뒤를 따라갔다. 나도 모르게 두 손이 움직였다. 아내의 목이 두 손에 쉽게 들어온다. 가냘프다. 이런 외중에 아내의 목이 가냘프다는 생각이 들다니 스스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 생각이란 도무지 멈추질 않는다. 제발 생각을 멈출 수만 있다면! 누가 조종이라도 하듯 가느다란 목을 쥐 손에 갑자기 힘이 들어갔다. 아내는 현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향해 손을 뻗으며 팔을 휘저어댔다.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한 채 거울 속의 나와 눈이 마주치자 눈에 힘을 주며 내 눈동자를 쏘아보더니 힘없이 쓰러졌다.

언제나 일은 순식간에 벌어진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동창회 따위 거짓말을 해서 나를 속이려 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애초에 내 것이 아닌 행복을 추구한 내 실수였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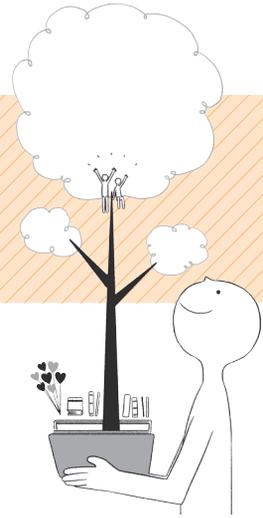
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순간, 현관에 쓰러져 누워 있는 아내의 벌어진 입 사이로 하얀 이가 살짝 보였다. 벌린 입술을 닫아주려는데 아내의 가지런한 이들 사이에 어울리지 않게 나 있던 작은 유치가 생각났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다. 나는 현관 서랍장 문을 열어 펜치를 꺼냈다. 그리고 아내의 입을 크게 벌리고 송곳니 자리에 난 작은 유치를 뽑아버렸다. 유치를 뽑아버리자 아내는 더 이상 내가 돌봐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타인이었다.

나를 만든 것은 나를 둘러싼 세상이었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수필



심사평

공무원 문예대전의 열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가열되는 양상이다. 응모하는 편수도 적지 않지만 작품의 수준도 향상되었다는 생각이다. 수필부분에 있어 교원의 경우 대부분의 작품이 수준급에 들어 입상자 선정에 우열을 가르기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면 비교원의 작품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작품들이라는 평가를 지울 수 없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응모해주어 공무원문예대전이 어느 공모전 보다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제20회 공무원문예대전 수필부문 심사결과는 금상에 「봉노」, 은상에 「문고리」, 「샘」, 「봄날의 흔적」, 동상에 「관거험로」, 「인어공주의 웨딩슈즈」, 「사랑의 줌도리」, 「치매」, 「섬강」, 「시골산행」을 입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들 작품은 세 사람의 엄중한 심의를 1차, 2차, 3차에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최종 결심을 하기 까지 심혈을 기울인 결과임을 밝힌다.

금상에 선정된 수필 「봉노」는 문장의 유연한 전개 뿐 아니라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화로를 할머니의 삶의 질곡과 접목하여 종부의 고단한 일생을 그려주고 있다. 숯불을 담아 인두를 달구어 옷의 솔기나 저고리 곡선을 잡으시던 화로를 할머니는 '봉노'라 지칭하셨다. 시골집 정리를 하다가 창고 문을 열자 돌아가신지 반세기 가까운 할머니의 낯소봉노를 발견하게 된다. 할머니는 봉노에 종부의 지난한 삶의 불꽃을 짊어내신 분으로 이 수필은 할머니의 손길로 옛 물건의 소중함을 익히는 따뜻한 수필이다.



은상에 선정된 세 사람의 수필의 수준도 만만치 않다. 「문고리」, 「샘」, 「봄날의 흔적」 작품들 모두 소재를 끌고 가는 수법이나 작품의 핵심 축인 주제(의미)를 반영하는 문장의 형상화는 깊은 사유의 그늘에 머물게 한다. 문고리, 샘이라는 대상들은 사물이나 흐름의 대상으로서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내는 소통의 도구로 그 존재의 가치를 끌어내는 심도 깊은 의미에 가 닿게 한다. 새로운 수필, 오늘의 수필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수필의 본이라고 생각한다.

동상의 「관거협로」, 「인어공주의 웨딩슈즈」, 「사랑의 줌도리」, 「치매」, 「섬강」, 「시골산행」의 작품들은 앞서 언급한 금, 은상에서 보여준 문학 언어의 예술성에서 다소 밀린 작품들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수필이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지나친 서술보다는 이야기해야 할 의미에 대한 성찰이 우선 되어야 하고, 그 사유의 깊이로 견져 올린 의미의 형상화가 구체적으로 문장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금, 은, 동상, 입선작품들이 평균수준은 넘고 있어 수필인의 한 사람으로 미래수필문학의 기운을 따듯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는 감사를 드리게 된다. 수필문학은 급박한 현대인의 삶을 사실 체험의 가치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문학장르로 어느 장르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진정성을 지니고 있다. 수필문학의 완성된 문학작품을 위해선 쓰기 전에 무엇을 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깊이 고뇌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심사평을 맺는다.

심사위원 : 지연희, 신길우, 정진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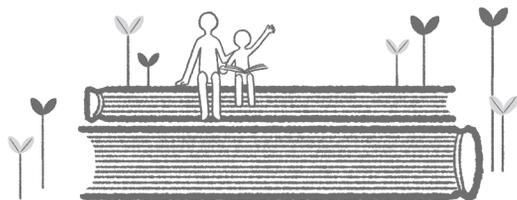
수필

금상 봉노 - 포항동부초등학교 안희옥

은상 샘 - 경남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이규준
문고리 - 포항이동중학교 손달호
봄날의 흔적(痕迹) - 한솔고등학교 곽상학

등상 치매 - 안양교도소 김난귀
섬강(蟾江) - 강원도 횡성군 임청근
관거험로(關據險路) - 인천세관 장광현
사랑의 줌도리 - 대구광역시 동구 정기임
인어 공주의 웨딩 슈즈 - 서울시 강남구 김나현
시골산행 - 국방정보본부 김명진

입선 내 삶의 색과 냄새 - 충청남도 논산시 이래운
영혼의 메아리 - 전)울산광역시 김갑주
점핑마우스 - 보건복지부 전재필
천기누설 죄 - 기상청 정상부
별 하나 - 인천동구보건소 유수정





포항동부초등학교
안 희 옥



수상소감

오월의 장미 위로 햇살이 눈부십니다. 창 너머 핀 보석을 모달리아니의 그림 같은 목에다 걸어봅니다. 알싸한 향기가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잠시 눈물이 났습니다.

늦깎이로 문학을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는 서툰 내 삶을, 상처를 세상 밖으로 꺼 내놓는 일이라 늘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문학은 내 삶의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친구처럼 연인처럼.

큰 상을 안겨주신 심사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격려와 가르침을 주신 김영식선생님과 운술수필 문우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 특히 나를 엄마라는 빛나는 호칭으로 불러주는 두 아들 진섭, 민섭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붕노

마당엔 어느새 눈발이 성글고 있었다. 뒤란 대숲엔 멧새떼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리고 웅웅 감나무가 울었다. 일찍 저녁밥상을 물린 우리 자매는 쉬 잠이 오지 않아 살금살금 건넌방으로 건너갔다.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당신을 찾아온 손녀들을 함박웃음으로 반겼다. 붕노엔 벌써 밤과 고구마가 맛깔스럽게 익어 가고 있었다. 광에서 가져 온 홍시도 녹아서 말랑말랑한 채 오지그릇에 담겨져 있었다.

숯불을 담아 놓는 그릇인 화로의 옛말이 붕노다. 할머니는 화로라는 말 대신 붕노라는 말을 썼다. 추운 겨울 날, 화력이 오래 간다는 참나무 장작을 태워서 남은 숯불을 붕노에 담았다. 그 위에 재로 덮어 오랫동안 불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했다. 재와 재 사이로 빼꼼하게 보이는 불꽃들이 눈을 덮어쓴 산수유 열매처럼 붉었다. 외풍이 심한 방안에 난방효과도 높이고 손녀들에게 주전부리를 챙겨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할머니 괴춤에는 옛날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화로 가에는 꽃감을 등에 업은 호랑이가 달려오기도 했고 은혜 갚은 까치가 앉았다가기도 했다.

붕노는 인두를 달구어 옷의 솔기나 저고리 곡선이며 천의 구김살을 눌러 반듯하게 펴 주었다. 때론 바느질이나 길쌈을 배우러 온 동네 아낙들을 위해 따뜻한 찻물을 끓여내기도 했다. 붕노를 가운데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친정어머니가 딸을 가르치는 것처럼 따스함이 넘치는 풍경이었다. 부삽으로 불씨를 다독이는 할머니 얼굴에 얽은 흥조가 피어나는 것도 보기 좋았다.

치매를 앓고 있는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난 뒤였다. 시골집 정리를 위해 창고 문을 열자 손 때 묻은 살림살이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벽면 한 쪽엔 각종 농기구와 곡식을 담은 크고 작은 자루들이 키 재기를 하고 있었다. 철 지난 옷과 이불을 넣은 상자며 부엌용품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묵은 세간들은 켜켜이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뿌연 먼지 알갱이가 비듬처럼 떨어져 내렸다. 삐죽이 열린 문으로 들어온 빛이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물체를 비추었다. 늦쇠봉노였다.

바깥쪽의 동글넓적한 전이 오목하게 파여진 안쪽을 살포시 품고 있어 그 모습이 단아하다. 원통형의 내부가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넓어지는 모양으로 전의 끝부분이 살짝 밖으로 휘어져 있어 품새 또한 오달지다. 몸통을 받치고 있는 튼실한 세 개의 다리에는 높은 굽이 붙어 있고 다리의 윗부분은 약간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부삽과 부젓가락, 삼발이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저 세상으로 떠난 지 벌써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 오랜 세월 창고 속에서 숨죽인 채 잠자고 있었던 거였다. 살아생전 늘 곁에 두고 애착을 보였던 물건이라 마음 한켠이 아릿거려 왔다.

타다 남은 숯덩이들까지 그대로 담겨 있는 봉노는 군데군데 거무칙칙한 얼룩들로 볼품이 없었다. 사랑채 아궁이에 찌꺼기들을 쏟아 붓고는 수돗가에서 수세미로 뽀뽀 문질렀다. 시커먼 물때가 쓱 빠지고 나니 말끔해 졌다. 손이라도 내밀면 금방이라도 얼음장 같은 몸이 테워질 듯 따뜻함이 느껴진다.

할머니는 열여섯에 꽃가마를 타고 시집을 왔다. 몸집이 작고 가냘팠지만 종가의 중부답게 지혜롭고 강단이 있는 분이였다. 아침이면 동백기름으로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빗어 올려 정갈하게 쪽진 머리를 하곤 하루를 시작했다. 예의범절, 음식, 바느질, 길쌈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이 없었고 층층시하의 웃어른들까지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서 친척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다고 한다. 젊은 시절 할머니의 삶은 행복한 나날이었다. 자식들은 총명하고 건강했으며 지아비는 학자로 명망이 높았다. 가정은 큰 걱정거리 없이 화목했다.

식어가는 봉노처럼 그러나 할머니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집안 곳곳 문틈 사이로 소소리바람이 시나브로 새어들기 시작했다.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를 것 같던 불꽃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휘청거리더니 끝내 힘을 잃고 꺼져버렸다. 곱게 커가던 맏딸이 어느 날 원인모를 고열에 시달리더니 갑작스런 죽음으로 할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설상가상으로 이듬해, 종손인 할아버지마저 역병으로 시난고난하더니 유명을 달리했다. 할머니의 애달픈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칠혹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가솔들은 빠져나올 방향을 찾지 못해 허둥거렸다.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올망졸망한 자식들과 종부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슬퍼도 울지 못했다. 꺾인 노고초처럼 마냥 슬픔에 빠져 지낼 수가 없었다. 할머니는 종가의 맏며느리답게 걸쌘스럽게 일어났다. 살림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두 손을 걷어붙였다.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동네 혼수를 도맡아 살림을 불러 나갔다. 밤새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새 아침이 희뵘하게 밝았다. 화로는 기나긴 겨울 밤 홀로 길쌘을 하는 당신의 유일한 반려(伴侶)였고 삶의 버팀목이었다.

할머니는 늘 조용했지만 집안이나 동네에 없어선 안 될 분이였다.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찾아와 의논을 하고 해결책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한번은 동네에 밀주를 단속하는 순사들이 왔다. 힘든 농사일이 주업이었던 당시는 집집마다 집에서 몰래 술을 담가 먹곤 했다. 모두들 쉬쉬하며 마음을 즐기고 있는데 할머니가 집으로 순사들을 불러 들였다. 살

림숨씨 좋기로 근방에 소문난 터였다. 맛깔난 음식들과 조근조근한 말솜씨에 감동한 밀주반원들이 그날 한집도 단속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일화는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한미한 집안의 중부로 시집와서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지혜롭게 이겨낸 할머니는 봉노였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 따뜻한 불씨로 가족 간 화목한 정(情)을 더해 주었고 외롭고 힘들 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동지선달 긴긴 밤, 어린 우리를 앉혀두고 길쌈을 하며 부르던 노랫가락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강남달 강수자는, 글씨 좋아 소문나고, 강남달 강처사는, 인물 좋아 소문나고, 얼굴이나 보나 세나, 연지분에 빠진 듯이 ……”

잘 닦여진 봉노를 만져 본다. 아직도 은은한 온기가 전해진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토닥거리며 가만히 안아주던 품이 그립다. 늦쇠봉노 위로 할머니 얼굴이 잉걸불처럼 환하게 피어난다.





경남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이 규 준



수상소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신의 큰 축복입니다. 물론, 살다보면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괴롭고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가슴 시린 아픔을 달래 주며, 무미 건조한 일상의 삶을 살찌우는 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있고,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연륜이 쌓여가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예전엔 볼 수 없었던 값진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육신의 눈보다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샘

봄의 문턱이다. 오랜만에 산길을 오른다. 겨울잠을 자는 파충류처럼 양 어깨를 움추린채 기초적인 생리대사만으로 근근이 목숨만 유지해온 겨울, 발뒤꿈치에 쌓인 각질의 두께만큼이나 밖으로 내 보내지 못해 겹겹이 쌓인 노폐물은 출구가 필요하다. 산은 언제나 삶의 응어리를 분출해 주는 분화구이자, 찌든 삶으로 인해 풀어져 형클어진 실을 되감아주는 열레이다.

엣그제 내린 비로 한 동안 지면에 톱뉴스로 자리매김 했던 미세먼지는 숨이 죽은 배추처럼 낮게 가라앉았다. 이스트를 넣은 밀가루 반죽처럼 곧추선 서릿발을 밟는 느낌은 쿠션 위를 걷는 것처럼 경쾌하다. 간혹, 줄기가 반쯤 꺾인 짙레꽃의 가시가 걷는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고개를 쭈뼛쭈뼛 내민 움들이 모나리자와 같은 얇은 미소를 띠고 있다. 물기 머금은 풀 섶을 헤집고 얼마나 올라갔을까. 졸졸졸 들릴 듯 말 듯 물 흐르는 소리가 산속의 고요를 허물고 가늘게 들려온다. 나는 심마니가 산삼을 찾아 헤매듯, 물소리의 시발점을 찾아 산 구석구석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점점 굽어지는 물소리, 그 근처까지 접근했지만 유심히 쳐다보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들성들성 이끼가 내려앉은 겹친 돌 틈 사이로 여과지에 걸러진 정화수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농축된 어머니의 모유 같은 샘물이었다. 물이 흘러내려 고인 조그만 웅덩이에는 고집 센 동장군을 애써 밀어내려는 봄의 몸부림이 군데군데 묻어 있다. 아직 채 녹지 않은 얼음의 껍데기를 뚫고 복수초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린 것이다.

그 샘이 언제부터 그 곳에서 생명의 양식을 흘러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름 없는 야생화 한 포기도 꽃망울을 품기 위해서는 샘물이 필요했을 것이며, 새끼 노루와 고라니, 산토끼도 상위 포식자가 없는 틈을 타서 허기진 갈증을 달래고 갔을 것이다. 정처 없이 떠도는 한 여름의 메마른 바람도 숨이 차서 잠시 샘터에 걸터앉아 땀방울을 식혔을지 모를 일이다.

나의 고향은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기계(杞溪)”라는 한적한 시골마을이다.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고대 “기”나라의 시내라는 뜻이다. 물이 증류수처럼 맑고 깨끗하여 사람들이 장수할 뿐 아니라, 인재가 많이 배출되기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고향으로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는 소나무 숲이 이정표처럼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숲 가운데 조그만 샘터가 있었다. 마을 동제를 주관하는 제관은 의무적으로 보름동안 이곳에서 목욕 재개를 하여 심신을 정화하였다고 전해진다. 겨울에는 따뜻한 물,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솟아오르며,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 늘 일정한 수위를 유지했다. 샘터는 바람의 방향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민초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삶의 무대였다. 여인네들의 삭이지 못한 애환의 찌꺼기를 녹여주는 용광로였으며 방전된 삶을 재충전해 주는 배터리였다.

허기진 참새가 방앗간을 찾듯, 여인네들은 가슴 한편에 묻어둔 갖가지 사연들을 향아리에 담아 옹기종기 샘터로 모여들었다. 즐거운 사연보다는 목구멍에 걸린 생선가시 같은 애끓는 사연들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삶의

굴레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샘물 위에 여과 없이 토해졌다.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손수건을 내어주는 것 보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서로의 아픔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픔의 강도는 물을 탄 알코올처럼 희석되어 갔으며, 치부까지 드러낸 상처를 공유하면서 한바탕 울고 난 후에는 진한 카타르시스도 느꼈을 것이다.

샘은 결코 오물을 거부하지 않는다. 기꺼이 받아들여 끊임없이 녹이고 정화시킨다. 한여름 폭우로 인하여 흘러드는 흙탕물도 며칠만 지나면 맑고 고은 물이 된다. 샘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찌든 때와 오물도 순백으로 바꿀 수 있는 맞춤형 천연세재를 간직한 만능 세탁기인 것이다. 이러한 샘의 포용력과 정화능력을 여인네들은 샘과 동고동락하면서 깨달았을 것이다. 또한, 자연스레 그러한 샘의 모습을 닮아 평생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샘과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몇 해 전, 등 떠밀려 마지못해 리더쉽 교육을 다녀왔다. 칠십을 훌쩍 넘긴 노신사의 강의는 교육생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군더더기 없는 매끈한 몸매와 인자하게 늙은 얼굴은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듯 했다. 평생 직업군인, 그것도 장성으로 전역했다. 연금만으로도 풍족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마그마처럼 솟구치는 에너지를 억누르지 못해 강단에 선다고 했다. 죽는 날까지, 평생 연마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젊은이 못지않은 스마트폰 활용능력, 동시대와 공감하는 신세대 용어, 강의 도중에 양념처럼 끼워 넣는 유머와 위트, 찌렁찌렁한 목소리는 가히 압권이었다. 그 분은 아마 오장육부 속에 감추어진 샘통을 하나 더 가진 슈퍼

맨 같았다. 그것도 강력한 펌프를 매단 샘통, 인생의 황혼기에도 가물지 않은 샘을 가진 것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채찍질하는 열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았다.

샘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둠의 지하에서 땅 위로 씩 없이 솟아오른다. 지상에 보이는 샘은 단지 눈에 보이는 샘의 일부분이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샘,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남몰래 흐르고 있다. 샘은 세상 모든 생명들의 삶의 원천이다. 샘물이 있어 비로소 못 생명들은 양식을 공급 받아 피가 흐르고 꽃망울을 터뜨리며, 힘찬 날개 짓으로 허공의 바람을 가를 수 있는 것이다. 북극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얼음 한 조각, 수면 아래에는 숨겨진 거대한 빙산의 뿌리가 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겉모습만 쳐다본다. 고갱이는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순간, 멋있게 보이기 위해 선으로 포장한 거짓은 미려한 포장이 한 겹 두 겹 벗겨지면 그 실체가 드러나고 만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음지의 아프리카에서 한줄기 빛으로 살다가 하늘의 별이 된 고 이태석 신부의 삶, 촛불과 같았으며 철혹의 어둠을 밝히는 흰 눈과도 같았던 그의 삶은 샘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제, 그는 가고 없지만 그가 세상에 남겼던 발자취는 샘이 되어 우리들의 가슴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주기만 하는 샘, 그래서인지 우리는 샘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은 이 세상을 마감 할 때까지 흐르는 샘물이다. 이에 반해, 자식의 부모에 대한 치사랑은 다분히 이해타산적이다. 부모의 등 뒤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린다. 파이프를 땅 속

깊이 뱉아 지하수를 강제로 퍼 올리는 관정과 같은 사랑이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뽑아 쓰는 관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 평생, 김밥 한 줄 두 줄 팔아 모은 돈을 한 푼 남김없이 그늘진 이웃을 위해 쾌척한 할머니, 단지 남에게 베풀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들을 우리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괜히 엔돌핀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으며, 황량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쁘다

물먹은 스펀지처럼 낮게 가라앉았던 산이 봄의 기운을 받아 기지개를 켜고 있다. 마지막 잎 새까지 떨어져 그늘 한 점 드리우지 못했던 텅 빈 가지가 생명의 출산으로 분주하다. 겨우 내내, 산야는 남몰래 분만을 준비하고 있었다. 생명의 움들을 잉태한 초목은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달게 삼키면서 생명을 보듬어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초목의 뿌리는 샘물에 닿아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생태계는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최상위의 포식자로부터 먹이 사슬의 궤적을 따라 끝없이 내려오다 보면 마침내 시원의 샘에 도달하게 된다.

산속의 허름한 곳에서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샘물은 모여 내를 이뤄 강으로 흐르고, 강들은 모여 바다로 흐른다. 생명의 씨앗을 잉태한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샘, 샘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기 때문에 샘이다. 샘이 있어 생명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세상은 순백으로 정화될 것이다.



포항이동중학교
손 달 호



수상소감

적은 능력, 아이들에게 돌려줄 것

재래시장이나 시골 또는 바닷가로 다니며 정겨운 소재들을 물어다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글짓기를 하는 것은 우리 직업만의 보람이다. 작문 시간에 학생들과 나는 쓴 글을 돌아가며 발표를 한다. 내 차례가 되어 원고 읽기를 끝내면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내 글을 합평해 준다. 나도 점잔을 빼는 일이 없고, 아이들도 체면 따위를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때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말의 눈짓이나 고갯짓으로 소통을 한다. 이런 교감으로 우리는 같이 자라는 것이다.

글짓기를 통해 교실에서 우리가 활발히 소통해 가고 있는 때, 수상의 영광을 보내 준 것은 더욱 정진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아닐까 싶다. 부지런히 갈고 닦아 남김 없이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일 것이다.

문고리

절집에 들어서면 금당의 측문에 달린 육중한 문고리가 눈에 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문고리를 당기고 밀며 삶의 상처를 위안 받고, 망상을 잠재우고 공포로부터 벗어나 어두운 밤길의 등불을 얻었을까? 사람들의 손길과 구원의 한숨이 배어 있는 문고리가 초연히 달려 있다. 선방 문고리만 잡아도 내생에 성불 인연을 짓는다는 속설대로라면 문고리에는 초심과 정각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 듯하다. 진리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원형이니 그것을 궁구하는 자리라는 암묵적 기호가 문고리이리라.

똑같이 걸린 문고리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닐 게다. 사찰에서 부처나 대중을 위해 절문을 드나들며 만지는 문고리는 기도이지만 내가 필요로 해서 문 안팎을 드나들며 잡는 문고리는 고물장수가 좋아하는 쇠붙이일 뿐이다. 문틀에 무심하게 박혀 있지만 결코 무심하지 않은 듯하다. 문고리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곳을 찾는지를 알 것이며, 지극한 정성에는 동행을 하리라는 생각마저 든다. 때로는 따뜻한 이웃과 같지만 탐욕 앞에서는 서슬이 퍼런 선사처럼 차가울 것이다. 진리이고 수도자이며 불상에 버금가는 문고리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과 연갑이자 당숙이신 재종할아버지께서는 빈소 방 문고리를 붙들고 애통해하셨다. 명절이나 삭망 때가 아닌 무시에 오셔서 셋방 문고리를 잡고 앉아 숙질간의 회포를 푸신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채로 애곡했던 입을 문고리에 얹어놓고 울다가 기운이 빠지면 눈을 감고 옛 정을 둥근 고리에 감는다. 영상처럼 스치는 그리운 정을

문고리에 필름 감듯 감았다가 다시 당신의 기억에서 촘촘히 풀어내신다.

할아버지는 빈소 방의 문고리만 붙들면 아버지를 만난 듯하다. 만지고 쓰다듬으며 문고리에 볼을 대고 속을 털어내는 심정으로 읊했다. 겨울바람을 제치고 윗마을로부터 아랫마을인 우리 집까지 내려와 빈소 문고리를 잡는 것을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으로 여기셨다. 빈소의 문고리는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영혼 그 자체였다.

감정이 가라앉고 마음이 쉬면 조용히 문고리를 당긴다. 흰 천으로 주름이 접힌 휘장이 쳐져 있다. 교위의 위패를 만나려고 휘장을 양쪽으로 밀쳐낸다. 문득 주름에도 문고리가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름 안면에는 숙질간의 여년목은 정을 진실하게 풀어낸 가사로 채워져 있을 것만 같다. 휘장에 걸린 문고리는 구정(舊情)으로 빠져들게 하는 징검다리였다.

코흘리개 시절, 어머니가 마을 나가서 문득 집안이 허적해오면 문고리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어머니를 불러댄 기억이 있다. 문고리에 바싹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았다. 문고리에서 떨어지면 엄마를 놓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 고함을 쳐 봤자 어머니가 오는 것이 아님을 어린 것도 용하게 알아차렸다. 문고리를 바라보다가 차츰 목소리가 기어들어 갔다. 문고리는 미동도 없는데 공연히 나만 기운 빠진 것 같아 우는 것도 포기하고 그 자리에 엎어져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할아버지도 문고리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문 저 편에 아버지가 불쑥 나타날 것만 같은 감정으로 슬픔을 숙성시켰다가, 종내는 선승의 화두처럼 문고리를 붙들었을 것이다. 문고리가 도는 것처럼 당신의 삶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음을 아셨을 것이다. 아버지를 보낸 슬픔 뒤로 당신의 차례가 임박함을 알고 본능적인 서글픔이 일어

났으리라. 차가운 문고리를 잡고 우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 당신이 뒤따라야 할 길로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문고리는 사소한 쇠붙이지만 간절함이 있다. 평범한 고리이지만 절실하게 붙잡아야 할 때도 있다. 문고리는 삶의 근원적인 언덕이다.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출산의 공포심과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이 문을 열 수 있기를 문고리를 붙들고 온몸을 의지한다. 젖니를 뺄 때도 무엇이 빠져나간다는 허전함과 순간의 공포심을 잠재우려고 문고리에 실을 걸고 미루적거린다. 할아버지가 한 자락 햇살만큼 남은 생의 안타까움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문고리에다 투사하는 것처럼.

문고리는 우리 삶에서 소통의 도구다. 긴절히 바라는 곳이나 있어야 할 곳에 공간을 짓고 그곳과 통하도록 문고리를 박는다. 늘 그곳에서 안팎으로 연결시켜 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 문고리의 모양이 둥글은 문을 경계로 안과 밖이 하나도 아니요, 다르지도 않은 원융한 것임을 이르는 것이리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 사이에도, 이념과 종교 속에도, 사회 안에도 문고리가 있다. 생각이나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격의 없이 드나들도록 달아놓은 것이 문고리다. 문고리는 굳은 것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윤희유와 같다. 낮은 자세로 여단을 땀, 차가운 갈등도 봄별 속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법당의 문고리를 바라본다. 문고리는 시작이면서 완성의 동그라미임에 틀림없다.





한솔고등학교
곽 상 학



수상소감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언제나 영웅입니다. 대체불가한 그 영웅이 상실되었을 때 아들은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청소년기에 일그러진 영웅으로 다가온 아버지 때문에 인생의 동력을 잃었던 저는 사유(思惟)와 습작(習作)으로 상실된 마음들을 치유하면서 회복의 새로운 새 지평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문예가 공유되는 의미 있는 이 대회에 은상으로 입상하게 되어 감사의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생깁니다. 4월에 '봄날의 흔적'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봄을 맞았고, 가정의 달 5월에 입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네 아이에게 만큼은 영원한 영웅이 되어야 하겠다는 목직한 책임감 말입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 준 이 대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봄날의 흔적(痕迹)



새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잦은 비가 필요했다. 지난 겨울의 기억을 지워버리거나 하듯이 입춘이 지나면서 수시로 비가 내렸다. 봄비는 겨울날의 잔기침을 삼키고 지난 계절에 날아든 철새들의 풍경조차 은근슬쩍 잊게 했다. 금강의 물길을 날아오르던 그 많던 새들이 이제 어디로 갔단 말인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방과 후, 교무실 한 구석을 차지하고 원두커피를 내리면서 미술평론가 ‘존 버거’의 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본다.”를 떠올리며 봄을 본다. 영어의 봄 ‘spring’은 참 예쁜 말이다. 웅달샘 바위 틈새에서 뽕뽕 솟아나오는 물방울이 시원하고, 겨우내 긴 잠을 자던 개구리가 얼음 녹는 소리에 놀라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다.

한자어 ‘춘(春)’은 또 얼마나 양증맞은가. 간질거리는 봄 햇살에 화답하듯 뽕나무 새순이 자그마한 머리를 뽀족이 내민다. 우리말의 ‘봄’은 좀 더 관념적이고 철학적이다. ‘혼불’의 최명희는 ‘말은 곧 정신의 지문’이라고 했던가. 봄의 어원을 살피면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이 품어온 생각의 품을 알 수 있다. ‘보다’의 명사형 봄. 혹자는 봄이 불(火)이 오는 형상이라고 하고, 햇볕(陽)이 오는 구조라고도 하니 우리 민족의 관념화와 상상력은 그 야말로 한 수 위다.

국어를 전공한 나로서도 봄이 ‘보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안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사람의 감각과 동작을 시각화하는 경향이 우리말만큼 뚜렷한 언어가 또 있을까. 우리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본다. 맡아‘보고’, 먹어‘

보고', 들어'보고', 입어'보고', 바라'보고', 만져'보고', 느껴'본다'. 생각까지도 생각해 '본다.' 어디 그뿐인까? 일을 '보고', 장을 '보고', 대를 잇는 순간에도 자손을 '본다'고 한다.

그러니 모든 것의 시초에는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이고, 자연에 대한 최초의 관조가 '봄'이라는 것에도 나는 동의한다. 따뜻한 햇살을 받은 모든 초목이 생명을 움 틔우는 경이(驚異), 그것을 바라볼 때가 봄이다. 내게도 그런 깨달음의 순간은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들판에서 봄비를 만난 후 뒤돌아보면 3월의 화사한 햇살이 농담처럼 다가와 있었다.

눈이 순한 초식동물처럼 봄을 맞이한다. 무심한 짐승마냥 바라보는 봄은 어느새 한숨처럼 스쳐가고 봄꽃은 맥락 없이 피었다가 쉬이 저버릴 것이다. 간절함 없이 피어나는 봄꽃이 없듯이 설렘과 기다림을 잉태하지 않는 봄은 얼마나 즉물적일 것인가. 존 버거의 말처럼 '보이는 것만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것은 사람 각자의 의지적인 선택의 행위이다.

이른 봄날, 다른 어떤 나무보다 먼저 샛노란 꽃을 잔뜩 피우는 산수유. 손톱 크기 남짓한 작은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 조그만 우산모양을 만들면서 나뭇가지를 온통 뒤덮는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수십 수백 그루가 한데 어울려 꽃동산을 이루는 산수유나무의 모습은 새 생명이 움트는 봄날의 가장 아름다운 풍광 중 하나이다.

어두운 방 안엔/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그 붉은 산수유 열매.....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김종길/성탄제)

가난한 아버지가 병든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겨우 붉은 산수유 열매밖에 따다 줄 수 없는 현실을 아련한 추억으로 처리한 따뜻한 이 시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과 작가가 체험한 유년 시절의 부성애가 각자 비슷한 무게의 등가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펄펄 끓는 아이의 이마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은 절묘한 촉각적 대비를 이루면서 자식을 위해 추운 날 밖에서 고생하는 아버지를 잘 그려내었다. 대부분의 우리네 아버지들도 식솔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밖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며 서늘한 옷자락을 자초한다.

어릴 적 아버지의 당당한 뒷모습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의 영웅'을 굳이 TV나 만화에서 찾을 필요가 없었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그 어떤 나의 필요도 기꺼이 채워주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바로 아빠였으니까. 사실 이것은 비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 터.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이 세상 모든 아들들의 생애 최초의 우상이다. 더욱이 시인의 아버지처럼 자식에게 희생적 모티브를 강렬하게 각인시켰다면 생애 마지막 우상도 가능할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한다.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유난히 크셨던 아버지는 학교 시험 결과에 유난히 민감해 하셨다. '한 문제 틀리는데 좋아리 열 대'라는 아버지의 일방적 통보에 아연실색한 그 날, 열 한 문제가 틀린 시험지를 들고서, 흠빛으로 변해 버린 그 날의 저녁노을을 잊을 수가 없다. 방문을 걸어 잠긴 상태에서 나무 빗자루 손잡이로 무려 백 열대의 매질을 고스란히 당한 그 날 밤은 아픔과 억울함으로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물과 울음이 범벅되어 가까스로 잠이 들던 그 순간, 매질로 터져버린 좋아리 한 쪽에 갑자기 한기가 느껴졌다. 직감적으로 아버지의 손길

임을 알아챘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이내 따끔따끔한 무언가가 종아리 전체를 뒤덮었고, 골똥히 어떤 생각에 잠기다 그렇게 잠이 들고 말았다. 아침에 눈을 떠 보니 방구석 한 쪽에서 발견된 동그란 연두색 연고 안티푸라민. 그것은 시인이 기억하는 나만의 ‘붉은 산수유 열매’였다.

내 나이 열다섯 되던 해 어느 날, 할머니는 굳이 그런 이야기를 어린 손자에게 해야만 했을까? 그 날 들은 아버지의 외도 사실은 그동안 맹신했던 아버지에 대한 영웅 신화를 산산조각 내버리기에 충분했다. 아버지에 대한 부화로 밤잠을 설치시는 할머니는 매일같이 거친 욕을 쏟아내셨고, ‘남편 복 없는 박복한 여편네네’ 원망할 틈도 없이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통닭을 튀겨야 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여동생 둘은 세상과 차단되어가기 시작했고, 나 또한 방향을 잃은 난파선 같이 눈에 초점이 사라져 갔다. 나름 스위트 홈이라 여겼던 우리 집을 풍비박산 내버린 그 장본인은 이제 더 이상 내 아버지도 영웅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 손에 청산되어야 할 적폐 대상에 불과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유혹한 그 여자도, 그 사이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 아이도 모두 내 복수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그 모두에게 처절한 복수를 다짐하며 내게 힘이 더 생기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나의 청소년기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늘 복수와 죽음을 되뇌며 어두움에 갇혀있던 그 시기에 나를 온전히 점령한 한 줄기 봄빛. 빛은 어두움보다 빠르다. 빛이 들어 들어오는 순간 빛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마는 어두움. 강렬한 그 봄빛으로 인해 세상은 느리게 다시 나에게 다가왔다. 따뜻한 공동체가 가정을 대신해 주었고, 서툴렀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조금씩 배워갈 수 있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용서도 저 하늘 ‘위에(Up)’, 나의 모든 힘과 권리를 던져버렸다.(Give) 온 몸에 힘을 다 뺀 내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give up(포기)’이었다. 하늘은 그런 나를 ‘위해(For)’ 결국 한 마음을 주셨다.(Give) 그것이 바로 Forgive(용서)였다. 포기와 용서의 영단어 어원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봄빛으로 들판 품은 그 하늘의 은총이 나를 온전히 덮어버린 것이다.

봄 햇살 같이 따뜻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사이에서 네 아이를 얻었다. 자연분만, 제왕절개, 가슴분만 이 세 가지 출산 방법 중에 첫째 딸은 자연분만으로, 세 아들은 가슴분만으로 얻었다. 아버지에게 장남인 나처럼 우리 은택이도 내게 장남이다. 우리 장남 은택이의 생모는 십대이다. 친부의 부재 속에 열 달 동안 태교는커녕 친모로부터 생명의 위협과 학대를 받은 은택이는 사실 태어난 것만으로도 기적의 아이다. 차남 은찬이, 삼남 은준이도 각각의 처연한 사연을 안고 태어났고, 그 아이들 또한 친부모에게는 각각 장남이었을 터.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와 생이별한 아이들보다 불쌍한 존재가 어디 또 있을까. 방구석에서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는 열다섯의 나. 한 때 제 아버를 죽이려했던 이 폐륜아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또 있을까. 그 불쌍한 인생, 한 때 세 명의 원수를 처단하려했던 그 두 팔이 이상하리만큼 가볍다. 분명히 세 명의 남자 아이들을 안고 있는 데 말이다. 분노로 달궈졌던 그 심장은 지금 전혀 다른 온도로 뛰고 있다. 매일같이 복수와 욕설을 뇌까렸던 그 두 입술로는 아이들과 동요를 부르고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 옛날 사랑하는 장남에게 가한 백 십대의 매질로 만들어 놓은 상처를 안티푸라민으로 싸매던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방황하는 아들에 속상해 하며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면목없어하는 할머니의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새벽 두 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을 열고 들

어오며 자식과 시어머니를 챙긴 어머니의 묵묵한 인내. 그 사랑의 흔적들을 말이다.

가지마다 줄줄이 매달려 있는 산수유 붉은 열매와 그 사이로 올려다보는 파란 하늘은 눈이 시리게 맑다. 구름 한 조각이라도 걸려 있다면 그야말로 환상적일텐데 말이다.

눈을 감고 아이들과 산수유 열매를 엄지와 검지로 살살 간질이는 놀이가 소중한 까닭은 나의 두 아버지를 추억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간절하게 보는 것과 무심히 보는 것은 다르다. 보려 한다고 해서 다 볼 수가 없고,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똑 같이 보이는 게 아니다. 안 보이는 것도 기다림과 설렘과 간절함만 있다면 심안으로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는 경치가 광경이라면, 내가 개입해서 시간과 상황을 편집하면 장면이 된다. 내가 보는 것들에 감정을 배제하면 풍경이고, 내 주관과 정서가 스며들면 정경이 된다.

내가 사는 곳 세종시에 한때 철새들이 노닐던 금강변이 이제는 행하니 비어있다. 이 계절을 새 풍광으로 채우고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봄이다. 난 이 투명한 봄날을 무심하게 통과시키지는 않겠다. 씨 뿌리는 기다림으로 나만의 장면을 만들고, 개화를 고대하는 설렘과 간절함으로 나만의 봄 정경을 가꿀 것이다. 그것이 선물 같은 내 봄날의 흔적(痕迹)에 대한 가장 극진한 대접일 것이다.

봄을 바라만 봐도 마구 들뜨니 도대체 이 봄을 어찌면 좋으냐!

어찌란 말이나!



안양교도소
김 난 귀



수상소감

문학소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는 일은 늘 바빴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정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퇴직 후에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아주 잠시 학창 시절의 꿈을 떠올리고, 그래, 내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써 볼까? 그리고 두서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내 글을 나눈다는 것은 내 삶과 내 생각도 나눈다는 것이어서, 소심한 나에게 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모나지도 세울 것도 없는 일상의 평범 속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누구에게나 들려 줄 이야기거리를 찾아 표 나게 다듬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학의 끈을 잡아 보라는 신호로 알고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치매

황갈색 양버즘나무 잎들이 바람에 휩쓸려 차가운 바닥을 뒹구는 12월 초였다. 입는 옷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당부의 말에도 갈아입을 옷 몇 점을 가방에 담고 파주로 가는 길, 차창 밖 한강은 햇살이 내려앉아 하얗게 반짝거리며 잔물결을 쳤다. 서울을 벗어나자 거리의 간판들이 점점 커지고, 낮은 주택들 옥상에는 어린아이 옷들이 빨랫줄에 무심하게 매달렸다. 차들은 점점 뜰해지고 차 안에는 무거운 한숨소리가 깊어갔다.

지난 5년여 년은 분노와 좌절의 시간이었다. 치매는 당사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가족들의 심신을 할퀴고 헤집었다. 정서는 파괴되고 말라버려 건드리면 툭 터질 듯 조여들었고, 사소함에도 날선 말들과 거친 행동들이 오가는 집안은 무너진 스위트홈이었다.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수업을 몰아듣고 번갈아 간병하는 횡수가 많아질수록, 퇴근하여 어질러진 집안을 치워야 하는 나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가서 혼자 간병하겠다는 남편의 소망이 막힐수록, 가족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았다. 이제 그 모진 시간들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과는 별개로 끝까지 보살피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이 상황이 서글펐다.

염치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시작되었다. 막내의 생일날 막 배달되어 온 피자를 가로채어 먹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끼리 놀게 두고 방안에 가서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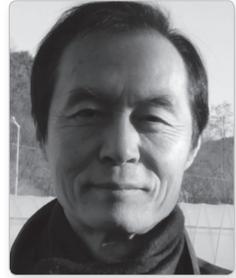
시는 게 좋겠다는 말을 무시하고 파티 상에 주인처럼 앉아 먹던 그 시간이 후로 예의나 교양, 상식과 품위를 배제하고 오직 본능에만 충실한 행동과 언행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피로를 주었다. 어쩌다 들른 친정식구들은 미련 그만 떨고 요양원에 모셔야지 산 사람도 죽게 생겼다고 성화를 했는데 문제는 남편이었다. 늦둥이로 태어나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남편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다. 요양원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고 딱 한 달만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막내 시누이에게 사정한 게 보름 전이다. 남편과 나이차가 많은 3명의 손위 시누이들은 시어머니와 동급이었다. 자식이 당연히 모셔야 한다던 시누이는 일주일 만에 울면서 전화를 했다. 몰라서 미안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해서 미안하다며 빨리 요양원을 알아보라고 했다. 일주일이 십 년은 된 것 같다며 엄마가 오신 뒤로 남편과 아들이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그 상황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입맛에 맞는 음식은 그릇이 바닥날 때까지 침을 흘리면서 먹고,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을 거며 어쩌다 화장실에 가도 변기가 차오르게 뒷일을 본 뒤 물을 내리지 않고, 휴지나 쓰레기를 아무 데나 툭툭 던지며 웃은 흘렁흘렁 벗었을 것이다. 사람을 뻔히 쳐다보면서 불쑥불쑥 내지르는 가시 돋은 말들은 몸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창이 되어 내면에 시뻘건 상처를 냈을 것이다.

시누의 응원으로 알아본 요양원은 원장이 착실한 천주교 신자로 주로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부모들이 계시다는 곳으로 친한 지인의 동생이 수녀여서 그 어머니를 모신 곳인데 같은 교우고 맞벌이라는 말에 급한 사람을 우선 받아야지 하면서 허락한 길이었다.

부잣집 만머느리같이 후덕하게 생긴 원장은 몸빼 바지에 험렁한 라운드면 셔츠 차림으로 쭈빰대는 우리에게 방금 어른들 드린 거라며 냉장고에서 시원한 생 딸기주스를 꺼낸다. 신선한 과일의 향이 움츠려든 전신을 자극한다. 아주 오래된 인연처럼 원장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이고 할머니, 오랜만이네. 나 기억 나우? 막내딸 친구라서 나 예뻐했잖아” 하면서 한바탕 수다를 푼다. 잠시 어리둥절하던 시어머니는 금방 아는 체를 하며 희미하게 웃는다. 절대 울지 않기로 한 남편은 벌써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할머니, 친구분들이 기다려. 옛날에 같이 이웃에 살던 분들이 할머니가 오신다고 저렇게 기다리고 계셔들” 하며 방문 너머 할머니들을 가리킨다. 인사부터 하고 오자며 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남편과 시누이들은 기어이 울음을 터트린다. “왜 울어, 여기 죽으러 왔어? 내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말고, 못 믿겠으면 모시고 가고”, 모시고 가라는 말에 시누이들이 꺾꺾거리며 눈물을 삼킨다. “할머니 누가 모셨어? 어디 가 아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가 고개를 젓자 모니터를 가리킨다. “저 할머니, 며느리가 모셨는데 며느리 위암에 걸렸지, 저기 저 할아버지, 큰 따님이 모셨는데 그 따님 유방암 걸렸지, 저쪽은 며느리, 딸이 번갈아 모셨는데, 하나는 자궁암, 하나는 간암, 다들 자식 잡아먹거나 병들게 하고 오신 분들이야. 그 수녀 분 어머니도 언니가 모시다가 유방암 수술한 거 알지? 댁네 어머니는 더 나빠, 세 살짜리 정도인 것 같은데 모시던 사람이 멀쩡하다는 건 멘탈이 보통 아니라는 거지. (남편을 가리키며) 부인한테 날마다 절하고 모시고 살아야 해”,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정말이지 존경해 마지않는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억지로 버티낸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며 눈물이 나려고 하여 어금니를 짹 물었다.

그렇게 시작된 요양원 생활은 4년째 되던 해, 10년 만의 추위라고 기상 예보를 하던 날 끝이 났다. 91세 생일을 얼마 앞두고였다. 마른 장작 같은 몸으로 인공 호스를 6개월 다는 동안, 의식도 없는 몸을 이쪽저쪽으로 누이고, 욕창이 났는지 살펴보면서, 남편은 점차 어머니에게서 멀어졌다. 불러도 대답 없고 살아도 산 게 아닌 어머니는 생전의 살가운 기억에 슬픈 덧칠만 하고 그렇게 모질게 정을 떼고 가셨다. 그녀가 베풀었던 수많은 봉사활동들은 그녀를 품위 있게 죽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선행의 대가로 평소 딱 3일만 아프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짐작했던 나의 희망도 무참하게 부서졌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죽는 복을 타야 한다는 올해 여든넷 친정어머니의 입버릇이 예사로 들리지 않은 것은 나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고 축복받는 죽음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삶이 좀 힘들었다 해도 충분히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결과가 좋다면 다 좋다는 말을 새기면서 가끔 잘 죽는 것에 대해 혼자서 생각해 본다.





강원도 횡성군
임 청 근



수상소감

섬강 변에 앉아서 흐르는 물을 바라봅니다.
봄날의 소리 없는 이슬비가 강물을 더하여 고요한 정적을 우려내고 있습니다.
매순간 흐르는 삶의 모습처럼 오늘도 섬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이고 싶습니다.
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정화됨을 느낍니다.
긴 인내와 사랑의 에너지를 함께 ...
글이 마음의 표현이라면 섬강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이고 싶습니다.
이제 글쓰기의 작은 돛단배를 띄우면서 내 삶과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을 수용하고 공명하는 아름다운 섬강을 닮고 싶습니다.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는
이 강에 앉아서 다짐해 봅니다.

섬강(蟾江)

가을 건들마가 산골짜기에서 내려온다. 숲이 흔들린다.

섬강둔치에 갈대밭이 술렁댄다. 석양이 산마루에서 팔부능선위로 붉게 빛금을 치고 있다. 물위에 닿을 듯 말 듯 날개를 펴리며 왜가리 한 마리가 노을빛 속으로 들어간다. 맞은 편 허공에서 하얀 수건을 나폴대듯 너른 날개를 편 흰 짝지가 날아온다. 두 마리가 선회하며 강 한가운데 바위에 앉는다. 생명의 보금자리가 한눈에 보이는 듯하다.

섬강(蟾江)이라는 이름은 강기슭에 큰 두꺼비바위가 새끼두꺼비를 업고 있는 형상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인지 강 가운데 기기묘묘한 크고 작은 바위군집이 수백 개의 집채를 이루며 흩어져있다. 사시사철 강기슭의 바위위에는 낚시꾼들이 부동의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곤 한다.

지난여름, 강가에 머리를 식히려 나오니 물이 불어 강 가운데 바위섬에는 못 오르고 강턱에서 즐지어 선 낚시꾼들을 보았다. 웅성웅성 모여 있는 모습에 호기심으로 다가서니 그곳에는 커다란 뱀장어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주춤 뒷걸음치며 얼마나 놀랐는지 손을 맞잡았다. 이곳에는 ‘정말 없는 것이 없구나 생명의 보고이구나 싶어’ 가슴도 두근거렸다. 뚝지, 황쏘가리, 누치, 피라미, 잉어, 자라 등속이 물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뱀장어까지 진흙 속에서 버글거리고 있을 줄이야. 마치 골목길에서 뜻밖의 사람이 뛰어나온 것처럼 경이롭다.

우리는, 강물은 생명의 젖줄이요, 모성의 모태와 같다고 말한다. 나는 벌떡거리는 장어를 보고 산짐승을 본 듯 불끈대는 가슴의 고동을 느꼈다.

강은 모든 것을 품고 흐르고 있다. 토사로 내려오는 흙더미도 풀어 내리고, 아래로는 바위덩어리도 누대를 걸쳐 균열이 생겨 자갈이 되어 흐르고 풀벌레도 갯가에서 평화로이 보금자리를 만든다. 누가 초대하지 않았어도 여름새 겨울새 번갈아 찾아들고 때 되면 떠난다. 지금도 때가되면 떠날 새들이 갯바위에 웅기종기 모여 있고, 풀숲에서는 작은 참새들이 포르륵 거린다.

이토록 생명의 움직임을 보면 새로운 기운을 얻는다. 무한히 너른 강폭에 어눌한 마음이 퍼진다. 저녁강의 물결은 하루의 시간을 갈무리하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둥글게 흐른다. 흡사, 수많은 군상들이 재잘대며 서로를 위로하고 아픈 하루를 부둥켜안고 흐르는 어울림의 모습으로 아늑함을 느끼게 한다.

마치 하루 일을 마치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만종의 그림이 펼쳐진 듯한. 그런 분위기가 해거름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내 맘이 직장에서의 풍진을 씻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녁 강을 휘돌아 걷기를 즐기는 것은, 저 강물이 맑은 심성으로 보이고, 인내로 근면함으로 유유히 흐르기 때문이다. 나는 깨끗한 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덕지덕지 먼지가 낀 마음이 정화됨을 느낀다.

문명을 발달시킨 곳에는 강이 즐기차게 흐르고 있듯이. 일개 작고 초라한 개인 하나하나에게도 강은 지친 피로를 씻어줄 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다. 수 천 수억의 물방울이 둥근 물결을 지으며 도란도란 흐르는 맑은 모습은 폐부를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 몸의 팔십 프로가 물로 이루어 졌고 지구의 삼분의 이가 바다로 이루어 졌으니 물은 곧 우리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물이 감정에 반응한다는 얘기가 관심을 끌고 있다.

어느 일본학자의 실험이 떠오른다. 두 개의 병에 맑은 물을 넣고, 한 쪽에는 사랑의 말과 희망의 말을 하고 한 쪽에는 악담과 낙담의 말을 들려주었더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과로 드러난 모습이 밝음과 어둠이었다고 한다. 한쪽은 맑고 깨끗한데, 한쪽은 해초가 썩은 것이 들어간 양 칙칙하고 영긴 것처럼 더러워보였다고 한다. 그 실험에 놀라워 호수를 두 곳을 선정하여 한 곳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한쪽은 시끄럽고 어둡고 나쁜 악설을 계속해서 들려주니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좋은 음악을 들은 곳은 아리랑 춤을 춘 듯이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물의 결정체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경우의 물 결정체는 분자가 파괴되고 부서진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 학자들은 이런 실험을 여러 곳에 다양한 음악으로 적용시켜보고는 발표를 했다.

나는 그 실험결과의 술한 사진을 보았다. 시끄러운 음악을 들은 물은 물 분자가 파괴되었고, 좋은 음악과 다정한 말을 들은 물은, 치솟고 휘감기고 예쁜 물무늬를 만들어 낸 사진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다. 또한 놀란 가슴은 문득 내 소년시절이 떠올랐다. 착하고 인내심이 많다고 칭찬받던 그 시절 나는 얼마나 기특한 효도의 마음으로 부지런했던가. 또한, 청년시절 직업 없이 떠돌 때는 그 누구도 내게 정다운 말을 건네주지 않을 때 나는 얼마나 과격했던가. 이제 퇴직시절인 나는 분자가 파괴된 듯이 어느 한쪽이 부서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

여기 이 깨끗한 강가에서, 바윗등에서, 물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평온을 얻고 조용히 알음알이가 생기게 된다. 우리 곁의 사람들이 자살, 우울증 그런 것을 극복하려면 강가를 자주 걷는 그런 여유를 만들어주어야 될 것 같다. 우리 강이 이토록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우리가 강을 모두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곳의 생명을 바라보며 믿고, 내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

을 대하니 강도 역시 우리에게 깨끗한 살점을 터주고 반짝거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강은 고요히 흐르며, 구름은 물론, 고층아파트건물도 온몸으로 비춰주고 있다. 속절없이 들여다보는 모든 것을 포용한 채, 그대로 투영되게 하는 포근한 모성의 섬강이다. 바닥도 수면도 깨끗한 강이다. 강을 바라보기만 해도 정화되는 듯싶다.

저만치 강 건너편 산 아래를 바라본다.

버드나무 숲이 우거지고 그 뒤로는 아름답리 상수리나무들이 늘어선 강기슭을 본다. 낚시꾼 한 명이 솟은 나무인양 너럭바위위에 서 있다.

그쪽으로 건너간다. 강심이 낮아 징검다리를 무사히 건넌다. 물막이 보위에 놓은 돌다리여서 사이사이에는 보 앞에서 여울지든 물살이 빠져나가느라 거센 물살이 세차게 소리치고 있다. 징검다리 주변에는 실치를 비롯하여 작은 고기들이 바글바글 댈다. 바글대다가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같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성장해가는 물고기들, 우리 어린 시절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런가. 우리도 매사에 거슬러 가고 싶어 도전하는 게임을 수도 없이 자행하지 않았던가. 철이 들어서야 순리대로 따르는 하심을 배우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물고기길도 그와 같으리라.

이 강의 발원지는 청일면 신대리에 있는, 해발 1022미터의 봉복산(鳳福山)의 '돼지샘'이라는 작은 웅달샘에서 발원하여 250여리 밖에서 남한강과 합수되어 한강으로 흐른다. '봉황이 배를 하늘로 하고 누워있는 산의 형상'에서 시작하여 깊은 산들이 포개진 골짜기를, 안개 속을 헤치며 흘러 내려와 이토록 유유히 흐르고 있다. 밤이면 은하수가 흐르는 섬강의 너비는 1,303km² 으로 수량이 풍부하고 경관이 빼어났다. 한강을 흘러 먼 바다로 가는, 물길이 닿는 곳마다 비경이요 바위를 휘감고 나가는 절묘의 소리를 내는, 섬강줄기 73.02킬로미터의 한 정점에서 나는 나의 반려자를

만났다. 처음 내 고장을 찾아온 그녀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곳이 바로 안개 낀 섬강이었다. 우리는 섬강의 텃새처럼 은빛모래 바위성채를 보금자리로 그려보고 있었다. 서로의 고집을 버리고 유유히 먼 길을 은하수처럼 펼쳐나가리라. 두 마음을 하나로 합쳐 흐르기로 강가에서 맹세하였다. 지금도 우리는 섬강처럼 바위를 감싸고 별판을 휘돌아, 역경을 이기며 먼 바다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낙시꾼은 이제는 바위 귀에 앉아있다. 서서히 어둠의 흠이불이 쌓여지는 강물을 자세히 보려는 듯 꼼짝없이 내려다보고 있다. 나도 말없이 바윗등, 그 옆에 앉는다. 고무통에 똑지 한 마리 들어있다.

음력 8월 중순경, 건들마가 획 불어온다. ‘후드득’ 도토리가 강물로 떨어진다. 작은 풀벌레도 떨어졌으리라. 작은 동그라미들이 술한 흔적을 남기다가, 이내 반짝이는 윤슬로 본래 모습을 찾는다. 우리네 인생도 술한 난관을 넘고 넘어서야, 시간이 강물같이 흐른 뒤에야 평화를 맛보지 않는가. 번뇌가 별처럼 많아도, 강물을 바라보며 나를 하심으로 흐르게 하고자 이곳을 자주 찾는다. 시시각각 변하는 섬강의 모습에 조용하며, 번뇌를 강물에 띄우면, 베토벤이 귀가 안 들리는 역경 속에서도 작곡한 전원교향곡이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하다. 내 고향에 이토록 신비한 강물이 있어 나는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암암리에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강물은 오랜 세월동안 내게 말한다. ‘마음을 정화시키고 나를 보라. 그리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사랑을 발휘하리라.’

풀기 없는 흠이불처럼 어둠이 부드럽게 강물을 덮었다. 우리는 일어섰다. 낙시꾼은 똑지를 강물에 던지고, 나는 말없이 미소를 강물에 던졌다. 강물은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인천세관
장 광 현



수상소감

대륙의 황사가 제일 먼저 상륙하는 인천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제1의 관문이고 외세가 제일 먼저 진출한 근대사의 각축장이기도 했다. 일과 후 틈틈이 옛 인천의 흔적들을 더듬으며 골목골목을 누비는 여정은 언어가 희미한 옛 강물 내음을 쫓아 고향으로 회귀하는 일처럼 마음 설레는 경험이었다.

가벼운 저녁 산책이 어느새 순례가 되어버린 탐방에서 이웃과 부대끼며 살던 아버지 세대의 살가운 살 내음을 맡기도 했고 때로는 피동적 역사의 슬픈 자화상과도 마주쳤다. 길 위에 흘린 땀이 고된 몸이 내뿜는 의미 없는 찌꺼기가 아니라 어제를 되돌아봄으로써 밝은 내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졸작을 뽑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문을 비롯해서 험로에서 땀 흘리고 있을 모든 분들과 당선자의 영광을 함께 하고 싶다.

관거험로(關據險路) [부제: 봄날 밤 인천 속으로]

영동 산간지방에서 때늦은 눈 소식이 간간이 들려오던 삼 월 초순 인천으로 발령을 받고서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 있는 세 평 남짓 넓이의 숙소에 짐을 풀었다. 북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황해를 건너온 황사와 미세먼지가 제일 먼저 상륙하는 이곳 인천의 탁한 공기 때문인지 코감기 목감기 알레지 등이 골고루 순서대로 찾아와서 떠나질 않았었다. 내항(內港)에 접한 본관 사무실에서는 맑은 날이면 하역용 크레인 숲 사이로 월미도(月尾島)가 한눈에 들어온다. 추위가 물러나고 날이 풀리면서 이른 아침의 연안 앞 바다는 해무(海霧)로 뒤덮이는 날이 많아졌고 바다 건너편 월미도도 짙은 안개에 묻혀 정수리 부분만 살짝 드러내곤 했다. 몇 년 전 근무지였던 부산에서도 ‘수호제일관문(守護第一關門)’이라는 편액이 걸린 본관 건물의 창 밖 부두 너머로 영도(永島)가 손에 잡힐 듯 말 듯 저만치 바다 위에 어른거렸었다.

퇴근 후 산책을 겸하여 인천의 옛 도심을 둘러볼까 하여 저녁식사를 잠시 미루고 숙소를 나섰다.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가로등이 불을 밝히기 시작할 무렵 내게는 아직 낮선 이 도시의 골목길은 이국적 풍치마저 느껴진다. 아름다움뿐 아니라 추함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낮과는 달리 때로 어둠은 세상 골목이나 거리의 지저분한 구석을 가려주고 우아하게끔 보이게 하는 아량을 베풀어 주어서 좋다.

30여 년 전 임용을 앞두고 항동에 위치했던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3주일간 인천에 머물렀었다. 그 때의 기억 때문인지 인천이란 도시는 역전 거리의 혼잡, 유람객으로 붐비는 월미도, 소위 ‘떡방(떡거리+방송)’ 바람 탓인지 외지인으로 북적대는 차이나타운, 곡물창고나 원료창고에 가로막힌 바다,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을 둘러싼 이념(理念) 공방 등 그리 유쾌하지 않은 이미지로 머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으론 부산, 원산에 이어 1883년에 개항한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이니 만큼 인천 본연의 옛 모습과 의미를 간직한 특별한 곳이 어디엔가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늘 머릿속에서 맴돌았었다.

숙소를 나서서 중국인을 비롯해서 동남아계, 아랍계 등 외국인들이 유난히 많이 눈에 띄고 텅텅한 공기 탓인지 지루하리만큼 좁고 길게 느껴지는 신포(新浦) 지하상가를 한참 걷다가 19번 출구로 탈출하듯 지상으로 빠져 나왔다. 여기서 외지인의 인천 답사코스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홍예문(虹霓門)이 있는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 1885년 7월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세웠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인 내리교회가 언덕 위에서 맞이한다. 평일저녁 교회당 안에는 삼포시대를 살아가며 풍족함 속에서도 무인도에 고립된 듯 무엇엔가 항상 목마른 젊은 청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교회 마당에는 최초의 한국인 목사 김기범을 비롯한 목자 세 분의 흉상이 격랑처럼 휘몰아치던 개항기의 일들을 회상하듯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묵도하고 있다. 다시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1890년 영국 해군 중군신부 코르프(한국명 고요한) 주교가 세운 내동교회가 나뭇잎 사이로 조명을 받으며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를 드러낸다.

큰길에서 조금 벗어난 골목인데 도심의 소음과 번잡함은 아득히 멀리 있는 듯하다. 단아한 주택들과 그 사이에 하나 둘 숨겨져 있는 아담한 찻집이나 운치 있는 카페들에 정신을 팔다보면 어느새 골목길은 마치 고갯마루에 뚫어 놓은 터널처럼 보이는 홍예문 위 정수리에 와 있다. 개항 후 인구 유입으로 거주지가 확장되자 일본군이 남북을 가로막은 언덕을 뚫고 홍예문을 세워 쉬운 통행을 도모했다고 한다. 무지개처럼 아치형 모양새를 해서 이름 지어졌다는 홍예문을 정점으로 그 양쪽 편 비탈에 들어선 동네에도 아기자기한 음식점과 양증맞은 카페들이 모여 있다. 그 중 한 카페 안을 들여다보니 바리스타는 한가롭고 언덕 아래로 향해 난 창문 옆 테이블에 서로 닿을 듯 얼굴을 맞대고 앉은 연인 한 쌍은 짧은 봄날 저녁이 아쉬운 듯 서로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부근 실내야구연습장에서는 중학생 서너 명이 등에 메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잠시 벗어놓고 호기롭게 배트를 몇 번 휘두르다가 이내 제 갈 길을 간다. 꼬이고 뒤틀린 팔자의 인생들을 잠시나마 위로하고 주름을 펴줄 점집들도 간간이 눈에 띈다. '이런 곳이 인천의 속살이고 본토박이들이 사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든다.

홍예문 위를 지나는 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하루 공부를 마치고 학우들과 짝짝이 집으로 향하는 여학생들 모습이 참새들의 유쾌한 재잘거림처럼 싱그럽다. 자유공원으로 가는 길을 따라 완만한 경사의 비탈길을 오르면 초파일을 앞두고 천왕사에서 내걸었을 여러 색깔로 정성과 염원을 담은 봉축등이 길을 따라 머리 위에서 불 밝히며 길을 안내한다. 숲이 좋은 자유공원의 밤공기는 맑고 신선해서 공복에도 허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공원 마루에 올라서면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맥아더는 한 손에 망원경을 든채 이른 새벽의 어둠 속에서 상륙작전을 지켜보듯 변함없이 인천 앞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동상 뒤편 아래쪽엔 펜 대신 총을 잡고 스스로 전쟁터로 달려가 포연 속에 스러져간 학도병들을 기리는 충혼탑이 말없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옆 정자에는 막노동자로 보이는 두 사람이 고단한 삶의 무게인양 묵직해 보이는 작업가방을 옆에 내려놓은 채 소주와 안줏거리를 걸고 바둑 대국을 벌였다는데 흑과 백색 돌의 기세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외모나 술기운에 툭툭 묻어 나오는 말투가 다르듯 기풍도 한 사람은 실리(實利)를 쫓고 다른 한 사람은 호기롭게 중앙으로 세력(勢力)을 펼친다. 말이나 돌을 부려 승패를 가르는 장기나 바둑에서도 한 번 패하면 기분이 좋지 않고 두세 번 연이어 패하면 화가 나고 돌을 던지기 일쑤인데 한 번 뿐인 인생에서의 승부는 돌을 던질 수도 없을 터이니 절치부심이 바둑판에 비할까.

자유공원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인천항은 구한말 거침없이 밀려드는 거대한 개항의 파도를 온 몸으로 받아낸 곳이다. 1883년 1월 개항과 더불어 6월 16일 현재의 차이나타운과 인천역 사이 인근 목조 단층 건물로 설치되어 업무를 개시한 인천해관의 역사는 인천 개항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어둠에 잠겨 말이 없는 저 바다는 스트리플링, 쇠니케, 미야기 등 생소한 이름의 외국인 해관장(海關長)들에게 수세(收稅)의 국가 주권을 내맡기다가 1910년의 한일합병으로 그 허울뿐이던 주권마저 온전히 강탈당하는 모습을 목도했을 것이다.

얼마 전 해상투기 수법으로 중국에서 밀수하려던 금괴를 세관 수사요원

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적발한 적이 있었다. 인천공항에서는 미국에서 입국하던 대량의 마약 밀반입자가 세관 조사팀에 검거되기도 했다. 새삼 본관 회의실 한 쪽 벽면에 걸려 있던 액자 속의 한자 글귀, “관거험로(關據險路)”를 마주하고서 고개를 끄떡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관문은 반드시 험한 길목에 근거하고 시장은 필히 요긴한 나루터에 의지해 들어선다(關必據險路 市必憑要津)’는 구당서의 한 구절이다. 아침마다 인천항을 뒤덮는 안개처럼 소리 없이 밀려드는 마약, 테러, 밀수 등 국경범죄에 맞서서 인천 바다와 영종도 하늘 길을 지키는 관문(關門)의 동료들은 지금도 두 눈을 부릅뜨고 근무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자유공원의 밤은 독서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재잘대는 여학생들,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 나온 젊은 아낙, 다정스런 노부부 등 주변에 사는 토박이들의 공간이다. 그래서 내 동네 내 집처럼 편안해 보이고 차분한 분위기다. 저번에 둘러본 배다리와 도원역 인근의 동네들도 한때 우리나라 제2의 도시였던 인천의 구도심이라기보다는 소도시의 변두리에 온 듯 인적이 드물었다. 우각로 골목에서 저녁바람을 쏘이던 한 늙은 아저씨는 '한 집 건너 두 집은 빈집'이라며 이웃과 부대끼며 살던 옛적을 회상했었다. 오래되어 빛바래고 삭아 가물거리는 기억을 더듬어 내는 일은 좁은 틈새에 빠진 열쇠를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까스로 집어 올리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터이다. 언제일지 모르는 재개발의 기대수익에 쫓겨난 외지인들에게 팔려나간 집들은 세도 나가지 않아 비워두고 있단다. 사람들로 북적이며 생기가 가득했을 마을들이 청라, 송도, 영종 등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며 주변 고층 아파트들에 주민들을 빼앗기고 날로 쇠락해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자유공원에서 과거 열강들의 사교장이던 제물포구락부 건물로 내려가는 계단 길과 인천제일교회로 난 계단 길을 차례로 내려가서 초등학교 담벼락을 왼쪽 옆구리에 끼고 걷다보면 홍예문로 오르막길과 마주친다. 좁은 홍예문로를 가로질러 신포시장 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손님이 없어 더 넓어 보이는 불링장, 아담한 차(茶) 박물관에 이어 ‘1883 개항장 근대역사문화회랑’ 거리가 나오는데 이곳부터는 오히려 근대 인천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혼잡스런 어느 도시의 거리로 나온 듯하다. 신포시장(新浦市場)은 사람들이 발길을 거두기 시작하고 상인들도 하루를 마감할 채비를 서두른다. 한 식당에 들어서서 만두를 주문하니 김치와 고기로 속을 채운 만두에 뜨끈한 국물과 단출하게 단무지 세 쪽을 함께 내 놓는다. 식당 아주머니 서 너 분은 여전히 내일 장사를 위해서 얇고 둥근 피에 속을 넣어 만두 만들기에 손길이 바쁘다.

빠른 지름길을 찾아 숙소로 돌아 갈 요량으로 신포시장 초입에서 큰길을 건너 우현로 골목으로 들어서니 어둠 속에서 아치형 스테인드글라스 유리창과 첨탑에서 밝은 빛을 내뿜는 답동성당이 골목담장 뒤에 숨어 있다가 우아한 자태를 슬며시 드러낸다. 우현로 50번 길과 맞닿은 답동로(沓洞路)로 접어들면 울목(栗木) 도서관 옆 성산교회 첨탑은 언덕 위 저만치에서 하늘에 닿을 듯 높다. 주택가 건물들에 가렸다 보이다가를 반복하는 교회 첨탑 십자가와 숨바꼭질하듯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고 큰 길 건널목을 건너서 높은 아파트 숲 사이에 낮게 숨어 있는 숙소로 돌아왔다. 3월 봄날 밤이 깊었다. 내일은 날씨가 맑아서 내항(內港)의 잔잔한 바다와 그 건너편 월미도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대구광역시 동구
정 기 임



수상소감

아버이 안 계신 '아버이 날'이란 참으로 쓸쓸한 일입니다.
작년 아버지날엔, 봄풀 돋은 산골마당 감나무 그늘 아래 앉아
동생네 가족과 홀로 계시던 아버지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소주를 마셨는데...
올해 아버지날 아침엔, 아버지를 잃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된서리 내린 들판에 찬바람 이는 마음을 허겁지겁 추스르다가
스팸문자 받듯, 기대하지 않았던 입상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그리며 쓴 이야기가 공무원 문예대전에 당선되었다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 같아 고맙고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생의 일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졸작이지만
이 작품을 돌아가신 아버지께 올립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아카사야 흰 꽃이 만발한 산소를 찾을 생각입니다.

사랑의 줌도리

떠꺼머리총각 같은 모양새가 푹푹했다. 사무실 한 편에 쌓이는 쌀 포대를 보는 마음에 파문이 일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달라며 보내온 사랑의 줌도리다. 바구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면, 포대를 옮기던 사람이 건넌 말에도 괜스레 목이 메였다. 허술한 비닐 포대니 벌레가 이는 건 당연했다.

아버지의 쌀 포대도 그랬다. 헛간에 들여놓은 도정기에서 갓 짙은 쌀을 담아 주시던 아버지가 여든을 넘고부터는 20kg포대 여남은 개 분량을 정미소에서 한꺼번에 짰었다. 시골에 들르는 자식들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게 컨테이너 창고에 쌓아 두곤 했는데, 무더위가 계속되는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바구미가 일었다.

아버지의 포대는 모양새와 달리 찰진 사랑으로 가득했다. 초록 나일론 줄에 주둥이가 묶인 채 웅크리고 앉은 포대가 지난至難했던 아버지의 삶이기라도 한 듯 느껴왔다. 그리움과 서러움, 왠지 모를 반가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복잡한 심정으로 쟁여진 포대 곁에 다가서니 기억 속에 흐릿하던 냄새가 소르르 살아왔다.

잊고 살았던 냄새다. 뒤주에 숨어들어 쌀을 훔치던 옛날, 허기와 함께 밀려오던 서늘한 늦수저 냄새다. 때로는 멀건 보리송충처럼 허전하기도 했었다. 너나없이 궁핍했던 시절, 쌀은 필사적으로 지켜야 했던 생명줄이었다. 어른들은 배고픈 아이들이 쌀을 훔치는 걸 막으려고 생쌀을 먹으면 엄마가 죽는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엄마가 죽게 될까봐 두려웠지만, 몰래

흙진 쌀 한 움큼은 옥죄던 허기를 면하는 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간식이었다.

우리는 대가족이었고 쌀독은 수시로 바닥을 보였다. 일제 강점기 수탈이 극성을 부리던 소화昭華 4년(1929) 2월 4일,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신 아버지는 쌀을 마련하는데 평생을 받쳤다. 불운한 시대 탓이었는지 한학에 조예가 깊고 집성촌의 부자였던 할아버지는 술망나니로 살았다. 노름빚에 넓은 논밭을 모조리 날리고도 눈만 뜨면 술을 마셨다. 송곳 하나 꽃을 땅도 없게 몰락한 할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살았던 집성촌에서 쫓겨 박차씨 마을로 흘러들었다.

동생 다섯에 할머니와 어머니, 건너뛰는 끼니 수가 늘어갔다. 아버지는 굶주림을 면하려 아랫마을 부잣집 머슴이 되었다. 밤낮없이 일만 하다 갑자기 터진 6.25전쟁에 징집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UDT 요원으로 7년을 복무했다. 250만 명이 사망했다는 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와 또 머슴을 살다가 1958년 첫 딸을 얻었다.

아버지는 아들 셋과 딸 넷을 낳았지만 넷째 딸은 태어난 자리에서 잃었다. 여름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나는 다락방에 숨어 성글은 문짝의 찢어진 구멍으로 몸부림치는 엄마의 출산을 보았다. 검붉은 핏물이 흥건하던 무명천, 늙은 산파의 허둥거림,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던 아이. 나는 두려워 몸을 떨었다. 영화나 연극의 장면 전환처럼 다음 기억은 헛간 앞이다.

벧짚으로 넉넉히 동여맨 주검이 자전거 뒷자리에 묶여 있었다. 초가지붕 재료 뿐 아니라 소여물 퇴비 불쏘시개 등 빈천한 농가 자산으로 버릴 것 하나 없었던 벧짚을 아낌없이 동여맨 건, 몸뚱이 하나 뿐인 아버지가

죽은 딸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사였는지도 모른다.

럭비공처럼 타원형으로 둘둘 만 벗짚터미를 신고 아버지가 삼작을 나섰다. 우산도 없이 나도 따라 나섰다. 도랑川의 황톳물이 마을을 휘돌며 팔팔 내달렸다. 시뻘겑게 고함치는 거친 물줄기를 따라 힘겹게 페달을 밟던 아버지의 야윈 뒷모습이 눈물같은 비에 젖어 들었다. 미루나무 뒤에서 ‘아부지’ 소리 높여 부르지 못했던 그 여름의 서늘함은 지금도 핏빛 아픔으로 선연하다.

넷째 딸을 큰물에 띄워 보내고도 아버지는 일만 했다. 녹슨 우산을 김든가, 달군 쇠로 고무신을 녹여 구멍 난 바가지를 때우거나 닭장이나 외양간을 수리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굵은 못을 망치로 두드려 펴고 멍석이나 망태기를 짰다. 잠시도 쉬지 않고 모으고 아낀 돈으로 몇 마지기 땅을 샀다.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다.

땅은 아버지의 목숨이었다. 낱알 하나라도 더 거둬야 굶주림을 줄일 수 있었다. 초봄에 씨레질로 논을 삶아 모내기를 하면 여름내 물길을 보듬고 피를 뽑았다. 논두렁에는 팔이나 콩을 심고, 깻잎 부추 같은 건 밭두렁에 심었다. 땅도 아버지의 부지런함을 좇아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까지 농작물을 키워냈다.

아버지는 소똥 무더기 하나, 오줌 한 방울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신작로에 싸놓은 소똥도 삼으로 떠와서 거름으로 썼다. 외양간에 엄버지기로 퍼질러진 소똥을 벗짚과 쪼켜이 쌓아 두었다가 가을걷이를 끝낸 지친 땅에 골고루 뿌렸다. 그런 후에 짚터미를 덮어 겨우내 썩히며 지력地力을 돋우었다. 우리 형제들은 똥오줌도 아무 데나 누지 못했다.

하천부지를 경작한 무논에서 벼를 베던 날이었다. 새참을 내가는 엄마를

따라 들로 갔다.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미루나무 그늘이 물결처럼 일렁이는 논둑에 둘러앉아 새참을 먹었다. 잔치국수를 후루룩 넘기던 영희 엄마가 ‘너들은 아버지를 잘 뒤서 땅이 전부 알토란이다’ 며 부러워했다.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일군 땅에서 거둔 알곡들은 포대나 가마니에 담겼다. 나일론 줄에 단단히 묶인 포대는 육성회비나 수업료 입학금이 되어 돌아왔다. 우리 남매들은 그렇게 조금씩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었다.

싼 값에 쌀이 넘쳐나는 시대가 왔건만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쌀 농사를 지으셨다. 해마다 햅쌀을 보냈고 쌀이 떨어질 즈음이면 기별을 넣었다. 다섯 번째 자식인 내가 마흔아홉이 될 때까지 쌀 한 톨 사먹지 않았으니 자식 여섯에 손주 열셋을 키우신 거나 진배없다.

햇살이 생기를 잃고 바람에 서성이던 작년 가을 오후였다. 환자용 침대에 누우신 아버지는 마른 검불처럼 파삭했다. 폐렴으로 구급차에 실려와 오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지 두 달이 넘었다. 헐쭉한 얼굴, 볼이 꺼진 입에서 힘겹게 새어나온 ‘나락은 다 빗나?’ 던 말씀이 하도 낮고 쓸쓸해 눈물이 핑 돌았다.

“예, 나락 다 비서 타작하고 조합에 바쳤어요, 아버지 걱정 마요”

보듬듯 수더분한 동생의 대답 후 일주일, 아버지는 이승의 마지막 형체인 승천원昇天園의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연기는 아버지의 평생처럼 흐트러짐 없었지만 북받치는 나의 슬픔은 광야의 바람처럼 펄럭거렸다.

아버지가 떠나시어 다시는 못 볼 것 같던 포대가 뜻밖의 손님처럼 내게 왔다. 수업료나 등록금으로 돌아오던 초록 나일론 줄 포대가 오늘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랑의 줌도리로 왔다. 포대가 놓인 사무실 한

쪽이 따뜻했다.

내 삶의 버팀목이었던 아버지처럼 포대는 힘든 고비를 넘고 있는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깨우는 부싷돌이 될지도 모른다. 눈앞의 팍팍한 삶을 살아내기에 급급했던 아버지 세대의 사랑이 이제는, 서로 나누며 함께 행복한 사랑의 줌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망자의 전언傳言이던가. 생명의 포대를 마주한 심정이 봄비 맞은 겨울나무처럼 수련거렸다.





서울시 강남구
김 나 현



수상소감

수필을 세상에 내놓다니 부끄러움이 앞선다. 소설을 습작할 때는 문장 속에 '나'를 숨겨놓고는 이건 소설이잖아, 이러면 그만인데 수필은 온전한 나의 이야기니 말이다. 하지만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진솔한 마음이 읽은 이에게 전달돼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입상 결과가 발표된 날은 남편과 결혼한 지 딱 1주년 되는 날이었다. 우리 부부에게 이번 수상은 특별한 결혼기념일 선물이 되었다. 이 선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이라 여기며 앞으로 영원히 글쟁이로 살아가고자 한다.

인어 공주의 웨딩 슈즈

나는 내 결혼식 축가를 부른 직접 부른 신부였다. 사실 이것 때문에 꽤 유명세를 치렀다. 결혼 후 새색시가 되어 하객으로 왔던 친척들을 만날 때면 ‘축가 부른 신부’ 이름표 때문에 잔칫상 앞에서 꼭 노래 한 곡을 불러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 나도 이 상황을 즐기기로 해서 다음 모임 때 부를 노래를 미리 선곡 해놓는다. 남편은 이 모든 게 내가 자초한 일이라며 핀잔을 준다. 맞다. 자승자박이다. 하지만 나는 내 결혼식 축가를 내가 꼭 부르고 싶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짝짝이 다리를 갖고 태어났다. 나는 150의 단신으로 발도 보통 사람들보다 작은 편인데 오른쪽 발 크기는 225이고 왼쪽 발은 210이다. 왼쪽 발은 거의 성장을 못했다고 봐야한다. 길이도 3센티 정도 차이가 나서 눈썰미 좋은 사람이라면 내 오른쪽 다리가 더 굵은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다행히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어서 다리를 절지는 않고 신발 고르는 게 좀 불편한 정도다. 다만 골반이 틀어져서 다리 길이 차이가 난 만큼 자세가 더 틀어지지 않게 운동을 꾸준히 해주어야 한다.

어렸을 때는 이놈의 짝짝이 다리가 싫었다. 늘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어야 했기 때문이다. 오른쪽 발에 기준을 맞춰 신발을 사고 왼쪽 신발에 깔창을 여러 장 덧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서 항상 왼쪽 발에 신발이 벗겨지면서 넘어졌다. 그게 싫어서 또 작은 발에 맞추면 큰 발을 작은 신발에 욱여넣고 다니느라 좁은 신발 안에서 발이 터질 것 같이 아팠

다. 지금이야 인터넷에 맞춤신발가게가 널렸지만 당시 우리 집 형편은 한창 자라는 어린 아이에게 맞춤 신발을 해줄 여력이 안됐다. 그렇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나는 잘 넘어지기 일쑤였고 어느새 걷는 걸 싫어하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나가서 뛰어놀기보다 집에서 비디오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게 편하고 좋았다. 당시 인어공주를 읽으면서 나는 다른 책을 읽을 때보다 더 깊이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인어공주가 왕자를 만나기 위해 악마에게 목소리를 팔고 다리를 얻었지만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심한 고통을 느끼는 장면을 읽으면서 내 처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자 어린 나는 당시로서 꽤나 심각하게 비관주의에 빠졌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살아야 하는 내 인생길이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 예감이었다. 매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리 길이를 측정했다. 의사는 성장이 끝나면 다리 수술을 할 것을 권유했다. 작은 쪽 다리의 뼈를 잘라서 뼈를 늘리는 엄청난 수술이었다. 수술을 하면 뼈가 자랄 때까지는 꿈작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했다. 부작용도 많고 성공확률도 낮아 잘못되면 아예 못 걸을 지도 모른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비관주의에 빠졌던 그 꼬마는 운명처럼 새로운 인어공주를 만났다. 월트디즈니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였다. 책으로만 읽던 이야기가 화려한 영상과 노래로 편집되니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었다. 이야기 결말도 달랐다.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지 않고 결국 사랑을 쟁취하였다. 이야기의 새로운 재해석이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다시 보고 또 볼 때마다 점점 그 재해석된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들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걷기 힘들다면, 그렇다면 신발을 벗고 걸으

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훨씬 편하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조금 바꾸었을 뿐인데 나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다. 남들이 내 다리를 보고 뭐라 수군거리든지 말든 나는 내 갈 길을 걸으면 되는 것이었다. 인생에는 한 가지 결말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이야기 결말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었다.

19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대학을 휴학하고 다리 수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나는 안 하겠다고 대답했다. 수술 부작용이 두려워서 그런거냐고 되물었다. 그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그대로의 내 모습이 좋았다. 부모님은 틀어진 골반 때문에 내 키가 많이 자라지 않았다고 속상해했지만 나는 단신이 오히려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귀여운 외모가 호감을 주었고 외유내강의 반전매력을 뽐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인어공주 이야기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장면은 인어공주가 인간세상의 물건들을 모아놓은 자기만의 비밀 동굴에서 독백하듯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다. 제목은 ‘A part of your world’이다. 지상의 왕자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만날 수 없다는 슬픔에 사로잡히며 그대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절절한 마음을 담은 노래이다. 어린 나는 영화를 돌려보고 또 돌려보면서 노래를 외웠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 이 노래를 불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룬 것이다. 살짝 개사도 했다. ‘All of your world’로.

신혼집은 아파트 1층이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 근처에 거의 오니 남편이 함께 사는 강아지 라니를 안고서 베란다에 나와서 손을 흔들며 나를 반겨주었다. 그 순간 벅찬 감동이 몰려왔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나

를 기다리며 반겨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하던지. 그 순간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평소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베란다 앞 풀잎 하나하나마저도 그림처럼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같았다.

사실 나는 남편과 오래 연애를 했다. 하지만 결혼을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학자금 대출을 다 갚고 또 집안의 빚을 갚느라 모아둔 돈이 없었다. 더구나 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대기업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는 불안한 미래를 가진 사람이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적절한 신랑감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부여한 기준의 남편감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조건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하나의 인간으로 보았을 때 그는 정말 매력이 많은 사람이었다. 반짝이는 눈에는 충기가 가득했고, 모든 일에 호기심도 많았다. 사실 많은 어른들이 그 나이 때쯤 되면 궁금한 게 사라진다. 나태에 젖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걸 왜 이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던 걸까 하고 항상 궁금해 하고 세상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했다. 나는 그런 그가 좋았다. 내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었고 내 인어공주 이야기를 이해해 주었다. 그와 대화를 할수록 빠져들었고 그 자유롭고 따뜻한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남편을 반대했다. 나는 부모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갔다. 나 역시도 사랑하는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오다가도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까마득했다. 결혼은 둘이 좋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돈이 연결된 처절한 현실이었다. 만났다 헤어지고 또 만나는 일이 반복됐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만큼 나를 충만하게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는 확신이 섰을 때 나는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정신적인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문득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을지에 대

한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내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깨끗이 인정해야지만 온전히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 나는 학원 강사로 일했는데 일이 적성에 맞고 재미있었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프리랜서였다. 더구나 남편마저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경제적으로 안정적 뒷받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늦은 나이에 공무원 시험을 봤다. 시험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그에게 내 결심을 말하고 잠시 헤어짐의 시간을 가지면서까지 이를 악 물고 공부를 했다. 운 좋게 합격을 했다.

나는 내가 처한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장래희망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주체적으로 선택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직업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

다시금 인어공주 이야기를 떠올려보니 그것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를 긍정하면서 결국 사랑하는 왕자님을 만난 나만의 동화를 써내려갔다. 더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바다의 인어공주와 지상의 왕자가 만난 것처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자신의 세계를 버려야 할 정도의 희생을 감내할 수 있을 때 타인의 닫힌 마음을 진심으로 열 수 있다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그 진심을 담아 축가를 열창했다.

한발...한발...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다. 발에 꼭 맞는 웨딩슈즈를 신고 있다. 꽃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해주고 있다. 다시 한발...나는 위대한 성과를 이룬 위인은 아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저명한 정치인이 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영화배우가 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 길 역시 위대했다. 다시 한발...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내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했다는 것만으로 내 인생의 길을 스스로 꽃길로 만들었다. 또 한발... 저 앞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한발 한발 힘차게 내딛는다. 이제 당신 앞이다. 당신은 1층 베란다에서 환하게 웃으며 나를 향해 손 흔들고 있다. 나는 다시 씩씩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다. 환하게 웃으며. 한 발...한발...





국방정보본부
김 명 진



수상소감

숲속의 나무는 저절로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생각은 가꾸고 보살피지 않으면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 십상이다.
좋은 기회에 감사드리고, 좀 더 많은 생각의 씨앗을 모으고 가꾸어야겠다는
욕심을 새삼 가져본다.

시골산행

지리산은 남해에 못다 이룬 꿈이라도 두고 온 것처럼 집요하게 남을 향해 뻗어 있다. 세상의 이치로 따지자면 높은 곳을 향해 북쪽을 탐해야 마땅한데 지리산은 묵묵히 남으로 줄기를 뻗고 있다. 그 지리산이 남해에 닿지 못하고 마지막 발버둥을 멈춘 산청과 진주 사이에 나의 고향이 있다. 산자락이라고는 하나 명색이 지리산이어서 산세는 험했고, 우리 마을의 몰골은 고양이 발톱에 잡힌 쥐처럼 고개만 겨우 내밀고 있는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다.

내가 보고 자란 하늘도 동네를 에워싼 산등성이들이 허락하는 만큼 이었다. 미달이문으로 보는 하늘이 그만한 크기의 직사각형이듯 고향의 하늘은 산등성이들이 영성하게 잘라놓은 좁은 사발 모양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그 좁은 하늘이 답답했는지 나는 무던히도 탈출을 시도했다. 어머니가 시내 장터라도 가시는 날이면 별의별 가당치 않은 이유를 만들어 따라 나섰고, 친척집이든 절이든 동네를 벗어나는 일이면 항상 먼저 대문을 나섰다. 어른들도 그런 어린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매몰차게 떼어놓지는 않으셨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그런 일은 성에 찰 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찾은 탈출구는 아이러니하게도 산이었다. 나이가 들어 나무를 하게 되면서 산을 오를수록 하늘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곳에서 하늘은 더 이상 산 틈에 끼어 있는 좁은 사발이 아니었다. 산이 나와 고

향을 테두리 짓는 울타리라면 하늘은 그 울타리를 제외한 무한의 무엇이
 었다. 작은 산골에서 누리기에 벅찬 해방감은 나를 자주 산으로 이끌었다.
 그것이 아마도 지금까지 내가 산을 자주 찾는 이유일 것이다. 나이가 들면
 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유명하다는 산들을 찾아다녔지만 정작 나를 산
 으로 이끌었던 이유와 시골산의 존재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시골산을 올랐다. 눈감고도 뛰어오르던 산길은 이제 흔
 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그래서 윤기까지 났
 던 오솔길은 이제 나무뿌리와 풀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 오랜
 만에 찾은 무심한 친구에 대한 서운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색해진 사투
 리를 놀리는 장난기로 변한다. 기억을 더듬어 수풀을 헤치고 이리저리 헤
 매는 모습이 재밌다는 냥 조심스레 모습을 내비친다. 노골적으로 못마땅
 함을 표현하지만 곧 마음을 푸는 것이 시골인심이다. 살아온 세월만큼 늘
 어난 경계와 위선은 한순간에 무장 해제되고 호기심 가득한 동심으로 돌
 아간다.

시골산에 들어서면 동화 속 세계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진다.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했던 사위는 일순간 분주해진다. 나비가 화려한 날갯
 짓으로 환영하고, 새들은 소란스럽게 소식을 옮긴다. 작은 산짐승들은 모
 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켜걸음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린다. 숲은 마치 깊
 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활기를 띠고 나도 덩달아 가슴이 뛰는다.

시골산을 오르는 것은 국도여행과 같다.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에 닿
 을 수 있는 고속도로는 그 빠름으로 인해 잃는 것이 더 많다. 빠를수록 시

야는 좁아지고, 볼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 반면에 국도는 구불구불하고 느리지만 구석구석이 구경거리다. 한눈을 팔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또 다른 여행이 된다. 그래서 국도 여행은 어린 시절 보물찾기 같은 설레임이 있다. 정상에 올라 동네 풍경이나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오르다보면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 모를 꽃향기와 새소리를 향하고 있다. 유명한 산들처럼 정상을 향해 경쟁하듯 오르는 것은 시골산에서는 불가능하다. 꼭대기만을 고집하기에는 발걸음을 이끄는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골산행을 위해서는 강한 근육보다는 피에르 상소의 말처럼 ‘풍경이 부르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한가롭게 거닐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시골산행은 할아버지의 발걸음처럼 느리고 답답하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정도로 멀고 한가롭다. 처음에는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일상의 빠르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낀다. 그렇지만 시골산에서 빠르기는 비포장도로에서 스포츠카의 속도처럼 거추장스러운 것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 빠를수록 몸에 생채기가 늘어나고, 길을 헤매는 횟수도 늘어날 것이다. 느려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지금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이유를 시골산은 온 몸으로 이야기한다. 바쁘게 살아 온 지난 날들이 실은 무엇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저 허둥댄 것은 아닌지, 그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고 지나버린 것은 아닌지 헛헛해진 마음을 달래듯 송도(松濤)가 머리를 쓰다듬는다.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시골산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지금처럼 많은 것들을 놓치고도 이유를 모른 채 공허한

마음이 들 때일 것이다. 시골산은 산짐승과 나무들을 보살피기 바쁘겠지
만 언제나처럼 뜬금없이 찾아온 친구를 반길 것이다.





충청남도 논산시
이 래 운



수상소감

스쳐가는 바람처럼 썼는데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 가라하네요. 잠시라도 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서 고맙고 덕분에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이 저물어 촌로가 된 어느 날,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아픔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라고 강변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젊은 날에 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색과 냄새

비가 오려는지 한 여름의 갑갑함에 떠밀려 사무실을 나왔다. 바깥 주차장으로 가려는 사이 마침내 축포가 터지듯 천둥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세차게 퍼붓기 시작했다. 빌딩 추녀 사이로 몸을 숨긴 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쳐 튀어 오르는 빗물의 파편을 담아 본다. 정말이지 양동이로 퍼붓듯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잠시 내 마음에 시원함을 느낀다. 세상은 이렇듯 세차게 쏟아지는 빗물이 심란하겠지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오히려 시원하고 편안하다. 더욱 세차게 내려 희뿌연 도시의 색과 쾌쾌한 콘크리트 냄새를 다 지웠으면 좋고, 가슴속 알 수 없는 흐릿한 색과 맛있는 냄새마저 씻어내고 싶다. 홍수가 나더라도 이렇게 계속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중간에 막힌 이 갑갑함이 뺨 뚫릴 것 같다. 소나기는 비만 몰고 오는 것이 아니다. 시원한 바람도 몰고 온다. 한참을 바라보다 보니 어느새 허벅지까지 시원함이 다가온다. 그렇지만 좋을 뿐이다. 이 느낌이 좋다. 세찬 소나기는 옅은 물안개를 만들고 저 멀리 반쪽 무지개를 품는다. 만약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면 망아지처럼 좋아할 것이다. 그냥 맨 몸으로 만나는 비가 좋다. 빗물이 옷깃을 타고 가슴까지 적실 때 시원함을 느낀다. 가끔씩 빌딩 경비원이 힐끔힐끔 쳐다본다. 그에게 나는 성가신 존재이거나 이상한 놈이다.

빗줄기가 줄어들고 금세 해가 뜬다. 마치 땅속 개미집에서 개미들이 나오듯이 어디선가 사람들이 쉼 새 없이 나오고 있다. 일개미들이 일터로 나가듯이 사방에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그러다 장애물을 만나면 잠시 서

는 것처럼 빨간 신호등 앞에서 일제히 서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동안 나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배회한다. 길 잃은 늑대처럼 혹은 무리에서 배척받은 늑대처럼 어디로 가야할지 모른 채 그냥 많은 사람들의 뒤를 따라갈 뿐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따라가는 것이다. 조금 걷다 보니 하얀색으로 칠해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 있다. 그들 속의 한사람으로 차량들의 흐름을 바라본다. 파란색에 손살같이 질주하는 차량과 빨간색에 멈춰선 사람들, 저쪽에선 신호등 색이 바뀌면 곧장 내 달리기 위해 많은 차량들이 줄지어 기다린다. 어쩌면 세상을 참 쉽게 산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을 저런 단 두 가지의 색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할까? 두 색이 아주 대조적이고 그 쓰임이 명확하다. 세상을 어쩌면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울 뿐이다. 옆의 우산 속 한 사람을 바라본다. 조금은 밝은 듯 어두운 그 사람은 어딘지 모를 애뜻함으로 자신이 여자임을 말해주는 냄새를 느끼게 한다. 빗물에 섞인 음습한 대지의 기운과 그녀의 냄새가 언젠가 느꼈던 강렬한 삶에로의 충동을 되살린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언젠가 그 사람에게 느꼈던 그 마음처럼 말이다.

“언젠가 무심코 십칠 층 화장실에서 지저분한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그 모습이란 그리 지저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단정하게 보였다. 멀리 보기에 그리 정돈되지 못할 것이란 없는가 보다. 지저분한 모든 것들은 거짓된 허상 속에 잠들어 버리고 보이는 것이란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콘크리트들뿐이다. 문득 눈길이 저 밑 일층 화단 가에 쏠린다. 한 여름의 뜨거운 햇볕아래 활짝 웃는 이름 모를 꽃들이 화사한 수채화를 만들 듯이 보이지만 실은 가을 알맹이를 남기기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듯이 보인다. 도시의 썰렁함과 메마름을 메우기 위해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

어진 꽃들과 잔디가 멀리 있는 나를 향해 손짓하는 듯하다. 높다란 빌딩과 화단사이를 가르는 섬뜩한 공간은 마치 새로운 생명을 배양하기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이 느껴진다. 그것은 마치 피로에 지친 자신을 폭신한 침대에 던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신혼 첫날의 설렘임과도 같이 저 꽃밭 속에 털썩 눕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나를 향해 아름답게 조금은 성스럽게 그리고 조금은 음흉하게 웃음 짓고 이야기한다. 점점 꽃들의 미소가 나를 향해 손짓하는 듯하다. 가만히 창문에 배를 깔고 가슴을 내민 채 다시금 밖을 내려다본다. 어린 시절 시골에 살아선 지 마루에서 뜰로 종종 뛰어 내리곤 했다. 지금 보는 이 공간도 단단한 논두렁에서 물결한 논바닥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그저 훌쩍 뛰어 가볍게 내려앉을 것만 같다. 죽음이란 단어가 파고들 여지가 없이 지극히 편안한 상태로 또 다른 삶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는 걸까?

신발이 귀찮게 느껴져 밖으로 던져 버린다. 그것은 먹이를 찾아 하강하는 독수리와도 같이 쏘살같이 하강하고 있었다. 창틀에 더더욱 가슴을 내밀어 내려다본다. 뜨거운 콘크리트 바람이 가슴을 헉! 멈추게 한다. 나는 한 마리 새가 되어 날아가고자 한다. 날갯짓을 훨훨 펼치며 저 밑의 꽃밭 속에 살그머니 내려앉아 진한 꽃 냄새를 맡으며 마냥 행복해하는 아이가 되고자 한다.

순간적으로 발을 들어 본다.

나는 물먹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희미하게 보이던 파란색은 마지막 순간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저 멀리서 손짓하던 파란색이 선명해지려는 순간 내 뒤에 있던 빨간색이 목덜미를 낚아챘다. 찰나의 순간에 다가온 죽음의 공포와 아찔함이 모든 것을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나 자신도 모르게 힘이 쭉 빠진다. 한없이 펌프질하는 심장소리에 겨우 내 삶

의 온전함을 느낀다. 온 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하다. 가슴을 어루만지고 머리를 쓸어 올린다. 냉정한 두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온전함을 다시금 느낀다. 한 참을 그렇게 있어야 했다. 아직도 온 몸에선 땀이 흘러 내린다. 한 손으로 옆구리의 땀을 훔쳐 냄새를 맡는다. 살 냄새다. 내 삶의 냄새다. 그 냄새는 언젠가 느꼈던 그 냄새와 비슷하다. 그녀의 겨드랑이엔, 가랑이엔 냄새가 있었다. 그 냄새에는 삶이 있었고 또 삶을 확인하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 냄새를 다시금 느낀 것이다. 그것도 그녀가 아닌 내 몸의 일부에서 말이다.”

길 건너 저쪽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뀔 때 무엇이 그리 바쁘지 수많은 사람들이 물결처럼 흘러 들어간다. 나 또한 그들과 같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 휩쓸린다.

다시 쏟아지는 빗물을 쉴 새 없이 담아내는 윈도브러시 사이로 정지를 명령하는 빨간 불빛이 들어온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앞차의 후미 등을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규칙적인 신호등 불빛에 따라 달리고 멈춘다. 마치 단단한 와이어 줄에 엉킨 듯 똑같이 가다 똑같이 멈춘다.

어디로 갈까? 그래 그냥 어디로든 가자! 어디로 꼭 가야한다는 것, 어떤 이유가 반듯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거짓된 포장에 불과할지 모른다. 어디를 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달린다. 마치 파란색이 이유고 빨간색이 반항인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그 끝을 향해서 달린다. 마치 오래전에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것 같다.

어느새 비는 그치고 뜨거운 폭염이 아스팔트를 다시 달군다. 저쪽 끝에는 열기에 갇힌 도시가 미친년 춤추듯 아지랑이를 피운다. 한참을 달리다 어느 한적한 길로 빠진다. 그곳에는 사람이 만든 빛깔도 없고 신호등도 없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런 빛이 없다. 신호등이 없는 사회는 혼란

스러울까 했더니 오히려 더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이곳은 도시라는 것처럼 어떤 색을 강요하지 않는다. 만일 이런 곳에 인위적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정해놓고 그 속에서만 살라고 한다면 아마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느낄 것이다.

“아무도 없는 시골집에 머물렀을 때, 여름 피약별이 강한 어느 날 들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어찌나 목마름을 느꼈는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렬한 태양 빛과 어우러져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토방 가에 가지런히 노여 있는 농약 병이었다. 농약 병은 마치 내 삶의 갈등을 풀어줄 청량음료와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것을 마신다는 것과 시원한 콜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더 확실하게 가슴을 씻어낼 것만 같았다.

죽음으로 향하는 하나의 매개물이 내 삶의 촉진제로서 내 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천천히 다가가 농약 병을 들었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흔들어 보았다. 여느 청량음료와 같이 그 출렁이는 소리가 인상적이었고 강한 햇빛에 만들어지는 눈부신 빛깔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았다.

강한 현기증이 내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이 만들어 넘어뜨리고 말았다. 기나긴 꿈의 나라는 일순간에 무너지고 현실에 눈뜬 나는 소름 치는 전율을 느낀다. 전신에 흐르는 죽음의 냄새를 씻어내기 위해 찬물을 마구 끼얹었다. 눈앞에 보이는 농약 병이란 농약 병은 모조리 뒤편 대나무 숲으로 던져 버렸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는 내 삶을 사랑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 마지막 순간 레드카드를 꺼낼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내 삶을 두 가지 색에 따라 그어놓는다면 그렇게까지 긴 슬픔이라든가 안타까움은 자리하지 못할 것이다. 아쉬움과 미련, 소망하는 것들이

란 거의가 명확하지 못한 불확실성에서 나온다. 늘 갈등을 느끼는 삶에 어떤 신호등이 존재한다면 슬픔이란 별로 자리하지 못할 것이다. 밤하늘의 별을 보자! 저 별빛은 어떤 색깔인가? 딱 꼬집어 말할 수 없고 어떤 명확한 색깔 또한 가지진 않았지만 밝고 아름답게 보인다. 생각해보면 삶 또한 어떤 색 특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살아가며 느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란 어떤 선 혹은 색을 긋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 삶의 슬픈 노래는 정해지지 못한 혼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정돈 속에서 나오고 내 삶의 기쁜 노래는 정해진 틀을 깬 때 나온다. 삶에 완결이 있을 수 있을까? 삶에 정해진 이정표가 있을 수 있을까?

밤하늘의 별빛이 두 눈에 닿기까지는 수십 수백억 광년이 걸리 듯 삶의 슬픔 또한 가슴속 깊은 곳에 진실 되게 녹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만 그때에 이르면 그것은 비로소 슬픔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억인 것이다. 자신에게 너는 어떤 색의 소유자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할까! 한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맛있는 과일이 익는 것처럼 그만의 색과 냄새를 가진다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하얀 감성은 영원할 수 없다. 흐름 속에 영원한 색은 완전한 하얀색이나 검은색이겠지만 이 또한 먼지가 묻어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색과 냄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함께하고 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것이 내 삶의 색과 냄새이기 때문이다.





전울산광역시
김 갑 주



수상소감

사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 앞에 나는 아직도 조그만 나이에 안에서 재미 같은 걸음마를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고는 딱딱한 가슴 언저리에 새 생명이 태동하는 따스한 초봄 같은 여명의 별살이 비치는 듯, 두근거리는 내 마음은 꽃술을 애무한 뒤 은은한 향기에 취한 나래, 단 한 마리 새가 된 것 같습니다. 나에게겐 참으로 소중한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정한이 배어있는 우리 고유의 시조가락에 빠져 물굽이 따라 흘러가듯 잘 타는 것이 어쩌면 남은 생 앞에 던져진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돌이켜보면 가슴속에 아물지 않는 낙방들만 가득 찼었는데 그 먼지를 털고 살며시 기지개를 펼 앞날이 눈앞에 있습니다. 겨울 속 봄을 안고 한 계단씩 올라가겠습니다. 삶에 있어 어려움을 버텨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졸작이나 다름없는 부족함에 큰 힘을 실어주신 심사위원께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내 앞에 펼쳐질 공간 속에서 시조를 계속 쓸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오늘 선 거울삼아 새로운 시작입니다
힘 다해 뛰어가라는 채찍으로 여깁니다
무언의 약속입니다, 중단 없는 정진을

영혼의 메아리

산기슭의 두꺼운 침묵을 벗고 묵직한 새벽종이 제 몸을 비워 문을 열고 길을 연다. 산천의 고요를 깨우는 울림이 보잘 것 없는 내 무딘 심신의 생체리듬을 때린다. 무거운 짐을 부린다. 미혹된 가슴으로 듣는다. 내 심신에 화살처럼 꽂히는 촉매제이며, 시간의 음각 같은 매개물이며 깊숙이 닿는 여운이 향기롭다. 울려오는 소리가 피할 길 없는 내 마음을 두른다.

세파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 터져 펼쳐지는 소리인가. 산란하는 진동의 시작인가. 이는 하늘을 밀어내는 힘이 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습습한 맥놀이가 마음껏 풀어헤쳐 신비한 화음을 연출한다. 연달아 울림과 파장이 얽힌 듯 풀리고, 끊어질 듯 이어지고, 저만치 멀어졌다 가까워지고, 부서졌다 태어나고, 작아졌다 다시금 고개를 든다. 옛적 어머니의 다듬이질소리를 닮은 그 간절한 호소가 가슴 속을 두드린다.

한 번의 자극에 온몸으로 화답하는 그 청동 빛 울림통 앞에 인간은 파동으로 빚어낸 존재임을, 시간의 영원성과 공간의 무한대성으로 인간의 사고가 광막한 우주를 넘나들 수 있음을 대지와 대기의 추상적인 거리를 이어준다.

만물이 풍요롭게 되살아난다. 허공을 흔들어 깨우며 그 울림이 창조하는 동심원이 가슴 깊숙이 닿는다. 비워냄으로써 함께할 수 있는 여백에 자비를 베푸듯 내 마음 속을 울려 올라갔던 내장을 걷어내 푸근해진다. 종소리는 이런 위로를 잔뜩이 안겨준다.

소리가 허공과 대지에 스민다. 그 소리에 고단함을 행군다. 뇌와 귀가 열린다. 깊은 성찰에 빠진다. 종을 떠난 소리를 종이 다시금 불러들여 허물까지 감싸 안는다.

우주를 가로질러온 소리. 손이 닿지 않는 흔적. 눈길이 닿지 않는 끝없는 하늘 길의 천체에 닿았다가 되돌아온 소리. 고뇌와 한숨을 품어 안은 포근한 소리. 사물이든 사람이든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연기緣起이다.

심금을 울리는 섬세한 소리와 오묘한 진동. 그 강도와 진폭이 서로 다르다. 못 소리를 뚫고 가는 그 무량함에, 그 무수함에 압도당한다. 음파가 내 몸의 구석구석을 스민다. 나는 몇 번이나 흔들렸는가. 수 만 번을 흔들려야 세상을 안다는데 그 품격이 다르다. 종은 더 큰 세상을 흔들고도 젖지 않고 중심을 바로 잡는데 난 흔들릴 때마다 뿌리 없이 젖은 나무와 같다. 흔들림으로 변화된 성숙을 승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서서히 진동이 잦아든다. 영원의 찰나가 흐른다. 드디어 정지. 고요. 적막. 뇌리의 여음과 여진으로 흔들린다. 만남의 설렘과 헤어짐의 아쉬움이 이렇게 다감하고 속 깊은 것이다. 생명 같은 희망을, 눈물 같은 위로를 누구에게 줘본 적이 있느냐고 나에게 묻는다.

다시 종이 울린다. 파장은 신비한 깨달음으로 분수처럼 적막을 가르며 사위로 변져나간다. 우주의 진동을 감지한다. 죄다 비워 텅 빈 마음속인 듯 몸에서 반란이 인다. 바람도 범종에 걸려 목신 소리를 낸다. 가라앉았던 감정이 솟구치다 조용히 내려앉는다. 규칙적인 리듬이다. 등글어 모

나지 않는 맥놀이 속에 섬광 같은 소리가 들린다. 그 맑은 소리를 담아가고 싶다.

소리에 심취된 한 순간 종의 진동과 내 심장의 박동이 맞부딪친다. 새로운 발견, 심오한 경탄의 순간, 우주와 같이 흐르는 기운, 우주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린다. 몸이 대기 속에 스민다.

본래 심신과 영혼은 하나인 듯 살아간다는 것은 만남이다. 사람끼리 만나고 생멸生滅끼리 만난다. 뭇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 슬픔은 빼고, 기쁨은 더하고, 고통은 나누고, 행복은 곱하는 일. 삶이 죽음을 덮어주고, 죽음이 삶을 덮어준다. 고된 삶 그 아픔 나누는지 진정한 연기緣起의 속성에는 모두가 다 아름답다. 물둘레처럼 지난 상처 덮어주는 일이다.

종소리도 한 굵이씩 여물어 물러가고 떨림도 사뿐히 내려앉는다. 다시금 처음처럼 적요하다. 고요에 몸을 담고 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소 같은 여유. 말갭게 씻어주는 안도의 숨결이다. 보이지 않는 향기이다.

허공의 은은한 들숨과 날숨소리가 이 고요를 방해할까 두렵다. 고요는 본래 있는 것이거늘 내면의 소리가 물러가면 외부의 소리가 일고, 외부의 소리를 잠재우면 내면의 소리가 꽃처럼 피어난다. 침묵은 침묵 속에서 지속되어 눈동자 같은 고요로 가득 찬 자리 또한 부시다. 대기를 스치는 바람마저 어디론가 사라졌다. 무거운 찌꺼기를 훌훌 털어내고 속내까지 흔들림 없는 고요만이 나를 감싸 안는다.

용뉴龍鈕*의 날선 발톱 범문法文을 움켜쥐고
 넉넉한 날숨으로 고요한 들숨으로
 무량한 고통을 건너 잠든 세상 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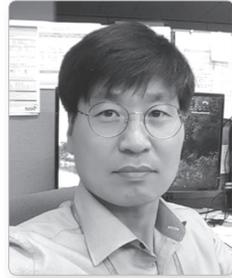
무너질 듯 여는 소리 눈 먼 맘 닦일 즈음
 죄다 비운 내공으로 너끈히 품는 자비
 덧쌓인 한 생의 시름 빗장 풀어 떨어내고

산등성 굽이굽이 타고 넘는 시간 앞에
 사바 속 겨운 영혼 허물 벗겨 드리우고
 다시금 허공을 향해 넓고 깊은 가슴을 연다

어느 산사에나 갈 때마다 맨 먼저 종을 만난다. 그래서 내안에서 수시로 종이 울린다. 그 소리와 진동은 심장을 울리고 마음을 흔든다. 마음속에서 은은한 소리가 인다. 그 다음 찾아오는 고요 속에서 나를 만난다. 내 삶 속에, 내 심신 속에 용해된다. 소리로 마음 비우는 하루. 현재의 나는 연기의 결정체가 아닌가. 새벽이슬 같은 정갈한 심안心眼 속에 종이 울린다. 내 안에 종 하나가 산다. 살아간다.

* 종 꼭대기의 용 장식.





보건복지부
전 재 필



수상소감

이팝나무 하얀 꽃잎위로 아침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5월 어느 날, 오송생명 과학단지 내 가로수길에서도 맛갈스럽게 지은 하얀 쌀밥들이 소복히 쌓여가고 있을 때 쯤, 이 기쁜소식을 들었다. 모두를 배불리 먹이기에 오월이 짝을 수는 있겠으나 이팝나무 꽃그늘 아래에 서 보면 꽃그늘의 크기 만큼씩 이렇게 오월이 올 때마다 희망이 자라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아름다운 오월을 선물로 주신 그분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올해도 한 뼘 더 자라있음을 일깨워 준 문예대전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항상 이성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실험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연구현장에서 문학은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었음을 숨길 수가 없다. 이 시간에도 실험실의 불을 밝히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점핑마우스

미국 동부 매릴랜드주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은 사육시설이 잘 갖춰진 동물실험실들을 곳곳에 많이 보유하고 있다. 태평양 건너 저 먼 이국땅에서 이런 멋진 연구시설을 체험하며 밤낮으로 연구에 몰입하다보면 고달프기는 커녕 하루하루가 짧기만 하고, 내 평생 21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넌던 경험 못지않게 이 나라에서의 연구원 생활은 평생 잊지 못할 호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내 집처럼 자주 동물실험실을 드나들기도 하였다. 이곳 동물실험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호복을 잔뜩 껴 입고 눈만 내어 놓을 정도로 마스크와 장갑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 아마도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이곳에서 푸른 형광등 불빛으로 짝 차있는 숨막힐 듯한 공간속을 떠 다닐, 혹시 모를 해로운 그 무언가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차단해야겠다는 임전무퇴의 태세부터 취하게 하곤 하는 것이다. 거북한 방호복 탓에 한껏 부풀린 몸짓으로 동물실험실 출입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면 하얀 벽면위에 걸려 있는 큰 글귀가 제일 먼저 나를 쏘아본다. “그들이 911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였노라!” 방금 전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안 머릿속에는 오늘 분석해야 할 실험마우스들의 숫자와 이들이 나에게 줄 실험결과물들로만 온통 꽂 차 있었던 것이었는데, 갑자기 이 숭고한 글귀를 마주하게 되면 심성이 여간 악하지 않고서는 저절로 몸이 얼어붙지 않을 수 없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의 희생이 댓가로 치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동물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동물을 사육하면서 세밀한 관찰을 필요로 할 때가 많다. 백혈병 연구를 위해서 생쥐의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제거시킨 후, 생쥐로부터 백혈병이 발병하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생쥐의 혈액을 채취하려는 어느 날이었다. 몇 개의 사육장(cage)을 옮겨가면서 혈액을 채취하다가 어느 케이지의 뚜껑을 여는 순간 갑자기 생쥐 한 마리가 케이지 밖으로 튀어 오르는 것이었다. 보통의 생쥐들은 케이지 뚜껑을 열어 놓아도 이렇게 튀어 오르는 법이 없고, 대개 뚜껑을 열어젖혀도 생쥐들은 케이지 안에서 구석을 찾아다니며 빙글빙글 돌거나 혹은 한 곳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험쥐의 행동양식이다. 이 생쥐는 케이지 뚜껑이 열리는 시간을 알고 있었을까? 동물실의 출입문이 열리고 몸을 약간 떨던 하얀 방호복을 입은 한 인간이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케이지 뚜껑을 열게 되면, 라텍스 장갑을 낀 투박한 손으로 자기 몸둥이를 들어 올리고 피를 뽑고 나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이 생쥐는 알고 있었을까? 이 생쥐는 언제부터 방호복의 습관적인 행동패턴을 알게 되었을까? 케이지를 튀어오른 것이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다. 다만 케이지 밖으로 비로소 튀어나간 것이 처음이었을 뿐이다. 그전에도 가끔씩 다른 생쥐와 달리 뚜껑을 열 때 마다 튀어오르려는 이 생쥐가 여간 성가신게 아니어서 항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곤 했었던 것이었는데, 유독 오늘 ‘그들이 911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였노라’라는 벽면의 글귀에 더 오래도록 눈길이 머물렀던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매일 매일 훈련삼아 케이지를 튀어오르다가 드디어 월벽의 자유를 넘어 승천하게 된 것이었을까? 그렇게 튀어오른 생쥐는 실험실 바닥의 장비들 사이에 숨어서 한동안 나오지를 앓았다. 장비를 하나씩 들어내고 생쥐를 실험실 구석으로 유인한 후에야 겨우 생포할 수 있었고, 다시 안전하게 케이지로 귀가시켰다.

문제는 그 다음날이었다. 동물실험실에 가보니 전날 케이지 밖을 튀어나왔던 그 생쥐가 케이지 안에서 밤사이 죽어 있었던 것이다. 같은 생쥐 무리들 중에는 아무도 케이지 밖을 나가보지 못했으나 이 생쥐는 혼자 힘으로 몇날 몇일 동안을 자신의 키보다 더 높이 뛰어 오르다가 비로소 그 무리들 중 유일하게 케이지안에 놓인 깔짚을 박차고 세상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세상을 돌다가 다시 무리들에게로 던져진 후 이 생쥐는 그들에게 무슨 예기를 들려 주었을까? 자신의 키보다 더 높이 뛰어 오르려면 강한 다리 근육부터 키워야 한다고 설파했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도전해서 좁은 경계를 너머 뛰어 올라야만 더 넓은 세상에 닿을 수 있다고 밤을 새워 역설을 펼쳤던 것일까? 세상의 끝에 닿고 또 다시 그 다음 끝에 비로소 닿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선구자적 파격이나 초월적 힘을 가진 소수에 의해 그 거리가 앞당겨지고 그 방법이 무리에게 전수되어 길이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죽음을 무릅쓴 숭고한 희생들을 댓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21세기를 막 건너 밀레니엄의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 어느 해 초입에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내 안의 과학의 지경을 넓히고자 망망대해 태평양을 건넜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오래오래전 그것은 아무나 건너지 못하는 깊은 바다 태평양을 누군가가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건너고자 했던 최초의 횡단위에 비로소 만들어진 족적이 길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최초의 누군가는 바다건너 육지를 밟아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최초의 누군가는 땅을 밟았으나 다시 돌아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스스로 만들고, 끊어진 길들을 처음으로 이어붙이는, 삶속에 존재했던 점핑마우스들에게 우리는 빛을 지고 있는 것이다. 빛지지 않은 삶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기상청
정상부



수상소감

얼떨결에 쓴 글이 맞지 않은 수필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온 꼴이 어른의 옷을 걸친 아이를 보는 것과 같은 거북스러움을 느끼게 될 분들을 떠올릴 때 그저 부끄러울 뿐..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으며, 앞으로는 준비에 게으르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뿐..

천기누설 죄

예보관의 직업병일 것이다. 근무시간도 아닌데 새로운 자료가 업데이트 되는 시간마다 인터넷에 들어가 태풍상황을 살펴본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 ‘차바’는 강하게 발달하고 더욱 북상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 우리나라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예보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큰 피해라도 발생하면 예보가 잘못 되어 피해가 커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기 일쑤이다. 조상들은 천기는 하늘만이 알 수 있다고 믿었다는데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직업인 예보관은 천기누설 죄를 받아 마땅한 것일까?

사랑으로 결합한 부부 간에도 끊임없는 갈등이 있으며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마주치며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한다. 까뮈는 두 개의 존재 사이에서 생겨나는 부조리를 인정하고 시지프스처럼 살아갈 것을 주장하고 ‘신은 죽었다’고 외치며 기존의 가치를 무너뜨린 니체는 초인(Übermensch)으로 살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시지프스나 초인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정신적인 갈등으로 괴로워한다. 나는 가끔 하지 못하는 말이나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신들의 이야기를 빌려와 꾸미곤 한다. 신들의 이야기에는 우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잘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세계가 들어있으며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강한 감성적인 몰입으로 대리만족을 통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카타르시스를 통하여 정신과 감성에 활력을 채워준다.

2016년 10월 5일 새벽 태풍예보실 창문이 덜컥거리며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듯하다. 어둠에 가려진 창문 밖을 확인하려고 창문을 열자 공습을 피붓듯 비가 쏟아져 들어와 사무실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무를 뽑아 버릴 듯 휘몰아 대는 바람에서 ‘차바’가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했다.

이놈 ‘차바’야 열대가 고향인 너희들의 속성을 모를 줄 알았더냐? 월드컵 4강으로 한창 들떠있던 우리에게 찾아온 너의 선배 ‘루사’가 저지른 악행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거센 비바람으로 도로와 전기까지 끊어버려 꼼짝 할 수 없도록 만들더니 물폭탄을 퍼부어 집과 사람들을 집어 삼킬 때 조차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루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찾아온 ‘매미’는 골리앗처럼 버티고선 크레인 을 고꾸라뜨리더니 물고온 바닷물을 지하실에 퍼부어 빠져 나오지도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얼마이더냐. 그리고 또 이어 찾아온 ‘나리’와 ‘쁘라빠룬’ 등 너희들의 악행은 끝이 없었다. 이에 우리도 너희들이 지나가는 길목 한라산 자락에 너희들을 지키기 위한 전초기지를 세웠다.

네가 온다기에 어제는 바닷가에 나가 보았다. 바다는 평화로워 보였으나 웬지 전에 없던 비릿한 냄새와 잔물결 속에 감추어진 긴 물결이 있음을 알고는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긴 물결이 백사장을 타고 오르며 삼킬 듯 벌린 입에서 토해낸 하얀 거품에 덮여 가려져 있으나 물결에 새겨진 기다란 발톱자국을 보았다. 달리는 백마의 발모양으로 물결을 형상화한 반지의 제왕의 장면이 연상되는 장면이었다. 더욱 멀리 살펴보기 위해 한라산에 올랐을 때 설문할망께서 거대한 몸을 일으키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계셨다. 죄송한 마음이 들어 조심조심 올라왔는데 왜 깨어 나셨습

니까? 물으니 그런데 네 얼굴에 불안한 기색은 어찌된 것이냐? 고 되물으셨다. 그놈이 이곳으로 올 것 같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물결에 새겨진 그놈의 발톱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대답에도 차분한 표정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다. 그놈의 발자국에 땅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한 뼘이나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놈이 토해낸 입김 때문이다. 내가 이 섬을 만들어 너희를 받아들인 뒤 오순도순 살아가는 너희를 바라보는 것은 나의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어부들이 바다에 나갔다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들이 새로 돌아온 발톱을 뿔내려고 심술을 부린 것이다. 그래서 사악한 이무기들을 잡아들여 힘을 쓰지 못하도록 발톱을 뽑아 이곳에 두었는데 어느 날 그놈들이 다녀간 뒤로 없어졌다. 본시 덩치나 힘에서 당할 자가 없었던 터에 기다란 발톱으로 무장을 하고나니 수호신들도 그놈이 나타나기만 하면 슬슬 피해 버렸다. 그러자 그놈은 더욱 의기양양하여 힘을 뿔내는 바람에 그놈이 나타나고 나면 너희 조상들의 통곡이 하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열었으나 모두 침묵을 지킨 채 나서는 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놈들 지키는 일까지 떠맡게 된 것이다. 이곳은 그놈들이 지나는 길목에 있으니 이 일을 내가 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다소 억울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방도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내가 떠맡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나라고 별 방도가 있었겠느냐? 그놈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그놈의 약점을 두어개 알아 두었다. 지금까지 그놈들을 지키느라 힘들었는데 너희가 이곳에 그놈들을 지키는 전초기지를 세운다는 소식에 반가움과 나의 일을 덜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찬찬히 나의 얼굴을 살펴보시더니 말을 이으셨다.

그놈의 힘은 눈에서 나오고 눈을 가진 상태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이곳으로 오기 전에 눈을 없애야 한다. 그놈은 구만 리나 멀리 있는데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 칼은 반만년을 두고 한라산 밑 펄펄 끓는 용암에 담그고 두들기기를 되풀이 한 것으로 어떠한 것도 자르지 못할 것이 없는 영험한 칼이다. 잠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 주문을 외우시더니 긴 칼을 던져 올리자 구만 리 창공을 날아 ‘차바’의 눈에 명중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뭇가지와 건물에 바람이 부딪치며 웅~웅~ 포효하고 긴 발톱을 희번덕이며 모든 것들을 할퀴더니 마침내 전기마저 끊어 버리고 태풍예보실 마저 집어 삼킬 듯 덤벼들고 있다. 이놈 ‘차바’야 눈을 잃고서도 행복하지 않을 테냐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예전의 우리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전략을 잘 알고 있느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척하다가 방심하는 사이 방향을 바꾸어 갑자기 덮치는 것이 너희들의 전략인 것을 알고 있다. 며칠 전까지 일본으로 갈 것처럼 행동할 때도 우리는 이곳으로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너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부자연스러움과 아래계부터 보이는 아열대의 변화 때문이었다. 너희와 이웃인 아열대와 너의 행동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자 한결같이 때를 같이하여 행동이 달라지는 것에서 미리 입을 맞추고 있었음을 알았다. 아래계 아열대가 힘을 쓰기 시작하자 갑작스레 방향을 바꾸는 너의 모습에서 너희들의 의도를 간파한 것이다. 그러자 당초 계획이 간파되었음을 깨달은 너희는 제주를 우회하여 전라로 올라갈 것처럼 행동하였다. 우리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너와 아열대와 온대를 두루 살피고 아귀를 맞추어보자 과장과 허세로 우리를 속이려는 의도였음을 알았다. 또한, 이렇게 깊은 밤에 찾아온 이유도 알고 있다. 모두 잠들기를 기다렸다 기습하는 것이 너희들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너희 선배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들춰

보며 비슷한 행동들끼리 나누어 보자 너희들의 행동들에도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너희들의 전략도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전원을 끊어 버린 이유도 알고 있다. 전원을 끊어 모든 장비가 멈춰버리도록 만들면 우리가 태풍예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대비하여 우리도 비상발전기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방방곡곡에 조식을 갖추고 너희와 싸우는 가상훈련까지 마쳤으며 네가 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방방곡곡 불 켜진 곳마다 너와 한판 싸움을 위해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자! 이래도 한번 싸워 보자는 것인가. 물러가라 ‘차바’

비바람이 잦아들더니 날이 밝아 온다. 쓰러진 나무와 도로를 뒤덮은 토사 등 밤새 ‘차바’가 할퀴 상처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 꼬박 하루 동안 ‘차바’와의 싸움으로 지치고 노곤함에 얼마쯤 잠들었을 무렵 멀리서 들리는 음성에 선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너희들의 조상이신 그분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온 바람과 비와 구름의 신이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그분의 원대한 뜻에 탄복하여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뒤 구름을 거두고 햇볕을 내려 곡식을 키우다가도 땅이 짹짹 갈라져 너희들의 애타는 외침이 들릴 때면 구름을 몰아 비를 내려 땅을 적시었고 땅을 일구느라 땀에 옷이 젖으면 바람을 내어 땀을 거두어 주었다. 곡식이 영글어 갈 때면 티끌하나 없도록 하늘을 닦아 하늘에 계신 그 분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한 다음 가장 깨끗한 햇빛을 내리고 가장 부드러운 바람을 내어 넓은 들판이 황금빛으로 일렁이도록 하였다. 그 분께서는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 들판을 바라보며 흡족해하는 너희들의 모습이야말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증거라고 판단하시는 것이다. 올해도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자 그 분께 보여 드린 지가 얼마 전인데 ‘차바’가 와서 망쳐 놓다니 하늘에 불려가 꾸지람을

들을 터인데 어찌하면 좋다는 말이나? 그놈이 왔을 때 어떻게 해보려 했으나 이미 늙고 쇠약해진 우리로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우리는 온순한 온대를 다루는 데는 익숙한 터이나 머나먼 열대에서 온 그 놈은 잘 알지도 못하는 데다 성정마저 포악하여 다룰 수 없는 것이다.

선몽에서 깨어나 그 분들의 미안해하는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닫고 위성영상을 보니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그 놈의 입김이 보였다. 이 놈 ‘차바’야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내가 마련해준 길을 따라 조용히 지나가라고 하지 않았더냐 네가 바다로 꿈무니를 뺄 때 끝까지 쫓아가 끝장을 보자고 설문할망을 설득하였으나 이제는 늙고 힘이 없어 그 놈을 상대하기 벅차며 어젯밤 발 걸기 기술로 그 놈이 한라산에 처박히도록 하여 큰 상처를 입혔으니 이제 더이상 힘을 쓸 수 없으리라는 것과 다른 곳에는 그 곳의 수호신이 따로 있어 더이상은 월권이라는 이유를 들어 뒤쫓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저 깊은 바다도 설문할망의 무릎 높이에 지나지 않겠으나 나에게는 더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황망히 멀어지는 ‘차바’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찰이었다. 그동안 친분을 쌓아둔 온대를 설득하여 그 놈들이 싫어하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바람을 몰고 와 벽을 쌓음으로서 더이상 내륙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나 행동이 굵튼 아래쪽 바람이 늦어지는 바람에 급한 대로 위쪽에만 찬바람으로 벽을 쌓았던 것이다. 너는 또다시 작전을 바꾸어 아래쪽에서 살살 입김을 불어 넣어 온대를 자극하였다. 이에 화가 난 온대는 차고 무거운 공기로 너를 덮쳐누른다는 것이 그만 상대방 힘을 역이용 하는 것이 주특기인 너의 전략에 이용당하고만 것이다. 온대의 힘까지 역이용하여 물 폭탄을 터트리다니 이놈 ‘차바’야 너의 광포함을 멈추거라 태화강 따라 들어선 공장까지 흙탕물로 뒤덮고서

도 부족하단 말이냐? 더이상 악행을 저지른다면 이 땅에 시원을 열었던 그 분께 고하여 너희가 나고 자라는 열대 하늘을 덮어 불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늘을 처음 열었던 그 분께서 열대 하늘쯤 덮는 일이 그 무엇이 어렵겠느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뜻을 세우신 그 분께서 후예인 우리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으냐? 나의 겁박이 효험이 있었는지 꿈무니를 빼고 도망치더니 그날 밤 장렬한 생을 마감하였다는 소식이 들렸다.

자연은 늘 그러하거늘 우리의 이로움에 따라 곡식과 잡초를 가르고 약초와 독초를 가르는 버릇이 배어 너의 험담을 너무 하였구나. 가끔은 수자원 확보, 적조 해소, 자연환경 보존과 같이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너희들의 업적에 대한 칭송이 늘어나고 있으니 너무 서러워하지는 말거라. 우리의 무비유환(無備有患)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속 좁음에 잘못된 일들은 자연의 탓으로 돌리는 버릇 때문이니 너무 쾌념치 말거라. 자연은 우리들의 대비에 따라 이롭기도 하고 해로울 수도 있거늘 유비무환(有備無患)을 이루는 날 너희도 우리의 친구가 되리니. 너의 출생과 행적을 태풍백서에 기록하여 너의 이름이 영원토록 할지니 너무 서러워 말거라.





인천동구보건소
유수정



수상소감

오랜만에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진정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세상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별빛처럼, 때때로 고통과 시련이 찾아와도 내 인생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 위한 과정임을 늘 기억하고 싶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뽑아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늘 설레는 마음으로 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별 하나

“아니, 지금 당장 나와서 장사를 못하게 해달라니까요?! 당신네들, 그렇게 앉아서 편하게 있을 때요?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내가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직접 찾아갈 테니 그런 줄 아시오!” 낮에 걸려온 성가신 민원전화 한 통에 참을 인자 세 개를 이마에 새기며 억울한 야근을 했다. 답답한 마음에 퇴근하는 두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아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세상 모든 힘든 일들은 늘 내게로만 향하는 것 같고, 그 힘든 일들과 싸우는 하루하루가 버겁고 외롭다고 느껴진다.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한다. 그러면 그 곳에는 도심의 밤하늘을 오롯이 지키고 있는 “별 하나”가 있다. 매연 때문일까. 아니면 내 나쁜 시력 탓일까. 오래전부터 내가 알던 밤하늘에는 늘 별이 하나 뿐이었다. 나와 참 많이 닮은, 그래서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찾게 되는 친구.

나의 유년시절은 밤하늘처럼 어두웠고 별처럼 외로웠다.

나는 불행하게도 위턱이 잘 자라지 않아 상대적으로 두 눈이 돌출되어 보이는 선천성 안면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다.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주목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내 또래 아이들은 나를 “외계인”이라 놀리기 일쑤였고, 철없는 어른들은 나를

쳐다보며 어찌다 이렇게 된 것인지, 혹시 가까이 오면 옳은 병은 아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병을 타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었고, 나를 지키는 데 무척이나 미숙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TV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들이 매우 발달하였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들을 접하기도 하고, 질병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어렸을 적에는 대중매체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비친 나의 존재는 늘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이었다. 나를 외계인쯤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사춘기 시절,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로부터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했다. 의지와 노력만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의 벽에 수백 번 수천 번을 부딪쳤다. 신체적 불편함만을 가졌지만 주변의 시선과 편견은 나에게 많은 정신적 고통까지도 안겨주었다. 어린 마음에 상처가 덧나고 쓰리긴 했으나, 그 불편함과 아픔이 너무나 오랜 것이었기에 익숙하고 당연했다.

당시에 내가 가졌던 유일한 소원은 “평범함”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간절하면서도 가장 이루기 힘든 소원이었다.

성장기에는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오랜 기다림 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야 교정 수술을 받게 되었다. 20년의 간절한 기다림 끝에 완벽해진 않지만, 더 이상 “이상한 사람”이 아닌 “조금 특이한 외모를 가진 사람” 정도로 비춰질 만큼 한결 나아질 수 있었다.

그러나 수술만 하면 세상의 모든 걱정으로부터 해방일 것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일상의 불편함은 지속되었다. 초고도 근시(近視)를 동반하고 있었던 탓에 종종 버스를 놓치기도 하고, 친구들의 인사를 지나치기도 한다. 카페나 음식점에 갈 때에는 메뉴판이 잘 보이지 않아 단골메뉴를 정해 두곤 한다. 익숙지 않은 사소한 것들에 쉽게 당황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많고, 이러한 불편함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답답함도 상당하다.

하지만 얼마 전, 나는 내가 더 이상 밤하늘의 “별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엄마는 담근 지 3년이 넘은 복분자주를 한 사발 들이키며 오래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불그스름한 복분자주마냥 엄마 얼굴도 금세 붉어졌다. 아빠와 언니도 “그래.”, “맞아.”하고 맞장구를 치며 옛 이야기에 젖어들었다. 엄마의 옛날 이야기는 굽이굽이 거슬러 올라갔고 시집살이 고된 애환과 소싯적 꿈 얘기도 거침없이 담아냈다.

그러다가 엄마는 내가 어린 아이였던 오래 전 기억을 떠올렸는지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너를 처음 낳았을 때 널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어. 세상에 너를 내놓고 세상 사람들 틈에서 다치고 상처받는 너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 엄마의 이야기에 아빠와 언니도 각자의 아팠던 기억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호기심 어린 주변의 시선과 질문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애가 딸이에요?”, “애

가 네 동생이니?”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가족들이었다. 나만큼이나 우리 가족들 또한 주위 시선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다. 그로 인한 상처는 각자의 가슴에 남아 치유되지 않은 채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다.

내가 가진 병은 유전 경향을 보이는 유전성 질환이지만 정상 부부 사이에서도 돌연변이로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후자에 해당하는데, 우리 가족 중에는 단 한 명도 이 병을 가진 사람이 없다. 때문에, 난 늘 나와 두 살 터울의 언니를 부러워했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예쁜 외모와 좋은 시력을 가진 언니를 보면서, 왜 나와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이토록 다를 수 있는지 원망도 많이 했었다. 그리고 내가 언니처럼만 평범하게 태어났더라면 세상엔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내가 아파했던 시간이 결코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외로웠다고 느꼈던 때 순간에 가족들이 항상 내 편이었다고 생각하니 미안하면서도 웬지 모를 큰 위로가 되었다. 내 뒤에서 묵묵히 나의 슬픔과 아픔, 외로움을 나누어 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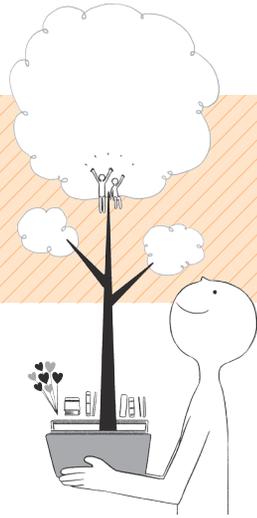
밤하늘에는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내뿜던 무수한 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항상 밤하늘엔 별이 하나라고 여겼던 걸까? 하늘의 별이 단 하나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믿어왔던 나의 철없던 지난날들이 참 부끄럽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소중한 때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둠일지라도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작지만 큰 교훈을 얻었다.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직장에서 사회생활도 겪으며 잃었던 평범함을 되찾았지만, 아직도 세상에 홀로 선다는 것은 늘 낯설고 어려운 일이다. 얼마나 더 넘어지고 깨져야 이 불편함에 익숙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둠이 내려야만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별처럼, 지치고 힘들 때 일수록 더욱 당당하게 빛날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게 주어지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내 삶을 사랑한다면 밝고 따스한 아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별 하나”가 아니기에…….



시조



심사평

● 쉽게 읽히면서도 감동을 주는 작품들

시조부문 응모작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지만 아쉬운 것은 탁월한 작품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사 기준은 쉽게 읽히면서도 감동적인 시적 메타포를 지닌 작품을 상위에 두기로 했다. 심사결과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를 시조부문 최우수작인 금상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신호등을 통해 깨달음의 메시지를 우려낸 작품인데, 공감이크고 나름 절제미도 갖춘 작품이다. 은상을 받은 「복어」 또한 비슷한 수준이나 기성 시조 작품에서 많이 접하는 담담함을 느끼게 하여 아쉽게 뒤로 밀렸다.

좋은 시조, 감동적인 시조가 되기 위해서는 시조 율격이 구속이 아닌 자유자재의 활달함을 보여줘야 하고 보다 선명한 이미지와 메타포로 독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진한 여운을 드리우는 작품이어야 한다.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며 팽팽한 긴장 속에서 주제를 폭발시켜야 독자에게 강한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상과 입선작으로 뽑힌 〈청진〉, 〈독거〉, 〈독도〉, 〈2월〉, 〈바다〉 작품도 모두 일정한 수준을 갖춘 작품들이다. 거듭 입상을 축하드린다.

심사위원 : 문무학, 권갑하



시조

금상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 전)전북 진안 정천중학교 이용호

은상 북어 - 전)강원도 평창군 이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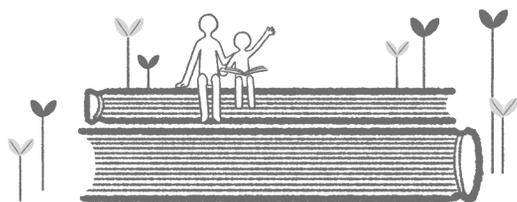
동상 독도(獨島) - 유림초등학교 정미분

청진 - 유안초등학교 엄영희

독거(獨居) - 전)울산광역시 김갑주

입선 2월 - 경상남도 거제시 김정식

바다 - 전)부산 남일고등학교 최보일





전전북 진안 정천중학교
이 용 호



수상소감

산문(散文)을 쓰고 있는 나는 운문(韻文)인 시조(時調)를 사랑한다. 시조를 창작하는 실력 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꼴찌이지만, 시조를 사랑하는 면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우리 민족의 시(詩), 시조(時調)는 세계의 그 어느 정형시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 초-중-종 3장(45자 내외)의 짧은 시형 안에 '기(起)-승(承)-전(轉)-결(結)의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시조(時調)의 기본 리듬인 3-4조는 우리 민족의 언어, 한글의 리듬과 일치한다고 한다. 또한 시조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함축롭게 품고 있는 정형시다.

하지만, 시조(時調)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홀대를 받고 있다. 고리타분하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인 것 같다. 현재 '시조-시인'은 자유시를 쓰는 시인들의 10분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의 민족시, '하이쿠'가 일본 국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특히 문인(文人)들이여, 우리 민족시, 시조(時調)를 <민족문학(民族-文學)>으로 생각하여, 더욱 사랑하면 아니 되겠습니까?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 앞에 서면
선생님이 보인다.

옳은 방향이라고,
때를 놓치지 말라고.

두 눈에
녹색 등을 켜고
지켜보는 저 눈빛.

신호등 앞에 서면 아들이 보인다,
철없이 나대며 물-불 가리지 못하는.
이곳에 불철주야 서서 지켜보고 싶은…….

신호등 앞에 서면
아버님이 보인다.

그 방향이 맞느냐고,
한번 더 생각하라고.

두 눈에
붉은 등을 켜고
지켜보는 저 눈빛.





전강원도 평창군
이 우 식



수상소감

자유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時調만의 특별한 매력 때문에 늘 時調를 생각하고 또 습작하지만 썩 마음에 드는 작품은 아직까지도 못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빼어난 작품 한 편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꿈을 지닌 채 앞으로도 時調 공부에 매진하겠습니다. 졸작을 뽑아 주신 심사 위원 선생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복어

오래된 해장국 집 찌든 창문 머리맡에
흰 무명 실타래로 휘감긴 복어 한 마리
뿌옇게 쌓인 먼지 속 파도를 일으킨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따악 벌린 채
침묵의 반어법으로 獅子吼를 토할 듯
뒤틀린 세상을 향해 꾸짖는 천둥소리

直線으로 길을 내며 거침없이 달려와
불처럼 뜨거워 버린 저 야윈 몸뚱아리
서느런 단전 호흡이 가쁜 숨을 고른다.





유림초등학교
정미분



수상소감

올 초에 남들이 피니까 덩달아 피는 꽃이라는 주위의 따가운 눈총이 나에게 꽂혀 정신이 많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시도 때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피니까 덩달아 피는 꽃이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나름대로 내가 필 계절에 피고 있는 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필 때 덩달아 피지 않았던.

초등학교 시절 참 힘들었던 글쓰기가 대학에서 과를 선택할 때도 걸림돌이 되었는데 글재주라고는 상상도 못해본 내가 한 글자 두 글자 꼬적거리다 보니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40에 등단한 박완서 작가를 모델삼고 박경리 작가나 조정래 작가의 글에 압도되면서 나이 들어서도 글과 친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렘이 가져다 준 첫 기회가 적지 않은 성취를 안겨주어 무척 기쁩니다.

정제되지 않는 생각들이 넘쳐나고 무언가 쓰고 싶어서 못 견딜 때가 있었는데 화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타까웠습니다.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가지면서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나” 라는 꽃이 피는 계절이 따로 있음을 깨닫고 또 다른 새로운 꿈을 꾸어 봅니다.

독도(獨島)

초승달 파르르 떠 있는 동해 끝에
머리에 별을 이고 기다림 하나 품어
조금씩 숨을 토하며 외로움을 씻는 너

고요히 날개접어 다소곳 앉았건만
연약한 이름조차 알곳게 빼앗기니
아빨싸, 만시지탄이 무슨 소용 있으랴.

역사의 푸른 이끼 켜켜이 쌓아두고
사는 게 꺾어져 까맣게 잊었구나
자꾸만 불러주어야 너의 이름 되는 걸.





유안초등학교
엄영희



수상소감

오월이다
황사 바람에 아카시아 꽃잎 몸을 떨구하고 있다
흰 꽃잎 바라보니 어찌 내 어깨 위의 짐만 무겁다 할 수 있겠나
유난히 어깨가 무거웠던 지난겨울
글을 쓰는 일은 좋은 세상으로 한 걸음도 움직일 것 같지 않았다
돌아보니 글을 쓰는 일은 오래오래 늦도록 바라보는 일이었다
당신 어깨 위의 무른 살을 내 살처럼 바라보는 일
나도 그러니 당신도 그렇구나
고개 끄덕이며 머물다 가는 이 쉼터에서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오래 머물고 싶다
황사 걷힌 바람이 불길 노래하며 기원한다

청진

당신이란 난청으로 반은 듣고 반은 흘려
오목렌즈 귀에 걸로 심장의 말 해독한다
금속성 달팽이관으로 젖은 안부 흐른다

우리란 말 안녕한지 소라 껍질 귀 대본다
귓바퀴 안 파도의 말, 밤 이숙해 캄캄하다
무릎 위 시집을 덮고 아픈 당신 듣는다





전울산광역시
김 갑 주



수상소감

사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 앞에 나는 아직도 조그만 나이에 안에서 개미 같은 걸음마를 익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고는 딱딱한 가슴 언저리에 새 생명이 태동하는 따스한 초봄 같은 여명의 별살이 비치는 듯, 두근거리는 내 마음은 꽃술을 애무한 뒤 은은한 향기에 취한 나래, 단 한 마리 새가 된 것 같습니다. 나에게겐 참으로 소중한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정한이 배어있는 우리 고유의 시조가락에 빠져 물굽이 따라 흘러가듯 잘 타는 것이 어찌면 남은 생 앞에 던져진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돌이켜보면 가슴속에 아물지 않는 낙방들만 가득 찼었는데 그 먼지를 털고 살며시 기지개를 펼 앞날이 눈앞에 있습니다. 겨울 속 봄을 안고 한 계단씩 올라가겠습니다. 삶에 있어 어려움을 버텨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졸작이나 다름없는 부족함에 큰 힘을 실어주신 심사위원께 머리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내 앞에 펼쳐질 공간 속에서 시조를 계속 쓸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오늘 선 거울삼아 새로운 시작입니다.

힘 다해 뛰어가라는 채찍으로 여깁니다.

무언의 약속입니다. 중단 없는 정진을.

독거(獨居)

영감 떠난 늘그막에 실어증이 따라왔다
누군가 찾아주길 바라며 기다린 듯
온종일 바람의 끈만 움크려 앉아 있다

침묵을 탈탈 털어 바투 다가 앉다보면
눈길이 닿는 곳마다 꿈틀대는 옛 기억이
오늘은 파리한 얼굴로 슬그머니 불러낸다

세상의 모든 생은 열리고 닫히는 법
하나 둘 돌아오는 말을 쓸어 담기 위해
가끔씩 감당할 만큼 우렁차게 토해낸다





경상남도 거제시
김 정 식



수상소감

정형적이고 사무적인 업무 속에서 문예에 관심을 기울리게 해 주신 인사혁신처에 감사드립니다.

일선 행정에서 주로 대민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다소 경직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고 합니다. 이번 문예대전이 이런 현상들이 다소 완화되어 대민 업무추진에 있어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을 비롯한 예술 영역에 공직자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여가선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상금을 높이고 분야를 더 다양화해서 영속적으로 이어 나가게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문예대전을 계기로 창작에 더욱 관심을 기우려 자신 뿐 만 아니라, 예술의 향유를 공유하여 주민들과 더욱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2월

작다고 놀려대던 막내둥이 2월 달이
설한풍 맞고서도 동백꽃 피워놓고
그래도 서러워않고 겨울 굴로 드나니

삼동설한 들판에 바람도 자자든 밤
파도소리 위안 삼아 고독도 삭힌 채로
오로지 봄이 오기를 기도하고 싶느니





전)부산 남일고등학교
최 보 일



수상소감

봄철 설악산의 백담사 계곡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요즘처럼 새잎이 돌아날 무렵의 산자락과 계곡의 아름다운 풍치는 세파에 찌든 마음을 씻어주기에 충분하다. 현직에 있을 때는 더러 수학여행 때 들렀던 설악산을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이번에 아내와 더불어 오색에서 한계령을 거쳐 대청봉에 이르렀던 기회가 있었다. 다시 백담사를 찾았을 때 그곳에서 느꼈던 느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었다. 고즈넉한 산사와 계곡은 그대로 한 폭 그림이었다. 때마침 피어나는 열은 초록의 청순함과 자연의 신비로움 그리고 그 감동, 어느 것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었다. 보잘 것 없는 작품에 대한 입상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정진을 다짐한다.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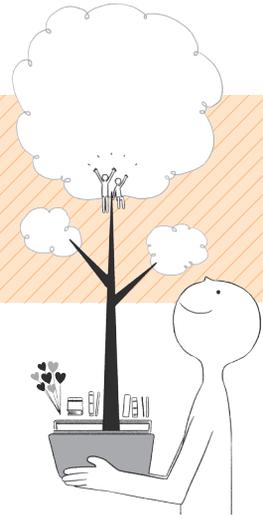
알고도 말이 없는 천고의 침묵 속에
하 많은 세월을 희로애락喜怒哀樂 안고서
응얼진 괴로움일랑 접어두고 지낸다.

구태여 서러움이 하이얀 파도 되어
몸부림 오염함도 수천 겁劫 지났건만
드넓은 가슴 열고서 안겨오는 정다움!

천지를 포용하는 너그러운 그 모습
두 팔 벌려 손짓함도 신비로운 정情일러니
어지런 세상살이의 속진을 씻고져.



동시



심사평

시적, 동심적 표현이 균형을 이루어야

응모작 300여 편 가운데 그 10%인 30편을 가려냈다. 시적 표현이 제대로 된 것을 먼저 골랐다. 시든 동시든 시조든 우선 시가 되어 있어야 장르 분류가 되는 것이다. 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장르 개념도 무의미한 것이 된다. 즉 1차적으로 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도 동시도 시조도 성립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전체적으로 시적인 면에 약한 작품이 많았고, 동심적 표현을 소홀히 한 점도 크게 눈에 띄어 아쉬웠다. 소재도 거의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과 일상생활, 주변 사물에 집중돼 있었다. 이러면 어린이 생활과 밀접해 친밀감을 준다는 이점도 있지만, 시가 신변잡기에 흐르기 쉽다. 작품의 신선감도 떨어진다.

1차로 고른 33편 중 시적, 동심적 표현이 균형을 이룬 작품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입상작 9편을 최종 선정했다. 동시가 일반시와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 요소는 동심이 들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데 입상작 대부분이 성인시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러면 난해성이 높아져 어린이가 읽기에 저항감을 준다. 동시를 쓸 땐 동심 넣기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동심이 없는 동시는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



금상에 선정된 '소금꽃'은 퇴약별 공사에서 힘겹게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압축해 그려냈다. 땀흘려 일하는 모습을 '소금 한 줌/ 생수 세 병 챙기'는 것으로, 소금은 '옷에 그릴 소금꽃', 생수는 '하루 흘린 땀방울'로 환치, 묘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극대화한 것이다.

은상에 든 '장마'는 동시조로, 집 나간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함을 '배갯잇/ 묻은 컵가에/ 물소리만 납니다.' 는 표현에다 감동적으로 담아냈다. '고모, 부탁이 있어요'는 시적 표현보다는 큰 기교 없이 생활 경험을 단순하고 진솔하게 그린 점이 돋보인다. 그리고 동심이 도드라져 동시의 특성을 잘 살려 낸 점이 좋았다.

동상에 뽑힌 '택배'는 택배를 할머니의 사랑을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는지'를 다달이 확인하는 도장으로 묘사한 점이 신선하다. '무지개가 사는 곳'은 사람들이 꿈을 잊어버릴 때 하늘로 솟아올라 기억을 찾아주려고 무지개는 땅속에 산다는 동화적 상상력이 새롭고 이채롭다.

입상한 분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입상작 9편은 수준이 다 그만한 위치에 올라 있다. 작품으로서 크게 손색이 없다는 뜻이다. 정진을 바란다.

심사위원 : 하청호, 박두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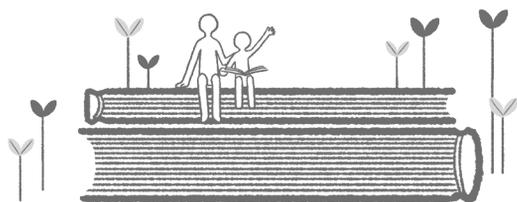
동시

금상 소금꽃 - 성남 태평초등학교 김용우

은상 장마 - 충청북도 이창규
고모, 부탁이 있어요 - 전)영광실업고등학교 정형택

동상 연필네 식구들 - 두마초등학교 김종우
택배 - 전)전북 고창 대야초등학교 최성철
무지개가 사는 곳 - 파주소방서 김기호

입선 비 온 후 - 내대초등학교 김지수
미술시간 - 전)철도청 박청환
점자 블록 길 - 전)강원도 평창군 이우식





성남 태평초등학교
김 용 우



수상소감

스물일곱 해 동안, 초등학교 교단에 서며 아이들에게 빛을 많이 졌어요. 아이들 덕에 살림을 꾸렸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하였고, 아이들에게 배워 동시를 쓰게 되었지요.

아이들에게 진 빛을 어떻게 갚을까? 물론 원금을 다 갚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갚아 나갈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삶을 담은 동시를 써서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일로!

양수리 달구덩이산에 달 한 채 지어놓고 성남 태평별을 오가며 살지요. 달 한 채에 함께 사는 숙이 솔이 찬이에게 고맙고, 내 동시에 영감을 주는 태평별에 사는 396 송이의 아이꽃들에게 행복을 드려요.

달빛 교운 달구덩이산에서 김용우

소금꽃

띠약벌

공사장 옥상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빠

소금 한 줌

생수 세 병 챙겨
출근하신다

소금 한 줌!

오늘 하루

아빠가 옷에 그릴
소금꽃이다

생수 세 병!

오늘 하루

아빠가 흘릴
땀방울이다





충청북도
이창규



수상소감

5월, 가정의 달이다.
밝고 맑은 신록의 계절이다.
정원의 느티나무가 그늘을 넓혀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그늘도 깊어가기 마련이다.
2002년 개봉작인 영화 '집으로'는 오래 묵은 현실이다.
조손가정의 뜨락은 긴 장마처럼 젖어 있다.

희망을 노래하고 싶다.
그늘을 걷어내고 물기를 닦아내는
뽕송뽕송한 노래가 되고 싶다.

장마

열 밤만

자고 나면

어머니가 오신다는

할머니

자장가에

스무 밤을 보냈는데

베갯잇

묻은 껌가에

물소리만 납니다.





전영광실업고등학교
정 형 택



수상소감

늘 놀고, 쉬고 반복하다가 오늘 같은 날도 맞게 되었습니다. 또 상품홍보 연락이
갓지 했는데도 '당선'이란 글자가 보이자 차분히 앉아 열어보았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어 전화를 걸고 나서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뽑아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이 행사를 주관하시어 이렇게 '백수'들에게
큰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원고지 앞에서 시름했지만 그냥 무소식이었는데 이번만큼 좋은 소식
으로 찾아오는 내 글이 고맙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이 작업을 열심히 하면서 남은
생을 마치려 합니다. 들녘이 더 새파랗게 보입니다. 사춘기적 그런 설레임으로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 '詩'야 고맙다.

고모, 부탁이 있어요

서울 고모가 용돈을 주셨어요

그걸 어느 틈에

엄마가 보셨나봐요

이달 용돈이

그만큼 줄었어요

고모! 이 달에 용돈 주실 땐

엄마 몰래

사알짜,

아셨지요





두마초등학교
김 종 우



수상소감

4월 어느 봄날 밤
잠결에 부스스 깨어
문밖의 환한 모습에
소스라치듯 놀라
그 소녀는 말했다
엄마! 엄마! 아~빠!
밖에 눈이 와요
마당에 눈이 쌓였어요
잠결의 그 소녀를
훔친 그 누~운은
목~련

손주도 보고 새집에 이사도하고 세상에 이게다 뭘 일이라 열악한 환경에서 글 꽃
이 폈으니 분명 봄은 봄이다. 사랑하는 손녀 예원이 규원이 혜원에게 날마다 꿈을
키워 갈수 있는 얘기를 해 줄 수 있어 기쁘다.

예원,규원,혜원아 할아버지 얘기 좀 많이 들어줘

연필네 식구들

키다리 연필네 식구들

분홍 필통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올망졸망

아이들과 엄마아빠

시끌벅적 울고 웃는

연필네 작은집

화가를 꿈꾸는 도빈이를 만나

날마다 키가 작아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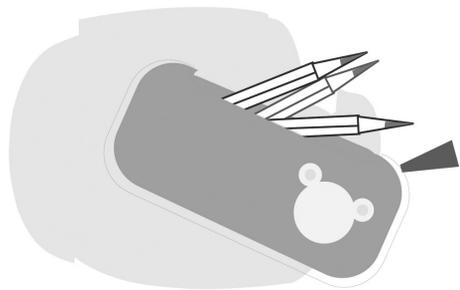
연필네 식구들

키가 작아져도

집이 넓어졌다 기뻐하는

마음씨 고운

연필네식구들





전)전북 고창 대아초등학교
최 성 철



수상소감

일흔이 넘으면 틈틈이 주변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보내려는 폐기물꾸러미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낱아빠진 잡기장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쓰기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휘갈겨 쓴 동시들이 나를 빠끔히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가 쓰고자 했던 욕망과 열병의 흔적이었습니다.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만년필과 씨름을 했다면 지금은 컴퓨터 앞에 앉아 머리를 짍니다. 정말, 진짜, 참기름 같은 고소한 맛을 내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어버이날 기쁜 선물을 안겨 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택배

비닐로 신문지로
싸고 싸고 또 싸
꾸러미들
풀고 풀고 또 풀어야
얼굴 내민다

김장김치
따라 온
이름표 붙인 참기름 들기름
잘 말린 고사리 고구마순
통통 여문 김정콩이랑
심심풀이 땅콩까지

금세 방안 가득 채운다
외할머니 냄새
-가게도 차리겠다
-무릎 아프다면서…….

붉어진 눈시울

몰래 훔치는 엄마

윗집 할아버지

아랫집 할머니

길 건너 소녀가장

빠짐없이 챙기느라

일일이 손가락 꼽아가며

시골 인심 나누는

엄마 손 바쁘다





파주소방서
김 기 호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큰상을 주신 문예대전 심사위원분들께 그리고 공무원 정서함양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 문예대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이 한걸음 더 나아가라는 격려라고 생각하고 글쓰기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평상시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가까운 곳 나들이라도 다녀와야겠습니다. 글쓰기를 사랑하는 문우님들 모두 모두 행복한 5월 보내세요. ^^

무지개가 사는 곳

너 거 있잖아

무지개가 사는 곳이 어딘 줄 아나?

당근 하늘에서 살지~

아이다

무지개는 지구에 사는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꿈을 줄라꼬

땅속에서 산 다 카더라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삶이 고달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 즈음에

한번 씩 하늘로 솟아올라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준다데





내대초등학교
김 지 수



수상소감

동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문예지나 신춘문예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곳 저곳에 응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부족했던지 번번이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올해는 운이 좋아 이렇게 가작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가작이라 앞으로 올라갈 계단이 참 많아 즐겁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 또 응모하겠습니다.

비 온 후

땅위에 지렁이가
바싹 말라가는 걸 보고

잎사귀 위에 살짝 올려
젖은 풀밭에 던져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지렁이 한 마리도
일꾼이라 하셨어요.

흙 잘 일구는
농사꾼이라 하셨어요.





입선



전)철도청
박 청 환



수상소감

세상의 가장자리들에게...

어बी날에 수상소식을 접했다. 대선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했다.

가장자리에서 태어나 가장자리를 파먹고 떠밀려온 이곳이 중앙이었던가. 아흔을 바라보는 허리 굽은 가장자리를 찾아가 또 바리바리 사랑을 챙겨 왔다. 그 사랑과 희생으로 나는 다시 한동안 힘을 낼 것이다.

수상소감을 쓰고 있는 지금, 마침 TV에서 대선 개표방송이 한창이다. 부디 가장자리가 고향인 중앙이 가장자리를 잊지 않기를, 가장자리에게서 힘을 얻기를, 가장자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그나저나, '당선소감'이라니!!

마흔을 훌쩍 넘긴 어느 날, 집 근처 도서관에서 내가 한때 문학을 꿈꾸었다는 기억이 되살아났을 때, 딱 한 번 몽상하듯 그려 본 것도 같다.

동시부문도 함께 입선을 했으니 2관왕이라고 해야 할까. 과분할 따름이다.

미흡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가장자리들에게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미술시간

미술시간

제목은 우리집

앞자리 성육이도

옆자리 재용이도

뒷자리 헤민이도

아빠랑 엄마를 함께 그렸다

망설이다 망설이다

나도 아빠 옆에 슬쩍 엄마를 그려 넣었다

어딘지도 모르는 미국 갔다는 엄마

얼굴도 모르고

전화도 안하고

사진도 한 장 없는 엄마

할머니 얼굴에 뽀글뽀글 파마머리 싫어

담임선생님 긴 생머리 그려 넣고

예쁜 핑크색 드레스를 입혔다

친구들과 선생님이 거짓말 눈치 챌까
하루 종일 가슴이 쿵닥쿵닥
집에도 가져갈 수 없는데
어찌지...





전)강원도 평창군
이 우 식



수상소감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童詩를 쓰고 싶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아 늘 고민합니다. 어릴 적 그 순수한 童心을 여전히 품고 있어야 가능할 텐데 時俗에 물든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블록 길

인도 곁

노란 점자 블록 길

매일 지나치지만

한 번도 걸어 보지 않은

아주 낯선 그 길

꼭 한 번 걷고 싶었는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

두 눈 꼭 감고 그 위를 걸어 본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부터 비틀비틀

네 걸음 같은

다섯 걸음 째

그만 멈추어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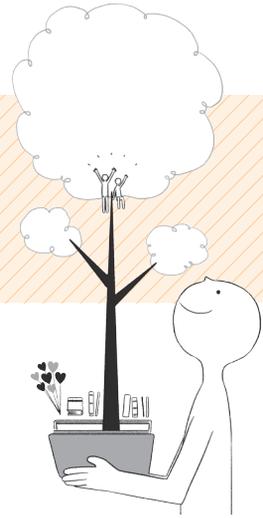
인당수 푸른 물결
벧머리에 올라선 심청인 듯
오통도통 점자마다
철썩철썩 솟구치는 파도가 되고

두 눈 번쩍!
짧은 점자 블록 길을
반의 반의 반도 채 못 걸었다

이상아릇한 느낌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든다.



동화



심사평

2017년 공무원 문예대전 동화부문에 응모한 작품은 교원에서 45편, 비교원에서 49편 도합 94편이었다. 우리는 이 94편의 작품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꼼꼼하게 읽었다.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 창작되어진 산고의 결정들을 대하면서 예비 작가들의 건강한 숨결들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작품 중에는 고통스런 삶을 넘어 감동으로 승화시킨 작품들, 혹은 판타지의 세계를 넘나들며 현란한 상상력으로 읽는 재미를 만끽하게 하는 작품들도 여러 편 있었다. 어떤 작품은 스토리 속에 교훈을 담으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해서 안타깝기도 했다. 교훈은 이야기 속에 녹아들어 독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요즘은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터라 아이들의 생활상도 이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정신연령도 높아지고 신체의 변화도 3,4년은 족히 성숙해 진 것 같다. IT 강국답게 우리나라는 아이들도 컴퓨터나 SNS에 능숙하다. 그러다보니 협력과 소통보다 내면적인 갈등과 고독, 소외감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있다.

사회현상은 문화에 즉시 반영되는데 문학작품도 예외가 아니어서 작품 속에 첨단사회의 빛보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반성과 그리움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응모된 작품 중에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좋은 작품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묘사나 설명이나 장면 설정으로 읽기 지루하고 산만한 작품들도 더러 보였다. 습작기를 거치지 않은 작품들도 보였는데 동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동화도 반드시 치열한 습작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작품 속에 상어 체와 경어 체가 혼용이 되거나 맞춤법에 오류가 많다는 것은 문장기초부터 수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작품은 좋는데 주인공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서술되는 경우는 퇴고의 과정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데서 오는 오류이다.

우리는 94편의 작품 속에서 특히 “길고 긴 한 시간”에 대해서 유의하였다. 이 작품은 특히 어린이의 심리 묘사에 뛰어난 수작이었다. 속도감 있게 읽혀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울림이 남아 선자들이 금상으로 정하는데 일치를 보았다.

은상은 “눈물금지령”을 선정했는데 독특한 창의력이 빛어낸 작품이었다. 슬픔의 증상인 눈물을 흘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사회에서 살던 세종은, 사고로 죽은 어머니 때문에 늘 가슴이 답답했다. 그런데 어느 날 숲에서 한바탕 소리치며 울고 나자 가슴이 확 트이게 됐다는 발상이 기발한 작품이다.

동상은 “뽕뽕뽕” “빨간 눈송이”에 낙점되었다. “뽕뽕뽕”은 축구소녀 송희가 전학을 한 뒤 낮은 학교분위기에 끌려 다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 축구공을 뽕뽕 차게 되면서 스타가 된다. 자기답게 당당한 자세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것이다.

“빨간 눈송이”는 처음 생리를 한 소녀의 곤혹스러움과 뿌듯함 같은 심리 묘사가 잘 그려져 있었다.

참고로 “사람 로봇”과 “책 먹는 하마”도 끝까지 논의의 대상이 된 좋은 작품으로 기억 될 것 같다.

당선된 분들에게 깊이 축하드리고 비록 당선권이 아니더라도 아까운 작품들이 많았음을 밝혀둔다. 계속 정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심사위원 : 조대현, 조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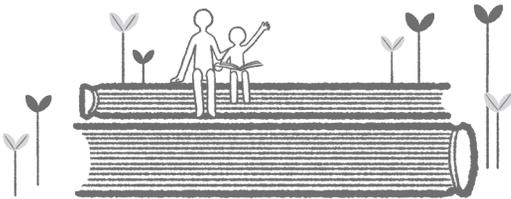
동화

금상 길고 긴 한 시간 - **별내초등학교** 차유나

은상 눈물 금지령 - **인천신대초등학교** 정승례

동상 빨간 눈송이 - **인천 강화군 선원면** 이여주
뽕, 뽕, 뽕! - **대전천동초등학교** 박수영

입선 곰돌이 집배원 리보의 하루 - **강원지방우정청 양구우체국** 이재우
나도 한국사람입니다 - **평택고용센터** 조영은
풍선이 된 중환이 - **매현중학교** 한경애





별내초등학교
차유나



수상소감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상수라는 남자아이에게 맞고 온 적이 있어요. 연락을 받고 학교에 가보니 그 아이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교실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상수의 가정환경에 대해 듣고 나니 분노가 어느새 안타까움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만 상수를 용서해주자고 딸아이를 달랬지요. “대신 나중에 엄마가 동화 쓸 때 무시무시한 악당 이름을 상수라고 짓는 것으로 복수해줄게.” 이런 싱거운 농담도 건네면서요.

그때 보았던 상수의 의기소침한 모습이 이 동화의 모티브가 되었답니다.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외롭게 울고 있는 이 땅의 ‘상수’들에게 “많이 힘들지?”라며 손 내밀고 싶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쓰게 될 동화도 이런 게 될 거예요. 따뜻한 손을 가진 친구 같은 동화 말이예요.

길고 긴 한 시간

지금 나는 체육 창고 한구석에 숨어있다. 조그만 창문조차 운동 매트로 반쯤 가려져 있어서 창고 안은 어두컴컴하고 눅눅하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니 7시 50분. 출발시각은 이제 20분 남았다.

밖은 6학년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로 소란하다. 오늘이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나도 저 무리 속에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혼자 썰렁한 창고에서 창문 틈으로 운동장을 엿보고 있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문 앞에 버스 여섯 대가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나는 6학년 4반이라고 적힌 버스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아주머니 두 명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다.

“우리 수민이 짝은 누가 될까? 3일씩이나 같이 앉아 다녀야 하니 괜찮은 아이랑 돼야 할 텐데…….”

“암튼 선생님도 참 별나. 그냥 같이 앉고 싶은 애들끼리 앉으면 되지, 왜 굳이 제비뽑기 한다는 건지.”

“그러게 말이야, 더도 말고 제발 그 상수라는 아이만 안 걸렸으면 좋겠어. 몸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더라고.”

그 아주머니들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 걸 듣고 너무 놀라 얼른 고개를 숙였다. 혹시 내가 상수라는 걸 알아차릴까 봐 가슴이 두근댔다.

그때 저쪽에서 명호가 나를 불렀다.

“상수야.”

못 들은 척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내 뒤통수에 대고 명호가 소리쳤다.

“히야, 웬일로 상수 네가 학교에 일찍 나왔냐? 만날 지각만 하더니…….”

다급한 마음에 우선 숨어든 곳이 바로 운동장 귀퉁이에 자리 잡은 이 체육 창고다. 수학여행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작년 현장 학습 때 일이 떠올랐다.

그때는 버스에서 각자 앉고 싶은 사람과 앉아서 갔다. 다들 친구와 짝을 이루어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도 나랑 앉겠다는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맨 뒷자리에 생수통 멍치와 함께 앉아서 가야 했다. 밥도 혼자 먹었고, 혼자 걸어 다녔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견딜만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화장실 다녀온 사이 버스가 나를 놔두고 출발해버린 걸 알았을 때는 눈물이 저절로 났다. 버스 출발 전에 선생님이 옆자리의 짝이 아직 안 돌아온 사람 손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내가 안 왔다고 손을 들어줄 짝이 내겐 없었다. 곧 다시 나를 데리러 와 주었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그 십여 분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했던 것 같다.

얼마 뒤 내가 다시 버스에 올랐을 때 나는 휴게소에 혼자 남겨졌던 것보다 더 큰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한 아이도 내게 미안하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운이 나빴던 것일 뿐 그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잘 안다. 그래도 반 친구들이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쯤은 건네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건 내 착각이었다. 개인기 대결에 폭 빠진 아이들은 내 등장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한껏 달아오른 버스 안에서 나는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조용히 내 자리에 가서 앉았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어린 학생이 속 많이 탔제?”라고 한 마디 건넸을 뿐이다.

8시 10분이다. 어둠에 익숙해졌는지 아까는 보이지 않던 체육기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울컥했던 감정도 조금 수그러들었다. 운동장에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보니 나도 밖으로 나가 그 아이들 사이에 섞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다. 하지만 불쑥 밖으로 나가자니 몹시 계면쩍었다. 나는 문틈으로 계속 밖을 기웃거렸다.

그때 방송이 들려왔다. 담임선생님 목소리였다.

“6학년 4반 문상수. 수학여행 버스가 곧 출발할 예정이니 문상수 학생은 지금 바로 운동장으로 오기 바랍니다.”

‘나갈까 말까.’

나가고 싶다는 생각과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팽팽한 싸움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교과서에 나온 불국사를 관람하는 모습을 상상해봤다. 잠자기 전 방안에 둘러앉아 즐겁게 게임을 하는 모습도 그려봤다. 그러자 여행을 가고 싶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하지만 곧, 뭐든 혼자 해야 했던 지난봄 현장학습 때의 씁쓸한 기억이 그 생각을 덮어 버렸다. 끼리끼리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던 기억, 혼자 알루미늄 호일에 싸인 김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던 기억…….

갑자기 배가 고팠다. 언제부턴가 마음이 답답하면 배가 고파지곤 한다. 나는 배낭에서 삼각김밥을 꺼냈다. 아침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산 것이다. 이런 날이면 도시락을 준비하는 게 문제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빠가 없었다. 새벽부터 일하러 나간 듯했다. 하긴 아빠가 집에 있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지만 말이다. 아마 아빠는 내가 수학여행을 떠나는 것도 모를 것이다. 며칠 전 학교에서 나눠준 가정통신문을 식탁 위에 놓아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거기에 담뱃재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나는 그걸 쓰레기통에 던져 버린 뒤 생활비를 넣어두는 싱크대 서랍에서 만 원짜리 두 장을 꺼내 집을 나섰다. 자주 가는 24시간 김밥집에 갔더니 웬일인지 문이 닫혀있었다. 하는 수 없이 그 옆 편의점에서 두 개짜리 삼각김밥 세트를 샀다. 간식으로는 바나나 우유와 소시지를 골랐다.

김밥을 먹으려는데 스티커로 붙여놓은 삼각김밥 두 개가 잘 떨어지지 않았다. 껍질이 벗겨질까 봐 조심스레 스티커를 떼 내고 있을 때 다시 방송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여자 선생님이었다.

“6학년 4반 문상수. 6학년 4반 문상수. 지금부터 5분 이내에 운동장으로 오지 않으면 안 가는 걸로 알고 출발할 거예요. 일정상 더는 기다려 줄 수가 없으니 바로 운동장으로 오세요.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6학년 4반 문상수 학생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나는 떼다 만 삼각김밥을 배낭에 넣고 황급히 일어섰다.

그때 창고 문 바로 앞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야, 문상수. 문상수. 상수야…….”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우리 반 반장 동훈이와 부반장 영우였다. 아마 선생님이 나를 찾아오라고 시킨 모양이다.

“도대체 이 찌파는 어디로 사라진 거야? 혹시 학교 안 온 것 아냐?”

“아냐. 아까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 명호가 똑똑히 봤다잖아. 정말 웃기는 놈이야. 수학여행 안 가려면 아예 학교에 나오지 말지 왜 나와서 우릴 이렇게 개고생 시키느냐고.”

“맞아, 여행도 공짜로 가면서. 지난번에 교무실 심부름 갔다가 선생님들이 그 새끼 수학여행비 때문에 회의하고 있는 것 내가 봤어.”

“그래? 그래 놓고 안 나타난단 말이지? 우리까지 출발도 못 하게…….”

“아우, 빠쳐.”

둘이 동시에 같은 말을 내뱉고 웃어댔다.

나는 둘러맸던 가방을 다시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공짜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 맞다. 그건 사실이다. 선생님이 나를 불러, 어디서 수학여행비를 지원받게 됐으니 그냥 가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사실이어도 다른 아이들이 그걸 아는 건 싫다. 떠버리 영우가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 반 전체로 퍼지는 건 시간문제다. 나는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얼굴에 확 열기가 몰려왔다.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키우고 또 친구들과의 우정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끝나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운동장을 내다보니 아이들이 버스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드디어 경주로 떠나는 모양이다. 다들 설렘 가득한 표정이었다.

줄지어 운동장을 빠져나가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몹시 초조했다.

1반 줄이 사라진다.

2반 줄이 사라진다.

3반 줄이 사라진다.

다음은 우리 반 줄이 사라질 차례다. 나는 눈을 감아 버렸다. 차마 그걸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운동장이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다시 허기가 몰려왔다. 나는 배낭에서 삼각김밥을 꺼냈다. 여전히 스티커가 잘 떨어지지 않았다.

“에이 씨.”

내가 억지로 스티커를 찢자 그중 한 개가 비닐이 벗겨지며 알맹이만 바닥으로 툭 떨어져 버렸다. 하필 내가 좋아하는 불갈비 삼각김밥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삼각김밥을 보니 짙은 눈물이 났다.

이번엔 남아있는 참치 삼각김밥 비닐을 벗기기 시작했다. 눈물이 어려 끈이 잘 보이지 않았다. 겨우 끈을 찾아 잡아당기는데 이번엔 끈이 툭 끊어져 버렸다. 하는 수 없이 김밥 중간 부분 비닐을 뜯었더니 밥을 감싸고 있는 김까지 흘러당 벗겨지고 말았다.

허영계 밥만 남은 삼각김밥은 자꾸 부서져 먹기가 불편했다. 나는 손가락에 붙은 밥알들을 허겁지겁 입속으로 밀어 넣었다. 누구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김밥을 우걱우걱 씹어대다 혀까지 깨물었다. 비릿한 피 맛이 났다. 나는 씹고 있던 김밥을 모두 뺐어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꺽꺽 소리 내 울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울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른다. 술에 취한 아빠가 아무 이유 없이 날 마구 때렸을 때도 절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나다.

“야옹~”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다.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으나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방에서 소시지를 꺼내 베어 무는 순간 또 ‘야옹’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배구공들 사이로 눈 두 개가 번쩍였다. 유리구슬만큼 투명한 눈빛이었다. 나는 얼른 그쪽으로 다가갔다.

어른 주먹만 한 새끼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내가 무서운지 가만히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소시지를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소시지를 꺼내 잘게 부순 뒤 모자에 담아 고양이 앞에 놓아준

뒤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고양이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소시지를 먹었다. 배가 몹시 고프는 모양이었다. 소시지를 다 먹고 내가 조금씩 떼 넣어주는 김밥까지도 잘 받아먹었다. 다음엔 우유를 손바닥에 따라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고양이는 내 손바닥에 코를 박고 우유를 핥아먹었다. 우유까지 마신 고양이가 갑자기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따뜻하고 보드라웠다. 나는 고양이 목덜미를 살살 만져주었다.

고양이를 안고 있노라니 문득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는 고양이를 몹시 예뻐했다. 길을 걷다가 고양이를 만나면 그냥 지나친 적이 없다. 먹을 것을 건네주기도 하고 품에 안아 쓰다듬어 주곤 했다.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고양이 뺨에 내 볼을 갖다 댔다. 어릴 적 엄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딩동, Ding동.

1교시 수업 시작종이 울렸다.

나는 잠든 고양이를 살짝 내려놓고 창고 밖으로 나왔다. 조금 전까지 아이들로 가득 찼던 운동장에는 과자 봉지 몇 개만 굴러다니고 있었다. 학교가 온통 텅 빈 것 같았다. 괜히 어슬렁거리다가는 선생님들 눈에 띄까 봐 얼른 교문을 벗어났다. 하지만 막상 갈 곳이 없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다 피시방이나 갈까 하고 발걸음을 땀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냥 도망갈까 하다가 멈추어 섰다. 체육 선생님이었다. 얼마 전 새로 온 선생님인데 벌써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뜨끔했다.

“상수야, 나랑 같이 편의점 갈래? 아침을 못 먹어 컵라면 먹으러 가던

참인데 같이 가자.”

나는 말없이 선생님 뒤를 따랐다. 선생님은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나는 따뜻한 두유를 골랐다. 컵라면에 물을 붓고 면발이 익기를 기다렸다. 선생님도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어 번의 젓가락질 뒤 바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제 술을 많이 마셨더니 영 안 넘어가네.”

내가 배시시 웃었다. 아빠가 늘 하는 소리기 때문이다.

선생님 앞에 놓여있던 삼각김밥을 내게 내밀었다.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자 선생님이 말했다.

“아까 삼각김밥 다 흘렸잖아.”

눈물이 핑 돌았다. 가만히 나를 바라보던 선생님이 걱정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많이 힘드니?”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또다시 견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내 흐느낌이 잦아들자 선생님이 말했다.

“난 수업이 있어서 들어간다. 두유랑 같이 천천히 먹고 가. 그리고 혹시 농구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체육관으로 와라.”

선생님이 자리를 뜨고 난 뒤 나도 곧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삼각김밥과 두유는 먹지 않고 그대로 가방에 넣어 두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느낌이었다. 기분도 상쾌해졌다.

몇 발자국 걷다가 나는 학교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아무래도 새끼 고양이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다.

창고 문을 여니 새끼 고양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고양이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보드라운 털에 얼굴을 한 번 비빈 뒤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





인천신대초등학교
정 승 례



수상소감

컴퓨터를 열어보고 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글쓰기에 대해 배운 적이 없지만 관심이 많아 작가가 되고 싶어 여기저기 글을 내보냈지만 낙방만 수십 번... 나이를 먹어가니 어느덧 포기란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심사위원님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구시렁대는 저를 항상 어르고 달래주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고마워!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세 자녀, 엄마 포기하지 않을게. 너희들도 꿈을 향해 노력하는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해~~”

눈물 금지령

“지난 수업은 눈물 금지령에 대해서 배웠지? 오늘은 눈물 금지령 시대 이후를 알아볼 거야. 자, 교과서를 터치해.”

“난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어떤 말이?”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빨난다는 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운다고 되어 있는데? 여자들은 안 울었나봐.”

눈물과 관련된 글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수군대며 떠들기 시작했다. 이때다 싶어 나는 담임선생님에게 들키지 않으려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걸었다.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는지 커다란 녹색 모니터를 클릭하던 선생님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혼냈다.

“너는 오늘도 지각이니? 오늘은 별점으로 상담선생님을 만나고 가렴.”

아이들이 일제히 웃어댔다. 창피해서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다. 내가 지각하는 건 내 탓이 아니다. 분명 집에서는 제시간에 나오는데 학교 오는 길에 나무와 새와 벌레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서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무슨 일 있었냐?”

나랑 친한 성규가 등을 쿡쿡 찌르며 물어보았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알려줄게.”

눈물은 슬픔의 증상으로 금지령 이후 사람들의 자살 건수가 ‘0’건이라면 서 지금까지도 평온한 시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선생님의 강의가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끝이 났다.

“오늘은 왜 늦었니?”

친한 친구들인 성규와 민철, 대우가 몰려왔다.

“숲 근처 큰 나무 있는 거 알지? 오늘 학교 오는 길에 보니 그 나무에 새집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올라가보니 정말 귀여운 알들이 있더라. 너희들도 집에 갈 때 보고가.”

“오늘부터 너를 괴짜 중에 왕 괴짜로 임명하노라.”

“대우, 너는 놀리고 싶나? 난 그렇게 혼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세종이가 걱정되어 죽겠는데. 요즘 네 소문이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놀지 말라고 하셔.”

“정말? 그 정도로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줄 몰랐는데…”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을 향해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나를 포함하여 우스꽝스럽게 말하는 대우, 걱정이 많은 민철, 모범적인 성규를 반 아이들은 사총사라 불렸다. 학교에 오는 유일한 이유는 이 친구들 때문이다.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은 지난번과 똑같이 웃으며 맞아주었다.

“요즘도 지각한다고? 학교에 오는 게 힘드니?”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그냥 그런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로 많이 힘들지? 아빠랑 그 문제에 대해 대화는 해봤니?”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니 아이보리색 벽지가 어두운 톤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요즘은 각 건물마다 스스로 분위기를 조절하는 기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앞으로 꾸준히 상담실에 찾아와줬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에. 오늘은 이만 가도 될까요?”

책가방을 메고 집으로 터덜터덜 가면서 그 날이 떠올랐다. 불길에 관 속에 있는 엄마를 가루로 만든 순간, 내 가슴속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몰래 들어와 내 몸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나? 이 느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몰라 아빠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문 밖을 서성이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다.

“할머니, 저 기다리셨어요?”

“이쁜 강아지가 왜 이리 늦었누? 이 할미 목이 한 자나 길어졌을 게야.”

“상담선생님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늦을 거예요.”

할머니는 내 손을 부드럽게 쥐며 방으로 데려간 후, 주름진 손으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세종아, 힘들지? 아빠라도 네 옆에 자주 있어야 할 텐데.”

“할머니, 자꾸 여기가 아프고 이상해요.”

나는 할머니의 손가락을 명치에 가져다댔다.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려 주면서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아빠가 오늘 따라 일찍 와 세 식구가 오랜만에 식사를 같이 하였다. 저녁을 다 먹은 아빠는 집 앞에 있는 숲으로 산책가자고 하였다.

“참, 오랜만이다. 아빠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 숲에서 나무도 타고 흙도 파고 벌레도 잡으면서 놀았는데, 지금은 사람 구경하기 힘든 것 같지? 요즘 사람들은 흙이 지저분하다고 여기는 거 같아.”

각 구역마다 인위적으로 산소를 내뿜도록 작은 숲이 조성되어 있다.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답답할 때마다 방문하는 곳이라 사람 흔적이 없는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말없이 아빠를 따라 거닐다가 아침에 본 새집이 보였다.

“아빠, 저기 새집 좀 보고 가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러자꾸나. 너, 어릴 때 아빠 별명이 타잔이었던 거 모르지?”

큰소리치던 아빠는 반도 못 올라가고 미끄러지며 내려와 신발이 낡았다
는 변명을 하였다. 그런 아빠를 보니 웃음이 새어나왔다. 방그레 미소 짓
는 아빠랑 같이 있으니 좋았다. 그 날 이후 아빠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내 미웠는데… 내 맘이 그게 아니었나 보다.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이 깼다. 화장실로 가다가 안방에서 할머니
랑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와 귀를 문에 대고 엿들었다.

“아범, 난 세종이가 걱정된다. 찻쫓, 예민한 아이라서 사고로 갑자기 죽
은 에미를 잊지 못하는 게야.”

“저는 그 정도인줄 몰랐어요. 오늘 상담선생님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
으니. 전 아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세종이와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잘 생각했어. 너도 일찍 와서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렴. 눈물 금지령 이
후에 태어난 세종이는 슬픔이 뭔지 모르는 것 같구나. 요즘 의사들은 그런
병을 고칠 생각도 못하는데, 차라리 한바탕 울고 나면 나아질지도.”

“어머니, 행여 세종이에게 눈물 어찌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지
금은 아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급했던 나는 끝까지 듣지 못하고 까치발로 화장실에 가서 볼 일을 본
후 다시 자리에 누웠다. 눈물? 할머니 말처럼 눈물이 나오면 내 병이 나
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경찰이 출동하면? 참, 아이들에게는 기계를 부착
하지 않는다고 했지. 다행이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았다. 잠
을 포기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학교에 갔다. 사총사 멤버인 성규, 민철, 대
우가 동시에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져 자리에 얌전히 앉아있는 나를 바라
보았다.

“야, 뭘 놀라고 그래. 자리에 앉아봐. 눈물이 뭐야? 그리고 눈물 금지령에 대해 나에게 자세히 설명 좀 해줘.”

“우와, 네가 눈물 금지령이 알고 싶다고?”

“자꾸 놀리면 더 이상 아무 말도 안한다.”

“알았어. 눈물 금지령은 나이가 많은 적든 사람들이 슬퍼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만든 법안이야. 일정 나이가 되면 몸에 기계를 삽입해. 눈물을 감지한 기계가 울리면 경찰이 강제로 가두고 치료한대. 나도 눈물이 정확히 뭘지는 모르는데 너희들은 아니?”

“우리 신부님이 그러셨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기쁘거나 슬프면 눈물을 흘렸대. 눈물은 눈에서 나오는 건데 투명한 물 비슷한 거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금지령 이후 어른들이 변했다고 하더라. 감정변화가 없다고. 기계가 그렇게 만든다고 걱정하셨어. 담임을 봐봐. 우리랑 한참 다르잖아. 아직 어려서 다행이지 않냐?”

나는 친구들을 통해 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스스로 상당 실 문을 두드렸다. 더 이상 선생님을 속이기 싫어 어제 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선생님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흐음’ 하는 소리도 내셨다.

“선생님도 너희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지 않아 눈물을 잘 알지는 못해. 책에서 읽어본 적은 있어. 세종아, 얼마나 아빠한테 화는 나지 않니?”

“화요? 글썄요. 엄마가 떠났던 즈음에는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랬던 것도 같지만, 지금은 아빠가 엄마를 잊은 거 같아서...”

“그럼, 오늘은 특별한 실험을 해보자! 살면서 가장 화났던 적을 떠올리며 숨차도록 뛰어보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슴이 쿵쿵쿵 대는 것

을 느끼는 게 오늘 첫 숙제야.”

“네에? 자신 없는데요.”

나는 상담선생님의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났다. 상담해주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지만 해보지 않고서는 모르겠지. 그래 한 번 해보지, 뭐! 그 날을 떠올리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 머릿속 지도대로 냅다 뛰기 시작했다. 처음 땀 때는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지나쳐 시원했는데 점점 숨이 가빠지더니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땀은 송골송골 맺히다 못해 푹푹 떨어졌다. 숲이 끝나는 곳에서 그대로 뺏어버렸다. 숨을 고르며 파란 하늘을 보고 누워 있으니 엄마가 웃어주었다.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니 흰 구름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요즘 아빠가 일찍 와서 내 숙제도 봐주고, 게임도 같이 하자며 귀찮게 하지만 싫지만은 않다. 오늘도 집에 온 아빠가 동네 한 바퀴 돌자고 앉았다. 아빠는 뒤따르는 내 눈치를 보며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는 거 같았다. 내가 아빠를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먼저 말을 꺼냈다.

“아빠, 할 말 있어요?”

“엄마 이야기 귀찮겠니? 너 어렸을 때 엄마가 한눈 판 사이 네가 없어진 적이 있었거든. 엄마가 그렇게 당황한 모습은 그때가 처음이었어. 우리를 사랑하던 엄마가 없는데도 아빠가 잘 지내서 미웠니?”

“...”

“세종아, 아빠는 엄마를 잊은 게 아니야. 여기에 간직되어 있거든. 엄마가 하늘나라에 잘 갈 수 있게 보내주자. 그래야 우리를 지켜볼 수 있지.”

아빠가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살짝 누르며 말했다.

아빠 말이 참말일까? 나 때문에 엄마가 천사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

지. 엄마를 잊은 게 아니라는 아빠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상담선생님의 숙제는 계속되었다. 이번엔 숲 속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였다.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구닥다리 방법을 써보라니 순 엉터리다. 하지만 지난번엔 정말 가슴이 탄산수를 마신 것처럼 툭툭거리지 않았던가. 어느새 숲 한 가운데에 있었다. 나무에 기대고 앉아 뭐라고 소리 지를지 곰곰이 생각했다.

“어어엄마.”, 뜬들이던 입에서 모기 소리가 나왔다. 창피해서 혹시 누가 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없는 게 확인되자 다시 용기를 냈다. 엄마! 엄마! 아무리 불러도 질리지가 않고 그리운 이름이다. 그 이름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이름이 또 있을까. 내 목소리가 숲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머무르는 동안 눈에서 뭉가가 계속 떨어졌다. 비가 오나 싶어 고개를 들여보니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다. 깜짝 놀라 손등으로 눈을 훔치니 투명한 물이 묻어 나왔다. 이게 눈물이란 거구나!

한참을 소리 지르며 울어서 그런지 속이 뻥 뚫렸다. 이렇게 좋은 약을 어른들은 왜 금지했을까. 내가 지도자였다면 기계를 삼입하는 대신 실컷 울게 해서 슬픔이 한 방울도 남아 있지 않게 명령했을 텐데. 슬픔은 꼭꼭 감추는 게 아니라 펴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야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사랑이 눈에 떨 텐데.

퉁퉁 붉은 얼굴을 보고 할머니가 몰래 한숨을 쉬는 게 보였다. 그동안 할머니를 너무 아프게 했나? 이제야 보이다니 철 좀 들어야겠다. 저녁식사 시간이 되자 오늘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나도 몰랐던 내 맘을 이제 알았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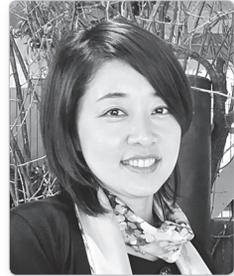
“할머니 그리고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슬픔이 뭔지 알았어요. 숲 속에서 눈물이라는 것도 흘려봤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그동

안 엄마를 원망했어요. 이제 엄마를 보낼 수 있을 거 같아요. 하지만 아
빠 말처럼 엄마는 제 마음속에 항상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할머니와 아빠 표정을 보니 갑자기 웃음이 나오려 해 손으로 입을 가리
며 참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두 얼굴이 허영게 되고 네 눈은 동글동글. 한
참을 어리둥절해하던 아빠는 이해하셨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
는 활짝 웃어주었다.

이불을 덮어주던 아빠가 생각난 듯 수염난 턱으로 비벼댔다. 완전 꼬맹
이 취급해 살짝 토라진 척 연기했다. 천장을 보며 그동안의 일을 곱씹었
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지 상상해 보았다. 그동안 잘 못
졌는데 오늘은 꼭 자뉘야겠다. 내일은 친구들에게 할 말이 무지무지 많은
날이니. 이제 상담선생님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지. 그런데 울다가 웃으
면 엉덩이에 진짜 뽀이 날까?





인천 강화군 선원면
이 여 주



수상소감

“동화란 생명의 글이자 치유의 글이다.” 라는 어느 작가의 글을 가슴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선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 13년, 어쩌면 저는 지친 제 자신을 치유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틈틈이 읽고 쓰기 시작한 글이 바로 동화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어느 날 제게 사람냄새 나는 향기로운 글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를 넘어 희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 동화의 덕분입니다.

같은 공무원으로 늘 곁에서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남편과 항상 응원을 해주시는 부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쁜 엄마임에도 최고의 엄마라고 칭찬해 주는 두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인 저를 믿고 찾아 와 주는 소중한 인연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빨간 눈송이

아침이다. 추위가 이불 밖으로 내놓은 뺨에 따갑게 금을 그었다. 칼로 베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견디기 어려운 추위였다.

“으~ 추워!”

나는 뻗뻗하게 굳은 몸으로 한바탕 진저리를 쳤다. 몸이 꼭 조각조각 깨지는 느낌이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구나. 그래도 여기는 좀 따뜻한데?”

방으로 들어온 할아버지가 이불 속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팔뚝에 느껴지는 할아버지는 손이 얼음덩이였다. 아침밥을 지어서인지 물기까지 축축하게 느껴졌다.

“그대로 좀 있으세요. 전 세수할게요.”

나는 몸을 빼내고는 할아버지의 손 위에 모래두꺼비집 짓듯이 이불을 다 독다독 덮어줬다. 아니나 다를까 세면대에서는 찬물만 나왔다. 나는 손가락에 물을 살짝 묻혀 눈 주위만 쓱 닦고 나왔다. 거실 바닥에는 이미 상을 차려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차려 놓은 것이다.

“소연아! 팍팍 좀 먹어라. 머리가 짧은 데다 키만 빼죽하게 커 누가 뒤에서 보면 남잔 줄 알겠어.”

할아버지가 장조림을 들이밀며 나를 달래듯 말했다. 내 머리가 짧은 것은 다 할아버지 때문인데 할아버지는 아직 그걸 모르나 보다. 나도 친구들과 처럼 긴 생머리를 하고 싶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머리 묶어주기 힘들까 봐 일부러 커트 머리를 했다.

나는 억지로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집을 나섰다. 날씨는 쌀쌀한데 햇살이 환했다. 어둑한 지하방에서 나온 탓인지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비로소 내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생각났다.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줄까?’

픽! 하고 웃음이 났다. 난 5학년인데도 은근히 선물을 기대했다.

‘내일이 엄마 제사인데 무슨 선물이야.’

나는 머리를 한 대 쿡 쥐어박았다. 그리고 대문을 열었다.

“김미숙 씨가 너희 엄마지? 이거 엄마 앞으로 온 거다.”

기다렸다는 듯 커다란 꽃바구니가 내게 안겼다. 꽃 배달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또 다른 배달이 있는지 바람처럼 사라졌다.

“야! 기린! 이거 우리 엄마 거잖아. 이걸 네가 왜 받아. 예잇, 재수 없게.”

우리 반 민우다. 아니 집주인 아들이다. 키 작은 파마머리는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꽃바구니를 획 빼앗았다. 민우는 키가 작아선지 키 큰 나를 엄청 싫어했다.

‘아줌마는 좋겠다. 꽃 선물을 받아서.’

꽃바구니를 안고 뒤통거리며 들어가는 민우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사실 나도 2학년 때까지는 민우만큼 행복했다. 그런데 엄마가 혈액암에 걸리면서 내 행복도 아프기 시작했다. 엄마를 살리려고 아빠는 회사를 그만뒀고, 외할아버지는 집까지 팔았다.

눈이 펄펄 내린 작년 크리스마스, 바로 그 날이 엄마가 떠난 날이다. 엄마는 눈을 엄청 좋아해서 아마 그 날 간 것 같다. 어쩌면 지금도 엄마는 하늘에서 눈 뿌리는 일을 할지 모르겠다. 엄마가 떠나자 아빠는 나를 외할아버지에게 맡기고 돈을 벌러 갔는데 통 연락이 없다.

엄마랑 아빠가 떠나면서 내 행복도 같이 떠났다. 내 말까지 가져갔다.

할아버지랑 말할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랑 말을 하면 더듬고 끝맺지 못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데 만날 보는 민우는 항상 즐겁고 자신감이 넘쳤다.

‘민우는 왜 행복한 거지?’

그 답을 찾으려면 꼭 내 행복이 돌아올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민우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생각에 푹 빠져 학교에 오니 민우는 벌써 와 있었다.

‘외제 차를 타서 행복한가?’

물음표가 떠올랐다. 내 자리에 앉아 가방을 푸는데 교실 뒤쪽에서 또랑 또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이거 우리 엄마 건데……. 오늘 나 쓰라고 줬다.”

민우는 카드를 들어 보이며 큰 소리로 자랑했다.

“오! 김민우.”

“민우야! 나도 사줘라. 응?”

아이들이 민우를 빙 둘러쌌다. 민우는 아주 왕이 된 얼굴이다.

‘신용카드가 있어서 자신감이 넘치나?’

물음표만 잔뜩 모은 채 5교시 체육 시간이다. 날이 추워 강당에서 피구를 했다. 시작하자마자 민우가 나를 노린 듯 공을 던지는 바람에 세계 배를 맞았다. 나는 배가 아파 수업 내내 바닥에 앉아 있었다. 종이 울리자 민우는 미안하단 말도 없이 썩 달아났다.

‘왕싸가지.’

사라지는 민우 등을 쨌려보며 배를 잡고 천천히 걸었다. 그때 축축한 신호가 왔다.

‘이 느낌은 뭐지?’

화장실로 뛰어가 보니 아래 속옷이 노을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엄마야! 이게 뭐야! 공에 맞아서 그런가?”

갑작스러운 노을이 무섭기만 하다.

‘설마? 이게 생리? 누구한테 말하지?’

화장실에 턱을 받치고 앉아 고민 고민하다 보건실로 달려갔다. 문이 잠겼다. 나는 머릿속이 복잡한 채 터덜터덜 교실로 돌아왔다.

그때였다. 계단 끝에서 뭔가가 반짝였다. 금색 카드였다. 카드의 앞뒤를 살펴보니 뒤에 김미숙이 쓰여 있었다.

‘민우네 엄마랑 이름이 똑같네.’

나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교실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청소 중이다. 나는 배가 아파 곧장 책상에 앉으려다.

“야! 정소연! 어디서 땡땡이야!”

송곳처럼 찌르는 반장 민우 목소리다. 나는 앉으려던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우가 발로 내 책상을 확 걷어차며 말했다.

“야! 기린! 내 말 안 들려!”

“아악!”

그 바람에 나는 의자에서 툭 떨어졌다.

“나 나 지 지금…….”

나는 차가운 교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거렸다.

“지금 뭐? 뭐가 어떻다는 거야. 빨리 말해.”

화난 민우 목소리에 아이들이 몰려와 나를 빙 둘러쌌다. 눈물이 소나기 처럼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만 같다. 마침 선생님이 들어오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아이들은 후다닥 흩어졌다.

‘나쁜 자식.’

나는 엉덩이를 털며 일어서려 했다. 그때 민우가 신용카드가 없어졌다고 주머니를 뒤지며 호들갑이다.

“신용카드? 왜 그런 걸 학교에 가져와! 다시 찾아봐!”

선생님이 민우를 무섭게 혼냈다. 민우가 혼나는 걸 보니 썸통이다. 아까 주운 카드가 떠올랐다.

‘아! 이게 민우 것이구나.’

나는 조용히 돌려주고 싶어 주머니 속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민우는 종례가 끝나자마자 아이들과 시합하듯 달려나갔다.

내 맘속에서는 ‘돌려줘라’와 ‘돌려주지마’가 싸우고 있었다. 반찬을 나눠 주는 아줌마를 생각하면 백 번 돌려줘다. 나는 민우를 생각하면 카드를 아예 멀리 던져버리고도 싶었다.

나는 생각을 너무 해서 그런지 목이 말랐다. 교문 건너편의 편의점으로 갔다. 내가 생수를 꺼내러 냉장고로 가는데 분홍 생리대가 눈에 띄었다. 재빨리 주머니를 뒤졌다. 주머니에는 달랑 천 원이랑 카드뿐이다.

‘일단 사고 돈으로 돌려주자.’

나는 마음을 다독이며 생리대를 뒤에 숨긴 채 계산대로 갔다. 무얼 훔치는 것처럼 두리번대며 생리대를 올려놓자 아줌마가 내 얼굴을 뻔히 쳐다봤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콩닥콩닥 댔다. 드디어 카드를 내고 사인하려는 순간이었다.

“학생! 사인은 안 해도 돼!”

아줌마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나는 봉지를 들고 도망치듯 밖으로 빠져 나왔다.

‘휴. 도둑질은 못 하겠다.’

허리를 숙이고 숨을 내쉬자 또 다급한 아래 속옷 신호다. 나는 두리번거

리다 편의점 건물의 화장실로 달려 들어갔다. 생리대를 뜯어 하나 꺼냈는데 어디가 앞인지 완전히 헷갈리기만 했다. 나는 겨우겨우 해결했다. 봄날 같이 보송하고 배도 더는 아프지 않았다. 괜히 뿌듯하기까지 했다. 남은 걸 대충 가방에 넣고 기분 좋게 화장실 철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으악!”

나도 모르게 건물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다. 하필이면 민우랑 딱 마주친 것이다. 민우는 편의점 2층 영어학원에 다니나 보다.

“야! 정소연! 너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민우가 떡볶이 컵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나는 민우 말은 들리지 않고 오직 카드를 빨리 돌려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런데 민우 뒤에 윤성이가 있었다.

“기린! 너 똥 썼냐? 아이 더러워!”

민우의 말에 윤성이가 킁킁대고 웃었다. 나는 주먹을 꼭 쥐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카드를 툭 부러뜨리고만 싶었다. 민우가 내 어깨를 확 밀치고 계단을 오르자 윤성이라도 실실 웃으며 뒤따랐다.

나는 식식거리며 집으로 걸었다. 구름이 점점 많아지고 날이 어둡해졌다. 출기까지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카드를 오늘 꼭 돌려줘야 할 것만 같다.

나는 대문 앞에 앉아 민우를 기다렸다. 드디어 학원 차가 오고 민우가 내렸다. 반가운 마음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야! 기린! 문 막고 뭐하는 거야!”

민우는 나를 보자마자 잡아먹을 듯 소리쳤다.

“저 저기 내 내가 말이야.”

“뭐? 저기가 어쨌다는 거야! 빨리 말해!”

민우가 무섭게 쏘아붙이는 바람에 나는 카드와 영수증을 쑥 내밀었다.

“이거 내 카드잖아. 어디서 났어? 너 물건까지……. 이거 범죄야. 범죄! 얼른 신고해야겠어. 엄마! 엄마!”

민우는 숨이 넘어갈 듯 엄마를 찾으려 문을 팡 닫고 들어갔다. 내 마음의 문도 꽁 닫히는 기분이다.

‘설마? 오천 원에 감옥은 가지 않겠지.’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다. 집 안은 보일러를 고쳤는지 포근하다.

“소연이 왔니?”

할아버지가 다정히 맞아주었다.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웬 사탕이에요?”

“슈퍼 할매가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라고 한 봉지 주더라.”

나는 신이 나서 가방을 풀고는 거실 상에 놓인 사탕을 까먹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콤한지 오늘 쌓인 물음표들이 하나둘 날아갔다. 할아버지는 내 가방을 똑바로 세우려다 지퍼에 낀 까만 봉지를 들어올렸다.

“이게 뭐냐? 생리대? 너 생리 시작했니?”

할아버지가 놀란 듯 물어봤다. 나는 대답하기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사탕만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내게 다가와 등을 토닥였다.

“아이고! 우리 아기 이제 숙녀 되는구나. 오늘같이 기쁜 날 피자 파티라도 해야겠네. 허허허.”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어 나도 빙그레 따라 웃었다. 온종일 얼었던 마음이 녹는 것 같다.

“똑. 똑.”

그때 문소리가 났다. 민우였다. 민우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왜? 아! 오천 원?”

“에이. 엄마는 귀찮게 카드를 훔쳐 쓴 애한테 뭘 갖다 주라는 건지. 이자까지 붙여 돈을 받아야지.”

민우는 혼잣말을 하며 투덜댔다. 민우 얼굴이 꼭 성질 못된 푸들 강아지 같다.

“우리 엄마가 영수증 보더니 이거 너 갖다 주래. 도대체 왜 이걸 갖다 주라는 거야. 자!”

민우는 정말 귀찮은 듯 장미 한 송이와 반듯하게 접힌 쪽지를 빼죽 건네고 돌아갔다. 나는 장미를 받아들이고 쪽지를 펼쳤다.

‘소연아! 축하해. 돈은 안 갚아도 돼. 아줌마 선물이야.’

그때였다. 빨간 장미 위에 하얀 눈송이가 사분사분 내려앉았다. 눈이 녹으면서 빨간 눈송이가 되었다. 눈을 좋아하는 엄마가 나를 찾아 온 것이다.



대전천동초등학교
박수영



수상소감

안녕하세요. 작품집에 제가 쓴 글이 실린다니 쑥스럽네요. 언젠가는 진짜 작가가 되고, 아이들이 제 책을 읽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뽕, 뽕, 뽕!



“소풍 잘 다녀왔니?”

엄마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 반은 오늘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시락을 혼자 먹은 날이기도 하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사만은 절대 안 된다고 엄마를 설득할 것이다.

이곳으로 전학 온지도 벌써 이 주일이 되었다. 내가 살던 곳은 조그마한 바닷가마을이었다. 예전 학교에서 나는 공을 잘 다루는 애로 통했다. 학교 끝나고 발야구나 피구를 할 때마다 아이들은 서로 나를 데려가겠다고 다투곤 했다.

하지만 새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달랐다. 여자아이들은 체육시간에도 팔짱을 끼고 느릿느릿 그늘로만 걸어 다녔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머리를 질끈 묶은 아이는 나밖에 없었다. 남자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은 더 어려웠다. 함께 뛰어 놀던 예전 학교와는 달리 새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선이라도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아이들이 따로 움직였다.

나는 가방 속에서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눈이 마주치자 엄마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외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김밥은 절반이나 남아 있었다. 잘못하면 왁각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였다.

“송희야, 친구 사귀기 힘들어?”

“여기 애들은 나랑 달라. 거울보고 꾸미는 것만 좋아해.”

엄마가 조그맣게 한숨을 쉬었다.

“안 그래도 너무 선머슴아 같아서 걱정했는데. 너도 개네랑 비슷하게 꾸미고 다니면 되지.”

거실 서랍장을 뒤지더니 엄마가 무언가를 꺼냈다. 샛노란 리본이 달린 머리핀이었다. 머리카락 틈으로 가느다란 핀이 쏙 들어왔다.

“이것 봐. 전에 사두길 잘했어. 리본 다니까 얼굴이 확 사네.”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머리핀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움직일 때마다 핀이 머리를 찔러댔다. 방으로 쪼르르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와 계속 전화통화를 하는 엄마가 보였다.

늦게까지 뒤척이다 눈을 떴을 땐 벌써 늦은 아침이었다. 느릿느릿 신발 끈을 고쳐 맸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엄마가 머리를 길게 늘어트리고 리본 머리핀을 꽂아 주었다. 호들갑이 어제보다 더 심해졌다.

“아유 예뻐. 반 애들이 깜짝 놀라겠다. 엄마가 장담하는데, 요 머리핀 하고 가면 금방 친구도 생기고 인기도 많아질 거야.”

현관 옆 거울을 힐끔 보았다. 뺨친 머리가 정리되면서 훨씬 단정해진 것 같았다. 어제처럼 머리핀이 싫지 않았다. 학교 가는 내내 머리핀에 손이 갔다. 달랑거리는 리본이 어색했지만 빠지는 않았다. 이곳에 어울리는 아이로 나도 조금은 거듭난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머리핀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송희야, 안녕.”

교실로 들어가자 채영이가 말을 걸었다. 하얀 얼굴의 채영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쁘고 인기 많은 여자아이였다. 이제까지 내게 눈길 한 번 안 주던 채영이가 먼저 다가오다니, 어안이 병병했다.

“오늘은 머리 풀고 왔네? 예쁘다.”

채영이가 내 손을 잡고 자기 자리로 데리고 갔다. 여자아이들이 주위로 몰려들었다. 채영이의 단짝 서연이가 머리를 빗어주었다. 다른 아이들도 전과 달리 친절했다.

“송희 머리 걸 좋다. 진작 이렇게 하고 다니지 그랬어.”

“넌 학원 어디 다녀? 이따 우리랑 같이 놀래?”

질문이 정신없이 쏟아졌다. 쉬는 시간에도 내 자리는 채영이와 아이들로 둘러싸였다. 계속 되는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싫은 기분은 아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채영이 무리와 함께 운동장으로 나갔다. 운동장에선 축구가 한창이었다. 미끄럼틀 뒤쪽에 자리를 잡고 채영이가 선생님 흉내를 내자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다. 학교에선 항상 느리게 가던 시계바늘이 오늘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전속력으로 뛰어갔다. 볼을 꼬집으니 얼얼했다. 꿈이 아니었다.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 내 얼굴을 살폈다.

“엄마, 엄마. 나도 학교 앞 수학학원 보내줘. 우리 반 애들은 다 거기 다닌대.”

“그러럼, 반 애들 덕분에 덩달아 공부 좀 하겠네.”

내가 엄마를 끌어안았다.

“엄마, 신기해. 정말 머리핀이 효과가 있었나 봐. 애들이 나보고 예쁘대. 친해지재.”

“호호호, 내가 뭐랬니? 역시 행운의 머리핀이었네.”

엄마가 요란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가기 전 거울 속 리본 머리핀을 세 번이나 고쳐 땀다. 엄마 말대로 모든 것이 머리핀 덕분인 것 같았다. 엄마가 사다 준 치마도 창

겨 입었다. 채영이랑 가까워질 수 있다면 이 정도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쉬는 시간마다 채영이와 화장실에 같이 가는 아이들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무리에 내가 끼었다니. 반 아이들 이 우릴 힐끔거릴 때마다 내 어깨도 덩달아 으쓱해졌다.

채영이와 다니면서 포기한 것도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체육시간이었다. 체조도 질색하는 채영이 무리 앞에서 혼자 땀 흘리며 뛰면 이상하게 볼 것이 뻘했다.

“오늘은 줄넘기 마지막 시간이다. 줄넘기 이백 개 통과하면 특별히 이번엔 자유 시간을 주겠다.”

선생님의 선심에도 나는 줄넘기를 하는 등 마는 등 했다. 이백 개쯤은 식은 죽 먹기였지만 혼자 보내는 자유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몇몇 남자아이들이 가쁘히 통과하고 운동장으로 뛰어갔다. 신나게 공을 차는 아이들을 보자 오른발이 조금 근질거렸다.

점심을 먹고 채원이 무리와 놀이터로 갔다. 평소와 달리 분위기가 이상했다. 채영이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툭 쏘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아까 은진이 봤어?”

서연이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다.

“개 오늘 완전 공주 옷 입고 왔더라. 난 그런 옷 유치해서 싫던데.”

채영이의 표정이 살짝 풀렸다.

“그니까, 체육시간에도 계속 혼자 민수 옆에서 줄넘기 하는 거 있지. 그렇게 남자애들이 좋은가?”

민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민수가 부회장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것 같더라.”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채영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저기, 은진이가 계속 줄에 걸려 넘어지니까 민수가 먼저 도와준다고 했어.”

아이들의 눈이 나에게 쏠렸다. 채영이의 눈이 한 순간에 셀쭉해졌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나는 그냥, 채영이 네가 너무 기분 안 좋아 보여서 좀 풀어주려고…”

“그렇겠지. 가자.”

채영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벌떡 일어났다. 아이들이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채영이를 따라 일어났다. 급히 뒤쫓아 들어왔지만 교실에 들어와서도 채영이는 여전히 냉담한 표정이었다. 나는 초조하게 머리핀을 어루만지며 행운을 빌었다. 이렇게 채영이와 멀어지고 싶지는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조심스럽게 채영이 자리로 다가갔다.

“학원가는 길이지? 같이 갈래?”

“옆 반 친구 생일파티 가기로 했어. 이따 학원에서 봐.”

아까보단 화가 풀린 것 같았다. 살짝 마음이 놓였다.

“아, 나 아직 숙제 못했는데 어찌지? 끝나면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채영이가 나를 물끄러미 보았다.

“내가 도와줄게. 이리 줘.”

“고마워, 송희야.”

평소처럼 채영이가 생글생글 웃자 뽀뽀 얼었던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여전히 나는 채영이의 친구인 것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학원에는 삼십 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채영이의 숙제를 하면서 머리를 빗어 내리는데 무언가 빠진 것처럼 허전했다. 나는 문제 풀이를 멈추고 거울을 보았다. 항상 하고 다니던 머리핀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엄

마가 준 핀은 평범한 머리핀이 아니었다. 간신히 채영이와 화해했는데, 행운의 머리핀이 사라지다니.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머리핀을 찾으러 학교로 다시 달려갔다.

교실 앞 복도는 텅 비어있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다. 까치발을 들고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생일파티에 간다던 채영이가 아이들과 둘러 앉아 피자를 먹고 있었다. 채영이 얼굴을 보자 반가움이 몰려왔다. 뒷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 나는 그대로 얼음이 돼버렸다. 새침한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하여튼 눈치도 없어.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좀 띄워줬더니 요즘엔 자기가 진짜 뭐라도 된 줄 아나 봐.”

“아까 예쁜 척하면서 줄넘기 하는 거 봤어? 촌스러운 게.”

“우리 언제까지 개 데리고 다녀야 해?”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이들의 말에는 가시가 돌아 있었다. 눈치가 없더니, 누구의 이야기인 걸까?

“챙겨주라고 시키는 걸 어떡해. 선생님이 고맙다잖아. 피자도 사주고.”

다시 새침한 목소리가 들렸다. 채영이었다.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계속 사줄 것 같진 않은데?”

“저번에 개네 엄마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한테 햄버거 쏜대.”

“그럼 불쌍한 애 하나 돕는다고 생각해. 송희네 엄마 또 선생님한테 전화할라. 개 숙제는 잘 해다 주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도망치듯 학교를 빠져 나왔다.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집피 속에서 머리핀이 툭 떨어졌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행운의 머리핀은 무슨! 엄

마에게 소리를 뺏 질렀다.

“거짓말쟁이! 엄마가 제일 미워!”

엄마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노크 소리가 들렸지만 나가지 않았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엄마는 또 선생님이나 채영이네 집에 전화할 것이다. 그러면 채영이 무리가 나에게 대해 뭐라고 얘기하고 다닐지 불 보듯 뻔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분한 마음에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옷장을 뒤져 예전 학교에서 쓰고 다니던 야구 모자와 낡은 운동화를 찾아냈다. 다음 날에는 집을 일찍 나섰다. 준비는 끝났다. 나는 모자를 푹 눌러썼다.

아침부터 채영이는 화난 표정이었다. 평소였다면 채영이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겠지만 오늘은 못 본 척 책을 읽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채영이 꽤 거리가 나를 불러냈다. 축구 하는 아이들로 놀이터까지 모래 먼지가 자욱했다. 희뿌연 먼지구름 사이로 채영이가 나를 노려보았다.

“너, 왜 어제 학원 안 왔어? 숙제 안 해왔다고 얼마나 혼난 줄 알아?”

채영이는 더 이상 예쁘지도, 착해 보이지도 않았다.

“네 숙제를 왜 내가 해?”

“뭐? 이게 진짜….”

채영이의 눈이 옆으로 더 찢어졌다. 나는 말없이 미끄럼틀 쪽으로 굴러오는 축구공을 바라보았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 나는 채영이네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달려가 힘껏 발을 뺀자 뺑 소리와 함께 축구공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공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놀란 얼굴로 이쪽을 쳐다봤다.

“너 지금 나 무시해?”

채영이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것 같았다. 채영이 패거리가 나를 둘러싸는 순간 먼지구름을 뚫고 누군가 이쪽으로 뛰어왔다. 남자 부회장인 민수였다. 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너 공 좀 차는데?”

민수를 보자 채영이의 얼굴이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어색하게 찌졌다.

“이 반이랑 붙었는데 같이 할래?”

나는 채영이를 한 번 흘겨보고 운동장 한 가운데로 뛰어갔다. 몇 주일 동안 근질근질 하던 몸이 풀리는 것 같았다. 적의 골대를 향해 달려가자 구경하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채영이 무리만 못마땅하게 입을 다물었다.

민수가 패스해 준 공이 내 앞으로 떨어졌다.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내가 먼저였다. 첫 먹던 힘까지 짜내 공을 차자 온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골대가 크게 출렁였다. 아이들이 학교가 떠나가게 함성을 질렀다. 우리 반이 일 대 영으로 이겼다.

“송희 너 장난 아니더라. 진짜 멋있었어.”

“이렇게 공을 잘 차면서 왜 이제야 실력을 보여준 거야?”

우리 반 아이들이 나를 빙 둘러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다.

“넌 우리 반 최고의 스트라이커야. 앞으로 여자애들이랑도 같이 해봐야겠어.”

민수가 별경계 상기 된 얼굴로 내 손을 잡았다. 채영이가 찌진 눈으로 노려봤지만 무섭지 않았다. 내가 채영이 쪽으로 가자 채영이가 움찔거렸다. 나는 채영이 옆을 지나 그대로 축구공을 향해 달려갔다. 몇 주일 동안 막혀있던 속이 풀리는 것 같았다. 공을 찰 때 마다 시원한 소리가 났다. 땡, 땡, 땡!



강원지방우정청 양구우체국
이 재 우



수상소감

제가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겪고 들었던 일화를 동화로 써보았습니다. 글을 읽는 분들에게 어쩌면 편지에 관한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도, 또 어쩌면 편지에 관한 새로운 기억을 심어드릴 수도 있을까요. 아무쪼록 이제는 디지털 매체에 밀려 서서히 사라져가는 편지의 존재와 그것들을 전달해주던 사람들, 편지를 주고받을 때의 설렘을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곰돌이 집배원 리보의 하루

통나무로 지어진 작은 집 창문으로 한 가닥, 두 가닥 햇빛이 들어옵니다. 벌써 아침이 왔나 봐요. 곰돌이 리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리보는 복슬복슬한 갈색 털과 까맣고 동그란 눈이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숲속 나라 동물들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요.

오늘은 어떤 반가운 소식들을 전해줄 수 있을까? 리보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새 헝클어진 갈색 털을 가지런히 빗고, 빨간 모자도 챙겨 썼어요. 집을 나서자 아직은 쌀쌀한 봄바람이 리보의 뺨을 스칩니다.

“겨울바람은 귓등을 스쳐가고 봄바람은 품 안을 파고든단다. 겨울바람보다 봄바람이 더 찬 법이야. 옷을 단단히 입고 다니렴.”

리보는 항상 자신을 걱정해주시던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괜스레 반짝반짝 윤이 나는 까만 코를 한번 쓱 닦아봅니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 조금 걷다보면 리보가 일하는 우체국이 나와요. 우체국은 숲속 나라 중턱에 빨간 벽돌로 지어져서 멀리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나 봐요. 제일 먼저 도착한 리보는 닫혀있던 우체국 문을 활짝 열었어요. 찬바람을 맞으며 걸어와서일까요? 리보의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꿀차를 마셔야겠어!”

리보는 주전자에 물을 붓고 보글보글 끓여서 달콤한 꿀차를 만들어봅니다. 차를 마시고 있자니 빨테안경을 쓴 토끼 토미가 깡충깡충 들어옵니다.

토미는 눈같이 하얀 털과 루비같이 새빨간 눈이 귀여운 친구예요. 우체국에서 편지를 접수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토미야, 안녕? 날씨가 춥지? 따뜻한 꿀차 마실래?”

“응, 고마워. 리보야. 잘 마실게.”

토미와 함께 맛있는 차를 나눠 마신 리보는 몸도 마음도 따뜻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아,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리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편지가 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은 유난히 편지가 많이 왔네요. 들숲 마을 황소 케시에게 편지 한 통, 오동나무 마을 까마귀 쿠쿠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 밤나무 마을 다람쥐 토리에게 편지 한 통, 동굴 마을 여우 포포 할아버지에게도 편지가 한 통 왔군요.

리보는 편지를 차곡차곡 챙겨서 가방 안에 집어넣고, 빠뜨린 편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아차, 동지 마을 독수리 몰리 아주머니의 편지를 빠뜨릴 뻔 했군요. 돈을 벌기 위해 멀리 바다 나라로 떠난 아들 부부가 보낸 편지네요. 리보는 편지를 받고 기뻐할 몰리 아주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토미야,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이따 보자.”

토미와 인사를 나누는 리보는 힘차게 우체국을 나섰습니다. 숲속 나라의 모든 마을을 들려야 하니, 무척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리보가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숲속 나라의 가장 아랫동네인 들숲 마을입니다. 들숲 마을은 숲속 나라에서 제일 먼저 봄을 맞는 마을이지요. 들숲 마을로 다가갈수록 봄도 점점 가까워집니다. 곳곳에 핀 노란 개나리가 리

보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진 리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황소 케시네 집으로 갑니다.

“케시야. 집에 있니? 너에게 편지가 왔어.”

“리보구나! 잠깐만 기다려.”

케시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머, 친구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냈네.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고마워.”

“천만에. 내가 할 일인걸. 다음에 또 봐.”

리보는 웃으며 케시와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어요. 이제 다음은 오동나무 마을에 사는 까마귀 쿠쿠 할머니에게 갈 차례입니다. 오동나무 마을은 숲속 나라 중턱에 있는 마을이에요. 쿠쿠 할머니는 오동나무 마을의 가장 외딴 곳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쿠쿠 할머니는 항상 통명스레 말을 해서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유일한 가족인 외동딸은 몇 해 전 먼 나라로 시집을 가서 가끔 편지로만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리보가 아니면 아무도 쿠쿠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는데, 한동안은 딸의 편지조차 뜸했던 터라 리보도 무척 오랜만에 쿠쿠 할머니의 집을 가는 거랍니다.

쿠쿠 할머니의 집까지 가는 길은 무척 험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계곡을 건너야 하지요. 계곡물이 제법 불어 있어서 침병침병 건너다보니 리보의 바지와 신발이 흠뻑 젖고 말았어요. 계곡물을 건너 무성한 풀을 헤집고 가다보면 까마득히 높은 계곡과 계곡을 연결하는 흔들다리가 나옵니다. 만들어진지 오래 돼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다리예요. 리보는 다리 앞에서 크게 한 번 심호흡을 합니다. 아래를 보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앞만 보며 다리를 건너요. 걷다 보니 리보의 얼굴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합니다. 양 다리가 후들

후들 떨어져 더 이상 못 견뎌다 싶을 때쯤 흔들다리가 끝나고, 곧이어 쿠쿠 할머니의 집이 나옵니다. 쿠쿠 할머니는 문을 등지고 서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쿠쿠 할머니, 안녕하세요? 편지가 왔어요.”

“내가 편지가 올 곳이 어디 있다고 편지가 왔대? 거짓부렁 하지 마.”

쿠쿠 할머니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볼멘소리로 리보에게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따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딸의 편지라는 말에 쿠쿠 할머니는 잠시 멈춥니다.

“참나. 무슨 바람이 불어서 편지를 다 보내? 오래 살고 볼 일이구만.”

“아이참,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잠깐 이리 와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리보는 쿠쿠 할머니의 손을 잡아끌고 와서 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았습니다. 까마귀 쿠쿠 할머니는 까막눈이에요. 리보는 쿠쿠 할머니를 위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힘을 주어 편지를 읽어줍니다.

“보고 싶은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소식이 늦어서 죄송해요. 사실 얼마 전 귀여운 아들을 낳았답니다. 아기를 가진 후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동안 편지를 못 드렸어요. 아기를 낳고 보니 엄마가 더욱 보고 싶고, 그리워요. 여름이 되기 전에 남편이랑 아기랑 찾아뵙게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를 읽고 난 리보는 진심을 담아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이야. 할머니, 예쁜 손자가 생기셨네요. 축하드려요.”

“축하는 무슨……. 시답잖은 녀석.”

통명스럽게 내뱉은 말과는 달리 쿠쿠 할머니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반가운 소식 들고 올게요.”

“허튼 소리 말고, 계곡물이나 조심해서 건너 가.”

리보는 쿠크 할머니의 쌀쌀맞은 듯 따뜻한 배움을 받으며 밤나무 마을 다람쥐 토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나무 마을은 오동나무 마을과 붙어 있는 마을이에요. 토리는 밤나무 마을 중앙에서 작은 빵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까부터 하늘이 흐려서 비가 올 것 같더니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비를 꺼내 입은 리보는 소중한 편지들이 젖을까봐 가방을 끌어안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저런, 리보야, 어쩜 좋아. 비를 다 맞았네.”

빵가게 앞에 우산꽃이를 꺼내놓던 토리가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토리야, 안녕? 너에게 편지가 왔는데 비가 와서 조금 젖어버렸어. 미안해.”

리보는 너무 속이 상해서 귀가 축 처져버렸어요.

“계란이랑 밀가루를 샀더니 보내준 영수증이야. 그보다 네가 비를 다 맞아서 어떡하니. 춥겠다. 들어와서 몸 좀 녹이고 가.”

토리는 리보를 가게 안 벽난로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난로 안에는 나무 장작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어요. 잠시 후 토리가 리보에게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우유를 갖다 줍니다. 알밤이 잔뜩 들어 있는 폭신폭신향한 빵이네요. 리보는 빵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리보의 입 안 가득 따뜻한 기운이 퍼집니다. 고소한 우유도 한 모금 마셔 봅니다. 리보는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리보가 빵과 우유를 다 먹을 때쯤 보슬보슬 내리던 비도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리보의 젖었던 털이 보송보송 마르고, 꼬르륵 소리가 나던 뱃속도 든든해졌어요.

“토리야, 맛있게 잘 먹었어. 고마워!”

“맛있었다니 다행이다. 비가 와서 미끄러울 텐데 조심히 가.”

리보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동굴 마을을 향해 출발했어요. 동굴 마을은 숲속 나라 꼭대기에 있는 마을입니다. 밤나무 마을에서 멀지는 않지만 길이 가파르니 조심해야 하지요. 특히 오늘처럼 비가 내린 날에는 낙엽이 젖어서 아주 미끄럽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히 걷다보니 평소보다 조금 늦게 여우 포포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합니다.

“포포 할아버지. 댁에 계세요? 편지가 왔어요.”

포포 할아버지는 귀가 어두워서 한참을 불러야 들을 수 있지요.

“할아버지. 리보예요. 편지가 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리보가 왔구나. 잠깐만 기다려라.”

하지만 포포 할아버지의 대답이 들리고도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요새 귀가 먹어서 잘 들리지가 않아. 지팡이가 없이는 잘 걷지도 못하겠고, 늦게 나와서 미안하구나.”

“아니예요.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고요?”

“병원이 멀어서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들어. 저번에 네가 타다 준 약도 다 먹어 가는데……. 미안하지만 다음번에 올 때 약을 좀 타다 줄 수 있겠니?”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꼭 챙겨다 드릴게요. 그보다 오늘 온 편지는 웅달샘 관리단에서 보낸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작은 글씨를 잘 못보는 포포 할아버지를 대신해 리보가 편지를 읽어봅니다.

“할아버지. 저번 달보다 이번 달 웅달샘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왔는걸요. 혹시 이번 달에 물을 많이 쓰셨나요?”

“아니, 혼자 사는 늙은이가 물을 많이 쓸 일이 뭐가 있겠어. 항상 똑같지.”

“그럼 혹시 물을 푸는 바가지가 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잠시 볼게요.”

리보는 포포 할아버지의 동굴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포포 할아버지의 바가지를 꼼꼼히 살펴보던 리보는 물이 새는 곳을 발견합니다.

“저런, 바가지가 살짝 깨져있어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리보는 노련한 손놀림으로 망가진 바가지를 똑딱 고쳤어요.

“우리 리보가 없으면 이 늙은이가 혼자 어떻게 사나. 항상 고맙구나. 우리 리보가 아주 최고야, 최고.”

“아이참, 할아버지. 별 말씀어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올게요.”

칭찬을 듣자 씩스러움을 많이 타는 리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집니다. 리보는 얼른 포포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후다닥 동굴 집을 나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지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조금 서둘러야겠네요.

이제 리보의 가방에는 등지 마을 독수리 몰리 아주머니의 편지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등지 마을은 동굴 마을에서 바위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찾아 가기 무척 힘든 마을이에요. 리보는 눈앞에 있는 높다란 절벽을 한 번 올려다보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몰리 아주머니를 생각해서 힘을 내야겠지요. 리보는 이를 악물고 바위를 타기 시작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커다란 바위로 만든 표지석이 보입니다. 등지 마을의 입구예요. 몰리 아주머니의 집은 등지 마을 초입 새에 있습니다.

‘빨리 편지만 전해주고 와야겠다.’

리보는 들릴 듯 말 듯 작게 중얼거리고 몰리 아주머니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몰리 아주머니네 마당 문이 활짝 열려 있네요.

“리보 씨! 리보 씨! 잘 만났다.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몰리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달려 나와 리보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가 깜빡하고 마당 문을 못 잠갔는데, 잠깐 사이에 우리 손자들이 그
만 밖으로 다 나가버렸지 뭐야. 우리 집 양반은 오동나무 마을로 일하러
가서 나 혼자 있는데……. 언제 다 데리고 들어와.”

저런, 몰리 아주머니에게 곤란한 일이 생긴 것 같네요. 몰리 아주머니는
바다 나라로 돈을 벌러 간 아들 부부를 대신해 네 마리의 아기 새들을 키
우고 있어요. 아기 새들은 무척 개구쟁이라 오늘처럼 마당 문을 잠그지 않
은 날이면 모두 집 밖으로 나가 꼭꼭 숨어버리곤 한답니다. 그러면 몰리
아주머니는 한참이 걸려 아기 새들을 겨우 겨우 찾아 데려오지요. 리보도
이미 몇 번 아기 새들을 찾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너무 늦게 와서 몰리 아주머니를 도와주고나면
밤이 되어버릴 거예요. 리보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몰리 아주머니의
얼굴 한 번 보고, 땅거미가 내려앉은 바닥 한 번 보고, 또 몰리 아주머니의
얼굴 한 번 보고……. 몰리 아주머니는 간절한 눈빛으로 리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리보는 무척 지쳐 있었지만 곤경에 처한 몰리 아주머니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역시 리보 씨밖에 없네. 고마워요. 고마워.”

“제가 왼쪽을 찾아볼게요. 아주머니는 오른쪽을 찾아주세요.”

리보는 대문 밖으로 나와 주위를 한 번 둘러봅니다. 요 개구쟁이들이 어
디에 숨어있을까요? 아직 날지 못하는 아이들이라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
예요. 리보는 엎드려서 바위틈 사이를 들여다봅니다. 점심 때 내렸던 비
때문에 바닥도, 바위도 젖어 있어서 금세 흙투성이가 돼버립니다. 바위 틈

새로 손을 넣어 휘젓던 리보의 손끝에 뭔가가 잡힙니다.

“어? 리보 아빠씨!”

리보를 아빠씨라고 부르는 둘째 수디였어요. 아저씨라는 말이 어려워서 인지, 떨어져서 지내는 아빠가 그리워서인지 아빠와 아저씨를 섞어서 말하는 아이랍니다.

“이 장난꾸러기야, 이제 그만 집에 가자.”

리보는 수디를 왼쪽 팔에 안고 또 다른 아기 새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 쪽에서 덩불이 움직이는 게 보이네요. 리보가 가까이 가보니 셋째 수리가 온몸에 모래를 뒤집어 쓴 채 흥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새까만 깃털이 잿빛으로 보일 정도로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네요. 수리를 보고 질색할 몰리 아주머니의 얼굴이 저절로 리보의 눈앞에 그려집니다. 리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오른쪽 팔로 수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몰리 아주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니 마침 몰리 아주머니도 양 팔에 아기 새들을 안고 들어옵니다.

“수디랑 수리를 찾았어요.”

“리보 씨. 고마워. 수고했어요. 세상에나! 수리야. 이게 무슨 꼴이니!”

리보의 예상대로 몰리 아주머니가 질색을 하네요. 몰리 아주머니는 곧바로 커다란 날개를 펴서 날갯짓으로 모래를 털어냅니다. 리보는 분주히 움직이는 몰리 아주머니를 바라보다가 깜빡 잊고 있던 편지가 생각났어요.

“아차, 아주머니. 바다 나라에 있는 아드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리보의 말에 몰리 아주머니는 날갯짓을 멈추고 편지를 받아 곧바로 읽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몰리 아주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얼마나 그리울까요? 리보도 떨어져 지내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가슴 한 편이 아련해집니다.

“아주머니,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 맛있는 꿀차 타드릴게.”

몰리 아주머니는 편지를 읽는 중에도 빠뜨리지 않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네. 기대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몰리 아주머니의 집을 나온 리보의 몸은 피곤에 지쳐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하지만 리보의 마음만은 뿌듯함에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아기 새들을 찾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집 밖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깜깜한 숲속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지요. 리보는 조심조심 절벽에서 내려와 더듬더듬 나무를 잡고 숲길을 내려옵니다. 드디어 저기 멀리 흐릿하게 우체국의 불빛이 보입니다.

“다녀왔어. 토미야.”

“리보 왔구나. 오늘은 좀 늦었네. 저런, 온 몸이 흠투성이야.”

“일이 좀 있었단다. 미안하지만 등에 묻은 흙을 좀 털어줄래?”

“응, 그런데 리보야. 편지 가방은 어디에 있니?”

리보의 옷을 털어주던 토미가 리보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니 리보의 어깨에 걸려 있어야 할 가방이 없네요.

“어? 아까 몰리 아주머니네 집에서 나올 때까지는 있었는데…….”

돌아오던 중 어딘가 나무에 걸려서 떨어진 모양입니다. 가방이 있어야 내일도 편지를 전해주러 갈 텐데, 큰일이네요. 리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리보야, 오늘 어떤 길로 왔니? 같이 찾으러 가보자.”

“밤나무 마을 옆 오솔길로 오긴 했는데…….”

리보가 말끝을 흐리며 대답합니다. 리보는 어디에서 가방을 떨어뜨렸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왔던 길을 전부 되돌아가 보기로 합니다.

다. 리보와 토미가 작은 초롱을 들고 밤나무 마을과 동굴 마을 쪽을 샅샅이 뒤졌지만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제는 밤이 너무 늦어서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동지 마을까지 가는 건 무리예요.

“리보야, 안되겠다.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시 찾아보자.”

“어쩌면 좋지……. 미안해, 토미야.”

“밤을 때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알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내일 보자.”

결국 리보는 가방을 찾지 못한 채 터덜터덜 힘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으면 어떡하지?’

잠자리에 누운 리보는 잃어버린 가방 걱정 때문에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리보는 차라리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짹짹. 리보야, 아침이야. 일어나!”

옆집에 사는 참새 친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리보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새벽녘에 설핏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리보는 어젯밤에 만난 참새 친구에게 깨워달라는 부탁을 해두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리보는 흐트러진 갈색 털을 발톱으로 대충 빗고, 빨간 모자를 손에 든 채 허둥지둥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리보의 머릿속은 온통 잃어버린 가방 걱정뿐이었어요.

‘얼른 우체국에 들렀다가 가방을 찾으러 가야겠어.’

리보는 우체국까지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체국 문을 열려고 하던 리보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소리를 칩니다.

“내 가방! 내 가방이 왜 여기에 있지?”

어제 잃어버렸던 가방이 우체국 문 앞에 놓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리보는 깜짝 놀라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어있어야 할 가방에서 묵직한 무

제가 느껴졌어요. 리보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리보가 가장 좋아하는 꿀과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리보 씨에게

리보 씨, 안녕하세요. 동지 마을에 사는 몰리 아줌마예요.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에 남편이 절벽에 걸려있던 가방을 주워왔는데,

리보 씨의 가방인 것 같아 돌려드릴 겸 인사도 할 겸 편지를 써요.

어제는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덕분에 살았네요.

날씨가 아직 쌀쌀한데 추울 때 꿀차 한 잔씩 챙겨 마시고 일해요.

항상 행복한 소식 전해줘서 고마워요.

감기 조심하고, 다음에 또 봐요.

편지를 읽고 난 리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리보는 무엇이랴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기분이 들었어요. 리보는 그렇게 한참을 가방을 든 채 우체국 문 앞에 서있었습니다.

“리보야, 안녕! 얼른 가방 찾으러 가자.”

어느새 나타난 토미가 리보에게 말을 겁니다. 토미도 가방 때문에 급하게 나왔는지 하얀 머리털이 빠져 뺏쳐 있어요.

“토미야, 나 가방 찾았어. 나 때문에 일찍 나왔는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정말? 언제 어떻게 찾았어? 다행이다.”

“들어가서 꿀차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해줄게. 그런데 너 머리 뺏었다.”

리보가 토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오늘도 이렇게 리보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쩐지 리보에게 오늘은, 어제보다 더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평택고용센터
조영은



수상소감

두 아이의 엄마로, 직장인으로, 살다보면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갈때가 있다.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중 공무원문예대전참여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처음 지원한 문예대전에서 '입선' 이라니…….

반갑고 기분좋은 일이다.

다시금 나를 달금질하여 나의 DNA를 찾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야겠다.

나도 한국사람입니다.

우리 엄마는 카메룬에서 태어났다.

엄마는 내가 잠들 때마다 할머니가 들려줬다는 자장가를 내게 들려주시며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셨다.

할머니도 엄마가 많이 그리운지 카메룬 전통명절때마다 편지를 보내오셨다. 손때가 가득 묻은 편지지에 눈물자국이 군데군데 묻어있는 편지봉투가 카메룬 전통의상을 엿볼 수 있는 우표와 함께 왔다.

내일은 새로 짝을 정하는 날이다. 이번에도 나는 짝이 없어 선생님이 정해준 아이와 짝이 될 것이다. 엄마가 내게 물려준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 때문에 나의 새 짝은 나를 또 ‘초코우유’라고 놀릴 것이다. 4년동안 다른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배가 아프고 속이 메스거렸다. 열도 오르고 온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드디어 아침 해가 안방 창문을 두드렸다.

엄마는 아프다는 나와 민지의 등짝을 떠밀어 학교로 쫓아냈고, 우리는 온갖 풀과 나무와 새로 나온 봄꽃까지 인사를 하며 느린 발걸음을 만들었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발걸음을 옮겨 학교에 왔지만 아직도 아이들이 반 이상 오지 않았다.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가시는 엄마 등살에 너무 일찍

나온 탓이리라.

교실 맨 뒤에 터를 잡아 착한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어제 만든 종이인형옷을 마저 완성하는 동안 교실은 아이들로 다시 북적였다.

잠시 뒤, 봄 햇살을 머금으며 봄꽃처럼 어여쁘게 생긴 선생님이 더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와 함께 들어오셨다.

“우와, 이쁘다. 곱게 생겼다.” 등 순간 교실안의 모든 아이들은 탄호성을 질렀다.

선녀만큼이나 곱게 생긴 선생님은 짧게 본인 소개를 하시고 옆에 멀뚱멀뚱 서 있는 아이를 교탁 옆으로 오도록 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밝은 얼굴로 자기 소개를 했다.

“안녕. 내 이름은 유나야. 나는 영국인아빠와 한국인 엄마사이에서 태어났어. 지난 학교아이들은 나를 ‘반반’이라고 불렀지만 그냥 내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어.”

교실 맨 구석에 있던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나를 다시 보았다. 같은 혼혈인데 달라도 너무 다르게 생긴 탓도 있지만, 아이들의 놀림에도 의연한 유나의 당찬 모습이 내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유나는 쉬는 시간 내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유나의 아빠는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서 왔다고 옆 분단에 앉은 희진이가 알려주었다. 유나는 신기한 물건도 많이 갖고 있나보다. 반 아이들이 쉬는 시간 내내 유나 주변을 떠나지 않는걸 보니…….

나는 수업시간 내내 유나만 신기한 듯 바라보다 수업을 마쳤고, 내 짝 혁이는 나랑 짝하기 싫은 데 선생님 때문에 억지로 앉아있는다라는 표정으로 수업시간내내 나를 비스듬히 등지고 앉아있었다. 이정도야 4년 내내 당한 일이라 견딜만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유나의 전학과 같은 혼혈임

에도 불구하고 유나에게 보이는 아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나를 더욱 주눅들게 만들었다.

나는 또다시 느린 걸음으로 태양을 등지고 석양을 기다리며 동구밖 과수원 길에서 엄한 땅만 밟았다.

동생들이 나를 보자마자 배고프다며 득달같이 덤벼들었다. 내가 아무래도 미쳤었나보다. 집안 일이 산더미인데, 그까짓 짝이 뭐라고 그까짓 전학생이 뭐라고 동생들 저녁도 잊은 채 과수원 언저리를 서성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다니…….

엄마는 여전히 늦으셨고, 동생들과 나는 옆집 할머니가 주신 시금치국과 달래무침으로 저녁을 먹고 숙제를 했다.

나는 일어나기 싫다는 동생을 억지로 깨워 밥을 먹고, 옆집 할머니에게 어린이집 차가 오면 태워달라고 민석이를 맡긴 후, 그나마 깨끗한 옷을 입고 민지와 함께 잔 걸음으로 집을 나왔다.

학교 입구에서 만난 유나는 하야디 하얀 유명메이커 운동화를 신고, 엄마와 같이 차에서 내려 여동생과 나를 향해 방긋 웃었다.

“어머, 눈이 너무 예쁘다. 우리 유나보다 더 큰 눈을 가진 애도 있네.”

유나 엄마는 유나보다 더 환한 웃음으로 날 반기셨다. 여태까지 한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긋한 냄새가 났다. 내가 예전부터 상상하던 엄마냄새다.

여동생이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고 있다. 1학년때는 말도 없이 불쑥불쑥 집으로 돌아가 나를 놀래키더니 언제부터 운동장에서 하염없이 나를 기다렸다.

막내는 어린이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올테니 오늘은 민지랑 놀이터에서 실컷 놀다가야겠다. 놀이터에서 한참을 놀다보니 학교 운동장에는 어느새 우리 그림자만 남아있다. 그림자가 갑자기 바나나로 보였다가 핫도그로 보였다가 뱃속이 요동쳤다. 배꼽시계는 어찌나 정확한지…….

집에 빨리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운동장에 계속 있을 수는 없기에 민지를 데리고 바지런히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오는 길에 동생이 날 물끄러미 보더니 썩듯맞은 소리를 했다.

“아까 만난 언니 참 곱게도 생겼다. 그지?”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저녁을 만들고 계셨다. 민지가 “와!”하고 소리를 지르며 엄마허리를 푹 안았다. 잔업이 빨리 끝나 집에 일찍 오셨단다. 오는 길에 항구에 들러 딸이로 파는 삼치와 고등어를 싼 값에 많이 사올 수 있었다고 자랑을 하며 함박 웃으신다. 이럴 때 보면 엄마도 참말 소녀다.

민석이가 왔다. 오랫동안 일찍 퇴근한 엄마를 보더니 그동안 밀어났던 어리광을 양껏 부렸다. 근처에 아무도 못오게 하고 엄마 옆에 찰싹 붙어 미술시간에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다. 자랑을 하다말고 며칠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없어 물어보지 못한 양 해맑은 눈으로 묻는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피부색이 내 짝지랑 달라?”

“내 짝지가 그러는데 나더러 튀기래. 튀기는 뭐야? 튀김을 잘못 말한거야?”

너무나 해맑게 묻는 민석이에게 차마 튀기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엄마는 매우 난처한지 말을 더듬으며(엄마가 당황하면 나오는 버릇이다.) 문득 날 쳐다보셨다.

“튀기는 민서누나나 너처럼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부르는 나쁜 말이야. 혼혈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짝에게 알려줘.”

엄마는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빨개져 민지와 민석을 껴안으셨다.

오늘은 일요일, 모처럼 쉬시는 엄마는 아침부터 빨래에 집안대청소를 끝내고 나른하고 고단한 모습으로 꼴같이 단 낮잠을 주무신다. 그런 엄마를 깨우고 싶지 않아 민지와 민석을 데리고 무작정 나왔다. 달리 갈 때 도 없고 돈도 없는 우리는 아빠가 살아계실 때 자주 갔던 항구에 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아빠를 기다리는 양 들락날락하는 배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보내주기를 반복했다.

민석이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신기한 듯, 자판을 깔고 장사하는 할머니들 옆을 못 떠나고 팽이마냥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또 돌았다. 민석이는 팔팔 팔팔 살아있는 물고기가 신기했나보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물고기 이름을 말하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옆 할머니에게 속닥거리셨다.

“깜둥이가 한국말도 잘하네.”

“우리 깜퐁이 아니예요”

나는 별말도 아닌데 괜히 꼴을 내며 아이들을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는 보름이상 야근으로 찌든 몸을 이끌고 어제 먹다 남은 국을 데우고 생선을 튀기고 계셨다. 민석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에게 안겨 눈물을 찼끔거리며 칭얼칭얼거렸다.

“엄마, 우리 깜둥이 아니지?”

“우리 한국사람이지?”

“나는 박민석이지?”

엄마는 또다시 민석을 꼭 껴안아주셨다. 엄마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죽은 사람을 즐겁게 떠나보낸다는 카메룬전통방식에 따라 엄마는 매년 아빠 기일에 시장에서 짜장면을 먹고 놀이터에서 우리와 같이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올 해 엄마는 웬일인지 아빠의 존재자체를 잊은 듯, 기일이 무슨 대수라는 듯, 아무런 내색도 없이 출근하셨다. 민지와 나는 내심 엄마와 함께 놀 양으로 한껏 부풀어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민석을 옆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가는 길목과 뒷동산에는 어느 새 여름 꽃 잔치가 한창이다. 수염며느리밥풀꽃, 맥문동, 꿩의 다리, 단풍취 등이 가득 피어 한 몫 단단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빠는 민석이 또래의 나를 데리고 산에 오르며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무등을 태워 풀이름, 나무이름, 꽃이름을 일일이 알려주셨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풀이라도 함부로 밟거나 뽑으면 안돼.”

“신이 그 자리에 두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단다.”

그러던 일이 엊그제 같은 데 오늘로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난지 3년이다.

한여름 햇살을 받아 학교 유리창이 반짝반짝 빛났다. 유리창에 비친 햇빛을 핑계삼아 눈물을 훔치며, 아무도 오지않은 빈 교실에 오도카니 앉아 있었다.

곧 있으면 여름방학이 시작한다. 여름방학에 동생들 점심을 어떻게 해결 하나 하는 생각을 하니 또 눈물이 난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유나였다.

“너, 수업 끝나고 뭐해? 우리 집에서 놀래?”

세상모르게 나른한 소리다. 집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안돼, 동생이랑 저녁 먹어야 해.”

창밖너머 햇살을 바라보며 유나의 시선을 외면하 듯 기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유나는 그게 무슨 걱정할 일이냐는 듯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다.

“동생도 같이 데려와. 엄마가 민지랑 너랑 집으로 한 번 데려 오랬어.”

유나방은 초록색 나뭇잎이 그려진 커튼과 레이스와 앵두가 그려진 침대보로 덮인 침대, 늘 꿈꿔오던 내 방 모습 그대로였다. 민지는 모든 물건이 다 신기한 듯 연신 유나의 방을 두리번두리번 훑었다.

민지가 딸기가 데롱데롱 달린 샤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자 유나가 샤프를 민지가방에 슬며시 넣었다.

“너 이거 가져. 언니가 주는 생일선물이야.”

나는 정색하고 샤프를 가방에서 빼며 양갈지게 말했다.

“우리 거지 아냐.”

유나는 어이없다는 듯 눈을 흘겼다.

“남이 베푸는 진심은 진심 그 자체로 받아들여도 돼. 내가 너희더러 거지라고 한 적 없잖아.”

때마침 유나네 엄마가 쟁반 가득 딸기와 쿠키, 우유를 갖고 오셨고, 민지가 “와!” 환호성을 지르는 탓에 어색한 분위기는 조금 사그러 들었다.

“요새 엄마 매일 늦으시지?”

유나네 엄마는 우리 엄마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양 걱정스레 물으셨다.

“회사에 일이 많이신가 봐요.”

나는 우리 집 일에 대해 누군가가 관심을 갖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처음 있는 일이기도하여 속삭이듯 말하며 얼버무렸다.

민지와 나는 유나네서 맛난 저녁을 먹고, 동생주라며 싸주신 간식까지 두둑히 챙겨 집으로 왔다.

엄마는 오늘도 늦으셨다. 벽모서리에 기대어 씻을 힘도 없는 듯 파김치처럼 축 늘어져있다. 민지와 나는 엄마의 양말을 벗기고 수건에 물을 묻혀와 얼굴과 발을 닦아주었다. 엄마는 앓은 채 잠이 들었다. 엄마는 알고 있었을까? 카메룬에서 선원인 아빠를 만나 이곳으로 시집왔을 때, 우리를 낳았을 때, 이렇게 천하디 천한 취급을 받으며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게 될지…….

민석이가 아침부터 어린이 집을 안간다며 울고 불고 떼를 썼다. 오늘 짝지 생일잔치한다고 며칠 전부터 생일선물을 사달라고 졸랐는데, 엄마는 깜빡 잊었는지 돈이 없었는지 생일선물도 사두지 않고 출근을 하셨다. 나와 민지는 돼지저금통을 들어봤지만, 돼지저금통도 오랜 가뭄에 짹짹 갈라진 눈처럼 짹 벌어진 배를 불룩 내밀고 있다.

민석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면 틀림없이 아이들이 놀릴테고, 그렇다고 눈이 툭툭 불 정도로 운 아이를 두고 학교를 갈 수도 없고, 거동이 불편하신 옆 집 할머니에게 맡길 수도 없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민지만 우선 학교

에 보내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 민혜인데요. 몸에 열이 나고 너무 아파서 학교를 못가겠어요.”

수화기 너머 선생님은 안타까운 듯 물으셨다.

“엄마도 안 계시는데 약은 먹었니?”

얼굴만큼 마음도 예쁜 선생님이다.

누나랑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신난 민석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얼굴에 웃음이 한 가득이다.

민지가 돌아올 시간이다. 뒷동산에서 꽃과 나물을 한 바구니 따 가슴팍에 안고 부랴부랴 민지가 내릴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멀리서 버스가 흙먼지를 날리며 터덜터덜 들어왔다. 버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내려야 하는데, 아주머니 한 분만 내리시고 버스는 저 멀리 사라져 장난감마냥 작아졌다.

민석이랑 산에 있을 동안 집으로 전화가 왔나 싶어 부랴부랴 집으로 갔다. 교무실로 전화를 해서 방과후 교실이나 도서관에 민지가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없댄다.

“이런, 낭패다.”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 해도 이 시간에 집에 오실 수 없으니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유나네 엄마가 생각났다.

학교 선생님께 사정 말씀을 드리고 유나네 전화번호를 물었다. 유나네 엄마는 마치 유나가 없어진 듯 걱정하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민주야,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갈게. 아줌마랑 같이 찾아보자.”

유나, 유나네 엄마, 나, 민석이는 해가 누엣누엣 저 그림자마저 무서운 옥포항 근처와 학교, 공원 등을 쌀에서 쌀벌레 찾듯 싹싹 뒤졌다.

얼마를 찾았을까?

옥포시장을 지나 옥포항을 지났을 쯤, 방파제 근처에 민지만한 아이가 가방을 옆에 두고 지친 모습으로 앉아있었다.

“아줌마, 저기 민지같아요.”

아줌마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내가 말한 방향으로 비췄다. 민지였다. 나는 한달음에 달려갔다. 버스에서 졸다 다른 정류장에 내려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걷다보니 우리랑 계속 엇갈렸던 모양이었다.

“언니, 나 너무 무서웠어. 영원히 언니랑 엄마 못 만나는 줄 알았어.”

민지는 나를 붙잡더니 사시나무 떨 듯 떨며 엉엉 울었다.

버스로만 30분 이상 가야하는 학교에 겨우 9살 짜리를 혼자 보내다니, 이런 내가 너무 밍고 싫었다. 아침 일찍 회사에 가야하는 엄마도 미웠다.

나는 선생님에게 어제 있었던 얘기를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우리 민주가 아주 의젓하구나.”

부드러운 눈으로 날 보시더니 가만히 안아주셨다.

유나가 소문을 냈으면 어찌지 하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지만, 여름 한소절 끝에 장마가 지나간 양 교실은 썰렁했다.

점심을 먹고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있는 데 유나가 슬그머니 다가왔다.

“괜찮아?”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유나와 나는 5교시 시작종이 울릴 때까지 아무 말없이 구름만 쳐다보며 스탠드에 앉아있었다.

종례시간에 선생님이 조용히 날 부르셨다. 유나어머님이 데리러 온다고

학교운동장에서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다.

민지는 운동장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몸은 괜찮냐고 물어보자 양호실에 내내 누워있었던다. 엄마만 집에 계셨어도 집에서 편하게 쉬었을 텐데…….

멀리서 유나가 날 부르며 손짓했다.

유나네 차는 유나만큼이나 폼난다. 민지를 먼저 들여보내고, 유나네 엄마를 따라 모르는 길로 한참을 갔다. 거제도에도 이런 변화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높은 건물과 곧게 뻗은 길이 나타났다. 생전 처음 보는 높은 건물앞에 멈춰 유나를 따라 들어간 사무실은 너무나 깔끔하고 고급스러웠다.

아주 잘생긴 외국인 아저씨가 나와 유나를 보며 맑은 미소를 보이셨다. 유나네 아빠인가보다. 유나가 예쁘게 생긴 이유가 있었구나 싶어 가슴속에 깊은 한숨이 몰려왔다.

유나아빠는 대견하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셨다.

“민주야, 너는 엄마를 엄청 자랑스러워해야 돼. 너희 엄마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거든.”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유나와 유나아빠, 유나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유나아빠가 다정한 목소리로 설명해주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엄마네 회사는 대기업의 하청으로, 대기업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받아놓고 대기업 경영이 어려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위장해 하청기업근로자에게 7개월이상 임금을 주지 않았다.

한국근로자나 다른 외국근로자는 그냥 참고 다니거나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우리 엄마만 노동법률변호사와 지역방송국·외국인인권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의를 제기했고, 결국 하청사장님이 두 손 두 발 들고 밀린 임금을 다 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신 변호사가 유나네 아빠인 것은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과 함께 따뜻한 눈물이 두 볼 가득 흘렸다. 나는 정말로 이러다 우리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퉁퉁 부운 눈으로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할까 하고 있는데 나만큼 퉁퉁 부운 눈으로 엄마가 빼꼼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쇼파에 앉은 나를 보더니 눈이 더 커져서는 뺨히 쳐다보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나를 부둥켜안았다. 검은 피부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을 만나다니 생각할수록 진짜 멋진 일이다.



나랑 엄마는 서로를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 유니아빠가 따뜻한 차를 가져오셨다. 엄마와 나는 유니아빠에게 수십 번 고개를 숙여 감사표시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엄마랑 나는 오랜 만에 옥포항에 들러 동생들이 좋아하는 이면수와 수박 한 덩이를 샀다.

엄마는 내 손을 꼬옥 잡으시며 해맑은 얼굴로 말씀하셨다.

“엄마, 이제 아침 일찍 안 나가도 된다. 밀린 임금도 다 받았고, 외국인 단체간사님 소개로 좋은 곳에 취업도 했어. 민혜야, 우리 내년 봄에는 학교까지 걸어다닐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이사가자.”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호들갑을 떨다, 들고 있던 수박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제야 나는 조금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수박을 떨어뜨리지 않게 꼭 안으며 중얼거렸다.

7월의 강렬한 태양아래를 걸었지만, 엄마와 나는 하나도 덥지 않았다.



매현중학교
한 경 애



수상소감

일을 하면서 때로는 감정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큰 위로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 모든 공무원문예대전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문화가 있는 따뜻한 삶을 꿈꾸어 봅니다.

풍선이 된 종환이

오늘은 미술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종환이는 아침부터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툭툭 뛰다시피 걸어서 2학년 4반 교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교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종환이가 1등으로 등교하였습니다.

종환이는 미술을 좋아합니다. 파스텔을 문질러 화사한 꽃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수채물감에 붓을 톡 찍어서 물을 문힌 다음 하얀 도화지에 무지개빛깔을 칠하는 것도 좋아하고, 색연필로 작은 동물 그림에 알록달록 색칠하는 것도 아주 좋아합니다. 또, 크레파스로 나무와 강물, 물고기 그리기도 아주 잘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2교시 미술시간입니다.

“오늘의 그리기 주제는 엄마입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려주세요”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뒤 선생님은 교실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종환이는 엄마를 떠올려 봤습니다. 엄마는 만능박사입니다. 엄마는 요리사가 되었다가 종환이의 코디네이터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가장 신나게 놀아주는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합니다. 때론 잔소리 대마왕으로 변해서 나를 귀찮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입니다. 엄마를 생각하자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번집니다.

밀그림을 그리는데 종환이는 벌써부터 쿵닥쿵닥 가슴이 뛰니다. 엄마 얼굴 그리기는 자신 있으니까요. 집에서 엄마 얼굴을 그려서 칭찬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으니까요.

‘친구들이 내 그림을 보면 모두 깜짝 놀랄거야.’

중환이는 엄마 그림을 자랑할 생각에 들떠서 단숨에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동그란 엄마 얼굴, 빨간 입술, 곱슬거리는 머리모양까지 열심히 그렸습니다. 잘하려고 힘이 들어간 탓인지 생각처럼 얼굴그리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짝꿍 민지는 얼굴 윤곽만 그려놓고 한참을 망설입니다. 눈, 코, 입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도화지만 쳐다봅니다. 어쩔줄 모르고 찢찢매던 민지는 중환이 그림을 한 번 쓱 쳐다보고는 뒷자리에 앉은 가영이의 그림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영이의 그림을 보는 순간,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영이는 벌써 엄마 얼굴을 다 그리고 색칠까지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야아, 가영아 너희 엄마 정말 이쁘다. 잘 그렸다!”

민지의 감탄하는 목소리에 반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의 소리가 났습니다.

“이야, 진짜 이쁘네”

“너희 엄마 정말 이렇게 생겼어? 좋겠다.”

반 친구들은 이쁜 가영이 엄마 그림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이 때 가영이 그림을 보던 중환이가 소리쳤습니다.

“웃기지마, 너희 엄마가 그렇게 생겼냐? 얘들아, 가영이네 엄마는 똥보야, 얼굴도 저 그림보다 훨씬 못생겼어.”

가영이 그림이 반 친구들에게 주목을 받자 중환이는 자기도 모르게 심통이 났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맞아, 가영이네 엄마는 저렇게 이쁘지 않아”, “맞아, 나도 봤어”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한 아이가 “가영이 엄마는 똥보래요,

똥보래요” 하고 외쳤습니다. 자신을 뻘히 쳐다보며 놀려대는 아이들의 모습에 가영이는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때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가영이가 왜 울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방금 전의 상황을 선생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은 종환이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를 놀리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선생님한테 혼나면서도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꼭 물고 있던 종환이도 끝내 울음을 터뜨리려고 말았습니다.

가영이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속상했습니다. 엄마 얼굴 그리기는 정말 자신 있었는데 종환이 때문에 영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미술학원에서 사람 얼굴 그리기를 배웠던 터라 신나게 엄마 얼굴을 그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가영이는 갑자기 그림 그리기가 싫어졌습니다.

‘이제 미술학원은 가지 않을거야’ 라고 혼자 결심해 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교 하는 길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종환이가 친구들과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저만치 보입니다.

종환이는 키도 크고 날씬하며, 운동도 잘해서 반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습니다. 그 아이들은 무슨 신나는 일이 있는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연신 웃어댑니다. 가영이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친구들과 떠들던 종환이가 가영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영이는 종환이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주길 바랐지만 종환이는 가영이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못 본 채하고 친구들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가영이는 종환이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칫, 종환이랑 다시는 안놀거야.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흥!’

친구들과 함께 가는 종환이를 보며 가영이는 생각합니다.

‘종환이가 엄마처럼 똥보가 되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매일 똥보라고 놀려줄거야, 종환이는 정말 미워, 미워, 미워!’

그 때 가영이는 지난달 생일에 아빠가 사주신 분홍색 목걸이가 생각났습니다. 가영이가 플라스틱 목걸이를 보고 선물이 이게 뭐냐며 시시하다고 울상을 짓자, 아빠는 이 목걸이는 평범한 목걸이가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목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늘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혹시 정말로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가영이는 목걸이를 조심스레 만지며 TV 만화영화에서 본 것처럼 주문을 외웠습니다.

“똥보 종환이가 되어라, 빠라빠라~ 압”

주문을 외우고 나자 그동안 우울했던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한편, 반 친구들과 헤어진 종환이는 웬지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가영이 엄마를 똥보라고 한 것도 마음에 걸리고, 하교하는 길에 만난 가영이를 못본 체 한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남자답게 사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가영이 얼굴을 딱 마주치자 어쩐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쌀쌀맞은 가영이가 사과를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할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영이 엄마는 정말 똥보입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선생님한테 혼나고 사과까지 해야 하다니 이건 좀 억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늦잠에서 깨어난 종환이는 자신의 몸이 이상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하룻밤 새 마치 커다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갑

자기 불어오른 살 때문에 맞는 옷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아빠의 노란 티셔츠를 걸쳐 입고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갔습니다.

종환이가 교실로 들어오자 반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애들아 종환이 좀 봐. 하루 만에 완전 똥보가 됐어”

그러자, 반 아이들은 누가 합창이라도 시킨 것처럼 일제히 외쳤습니다.

“종환이는 똥보래요, 똥보래요”

옆에 있던 민지가 말했습니다.

“가영아, 너도 말해봐, 종환이는 똥보라고. 어서. 어제 종환이도 그랬잖아. 너희 엄마 똥보라고”

가영이는 종환이에게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환이 몸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의 요술목걸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환이가 똥보가 되면 마구 놀려줄 생각에 아주 통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문을 건 사실을 종환이에게 들킬까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환이는 똥보래요, 종환이는 똥보래요”

반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종환이는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영이는 종환이가 걱정되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울며 뛰어가던 종환이의 상체가 점점 더 부풀더니 마침내 정말 커다란 풍선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 풍선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두둥실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놀란 가영이는 풍선이 된 종환이를 잡으려고 운동장으로 마구 뛰어갔습니다. 그 풍선을 놓치면 영원히 종환이가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발을 굴러서 높이 뛰어 풍선을 잡으려고 했지만 풍선은 자꾸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종환이 모습은 점점 멀어지더니 마침내 작은

점이 되어버렸습니다.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자 종환이는 겁에 질려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몸은 점점 가벼워져서 똥똥 떠다니기 시작했고 구름 위를 지나 어디론가 자꾸만 날아갔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지만 차츰 바람에 익숙해지자 조금씩 하늘 아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구름 아래로 사람들의 모습은 깨알같이 작아서 보이지조차 않고 집과 자동차는 장난감처럼 보입니다.

종환이가 세상 구경에 잠시 정신이 팔리기 시작할 무렵, 무엇인가에 몸이 이끌리듯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발이 땅에 닿자, 종환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크고 넓은 집들과 농장이 보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물어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똥똥하다 못해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애드벌룬처럼 보였습니다. 종환이는 이 곳에서는 오히려 흠뻑이었습니다. 이 곳사람들은 너무 똥똥해서 걸어다닐 수조차 없었습니다. 노란색 똥보, 파란색 똥보, 빨간색 똥보..... 형형 색색의 똥보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잠자기, 먹기 등등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종환이가 이 곳이 어디냐고 노란 색 똥보에게 물어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노란 색 똥보가 소리쳤습니다.

“이 곳은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너는 우리랑 달라.”

노란 색 똥보의 음성이 확성기를 대고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웅웅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노란 똥보의 몸통에서 갑자기 기다란 팔이 빠져나오더니 로봇처럼 종환이를 번쩍 들어서 던져 버렸습니다.

휘~익.

거대한 힘의 소용돌이에 떠밀려 종환이의 몸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또 다시 겁에 질린 종환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참을 하늘 위로 뚱뚱 떠다니다가 종환이는 또 다른 마을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자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 마을에서는 모두들 젓가락처럼 가느다란 몸을 가지고 휘청 휘청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라도 세계 불어오면 금방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종환이는 용기를 내어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파란색 흙썩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가요? 지구가 맞나요?”

“아니 너는 누구냐?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는 우리랑 달라.” 라고 파란색 흙썩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흙썩이 무리가 있는 곳을 향해 뛰었습니다. 종환이는 다급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모습이 다르면 같이 이야기도 하면 안되나요? 내가 당신들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물건을 빼앗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난 그냥 집에 가는 방법을 물어보려고 한 것 뿐인데.....”

종환이는 아무도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파란색 흙썩이는 그들 무리가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가 뭐라고 속닥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흙썩이들이 커다란 하얀 천을 들고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흙썩이들은 말도 없이 종환이의 몸에 천을 칭칭 휘감아서 공중으로 휙 내던져 버렸습니다.

풍선 종환이는 또다시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종환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떠돌아 다닐 생각을 하니 서글퍼졌습니다. 순간, 엄마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반 친구들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똥보라고 놀렸던 지환이 얼굴, 멀치라고 놀렸던 서연이 얼굴, 오줌싸개라고 놀렸던

미숙이 얼굴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영이 엄마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종환이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친구들을 놀린 벌을 받는 것만 같아서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집에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을 절대 놀리지 않고 다 같이 사이좋게 놀아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눈물이 풍선을 적시고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몸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종환이는 또다시 낯선 마을에 도착할까봐 겁이나서 눈을 꼬옥 감고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몸을 흔들어대는 것만 같습니다. 종환이는 용기를 내어 눈을 조금 떠 보았습니다.

“종환아, 너 오늘 학교 안가니?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낯익은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찌렁찌렁 울립니다.

“오늘도 지각하겠네, 얼른 안 일어나!”

눈을 떠보니 종환이 방 침대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잔소리 대마왕의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휴우~’종환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잔소리 대마왕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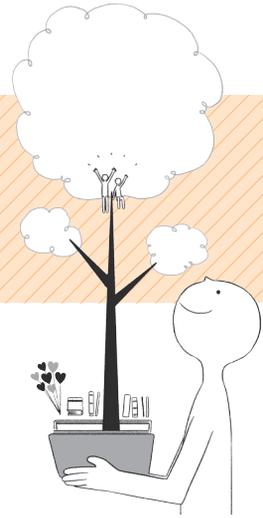
“엄마 나 일어났어요”

종환이는 꿈이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등교하는 길에 가영이를 만나면 웃으면서 먼저 말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가영아, 너 풍선 좋아하니? 우리 같이 풍선 가지고 놀지 않을래?”



희곡



심사평

● 많은 작품들이 희곡의 특성을 모르고 쓰고 있다. TV드라마나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장면 전환이 많고 상황을 묘사, 설명하려는 작품이 많았다.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다. 따라서 설명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야 한다. 그 이야기는 절제되어야 하고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에 응모된 작품들은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다문화 가정, 세대 간의 갈등 등 소재가 다양했다.

교원부문에는 4작품이 응모했으나 구성이 너무 작위적이거나 영화적인 장면전환 등 희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작품이 많았다.

〈단식〉은 현대인의 외로움을 단식이라는 소재로 풀어가면서 먹는 것과 욕망 사이의 관계를 단선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같이 बैठ해서 음식을 먹어줄 사람이 없어 굶어죽는다는 설정이 다소 엉뚱하긴 하지만 이기주의적인 인간관계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비교원 부문에는 모두 13편이 응모되었으나, 본선에 논의된 작품은 〈곰치국 인생〉, 〈아무도 모른다〉 두 편이었다. 이들은 갈등과 반전이라는 희곡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 작품이다.



〈곰치국 인생〉은 부친의 잘못으로 인한 한 가정의 과거의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병든 아내를 두고 여인에 미쳐 가출한 부친이 아내가 죽고서 빈털터리로 돌아온다. 처녀가 모시는 모친의 제삿날 장녀와 식구들이 모여들면서 장녀와 부친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결국 아버지를 용서하며 화해를 한다는 내용인데 화해의 동기가 약하다. 그러나 반전이 갈등 해소를 이루는 희곡의 기본에 충실한 작품이다.

〈아무도 모른다〉는 공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빛을 떠안아야 했던 주인공이 공금횡령과 실연으로 실직을 하게 되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 때문 자살하려고 허름한 여관방에 숨어들게 된다. 그런데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려는 순간 역대의 살인마가 신분을 숨기고 우연히 주인공의 방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일이 꼬이게 되고 오히려 타살될 위기에 놓인다. 그러나 전직 경찰인 주인공이 자신을 죽이려는 살인마를 사살하게 되면서 상황이 재역전된다. 인간사 세용지마라는 속담을 연상하게 하는 이 작품은 사건이 반전을 거듭하며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극적 구성이 탄탄한 작품이다.

심사위원 : 강추자, 강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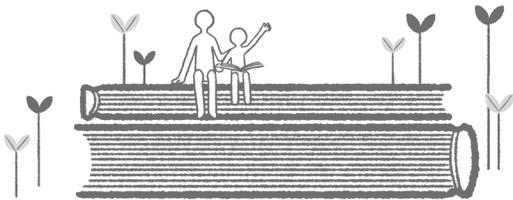


희곡

금상 아무도 모른다. - 경상북도 영덕군 김두성

등상 곰치국 인생 - 이천시보건소 음유나

입선 단식 - 포천초등학교 우혜선





경상북도 영덕군
김 두 성



수상소감

제목처럼 작년 겨울, 실패한 영화시나리오작가 지망생에서 공무원이 되었고, 또 영화시나리오가 아닌 희곡으로 과분한 상을 받았다.

다시 말해 운이 좋았고, 반대로 말하자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더욱 정진해 아쉬움이 덜 남는 글을 쓰도록 하겠다.

아무도 모른다.

등장인물

태규 (20대 후반 / 남)

낮선 방문자 (20대 후반 / 남)

무대

시종일관, 허름한 여관방.

여관방은 관객석 정면으로 보이는 출입문을 열면 바로 방과 이어지는 구조.

#1. 여관방 (밤)

암전 상태에서 들려오는 태규의 목소리.

태규 (소리) 나는 오늘.... 휴.... 죽을 것이다....

조명이 밝아지면 허름한 여관방, 그리고 그 방에 놓인 침대 아래에 앉은 태규.

태규 앞에는 반쯤 비운 소주병과 수면제 한통이 놓여 있다.

이어지는 태규의 마음속 소리.

태규 (소리) 그래, 나는 오늘.... 아무튼 오늘 밤 안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는.... TV를 켜 놓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끄고 죽을 것인지를 고민 중이다.... (한잔 마시고) 훗! 오늘 밤 안에 뒤흔 다는 놈이 그게 웬 고민이냐고....? 왜냐하면.... 그냥, 마지막까지 병신처럼 뒤흔 싫거든.... 생각해 보자고.... 만약, 내일 정오에 퇴실을 독촉하는 전화가 올리고.... 그리고 대략 1시간 안에 청소를 하러 들어온 아줌마가.... 눈깔을 까뒤집은 채 입엔 거품을 물고.... 거기다 더 병신 같게도 새우 마냥 모로 웅크린 채 다이한 나를 발견했어.... 그런데.... 하필 그때 TV에서 백종원이 싱싱한 새우를 고르는 노하우에 대해 피력을 하고 있던 말이야.... 그럼, 아마 난 평생 그 아줌마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맛탱이가 간 새우썸으로 기억될 테지.... 늘 내가 듣던.... 야이! 이 인간아~ 의 어간에 숨은 진짜 의미인 잉여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채.... 거기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청소 아줌마.... 이하 그녀는.... 그 후로 아무 죄도 없는 새우를 혐오하게 될 게 분명해.... 그래서... 아마 그녀는 아무 죄도 없는 그 새우가 들어간.... 예를 들자면, 새우초밥, 새우버거, 새우튀김, 깡소새우.... 그리고 새우깡까지.... 아무튼 그 어떤 맛있는 새우요리를 마주하더라도 손에 대지 않겠지.... 물론, 그때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넌 나를 강제로 소환해, 옆에다 세워두고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사이) 그런데 반대로! 만약 내일 정오에 퇴실을 독촉하는 전화가 올린 후, 그녀가 대략 1시간 안으로 나를 발견했을 때.... TV에서 흘러 나오는 슬픈 발라드가.... (뜬금없이 침대에 기대더니 연예인 화보에서 봄직한 허세 가득 한 폼을 잡곤) 대략 이런 자세

로 쓸쓸하게 다이한 내 모습 위로 흐른다면.... 최소한 한심한 갑각류쯤으로 날 기억하진 않겠지.... 그리고.... 그 마지막 목격담이.... 최소한 지가 인간이라면 내 장례식을 찾아 올 주희에게 전달된다면.... 그래도, 헤어지던 그날 내게 썼던 마지막 단어인.... 개쩌질이로는 날 기억하진 않겠지.... (사이) 그나저나 좀 힘들다, 이 자세.... (다시 원래대로 편하게 앉더니) 아무튼 이제.... (약통을 들더니) 난 이 수면제 한 통을 입안에 다 털어놓고, TV를 켜둔 채 이 지긋지긋한 세상과 작별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어진다) 아마, 지금 내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면.... 내가 주희와 이별한 이유에 대해, 혹은 최소한 내가 죽으려는 이유에 대해선 궁금해 할지도 모르지.... 죽기 전엔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그 모두 중 누군가라도.... 하지만 내 앞엔 늘 그랬듯,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따윈 들어줄 누군가가 없다.... 그래서 난 이제 스스로를 장렬히 연소시키려 한다.... (비장한 각오로 약병을 열더니, 손바닥 위에 수면제 한 움큼을 쏟는 태규) 잘 있어라.... (울먹이듯) 이 시발 놈들아....!

그리고 입 속으로 수면제를 털고, 컵에 따라놓은 물을 마시려는 순간, 옆방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교성.

그러자 태규는 동작을 멈춘다.

태규 (소리) 나는 지금.... 옆방 남자의 능력을 확인하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죽을 것인지를 고민 중....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남자.

태규 (소리) 이 새끼.... 이려고도 따듯한 물로 씻겠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물도 아까운 새.... (자신의 말에 손에 들린 채 방치된 물컵을 쳐다보더니) 아, 물.... 그래, 웬지 옆방 상황에 비해 숨이 너무 막힌다 싶었다.... 아무튼, 이제 정말 가는 거다.... 진짜 잘 있어라.... 개새끼들아....!

그러곤 물을 들이기려는 태규. 하지만 그때, 벌컥! 문이 열리며 들어서는 잘생긴 외모의 낯선 남자. 그 소리에 태규는 반사적으로 물컵을 내동댕이치곤 놀란 눈으로 그 미남자(이하 미남)를 쳐다본다.

미남 (태규를 쳐다보며 의외로 태연한 태도로) 어.... 이 방이 아니네....

그렇게 다시 문을 닫고 나가는 미남.

태규 (소리) 옆방 새끼가? 속으로 욕했는데....

하지만 태규가 자세를 고쳐 앉기도 전에 다시 노크소리가 들린다.
다시 문이 열리면.

미남 아, 안녕하세요.... (여전히 말없이 쳐다보는 태규) 다른 게 아니라....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망설이다) 그런데 왜 문을 안 잠그셨어요?

태규 (입 안 가득 약을 문채) 네? (아!)

그제야 입 안 가득 든 수면제를 의식한 듯 바닥에 놓여있는 검정봉지에 약을 뱉어놓는 태규. 이어 수면제가 담긴 병도 검정봉지 안에 감춘다. 그리곤.

태규 저 혹시.... 직원이세요?

미남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제.... 그냥, 제가 호기심이 좀 많아서요.

태규 네??

미남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문을 닫고 돌아서는 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험한데 저분은 왜 문을 안 잠갔을까?

태규

미남 그래서 물어보려니, 왠지 미친 사이코같고.... 그렇다고 안 물어보자니....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병적으로....

태규 (어이를 잃은) 그래요....? (소리) 이 상황에선 누구나 이 한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미.친.새.끼....

미남 (남의 본심도 모르고) 죄송하지만, 혹시 깜빡하고 안 잠그신 건가요?

태규 아니요, 그냥 굳이 잠글 필요가 없어서요....

미남 왜요?

태규 (귀찮기 시작하는) 휴.... 어차피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요.

미남 네? (방을 한번 둘러보더니) 에이, 그래도 가져갈 게 하나도

없을까 봐요.... 제일 소중한 목숨도 있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TV만 켜 봐도 금방 아시잖아요.... 아니지, 모를 수도 있지.... 혹시 저 위쪽에서 내려오신 건 아니죠? ㅎㅎㅎ.... (분위기 싸늘하니) 에이, 농담이에요, 농담.... 저 위에.... 그러니까, 연변.... 그나저나 혼자 뭐하고 계신 거예요?

태규 (소리) 휴.... 나는 지금... 이 새끼를 죽이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혼자 죽을 것이지를 고민 중이다.... (미남에게) 그걸 왜 궁금해 하세요?

미남 아니 그냥.... 제가 원래, 좀 호기심이 많아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한잔 하실래요? 보니까 혼술 중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잖아요....

태규 (헛웃음을 내뱉더니) 인연이요? 실례 혹은 결례라는 말은 안들어보셨나 보죠? 혹시.... 그쪽이 저 위쪽에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저 위, 몽골대평원에서 조카 붕붕카타고....

미남 (머쓱한 웃음) 후후, 듣고 보니 제가 좀 그랬네요.... 전 단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쪽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아 보이고.... 아무튼.... 진심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꾸벅 인사하곤 문을 닫는 미남.

태규 (다시 헛웃음을 내뱉곤 혼잣말로) 나보다 병신 같은 새끼....

그리곤 수면제를 뺏어낸 김정비닐봉투 안을 들여다보는 태규.

태규 에이.....!

하지만 금세, 태규는 수면제가 아닌 다른 생각에 잠시 잠겨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거울로 향한다.

태규 (거울을 보다가 / 소리) 어떻게 알았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걸.... 누가 봐도 똑똑해 보이는 놈들도 몰랐던, 혹은 알고도 모른 척했던 내 속마음을.... 누가 봐도 미친 저 새끼가.... 그나저나, 갑자기 방금 그, 나보다 병신 같은 새끼가 보고 싶어진다.... 이유도 모르게....

하는데 다시 한 번 들려오는 노크소리.

그 소리에 태규가 출입문을 쳐다보면, 이내 문이 열리며 재등장하는 미남.

미남 (서있는 태규를 발견하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망설이다) 그런데 그게....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 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려가다 갑자기.... 지금쯤이면 선생님이 문을 잠갔을지, 아니면 지금도 안 잠갔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무튼,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합니다....

태규 (미남을 보며 / 소리)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 상대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3초 이상 머뭇거리면, 최소한 부정은 아니라고.... (이어 미남에게)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 뭐

하나만 물어 볼게요.... (잠시 뜬을 들이다) 살면서.... 미친.... 아
니, 그냥.... 이상하단 말 많이 들어봤죠?

미남 제가요? 그게.... (몇 초 뒤) 그다지....

태규 (소리) 정확히 5.5초 걸렸다.... (다시 미남에게) 그럼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그쪽이 만약에 자살을 한다고 쳐요....

미남 제가요? 저는 그것만큼은 할 마음이 없는데요.

태규 휴....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그랬을 때.... TV를 꺼놓고 죽을 거
예요? 켜놓고 죽을 거예요?

미남 (잠시 생각하다) 켜놓고요....

태규 왜요?

미남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궁금한 건 진짜~ 못 참거든
요.... 그래서 가령, 제가 드라마를 보다 TV를 끄고 약을 먹었던
말이에요.... 그럼.... 방금까지 봤던 드라마의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해서 정말 정말 불행하게 죽을 것 같거든요....

태규 (소리) 역시 내 눈이 정확했다.... (미남에게) 그래서 TV를 켜
놓고 죽을 거란 거죠?

미남 만약 죽을 거 라면요....

태규 (그 말에) 일단, 들어오세요.... (그리곤 아까까지 앉아 있던 자리
로 향한다.)

미남 (그 사이 반색하며) 네. (신발을 벗으며) 그런데 술을 좀 더 사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자리에 앉았던 태규는 다시 일어나 출입문과 마찬가지로 관객석
정면으로 보이는 냉장고로 향한다.

태규가 냉장고를 열면, 냉장고 문에 달린 수납공간까지 가득 채워진 소주병.

태규 참이슬? 처음처럼?

미남 저, 혹시.... 참이슬이랑 처음처럼을 섞어서 드셔보실 생각은 없으시죠?

태규 (소리) 역시 내 눈이 정확했다.... 처음처럼.... 일관성 있게 미친 놈이었다.... (초연히 미남에게) 뭐, 그럼시다....

그리곤 냉장고에서 참이슬과 처음처럼 한 병씩을 꺼내곤 냉장고 문을 닫는 태규.

태규가 냉장고 문을 탁! 하고 닫으면 무대는 암전된다.

그리고 이내, 그 위로 들려오는 앵커의 목소리.

앵커 (목소리) 다음 소식은 속보입니다.... 경기 서남부 일대를 돌며 부녀자들을 같은 수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해, 동일범일거라 추정되던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의 DNA가 오늘 새벽, 12번째 희생자의 손톱 밑에서 채취돼 국과수에서 긴급 분석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방금 국과수 긴급수사보고를 통해 그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이름은 안광룡으로 나이는 28세, (미남을 떠올리게도) 신장 177센티미터에 호리호리한 체격과 호남형의 얼굴을 가진 중국 길림성 출신의 중국동포로 밝혀졌으며, 주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팔꿈치 아래로 정체모를 한자 문신을 빼곡히 새기고 있으며, 조선족 말씨는 거의 사용하지 않

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말소리 잦아들며) 한편 경찰은 국
과수 발표와 더불어 연쇄 살인 용의자 안광룡의 몽타주를 언론을
통해 즉시 공개했으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이내, 째~ 하고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
가 들려오면, 다시 무대의 조명이 밝아지며 여관방에 마주 앉은 태규와 미
남이 나타난다.

두 사람 사이엔 벌써 비어낸 소주병 하나가 보이고.... 그러니까 소주 2병
째인 두 사람은 이제 살짝 취기가 오르려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사뭇 진지해 보이는 두 사람.

미남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태규 (신기한 듯) 어떻게 알았어요?

미남 그냥, 대충 봐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태규 그래요?

미남 네.... 그리고 제가 좀 이런 쪽이랑 친숙해서....

태규 그게 무슨....?

미남 아! 정확히는 자살은 아니고.... 죽음이랑요.

태규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세요?

미남 (대답을 생각하다 말을 돌린다.) 그런데.... (조심스레) 왜 스
스로 목숨을 끊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태규 저요? (사이) 아무도 그 질문을 해주지 않아서요.... 왜 죽으려고
하는지..., 반대로 왜 살려고 하는지.... 어차피 뒤질 건데 존나 추
상적이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참, 제가 뭐하는.... 아

니지, 뭘 했던 사람으로 보이세요?

미남 글썽요.... 손을 보니까 험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흑시.... 나랏일을 하시던 분이신가?

태규 (피식 웃더니) 내 생각이 틀렸네.... 푼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끼까지 있으시네.... 후후.... 맞아요, 공무원.... 정확히는 불과 사흘 전 까지만 해도 공무원.... 그리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있었던 공무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지? 후후.... 결론은.... 뭐, 돈이네.... 돈....

미남 돈이요?

태규 네.... 시험에 합격하기 전부터 집에 빚이 좀 있었어요.... 나랑 둘이 살던 아버지가 벌려놓은.... 그러다 시험에 합격하고.... 아버지 나를 믿은 건지, 아니면 나아진 상황을 믿은 건지.... 제 명의로 빚을 더 내서, 생전 경험 한 번 해본 적 없는 업종으로 또 다른 장사를 시작하셨죠.... 뭐, 그러다 얼마안가 가게는 망하고, 또 뭘 시발, 아침드라마같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느닷없이 빚을 떠안고, 매달 이자나 메꾸며 꾸역꾸역 살다, 결국 이렇게 무너진 거죠....

미남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셨나보네요?

태규 후후.... 단칸방에서 애 셋을 가운데 끼고 자다가도 넷째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상황이 힘드니까, 외로움은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 연애에 대한 갈증이 오히려 더 하더라고요.

미남 그래서 삶에 대한 갈증도 풀리셨나요?

태규 다들 그렇듯,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죠, 뭐.... 그래도 행복했던 순간이 훨씬 많았던 건 확실했던 것 같아요.

미남 그런데 어찌다?

태규 그게.... 그것도 결론은 돈이네요. 돈.... 한 1년 반 정도를 만나다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시기가 찾아왔었죠. 그리고 그제야 내 상황을 안 그 친구한테도 시험이 찾아왔었고.... 그렇게 이제는 이상보다 현실을 더 많이 생각해야할 상황이 찾아오니 뭔가 늘 불안했어요.... 그런 그 친구를 지켜보는 나도 그랬고.... 그렇게 뭐, 또 다시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다.... 내 인내심이 바닥을 칠 무렵 기회가 찾아왔어요.... 나를 파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후후....

미남 (태규가 한잔 마시고 다시 혼자 잔을 채우는 사이) 어떤....?

태규 뭐 솔직히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설명까지 하고 싶진 않고.... 그것도 인생 마지막 날.... 후후.... 그냥 간단히 공금횡령이에요.... 그게 사흘 전에 완전히 뽀록나서 결국 이렇게 됐고....

미남 그랬군요....

태규 후후, 그렇게 동정 섞인 표정까진 지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회도 됐으니까....

미남 ?

태규 그 친구한테,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고백하니.... 정확히 보름 만에 제 곁을 떠나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설명했는데, 시발.... 그리고 그걸 계기로 주변을 정리해보니 제 주변엔 진짜라곤 무엇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미남 음.... 그런데 그분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죠.

태규 그런가요? 그래도 똑같이 날 사랑한다고 말했던 내 어머니였음 절대 절 버리진 않았을 텐데요.

미남 여자 친구는 어머니가 아니니까요.

태규 후후.... 그럼 어머니가 아닌 여자한테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길 바란 내가 이기적인 거네요.

미남 뭐,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이 없단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또 누군가를 만나는 거고.

태규 (잠시 생각하더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네.... 그리고 보니, 나도 그랬었네.... 후후.... 그걸 죽는 날 확실히 깨닫고 가네, 덕분에....

그리곤 다시 한잔 마시는 태규.

미남 (잔을 내려놓으면) 그런데 정말 오늘 죽으실 거예요?

태규 그러려고요.... 아니 그래야죠.... 왜요? 말리고 싶으세요?

미남 아니요.... 말린다면 안 죽으실 건가요?

태규 (단호히) 아니요....

미남 그러니까요.... 그래도 최악은 아니네요.

태규 뭐가요?

미남 자기 목숨을 스스로 결정짓는다는 게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서 남이 결정짓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물어본 거였어요. 왜 문을 안 잠갔냐고....

태규 후후.... 제가 그렇게 약해 보였나요? 목숨을 남이 결정지을 만큼 약하진 않은데....

미남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강하

다고 안 당하진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후후....

태규 (그 말에 잠시 생각하다) 마치 누군가의 목숨을 결정지어 본 사람 처럼 말씀하시네....

미남 아, 그렇게 들렸나요? 그렇다면 이거, 본의 아니게 심장 떨리게 만 들었겠네....

태규 후후....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요....

미남 그래요? 참, 여관에 들어온 지는 며칠이나 됐어요?

태규 어떻게 알았어요, 며칠 된 걸?

미남 신발 옆에 사용한 수건이 2장 있더라고요.... 화장대엔 안 쓴 수건 이 4장이나 있는데.... 최소한 어제 투숙을 했고, 오늘 수부실에 내려가서 수건을 가지고 왔단 뜻이죠.

태규 눈썰미가 좋으시네.... 맞아요, 그저께 저녁에 들어온 거....

미남 그럼 전화기도 이미 꺼졌겠네요.... 보니까, 방 안에 충전기도 안 보이던데....

태규 후후.... 탐정아저씨네....

미남 후후.... 탐정아저씨 좋네요. 뭔가 느낌이.... 그럼 TV도 안 틀어 놓고 계속 혼자 술만 드신 거예요?

태규 네.... 어차피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 시끄럽기만 하고....

미남 그럼 안광룡이 소식도 못 들으셨겠네요....

태규 누구요?

미남 아,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사건 범인이요....

태규 (!) 그 새끼 잡혔어요??

미남 아니요, 아직요. 그냥 오늘 오전에 신원이 밝혀졌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28살에 중국동포 안광룡이라고....

태규 (힘오스러운 표정) 조선족이래요?

미남 네....

태규 시발, 중국동포는 니미.... 그 새끼 내가 잡았으면 그 새끼가
 뒤지고 내가 사는 건데.... 하긴 시발, 잡아도 형 집행을 안 하니,
 둘 다 살겠네.... 참, 아시죠? 10번째 희생잔가? 그 유가족이 현
 상금 3억을 내건 거?

미남 그랬나요?

태규 모르셨구나.... 10번째 희생잔가 그 여학생 할머니가 현상금으로
 3억을 내걸었잖아요.... 사는 집을 팔면 3억 5천쯤 나올 텐데 그
 중에 3억을 내놓겠다고.... 마음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아무
 튄 그 개새끼 뒤지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태어나질 말았어
 야할 새끼보다 먼저 뒤지네... 후후....

미남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시죠, 왜?

태규 네? 뭘?

미남 안광룡이 잡는 거요....

태규 (장난하나?) 후후.... 숨어도 벌써 어딘가로 숨었을 텐데요? 거기
 다 조선족 새끼면 벌써 출국했을지도 모르고....

미남 그럴까요? 저는 왠지 이 근방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여
 관 안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순간, 표정이 굳는 태규) 아니지,
 혹시 저 침대 밑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

태규 후후.... 이 아저씨 또 그러시네....

미남 뭘요?

태규 왜요, 또 제 심장이 벌렁거리게 만들고 싶으세요? 혹시 그쪽이 누
 구? 안광룡이? 아무튼 그 개새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 후후.... 내 생각이 또 한 번 틀렸네.... 뜯기에 신끼만 있으신 게 아니네.... 장난기까지 있으시네....

미남 후후.... 그렇게 보이시나요? 하긴 제가 장난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뜯금없이 바지를 걷으면 다리에는 손톱으로 핏자국 같은 깊게 패인 상처) 이거 보이시죠? 장난을 좀 심하게 쳤더니 이렇게 됐네요....

미남의 행동에 드디어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태규.

태규 무슨 상처예요?

미남 이거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하지? 아, 그거부터 얘기해 드리면 되겠네.... 제 취미가 사냥이거든요.... 웃긴 게, 어릴 땐 지렁이 한 마리도 못 죽였는데.... 참, 지렁이는 못 죽인 게 아니라 안 죽인 거지, 흐흐.... (한잔 마시고 잔을 채우며) 제가 왜 지렁이는 안 죽인 줄 아세요? 밟으면 꿈틀하는 게 꼭 나를 닮았거든요... 흐흐...

태규 (기분 극도로 나빠진) 그래서 그게 무슨 상처냐고요?

미남 이거 영 재미가 없네.... 그럼 제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부터? 아! (잔을 들더니) 그 전에 한잔하시죠....

태규 아니요, 전 됐어요....

미남 흐흐.... 아깐 혼자서도 잘 드시더니....
참, 방금 질문을 하셨지.... 이게 무슨 상처냐고....
궁금하죠? 너무너무?

태규

미남 정말 궁금한 표정이시네.... 그런데 그걸 알아야 해요. 궁금한 만큼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세상은 얻고 싶은 만큼 꼭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좀 할게요.... (튼금없이)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 하는 줄 아세요?

태규

미남 후후.... (사이) 확실히 안 밟아서 그래요, 확실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지렁이가 꿈틀거리지도 못할 만큼 확실히 밟아라.... 그게 아니라! 그럴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밟을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왜? 후환이 따를 거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아마 개.... 그러니까 안광룡이도 그런 케이스일지도 모르죠.... 밟히다 밟히다 괴물이 되어버린 지렁이.... 안 그래요?

태규 좋아, 알았으니까.... 이제 대답해 봐요.... 그 상처가 뭔지....

미남 후후.... 이 아저씨도 정말 남의 말을 잘 안 들으시네.... 불과 1시간 전에, 본인 입으로 아무도 자신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아서 죽으려고 한다고 말해놓고선....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얻고 싶은 만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질문을 좀 할 거라고.... 결론은 난 한 번도 질문이 하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실까.... 점점 기분이 더러워지게.... 후후.... 아, 방금 한말은 그냥 혼자 한 말이니까 꽤넘치 마세요.... 뭐, 그게 가능할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우리 공무원 선생님의 지적능력.... 아니지.... 포용

력을 알아보는 질문.... (셔츠의 왼팔소매를 오른손으로 쥐더니
뜸을 들이며) 자 그럼, 일단 보기부터 보시겠습니다.... 짬!

미남이 셔츠를 걷어 왼쪽 팔뚝을 드러내면 팔뚝엔 알 수 없는 중국어들이
두 글자 혹은 세 글자씩 정렬되어 빼곡히 적혀있다.

미남 자 그럼, 이제 문제 나갑니다.... 여기 적혀 있는 글자는 어떻게 읽
을까요?

태규

미남 에이, 내 이럴 줄 알았어....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다음 문제를
낼 텐데.... 이 글자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 맞춰보라는.... 조
선죽 알기를 아까, 와늘 우쁘게 볼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니까....

태규 (기분 나쁜 표정이 역력한) 그건 또 무슨 말인데?

미남 아, 와늘 우쁘게 보다? 완전 우습게 알다.... 우리고향에서 쓰
는 말이에요....

태규 고향이 어딘데?

미남 고향이요? 처음 만났을 때 맞혔잖아요....

(연변말투로) 자, 웃쪽 지방....

태규

미남 흐흐흐흐....

태규

미남 왜 이렇게 심각해 졌어요? 아무튼 이것으로 질문은 마치고요....
이제 질문이 끝났으니 반대로 내가 대가를 지불할 차례네.... (사
이) 내 다리에 있는 상처가 뭐냐고 물었죠? 거기에 대한 대

답은 저보다 아마 그분들이 더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아나운서 분들....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TV를 한번 틀어보세 요.... 아, 그리고 보자.... 혹시 안주가 모자라서 수부실에 전화를 할 생각이면, 하지마세요.... 수부실에 계신 아주머니.... 아, 그쪽 도 보셨죠? 제가 어디로 좀 보냈거든요.... ㅎㅎㅎㅎ.... 아! 그리고 그쪽 말대로 제가 장난이 좀 심해서, 이 건물에 있는 전화 기도 다 먹통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TV 나 좀 보고계세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올 동안.... 어쩌면 나 보다 그쪽이 더 화장실이 급할지 모르지만.... ㅎㅎㅎㅎ....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미남.

미남이 문을 닫으면, 굳어있던 태규가 재빨리 바닥에 있던 리모콘을 찾아 TV를 켜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앵커의 목소리.

앵커 (목소리) 다음은 연쇄 살인 용의자 안광룡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12번째 희생자의 손톱 아래에서 채취된 DNA를 통해 그 신원이 밝혀진, 지금 보시는 사진 속 인물 안광룡.... 그의 팔뚝에는 정체모를 문신이 빼곡이 새겨져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 문신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김성주 기자입니다.

기자 (목소리) 경기 서남부 일대를 돌며, 노루발.... 일명 빠루를 이용, 부녀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오던 안광룡.... 그의 주변을 조사하던 경찰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그가 경기 서남부 일대를 무대로 극악무도한 살인을 벌인 범인임을 증명할 놀라운 증거사실 하나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수사결과를 브리핑 중인 경찰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경찰 (목소리) 금일 오전, 안광룡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같은 고향출신의 옛 동료의 진술과 안광룡의 자택을 긴급 수색한 결과 채집한 안광룡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을 통해 안광룡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이.... (사이) 희생자들의 이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TV에서 흘러나오는 현장기자의 목소리.

현장기자 (목소리) 주변사람들은 몰랐습니까? 그 문신에 대해?

경찰 (목소리) 네, 주변 사람들 거의가 중국동포라 새겨진 문신을 읽을 줄 알았지만, 아무도 몰랐답니다.... 안광룡이 워낙 특이한 성격이라 전에 사겼던 여자나 가족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사실 그 문신.... 아니 안광룡에 대해 그다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기자 (목소리) 이렇듯 안광룡이 12번째 희생자 뿐 아니라, 나머지 희생자들을 살해한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경찰은 부녀자 12명을 살해한 혐의로 안광룡에 대해 긴급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더불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현상금 5천만원을, 또

한 검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경찰에게 1개급 특진의 포상을 내걸고 안광룡을 검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상 YTN 김성주입니다.

이어 TV에선 간결한 시그널음악에 이어 캐스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캐스터 (목소리) 다음은 이 시각 현재 교통정보입니다....

캐스터의 목소리에 TV를 끄는 태규.

그러곤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근심이 가득해보이기도 하고, 혹은 뭔가 심각히 고민 중인 듯도 한,

속내를 알기 힘든 태규의 표정.

그러다 태규가 뒤에 놓인 침대 끝에 걸쳐둔 점퍼를 챙겨 입으면 이내, 끼

이익~ 기분 나쁜 문소리와 함께 손에 노루발,

일명 빠루를 든 미남이 미소를 지으며 등장한다.

미남 설명은 잘 들으셨어요? ㅎㅎㅎ...

그러곤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한 걸음 옮기는 미남. 태규와의 거리는 불과 두걸음이다.

미남 (!) 어! 외투를 입으셨네.... 왜? 어디 가시게요? 방도 따듯한데 추워서 입었을 리는 없고.... ㅎㅎㅎ.... 용기내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 목숨은 내가 결정하게 될 테니까...

태규 (피식 웃더니) 미친 새끼....

미남 (따라 피식하더니) 뭐? 하긴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똘
질거라고 있는 폼을 다 잡던 인간이었으니, 겁이 안 날 수도 있겠
지.... 그런데 과연 겁이 안 날까? 내 손에 죽은 년들 중에 반이 웃
음을 파는 년들이었거든.... 때론 몸도 팔고.... 그 년들 중에 아
저씨 같은 인간들이 없었을까? 자살을 기도해본? 흐흐.... 그런
데 한명도 빠짐없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엔 그 말을 하더라고.... (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살려 주세요~ 제발~ 흐흐흐
흐.... 결론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도....
아저씨도 그렇잖아.... 이렇게 될 줄 진짜 어떻게 알았겠어? 흐흐
흐흐흐....

태규 (여유 넘치는 표정으로) 할 말 다했나?

미남 어?

바통을 이어받듯,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태규.

태규 할 말 다했냐고.... 뭐, 다했던 털었던 이젠 안 들을 거지만.... 왜?
너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렸으니까.... 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생김과 동시에....

미남 후후.... 무슨 궁금증?

태규 니가 아까 그랬잖아,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
말이 맞네, 어떻게 알았겠어? 내 앞에 현상금만 4억이 걸린 살인
마 새끼가 딱하고 나타날지?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미남 후후후.... 그래서 행운이라고? (앉은 태규 앞에 빠루를 들고 우드

커니 선 자신을 턱으로 가리키며) 지금 이 포지션을 보고도?
너도 참 유별나다.... 살인마를 앞에다 두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태규 후후.... 그렇지.... 내가 유별나지.... 한방에 너무 쉽게 죽을 수
있는방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유별나게 약을 처먹고 뒤흔들려고 했
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미남

태규 내가 그랬잖아, 전. 직. 공무원이었다고.... 그런데 넌 왜 그 생
각은 못했냐? 내가 경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래서.... 내 주머니에 총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뜸
을 들이다) 왜 못한 줄 알아? 넌 너만, 매번 질근질근 밝히
는 지령이라 생각했을 거그든.... 남을 좇도 아닌 좇병신으로 보
고 더 질근질근 짓밟았던 기억은 싹 다 잊어버리고.... (사이) 그
래 니 말이 맞다.... 아무도 모른다.... 너도 날 모르고, 나도 널
모르고.... 너도 널 모르고, 나도 날 모르고.... 물론, 인생도....
후후후....

미남

태규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정적이 흐른다.

하지만 길진 않다. 무거운 정막을 깨고 빠루를 드는 미남과 점퍼 주머니
에서 총을 꺼내는 태규.

탕!!!

태규가 빨랐다. 구멍 난 자신의 가슴을 한번 쳐다보더니 폴짝 쓰러지는
미남.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는 태규.

태규 시발.... 그래 아무도 몰라, 시발....





이천시보건소
음 유 나



수상소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결같이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들에게 가장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품을 좋게 봐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상을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한발짝 한발짝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늘 반짝이는 별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느리고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곰치국 인생

등장인물

박영순 57세

박남석 70대 후반 (영순의 아버지)

강은수 20세 대학생(영순의 딸)

박금난 45세 (영순의 동생)

양서방 47세 (금난의 남편)

때

겨울이 시작 될 무렵

장소

목호항 앞에 작은 식당. 간간히 구색만 갖춘 채 장사하는 곳. 메뉴는 곰치 외에 철에 따라 나오는 매운탕 정도가 전부.

식당 안에는 스티로폼 상자가 쌓여있다. 벽에는 차림표와 시계 붙여있고, 주방을 중심으로 오른편은 작은 방이 달려있고, 왼편은 출입문으로 이용된다. ‘목호 집’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세워져 있다.

파도소리, 갈매기소리가 들려온다.

1.

조명이 밝아지면,
금난이 테이블에서 곰치를 손질하고 있다.

금난 너 참 못생겼다. 무슨 고생을 했길래. 이렇게 생겨먹었니. 네 팔
자나, 내 팔자나. 어이구, 그래도 나는 알지. 원래 못 생길수록
살면서 제 값어치를 더 한다는 걸. 폭 끓어라.

전화기 울린다.

금난 여보세요? (한숨) 그이 아침 일찍 나갔어요. 알긴 뭘 알아요. 그
사람이 자는지 뭘 하는지. 암튼 오늘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양서방 저 사람이!

금난 아이구, 전화기에서 아직도 술 냄새가 펄펄 나네.

양서방 어이 한 사범. 나야. 다들 모였어? 어 나? 어제 경기 복기 좀 하
느라구, 술값내고 싶어서 안달들이 났구만. 오케이! 금방 갈게.

금난 이 늦은 저녁에 또 어디가려고.

양서방 중요한 대국이 있어.

금난 술내기 장기가 대국이야?

양서방 여보, 우리는 이미 세상이라는 장기판 위에 서 있어. 당신의 손
에는 물곰이. 나의 손에는 술잔이 있을 뿐이야.

금난 말이나 못 하면.

양서방 만원만! (양서방 금고에서 만원짜리 가져간다.)

금난 뭐하게?

양서방 대국비.

먼, 앞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금난 헛소리 또 시작이다. 자. 열시까지 와야 돼.

양서방 열시? 왜? 오늘 무슨 날이야?

금난 정신이 장기판에 박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까먹지?

양서방 무슨 날인데 예민하게 굴어.

금난 우리 엄마 제삿날이잖아.

양서방 맞다! 야, 일 년 정말 빠르네. (사이) 근데 또 우리 집에서 지내?

금난 몇 번을 얘기해. 언니 제사 지낼 형편 안 된다구.

양서방 하긴 내가 형님이라도 제사 지내기 좀 그렇겠다.

금난 괜히 또 언니 앞에서 주책 떨지 말고 입조심 해.

양서방 알았어. (사이) 장인어른 요새 통 연락이 없으시네.

금난 ...

양서방 다녀 올게.

금난 열시 전에 와야 돼!

양서방 퇴장

금난 언니 올 때가 됐는데.

금난 어디론가 전화 한다. 걸번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금난 없는 돈에 할부전화 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창문을 내다본다.

금난 날은 또 왜이래. 이 빗속에 어디 계신거야.
(냄비 끓는 소리)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영순 등장 손에 오늘은 쉽니다. 표지판 들려있다.

영순 금난아.

금난 언니!

영순 왜 가게는 또 쉬어.

금난 그냥

영순 돈은 언제 모을래. 쥐꼬리만한 가게.

금난 뭘 이렇게 많이 싸왔어.

영순 상에 올릴 것 좀 챙겨왔어. 양서방은?

금난 나갔어. 그 인간이 여기 가만히 붙어있겠어.

영순 너도 참 고생이다.

금난 언젠가 정신 차리겠지. 뭘 고기까지 재오고 그래. 형부는 또 못
오신데?

영순 어제 네 형부가 주머니에 돈 좀 찢어주더라.

금난 형부도 같이 오지.

영순 내년엔 꼭 오겠대.

금난 내년, 내년한지가 벌써 몇 년 이유. 형부 얼굴도 가물가물하네.

영순 자. 받아.

금난 영양크림? 웬걸 이렇게 비싼 크림을 사주고 그래.
영순 틈날 때 마다 얼굴에 발라. 보기만해도 꺼실꺼실하다.
금난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언니나 써.
영순 네가 나보다 더 늙어 보인다. 바닷바람을 맞고 살아서 그런가.
금난 언니 이런 거 줄 때마다 사람 속 긁어놓더라. 좋게 주면 좀 좋아?
잘 쓸게. 은수는?
영순 학교 끝나면 버스타고 오겠대.
금난 고 기집애 대학가고 소식이 뚝이야. 연락도 잘 안 받구. 언니, 이
거 한 그릇 먹어봐 오늘 새로 끓인 거야.
영순 안 먹어. (곰치보며) 보기만 해도 질려.
금난 한 수저 떠 봐.

영순, 한 입 떠먹는다.

영순 네가 엄마보다 낫다.
금난 엄마손 맛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수. (사이) 엄마는 하필 이 곰치
국 팔 생각을 다 했나 몰라. 그 땐 누가 물곰 쳐다나 봤어. 다 버
렸지.
영순 먹고 살려면 뭘들 못했겠어.
금난 밥 좀 즐까?
영순 한그릇줘봐. 휴게소에서 우동 먹었는데 또 당기네.
금난 밀가루 음식 갖고 되나,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금난, 주방에서 밥을 퍼 온다.

금난 아버지 다했네. 아버지도 참 희안한 사람이야. 평소엔 술 마시고 와서 엄마 그렇게 구박하다가도 아침에 엄마가 이거 한 그릇 떠오면, 우리마 누라밖에 없다면서 또 얼마나 잘해줬어.

영순, 수저 놓는다.

영순 아버지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너 아버지 얘기 하지 말랬지. 오늘 엄마 제사야. 넌 왜 제사 때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니?

금난 언니.

확 들어간다. 방으로 간다. 사이.

영순 어이구. 이게 사람 사는 방이야.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발이나 땀고 자겠니. 상 펼 자리도 없다. 걸레 어딴어?

금난 그이 들어오면 퍼질러 눕는데 나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수.

영순 살림하는 애가 방에 저 먼지가 다 뭐니.

금난 언니 알잖아. 양서방 먼지 없으면 못 자. 먼지가 이불이고 요야.

영순 말이라고 참.

금난 어제도 잔뜩 취해서는 새벽에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 웬수야, 웬수.

영순, 사진 갖고 방에서 나와 닦는다.

영순 넌 저런데다 엄마 사진을 두고 싶니?(사이) 이게 어디 사십대야.
 칠십 할머니지. 주름 봐. 자글자글 한 게.

금난 방에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도 어디 있을텐데.

영순 (사이) 너 진짜 왜 그래. 오늘따라.

영순, 방으로 들어간다. 주방에 전화가 울린다.

금난 (작은 소리로)여보세요. 아버지? 그 동안 어디 계셨어요? (사이)
 다리는 좀 어떠세요? (사이) 터미널이요? 오늘은 안 돼. 지금 언
 니 와 있어.

영순이 나온다. 전화 끊는 금난.

영순 (주방으로 가며) 제기 그릇 어딴어?

금난 장롱 위에 있는데 못 봤어? (금난 들어가면서)언니, 오느라 피곤
 한데 앉아서 좀 쉬어. 내가 할게.

영순 고생은 무슨. (사이) 큰딸이 되서 엄마 제사상 동생한테 맡겨 놓
 구 맘이 편하겠니.

금난 언니 엄마만 되유? 내 엄마도 되. (금난, 방으로 들어간다.)

영순 그래. 우리 엄마지. 엄마도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화 온다) 어, 은수야. 어디쯤이야? 일찍 좀 오라니까. 늦지 않
 게 오라니까. 지금 출발해서 열시까지 올 수 있겠어?
 그래 알았어.

전화가 올린다.

영순 여보세요? 잠깐만요. (사이) 금난아, 전화왔어.

금난, 나오며

금난 누구한테?

영순 (잠깐 멍칫 하고 다시 가서 받는다) 여보세요?!

암전.

2.

금난 언니.

영순 됐어.

금난 언니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영순 뭐가 미안해!

금난 그만 화 풀어. 편찮으시잖아..

영순 (사이) 아버지 병원엔 얼마동안 있었어?

금난 한 보름 좀 넘게.

영순 병원비는?

금난 그냥 내가...

영순 너 하나도 벅찬데 양서방에 아버지에 줄줄이 너한테 다들 왜그

래?! 다 늙어서 다치긴 왜 다쳐! 자기 몸 하나 관수 못하고 살아?
(앉아서) 너도 참 대단한 위인이다. 그렇게 자꾸 오냐오냐하니깐
너한테 전화하고 손 벌리는 거 아냐!

금난 그럼 어떡해. 새벽에 응급실에 있다고 연락왔는데.

영순 다린 어찌다 부러 지신거야?

금난 몰라. 자세한 얘긴 안하는데 술 먹고 넘어지셨겠지.

영순 너 내가 울면서 엄마 장례 치른 거 알지? 어린 너 옆에 두고, 엄
마 보낼 때 내 심정이 어땠겠니. 너 결혼할 때는 어떻게. 시택에
맡보일까봐, 부모 안계시다고 군소리 하진 않을까, 내 적금 깨서
너 살림살이 구색은 다 맞춰 보냈어. 양서방 속 썩일 때도 매번
붙들어 놓은 게 나야.

금난 알아, 언니(사이)

영순 아는 애가 그래? 그때마다 너 나보고 내가 엄마라면서. 그런데
네가 어떻게 나 몰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아는 데 그럴 수 있
니? 진짜 너한테 섭섭하다, 갈게.

영순, 방에 가서 가방 가지고 나온다. 들어오는 남석과 마주친다.

남석 영순아! (사이) 아깐 많이 놀랐지?

영순, 피한다.

남석 사실 나도 놀랐다. 긴가민가했어.

금난 하여튼 아버지도 사람 놀라게 하는데 뭐 있다니깐.. 내가 나중에

전화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면 어떡해요..

남석 미안하다.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발길이 자꾸 이쪽으로 오게 되더라. (사이)네 엄마제사도 지내고, 네 언니도 보고 싶고 해서.

금난 핸드폰은요?

남석 그거 쓰기도 번거롭해서 내가 뭐 그런 거 쓸 주나 아니.

금난 아버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걱정 되잖아.

밖에서 택시기사가 뽕뽕거리는 소리

금난 누구랑 같이 왔어요?

남석 그게 아니라... 택시를 탔는데, 돈 좀 줘라.

금난 (서둘러 지갑을 꺼내 나가며) 퇴장.

남석 영순아. 몇 년 만이니. 은수는 잘 지내고? 많이 컸겠구나.

영순 은수 잘 못 지내요. 저도 못 지내구요, 은수아빠는 아주 잘 못 지내요. 아버진 잘 지내시죠? 돈도 없으면서 택시까지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잘 지내시는 거 같네요.

(확 돌아서 방으로 들어간다.)

남석 영순아.

금난 등장

금난 아버지, 신경쓰지 마세요. 이건 뭐야?

남석 요즘 정종 값이 왜 이렇게 올랐냐.

금난 다린 좀 어때요?

남석 어 많이 좋아. 철심을 두 개 박았는데 참 희한한 게 이런 곳은 날에는 털그럭 거리는 게 열쇠꾸러미라도 들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두 발 딛고 서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금난 (사이) 병원에서 집으로 간다며.

남석 집으로 갔었지.

금난 근데 연락도 안 돼?

남석 그게 그렇게 됐다. 난 잘 지냈어. 별일 없지?

금난 뭐, 나야 똑같지.

남석 영순이한테 한 번 가 봐. 화 많이 난 거 같은데.

금난 그냥 두세요. 언니 성질 알잖아요.

남석 내가 괜히 왔나 부다.

금난 와 놓고 왜 그런 소릴 해요. (사이) 밥은 요. 국 새로 끓여놨는데.

남석 먹었어. 오다가 따뜻한 설령탕 한 그릇 먹었어. 배불러 죽겠다야.

금난 택시비도 없으면서 설령탕은 무슨.

남석 금난아, 술이나 한 잔 마실 수 있냐?

금난, 소주와 곰치국을 가져온다.

남석 이게 그렇게 좋아요?

금난 그런데 이 집은 다 뭐야?

남석 이삿집 치고는 단출하지. 그 여자 새 남자가 생겼어. (사이) 참 이상한 여자지, 돈도 없고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 뭐가 좋다고,

같이 살 부빌 때는 몰랐는데, 인연이 거기까지 인건지. 그래서 그냥 짐 싸갖고 나왔다.

금난 그럼 잠은 어디서 잤어?

남석 그냥 여기저기. (사이) 요 앞까지도 몇 번 왔었는데 너랑 양서방 눈치 보여서.

금난 아버지, 참 뻔뻔하셔. 마음대로 하세요. 널린 게 손가락이고, 먼지 낀 단칸방. 아버지 하나 더 눕는다고 그 먼지가 사라져. 더 해져.

남석 고맙다.

비가 내린다.

남석 비가 참 시원하게도 내리네.

빗소리 거세지며 불빛 어두워진다.

남석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과거)

영순모 여보, 가지마요. 영순아부지!

남석, 멈칫한다.

금난 아버지! 이 밤에 어디가!

남석 곧 올게.

금난 엄마는! 엄마는 어떡하구요.

남석 금난아, 니네 엄마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다. 이따위 병으로 흔들릴 그런 사람 아니다. 약 먹으면 낳을 거야. 돈은 부쳐줄게.

금난 약이 다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가 옆에 있어 줘야지.

남석 갈 꺼다. 가야 돼.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금난 그 여자지? 아버지가 요즘 만난다는 아줌마.

남석 그래 그 사람이다.

금난 그 여자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릴 두고 가. 가지마요!

남석 한달이면 어땡고, 하루면 어때. 그 사람 밖에 안 보이는데. (사이)

금난 그 여자가 도대체 뭔데?

남석 (사이) 넌 아직 어려서 모를 거다.

금난 뭘 모르는데? 나도 다 알아요.

남석 난 삼십년 넘게 이 묵호항에서 배를 탔어. 매일 바다에 나가서 파도와 싸우고, 배랑 씨름했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배더라. 나는 없고..사람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배였어...

금난 엄마도 삼십년 넘게 아버지 수발들고, 이 집과 씨름하면서 살았어요.

남석 그 사람을 만나면 설레고 행복하다. (사이) 금난아! (사이) 내가 이제 배가 아니라 사람이 됐어. (사이)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 떠나야지. 이 항구에서.
(나가려다 다시 돌아와서)

남석 경대에 있는 돈 내가 다 가져간다.

금난 안돼요, 아버지 그 돈 우리돈 아니야. 언니가 모아 둔 돈이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남석 금난아. 너네 다 키웠잖냐. 너네 키워준 값으로 내가 그 돈 가져 간다고 생각해라.

금난 아버지,

남석 금난아. 미안하다, 이제 바다가 안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

금난 아버지!

남석 금난아. 보내줘. (사이) 나도 좀 살고 싶다. (무릎 꿇고 앉는다)

암전

3.

빛소리 들려오고 영순 무대에 나와 있다. 남석 자리에 앉아 있다.

영순 꿀 좋네요. 꿀 좋아. 딸자식 피 같은 돈 가져갔으면 잘 살아야지. 왜 그 꿀로 나타나요?

남석 너도 참. 니 엄마 성격 고대로 빼 닮았다. 몇 년만에 나타나서 아버지가 술 좀 먹겠다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니 속이 후련해지냐.

영순 (사이) 우리는 그 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나마 코딱지만한 전세방도 빼고 월세방으로 갔어요. 우리 은수는 의료보험 고작 그 몇 만원을 못 내서 폐렴 걸렸을 때도 병원 한 번 못 갔다구요.

금난 언니.

남석 (사이) 할 말이 없다, 내가.

영순 할 말 없으면 들으세요! 은수아빠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했어
요? 언제 생일 한번 건너뛴 적 있어요? 그때마다 보약지어 보냈
어요. 엄마는 또 어땡구! 당신은 아파죽으면서도 아버지 미워하
지 말라고 애원을 하셨는데, 그런 엄마를 버렸잖아요! (사이) 내
가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 아버지 같은 거
없어요.

남석 금난아. 이거 니가 만들었니, 맛 참 좋다.

영순 야, 이 기집애야. 너 이거 엄마 제사상에 올리라고 가져왔지. 겨
우 저 사람 술안주 하라고 줬어?!(영순, 접시 집어던진다.)

금난 언니!

영순 언니라고 부르지도 마. 여기에 다신 오나봐!

영순 퇴장

양서방 등장

양서방 처형 왜 저래?! 아버님! 아버님 다리는 괜찮으세요? 멀쩡하시
네! 우리 아버님 아직 정정 하시다.

금난 하루도 안 빠지고 마시는구나.

남석 니 언니가 화가 단단히 났구나.

금난, 나간다.

남석 양서방, 아직도 바둑 열심히 두나.
양서방 아니요, 요즘은 장기 뒹니다. (술 가져오고)
(분위기 바꾸며) 아버님!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남석 한 잔 받아.
양서방 아이구, 좋죠!

남석, 양서방과 한 잔 마신다.
은수 등장 한다.

은수 으 좃다. 이모부 안녕하세요.
양서방 이게 누구야. 은수야! 방갑다.
은수 아으, 술 냄새.
양서방 네가 그렇게 공부를 못한다며?!

은수 이모부! 못하긴 누가 못해요. 요즘은 다들 스펙이다 뭐다 해서 도서관에서 짱박혀 공부만 하는데 똑같이 해서 제가 어떻게 이겨요. 그래도 주말에 꼬박꼬박 알바해서 제가 쓸 돈은 제가 번다구요.
양서방 그래도 20대니까 좋을때야. 너무 공부공부하면 지겹지. 암. 은수가 잘지 내고 있었네, 장인어른! 손녀 아주 야무지게 키우셨습시다.
은수 장인어른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암진.

4.

양서방, 남석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남석 자네 장기 잘 두나?

양서방 아버님, 장기는 잘 두고 못 두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남석 뭔데?

양서방 외통수 조심하는거요. 자칫하면 모든 길이 막혀서 장이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럼 한방에 무너져요.

남석 피할 곳이 없게 된다고? 남 얘기 같지 않네.

양서방 그래도 장인어른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묘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찾아요. 웬줄 아세요?

남석 왜?

양서방 어렵게만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렵던 답도 단순하고 간단하게 끝날 때도 있거든요.

남석 자네, 말만 들으면 장기도사 같네.

양서방 삼만원 땀다니까요. 만원 가져가서.

남석 잘했네. 우리 금난이가 시집 잘 갔어.

양서방 와. 우리 아버님,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니까요. 어쨌든 잘 오셨어요. 자, 용돈으로 쓰세요!

남석 고맙네!

양서방 아버님, 제가 매일 이만원씩 따다 드릴게요.

남석 말이라도 고마워.(사이)

양서방 나가서 애들 어디있는지 좀 찾아봐. 내가 걱정이 되네.
양서방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양서방 나간다. (빛소리가 더 거칠게 난다.)

남석 나도 참 나쁜 놈이다. 마누라보다 이 해장국 생각이 먼저 나다니.

은수 할아버지, 저도 한잔 주세요.

남석 마실 줄 아냐.

은수 그럼요. 엄마 닮아서 술 잘먹어요. 엄마는 할아버지 닮았다고 하던데. 이모가.

남석 은수야, 네 엄마가 나 어떻게 죽었다냐.

은수 방과제에서 술 먹고 뺏어서 파도에 휩쓸려 갔다구요. (사이) 속상하시죠?

남석 아니다. 그럴 만도 하지. 아버진 요즘 어떠시니, 힘드시지?

은수 다들 힘들죠 뭐.

남석 화물차 요즘 경기도 안 좋다던데.

은수 화물차 그만 둔 지 꽤 됐어요. 회사택시 모세요.

남석 그래?

은수 저 대학 들어갈 때 화물차 팔고, 택시 회사 들어가셨어요.

남석 엄마, 아빠가 고생이 많겠네.

은수 대출 때문에 계속 허리 휘어진다는 말씀만 하세요.

남석 너도 이 할애비가 밍지?

은수 네. 할머니 속을 그렇게 썩이셨다면서요? (두 사람 건배한다) 그런데 안 계신 게 더 미웠어요. 할아버지 오징어 배 타셨다면서요?

남석 됐다. 오징어 배 뿐이겠냐. 배란 배는 다 됐다.
삼십년 동안 배를 됐다.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나간 날을 잊을 수가
없어. 뱃일을 나가서 그물이 미끄러졌는데, 끌어올리기가 싫더
라구, 그대로 냅뒀어. 평생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건 그물 뿐인 것
같은게, 그 순간 멍하니 서서 그냥 그물만 바라보고 있었어. 지긋
지긋한게 그만 쉬고 싶다, 이제 그만 놓자.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은수 그래서요?

남석 그 뒤론 일하고 싶어도 선주들이 날 쓰지 않았지 뭐. 바다에 못나
가구 어시장 뒷골목 전전하며 술이나 마시구 다녔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 진거지. (사이) 왜 그 때 그물을 잡지 않
았을까. 왜 딸 자식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까. 왜 영순 애미가 가
지 말라고 붙잡는 걸 모질게 뿌리치고 뛰쳐나왔을까. 왜 죽을 용
기도 없으면서 육교에서 뛰어내렸을까.

은수 와 할아버지 육교에서 떨어지면 다치기만 하죠. 부질없게 왜그러
셨어요.

남석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못났지 참.

은수 (사이) 그래도 돌아오셨잖아요.

금난과 양서방 등장.

남석 영순이는?

금난 모르겠어. 비도 이렇게 오는 데 어디서 헤매는 건지.

은수 이모, 엄마 정말 간거야?

금난 몰라, 얘.

은수 방에 엄마 짐 다 있던데.

아버지가 나가려고 한다.

은수 할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남석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 네 엄마도 오구, 그래야 네 할머니 제사
도 지내지.

금난 아버지

은수 가지 마세요.

남석 나가려고 한다. 비 맞고 돌아오는 영순과 마주친다.

금난 언니! 이 비 맞고 어디 갔다 와.

영순 ...

은수 엄마, 옷 다 젖었어.

은수, 엄마에게 가서 옷 털어준다.

영순 무슨 시장에 옷가게가 이렇게 일찍 닫니. 아이구, 이 놈의 묵호
바닥. 촌 동네 아니랄까봐.

은수 이게 뭐야.

영순 시간 다 됐어. 뭐하고 있어? 제사들 안 지낼꺼야?

남석 영순아. 잘 있어라. 갈게.

영수 가긴 어딜 가요! 그 꼴로 엄마 앞에서 절 하려고요?!
 아버지가 여기 말고 갈 데가 또 있어요? 우리가 여기 말고 올 데
 가 어딴어요? 뭐해. 아버지 옷 입혀드리지.

은수 할아버지,

남석, 나가려고 한다.

양서방 아 장인어른 .

은수와 양서방 옷 갈아입혀 드리고,
금난은 테이블 치운다. 영순은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고 나온다.
상 옮기는 양서방. 모두 제사 준비 마친다.
남석 상 앞에 서서 절한다.

남석 여보, 마음이 이게 아니었는데 어찌 이리 구질구질하게 당신 앞
 에 나타나는지. 미안하네.

조명 어두워진다.

암전

막





포천초등학교
우혜선



수상소감

‘내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는 노래가사처럼
내속에 있는, 내가 알고 있거나 혹은 나도 모르고 있는 내 모습들이
희곡이라는 프레임으로 글을 쓸 때마다 나타난다.

어떨 땐 진심을 가진 정의로운 주인공으로 때로는 정말 알미운 갈등 원인 제공자
로 나를 대신하여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된다.

이 작품 속의 민혜 또한 내 속에 들어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사회적으로는 별 어려움 없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행복도를 가
능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제대로 맺지 못하고 소외되고 단절되어 가는 현대인
의 모습을 삶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밥 먹는 일에 담아 보았다.

내 속이 아파 밖으로 떼어 놓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민혜 때문에 다시 내가 아프다.

단식

나오는 사람

민혜

언니

형부

친구

남자

옆집

직원

택배

곳

민혜네 집

시대

현대

[제1장]

(민혜 집.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다)

민혜: 올 시간이 넘었는데. 무슨 일이 있나? (전화를 한다) 언니. 어디야?
곧 도착 한다구. 그래. 알았어.

(음식 상 차리는거 마무리하면 언니랑 형부 들어온다)

언니 애는 꼭 이렇게 차질이 막히는 토요일에 집으로 오라 그래요. 요
즈음 누가 집에서 밥 먹는데. 다들 바람 쐬러 갔다 외식하지.

형부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치제가 우리 때문에 시장 봐 오고 음식 만
든다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민혜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형부밖에 없다니까. 왜 형부 같
이 멋진 사람이 이런 불평 투성이인 언니에게 닳았는지 몰라.

형부 그러게 말야. 나도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불가사의한 일이라니
까.

언니 누가 누굴 닳았는데. 당신이 처음부터 마음에 든다고 그 비싼 시
외전화를 바리바리 해 놓고. 내가 이제와서 말인데 정말 내가 좋
아 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다니까. (세 사람 밥을 먹으며 이야기 나
눈다)

민혜 맞아요. 언니가 좋아하던 사람 있었어요. 연극하는 사람이었는데
비전이 없다고 엄마가 얼마나 반대를 했는데요. 언니가 갈등하고
있을 때 그 틈새시장으로 형부가 헨리혜성 같이 나타난거예요.

언니 내가 미쳤지. 그 때 엄마 말을 듣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야 했었는
데. 내 귀를 잘라버리고 싶다.

형부 당신 다행인줄 알아. 그때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마 저 성격
에 결혼 못했을걸.

민혜 프로포즈도 언니가 했다면?

언니 아니 글썄 처음에는 그렇게 연락을 하고 만나자하던 양반이 어느 순간부터는 일이 바쁘다니 시간이 없다느니 이리저리 꿈무늬를 빼잖아.

형부 그게 내 작전이었던가.

언니 작전 좋아하시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뜻미지근한 그 성격 어디 갈까.

민혜 착하잖아.

언니 착한 게 밥 먹여 주냐?

민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대신 언니가 능력 있잖아.

언니 능력은 무슨 능력. 너희 형부 몇 십 년 살 맞대고 살아도 내 생일 물어봐. 나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꼭 내가 외고피고 해야 밥 한 그릇 사준다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사람을 만나 사는지 몰라. 어릴 때 외할머니 집에 가 조그마한 뱀 하나 무서워 밟아 죽인 거 밖에 없는데.

형부 그래. 처제 회사 일은 할 만해? 지금쯤이면 부장 승진 할 때 되지 않았나?

민혜 항상 그렇죠 뭐. 이번에 승진 대상에 끼였다는 말이 들리긴 한데 발표가 나와야 알죠 뭐. 워낙 능력있는 사람들도 많고 후배들도치고 올라오는데 판인테 열어봐야 알아요.

형부 그래도 이때껏 주말도 없이 회사 일에 매달렸던 처제 같은 사람 승진 안시켜 주면 누굴 시켜 줘. 이거 미리 축하주 한 잔 해야 하는 거 아냐? 승진 되거는 바로 나한테 연락해. 내가 멋들어지게 술 한 잔 사줄게.

언니 민혜를 빙자해 당신이 술 마시려는 건 아니고?
 형부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사람 진심을 짓밟아도 되는거야?
 민혜 그만해요. 꼭 내 앞에서 심장 상하게 사랑 싸움 해야 되요?
 형부 (화제를 돌리며) 와, 처제 이 찌게 정말 맛있다. 언니한테 이 비법 좀 알려주라.
 민혜 제가 언니한테 배웠어요.
 언니 이렇다니까. 집에서 매일 먹는 건 생각도 안하고 다른 곳에가 먹기만 먹으면 다 맛있다고 이야기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형부 처제 찌개가 더 맛있으니 그렇지. 아침 밥은 먹고 다녀?
 민혜 예. 습관이 들어 꼭 챙겨 먹어요. 내가 혼자 있다고 굶거나 빵으로 때우고 그러는 줄 아세요.
 형부 당신도 처제 좀 닦아 봐. 이걸 주말엔 아이들이 엄마 밥 좀 쥐가 노래라니까.
 민혜 아이들 돌보랴 직장일 하랴 주말에는 언니도 쉬고 싶겠죠.
 진혜 이봐요. 준대씨. 그래서 당신 이름이 밥준대였어요?
 민혜 밥준대?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혜 무슨 말은 이 사람이 어릴 때 배고프게 살아 친구 집에 가게 되면 꼭 밥 달라고 그래 사람들이 박준대가 아닌 밥준대로 불렀대. 그리고 휴일까지 내가 당신이랑 아이들 밥 챙겨줘야 해. 다른거 먹을 거 얼마든지 있는데 꼭 밥을 먹어야 되냐구?
 형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밥 먹으면서 살아야지.
 언니 매일 밥 타령만 하지 말고 이제 당신도 식성을 바꿔. 길들이기 나름이잖아.

형부 시대는 달라도 사람 체질은 안 바뀝니다요.

민혜 하여튼 두 분 알콩달콩 사는 거 보면 부럽다니까. 어릴 때 언니를 보면 분명 말도 없고 조용했는데 이젠 그때의 내 언니가 맞는지 궁금할 정도로 변해버렸다니까.

언니 내가 이 미련 곰탱이 만나 그래.

민혜 알았어. 형부 때로는 언니가 하자는 대로 해요. 저 주는게 이기는 거예요.

형부 뭐 내가 이때껏 언니 하자는 대로 살았지 내 마음대로 했던 게 어디 있어. 그건 그렇고 처제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없어? 이렇게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처녀를 혼자 살게 놓아 둔다는 건 대한민국 남자들의 수치다.

민혜 맞아요. 음식 잘하지 남자 마음 잘 알아주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혹시 형부 회사에 괜찮은 사람 없어요? 그 지난번 그 총각 말구.

언니 안 그래도 그 친구가 자꾸 네 안부를 물어 온다던데 그렇게 마음 안 들던?

민혜 조건이나 외모는 딱 마음에 들었지. 하지만 난 말이 없는 사람은 싫어. 나도 말이 별로 없어 재미없게 사는데 상대방마저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살아. 그래도 형부 체면 지켜준다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30분은 앉아 있었으니 다행이었지.

형부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먹고 헤어지지. 다들 그만한 총각 찾다고 난리야.

민혜 하긴... 신랑감으로 그 만한 사람 없겠죠. 하지만 전 아니예요. 그래서 이왕 외로운거 혼자 더 깨끗하게 살아보자 결심했죠. 그런데

사실 제가 다른 사람이랑 어울려 사는 게 자신 없어요.

형부 외롭다며?

민혜 외로워도 힘든 거 는 없어요. 외롭다는 생각에 안 빠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언니 하긴. 같이 산다고 다 행복한건 아니지. 무늬만 부부인 사람들 주변에 지천이다.

민혜 참, 언니, 나 단식 한번 해볼까?

언니 네가 뻔 살이 어디있다고?

민혜 꼭 살 빼는거만 목적인가? 건강한 사람도 가끔씩은 위와 장에 휴식을 주어 제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거지. 사실 나 가끔씩 위도 아플 때가 있고 변비도 심하잖아. 생활 단식이라고 일주일 정도 하는 건데 한번 해보고 싶어.

형부 처제 함부로 하지 마. 내 친구 중에 단식 잘 못하다 병원에 실려 갔다고 했잖아.

민혜 에이 그 사람은 단식원에서 시킨대로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되었잖아요. 단식하다가 그 빈속에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하장사라도 병원신세 지겠대.

언니 그래도 생활하면서 한다는게 어디 쉬운 일이야. 특히 너처럼 혼자 사는 애가 단식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쩔려고?

민혜 무슨 일은. 주변 사람들한테 경험담 다 듣고 하는 일이야. 나 혼자 할 것도 아니고 회사 근무하는 우리 팀이랑 하는데 뭐. 서로 정보들 주고 받으면서 재미있을 것 같아. 장도 깨끗해지고 피부도 고와진다고 하니 성공하면 언니도 한번 해봐. 맨날 경수 낳고 기미 끼었다고 투덜거렸잖아.

언니 그래도 선불리 하지 말고 잘 알아보고 해. 아이고 내 참. 그 맛있는 밥을 안먹고 어떻게 살아.

형부 (휴대폰 올린다)네 형님. 예, 우린 내일 가기로 했는데. 지금요? 네, 알았어요. 곧 갈게요(끊는다. (언니에게)집에서 형님이 의논할 일이 있다고 급히 오라는데. (민혜한테)처제 이거 미안해서 어찌나.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도 더 하고 가야 하는데 호출이네. 오늘 저녁 맛있게 잘 먹었어. 가끔 우리 집에도 놀러 오구 그래.

언니 (일어서며) 아주버님은 두 번째 형님도 있는데 매번 왜 당신이야. 뻘하지 뭐. 어머니가 빌린 돈 갚는 문제 때문에 그러지 뭐. 형제가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막내라 부담 없이 결혼했는데 이건 말이나 똑같다니까. 그러면서 아버님 재산 상속은 큰 형님 혼자서 다 가져 가놓고 무슨 급한 일 있으면 꼭 당신을 찾는다니까. 당신도 형제들한테 마음좋게 살지 말어. 자랄 때나 막내지. 한 집의 가장인데도 꼭 머슴 부리듯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한다니까.

민혜 (언니 등을 떠밀며) 빨리 가요. 착한 형부 욕 듣게 하지 말고.

형부 처제 미안해. 건강하고.

민혜 다음에 봐요.

언니 간다.

(민혜 식탁 정리하고 있노라니 전화가 온다.)

민혜 응. 언니랑 형부가 와서 같이 먹고 지금 치우고 있는 중이야. 그래 우리 집에 와라. 밥 줄게.

(조금 후 친구 나타난다.)

친구 신랑이 아이들 데리고 시댁 간다길레 탈출했지. 넌 집 지키미니 있을 것 같아 전화했어.

민혜 잘 왔어. 앉아. (음식을 내어주며) 아이들 잘 크지.

친구 그렇지 뭐.

민혜 먹어.

친구 응. (밥 먹으며) 너 혹시 여고 때 내가 좋아했던 영어 선생님 기억하니. 안경 끼고 키 뽀족하게 크고 말랐던.

민혜 응.

친구 용돈 모아 꼬박꼬박 월요일 마다 선생님 책상위에 장미꽃 갔다 꽃고, 그 선생님 시간에 일부러 늦게 들어가고.

민혜 네가 그랬다는거 전교생이 다 알았잖아.

친구 그래 내 첫사랑. 너 기억력 참 좋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지?

민혜 그 때 넌 나한테 그 선생님 말밖에 안했잖아. 오늘은 배구장에서 배구하는게 멋있더라, 혼자 고개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이 매력적이더라. 그러고는 맨날 편지 갔다주라고, 선물갔다 주라고 나 다시켰잖아.

친구 맨날 만나면 그 선생님 이야기였지.

민혜 그 때 우리 여고 졸업하고 바로 선생님께 연락해 같이 만나지 않았니?

친구 그래. 셋이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공원에도 갔었지.

민혜 그런데 그 공원이 외등도 없는 좀 으스스한 곳이지 않았나.

친구 맞아. 너 기억력 죽인다. 그 때 선생님이 나랑 할 이야기 있다면서

너는 조금 밑에 있고 선생님이랑은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았더랬어.

민혜 맞아. 나 그 때 공원에 아무도 없어 무서워 죽는줄 알았다

친구 너 그때 무슨 일 있었는 줄 아니?

민혜 아니.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길레 내가 널 부른 기억 밖에는.

친구 둘이 벤치에 앉아 이런 저런 학교 다닐 때 이야기 하다가 글썽…

민혜 왜.

친구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나를 좋아했다면서 내 곁으로 바짝 다가 오는거야.

민혜 그래서?

친구 내가 옆을 쳐다보았더니 순간 두 손으로 내 얼굴을 잡더니.

민혜 설마?

친구 그 분위기와 느낌은 여자의 직감으로 알잖아 왜.

민혜 그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좀 그랬긴 하지. 좀 예쁘다 한 아이들은 일 부러 출석부로 실실 건드리고 다니고. 그래서.

친구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피했는데 계속 그러는거야.

민혜 세상에. 소리치지 그랬어.

친구 그 때 당시로는 소리를 친다는 건 상상도 못했지.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으니.

민혜 그래서.

친구 자꾸 그러길레 할 수 없이 한 손으로는 선생님 손을 밀치고 한손으로는 내 입을 막았지. 그러는 와중에 네가 이름을 부르면서 벤치 가까이 오니 그만 두더라.

민혜 맞아. 한참을 기다렸던거 같은데 안오길레 내가 무서워서 불렀어.

친구 난 여고 3년을 그 선생님 하나만 보고 학교 다녔어. 결혼해서 가정

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었지만 뭐가 좋은지 첫눈에 나도 모르게 반해그 선생님한테 잘 보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반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는 졸업하고 이젠 여고생이 아닌 어른으로 부담 없이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전날 밤 한숨도 못자고 만났는데 선생님의 행동은 그랬으니 내가 얼마나 충격 받았겠니.

민혜 그래서 네가 한동안 연락이 안되었구나.

친구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때는 내가 그 선생님을 좋아 한다는 감정가지고 날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 선생님에 대한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 3년의 가슴 앓이가 순간 다 날라 가버린 거였지. 3년의 추억을 고이 간직해 온 내 자신이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 세상이 싫어지더라.

민혜 그랬었구나. 왜지 어느 순간부터 그 선생님 이야기를 안하더라니. 난 그때 이게 이제 정신 차렸구나 생각했었는데.

친구 그 뒤로부터는 세상 남자가 다 똑같다는 생각에 별 마음 주기 싫었어. 어쩌다 결혼을 했긴 했지만.

민혜 뭐, 지금 남편이랑 잘 살고 있으면 되지 뭐.

친구 오래된 일이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길래 무슨 순례 의식같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 하고 털어 버리고 싶었어.

민혜 잘했어. 꿈 많던 여고 시절이었지. 참 그러고 보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다.

친구 뭐 한가지만이겠니? 우리 여고 때 일 많았잖아.

민혜 너한테 한가지 섭섭한게 있었다구.

친구 섭섭했던 일? 무슨 일인데?

민혜 우리 그때 같이 걸 스카우트 했잖아.

친구 그래. 입시가 내일 모레인데도 매일 스카우트 활동하러 다닌다고
담임한테 욕 들어 먹고 그랬지.

민혜 그때 네가 고 3 때 걸스카우트 대장 된 거.

친구 아! 그 일.

민혜 그래. 솔직히 난 네가 그럴 줄 몰랐거든.

친구 무슨 말인데

민혜 솔직히 너도 대장되고 싶어 했지?

친구 아니?

민혜 그럼, 대장으로 아이들이 추천할 때 넌 왜 가만히 있었어?

친구 그게 왜?

민혜 되고 싶지 않았다면 네가 추천을 받을 때 사양 했었어야지. 넌 은
근히 네가 대장되길 바라고 있었던거야.

친구 참내, 나도 몰랐어. 아이들이 나를 뽑을 줄.

민혜 그러니까 네가 마음속에는 대장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
가 걸스카우트 아이들이 싫어하는 다른 친구하고 어울려 다니는 걸
넌 그냥 보고 있었던 거야.

친구 야!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이 친구는 괜찮으니 사귀고 저 친
구는 사귀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해. 너라면 할 수 있겠어?

민혜 넌 솔직히 다 알고 있었잖아. 내가 그 아이들과 다니다 보면 당
연히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싫어해 나도 싫어 할거라는 거.
그래서 넌 그걸 이용해 대장이 되었던 거고.

친구 그래서 어부지리란 말만 들어 있는 쪽지를 보냈니? 내가 그걸 보
고 유치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친했던 친구기에 속이 상했어도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넘어 갔는데. 아직도 네가 그런 걸 가슴에 담고 있는 줄 몰랐다.

민혜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너 또한 이중인격자였고. 난 여고 다닐 때 너 하나 밖에 친구가 없어 항상 너를 원했는데 내가 찾아가면 넌 항상 다른 친구들한테 둘러 싸여 있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냥 돌아온지가 몇 번 인 줄 아니? 그래서 나도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다녔는데 넌 그걸 이용해 네가 바라는 걸 다 가져 버린 이중인격자. 친구 마음도 모르는.

친구 너나 나나 왜 지금껏 친구로 지내는지 모르겠다. 그때 그 일은 여고 때의 추억 속에 성장 통 속에 묻혀 버린 줄 알았는데 여때껏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무섭다.

민혜 내가 그 일로 인해 몇 날 며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했는줄 아니? 너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난 대장하려고 걸스카우트 활동 안 빠지고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걸 가장 친한 친구에게 뺏겼는데 너라면 하하호호 거리며 마음을 풀었을 것 같니?

친구 그래도 이걸 아니다. 너랑 나랑 얼마나 알고 지냈는데. 아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네 마음이 낯설어 지는구나. (일어서며) 네 상처에 얼마나 내가 관여했는지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 정리되면 전화할게.(문을 열고 나간다)

민혜 (크게 부른다)야! (멍하니 문을 쳐다보며) 못된 년. 그래도 밥은 다 먹고 가야지. 잡채 좋아하면서.

- 조명 서서히 아옏-

[제2장]

(민혜랑 남자 어둠속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남자 참 이상해.

민혜 뭐가?

남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

민혜 무슨 기억이?

남자 당신이랑 지내며 있었던 일이.

민혜 욕망이라서 그래. 욕구는 금방 채워지면 생각이 나지 않지만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대잖아.

남자 이렇게 열정적이면서 이렇게 간절하기는 내 삶에 처음인거 같아.

민혜 당신만 아니고 나도 그래. (춤을 멈추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당신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낯익은 얼굴이고 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 얼굴을 보는 듯 착각에 빠진다니까.

남자 아마 평생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쉬운지도 모를거야.

민혜 (애원 하듯이) 당신 제발 바쁘게 살지 마. 사는 게 별 거 아냐. 뭐 쫓을게 있다구. 이렇게 밥 따듯하게 먹고 음악 듣고 좋은 사람과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이런 게 행복이잖아. 당신 정도의 위치에서 뭘 더 바랄게 있다고 바쁘게 뛰어다니며 살고 그래.

남자 뭘 모르시네. 당신과 이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 앞을 보고 가야해. 그래야 서로가 지켜보면서 발전하면서 성장하지

민혜 난 그래도 싫어. 당신이 바빠서 날 만날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도

싫고 일에 지쳐서 어깨가 축 늘어져 내앞에 나타나는 그 모습도 싫어. 그러니 앞으로 여유 부리면서 살아. 나 당신에게 욕심 안부리잖아. 같이 이렇게 서로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해 하잖아.

- 남자 (민혜를 안으며) 그래, 알았어. 사랑해
- 민혜 나도 사랑해(열정적으로 두사람 키스한다.)
- 민혜 짜게 넘쳐. (불을 켜다) 쏟았던 에너지 저녁으로 보충은 해 놓아야 내가 와이프한테 욕 안 얻어먹지. 우리 맛있게 밥 먹자.
- 남자 (아쉬운 듯이) 알았어.
- 민혜 방에서 나 걸쳐 입을 옷 좀 갔다 줘.
- 남자 알았어(방으로 들어간다)
- 민혜 (다시 콧노래를 부르면 부지런히 식탁을 차린다)
- 남자 (가방을 챙겨 나오며) 저기.
- 민혜 (하던 일 계속하며) 왜 옷이 없어?
- 남자 (민혜 등에 옷을 걸쳐 주며)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어. 큰애가 기침이 심하다구 약국에 들려 먹던 약 사오래.
- 민혜 그래도 밥은 먹고 가. 다 차렸어.
- 남자 동네 약국이라 조금 있으면 문 닫거든. 지금가도 문 두드려야 될 것 같애.
- 민혜 조금만 기다려봐. 한 숟가락만 먹 고가도 되잖아.
- 남자 아냐, 집에 가서 먹을게.
- 민혜 그럼 국이라고 좀 마시고 가. 다 데웠어.
- 남자 (신발 신으며) 아니 됐어. 다음에.
- 민혜 당신 좋아하는 명태조림 했는데.

남자 다음에 와서 맛있게 먹을게.

민혜 그래도...

남자 간다.

민혜 (현관으로 쫓아나오며) 알았어.

남자 연락할게 (나간다)

민혜 조심해서 가

민혜 (식탁에 앉아서 명태조림을 젓가락으로 헤집으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걸려 만든건데... (혼자서 먹는다. 이 때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민혜 누구세요?

옆집 예 저기 옆집인데요. 아까 택배온 거 받아 둔게 있어서요.

민혜 (문을 열어주며) 감사합니다. 엇그제 이사 오신거로 알고 있는데.

옆집 예, 지난번 이사 떡을 해 좀 드릴려고 왔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민혜 그랬구나. 제가 직장다니고 하는 일이 많아 집에 잘 안 있어요.

옆집 우리 인사하고 지내요.

민혜 잠시 들어오세요.

옆집 아뇨, 지금 저희 집에 손님이 와 계셔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혜 그러세요. 앞으로 종종 제가 없을 때 부탁 드릴게요.

옆집 그러세요. (언뜻 둘러보며) 혼자 사시나 봐요.

민혜 예, 그렇게 되었네요.

옆집 그래도 음식 잘 해드시나봐요.

민혜 아 예, 제가 좋아해서. 그런데 어떻게 아시고

옆집 예,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나서요

민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나눠 드리는건데.

옆집 아뇨, 괜찮아요. 그럼 다음에 뵙죠.

민혜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시 식탁 앞으로 가 국에 밥을 말고는 거울앞으로 간다. 1인 2역이다)

민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민혜 (마녀같은 목소리) 네 마님 지금 밥을 예쁘게 먹고 있는 마님이 최고 이쁩니다요.

민혜 그럼 나랑 2행시 짓기 해 볼까.

민혜 (램프의 주인공 목소리) 바다로 해보자. 바!

민혜 바지가 내려간다

민혜 (램프의 주인공 목소리) 다!

민혜 다 내려 갔다. 하하하하 이제 거울이 너, 너는 거미로 거!

민혜 (램프의 주인공 목소리)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민혜 미!

민혜 (램프의 주인공 목소리) 미친년 또 지랄하고 있나? 하하하하하하
(신나게 웃다가 운다) 하하하하

- 조명 서서히 아웃-

[제3장]

(초인종 소리에 민혜 문을 열어준다)

민혜 어서 오세요.

직원 전화 주신 분?

민혜 아, 예. 제가 조금 전에 전화 한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직원 안녕하세요. 저는 심부름센터 888번입니다. 스스로도 팔팔하게 살고 다른 사람도 팔팔하게 살게 하자는 뜻에서 제 이름은 888입니다. 앞으로 사모님도저를 888로 불러 주세요.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관 속에 있는 사람 살리는 일만 빼고는 모든 일이다 가능합니다.

민혜 그렇군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차 한잔 드릴게요. 커피?

직원 커피 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이 참 좋군요.

민혜 혼자 살아 꾸며 놓은 게 없습니다.

직원 (아주 사무적으로) 먼저 그 많은 회사 중 저희 회사를 선택해 준 사모님의 탁월한 선택에 머리 꾸벅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곳 저곳 알아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고객 만족 120%인 모범 업체로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꼭 해결 하고야 말겠다는 투철하고 굳건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루 24시간 철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동안의 탁월한 노하우를 기초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철두철미한 정확성이 저희 회사의 자랑입니다.

민혜 그렇군요. 설탕은?

직원 (몸짓으로 노)

민혜 프림은?

직원 (몸짓으로 노)

민혜 (커피를 건네며) 드세요

직원 아,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양심에 가치를 느끼는 일이나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런 일은 절대 절대, 절~

대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객님의 이익을 위해서는 철저한 직업의 식으로 약간의 수당을 더 받고 절~대가 아닌 조금의 상대적으로 봉사정신과 비밀보장을 우선으로 사모님을 최우선으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객 만족이 우리의 최우선이라는거요.

민혜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직원 사모님! 뭘 도와 드릴까요? 우린 사모님이 가지신 고민 중 최고의 힘든 일부터 아주 사소한 일까지 최대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이신가요? 사장님이 요즈음 집에 잘 안들어 오세요?

민혜 아뇨.

직원 그럼 모르는 번호가 자꾸만 사장님 핸드폰에 뜹니까?

민혜 아닌데요.

직원 그럼 제 직감으로 사모님의 애인이 요즈음 연락이 잘 안되십니까?

민혜 어떻게?

직원 아, 예 제가 이쪽 밥을 좀 오래 먹었거든요. 요즈음 난리입니다. 얼마 전 같으면 남편이 의심스럽다고 우리에게 의뢰를 해오지만 요즈음에는 가정이 버젓이 있는 여자들이 자기 애인이 자기를 잘 안 만나 준다고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알아봐 달라는 주문이 많이 오거든요. 정작 해야 할 남편 관리나 자식관리는 뒷전이구요. 솔직히 우린 돈 때문에 이런 일 해주긴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려는지 어이없을 때가 많아요. (흥분하며)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들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해요. (멈칫, 민혜 눈치를 보며) 그래 사모님도 애인 뒷조사 해드릴까요?

민혜 아뇨.

직원 아니 그럼 어떤 일로? 그럼 혹시 첫사랑을 찾고 싶으세요?

민혜 아닌데. 혹시 배 안고프세요?

직원 (배를 쓰다듬으며) 배요? 약간요. 여기 얼마치고 먹죠 뭐.

민혜 (일어나며) 잘됐네요. 안 그래도 제가 저녁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해요.

직원 (쓱스럽다는 듯이)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숟가락 한개 더 놓아 주십시오.

민혜 (미리 준비한 그릇들을 식탁에 갖다 놓는다)

직원 (자리에서 일어나 거들며) 갈치찌게가 맛있어 보이네요.

민혜 좋아하세요?

직원 무척요. 집사람은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잘 안 해줘요. 가끔 시골에 있는 모친한테 가면 저 왔다고 항상 해 주시거든요. 모친은 제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 언제 올지 모르니 시장에 가시면 갈치 사서 항상 냉동실에 넣어 놓아요. 그리고는 저 오면 꼭 먹여 보내려고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냉동실에서 갈치 꺼내는 일이예요.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잠시 얼굴만 보고 오려고 해도 갈치 찌게는 꼭 해주세요. 저는 팔순 노모가 저 위해 일부러 해주시는 걸 거절할 수 없어서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고 오죠. 이번에 감기를 오래 앓아 기침을 심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전화 못한지 일주일이지났거든요.

민혜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생일날은 꼭 김이랑 계란 후라이, 갈치 찌게를 해 주셔서 생일날은 다른 건 몰라도 꼭 갈치찌게를 해요. 많이 드세요.

직원 그럼 혹시... 오늘이 사모님 생일이세요?

민혜 아뇨, 오늘은 왠지 어릴 때 생각이랑 엄마 생각이 나 그냥 먹고 싶어서 했어요. 아이가 있나요?

직원 예 중학교에 다니는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민혜 그 아이랑 친하나요?

직원 그렇죠 뭐. 하나 밖에 없어서인지 잘 해주고 싶어 어릴 때는 잘 데리고 다녔는데 요즘은 먹고 살기 힘들어 좀 더 바쁘게 뛰다보니 마음과 다르게 점점 딸아이와 갭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참 얼마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도 일찍 끝나고 해서 집 사람이랑 외식이나 하려고 집에 갔더니 아이가 컴퓨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화면을 보았더니 인터넷에 다크써클이라는 낱말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겁을 하고는 혼을 내줬죠. 무슨 중학생이 벌써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불량 써클에 가입하려고 하느냐구요.

민혜 다크써클 이라면 혹시?

직원 사모님은 아시네요. 그래요. 눈 밑에 거무스름하게 그늘이 지는 것이라는 걸 저는 몰랐거든요. 딸아이는 얼마 전부터 다크써클이 생겨 고민이 되길래 인터넷에 다크써클 없애는 법을 찾으려고 치고 있는 중이였는 가봐요.

민혜 (딱 웃으며) 재미있다. 다크써클이란 말 처음 들어보세요?

직원 네. 이렇게 바쁘게 뛰다다 집어가면 뻘어 자기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말 들어도 뜻도 모른체 무심히 넘기죠. 근래에 딸아이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지 다크써클이 생기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쁘게 잘 크려니 생각하면서 살았죠. 딸아이 설명을 말을 듣고

보니 얼마나 미안하고 황당하던지.

민혜 그래서요?

직원 올면서 뛰쳐 나가려는걸 억지로 붙잡아 미안하다고 백배사죄하고는 겨우 달랬죠. 그런데 제가 딸아이에게 상처 준 것보다는 딸아이가 하는 말이 자꾸 썩기는 겁니다.

민혜 어떤 말이에요?

직원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날따라 그렇게 섭섭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는 딸아이 하나 크는 재미로 힘든 일 굶은 일 마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날말 하나 몰라 가지고 그 아이를 오해하게 된 게 그게 그리 큰 죄인지. 그걸 가지고 말이 통하니 안 통하니 그렇게 말을 하는걸 들으니 이젠 제 품안의 자식이 아닌 거 같아 섭섭했어요.

민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중학생이면 머리 다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판단하죠.

직원 그날 외식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는 곤드레만드레가 되어 사흘을 회사 출근 못했습니다.

민혜 배 고프실건데 많이 드세요

직원 아, 예, 감사히 먹겠습니다. (갈치찌게 맛을 보며) 맛있네요. 꼭 모친이 끓여주는 그 맛 같네요. 그런데 아까 언뜻 혼자 사신다고 하셨는데…

민혜 그래요. 혼자 살아요.

직원 특별한 이유예요?

민혜 특별한 이유? (웃으며) 그럼 결혼 안한 사람한테 특별한 이유를 찾는다면 결혼하는 사람들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겠네요.

- 직원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건가요?
- 민혜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살다보니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에 익숙해져서 여기까지 왔나 봐요.
- 직원 하긴, 우리는 같이 사는 게 익숙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게 익숙하겠네요. 저는 군대 갔다 오자마자 결혼해서 이때껏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려움은 없어요?
- 민혜 왜 없겠어요.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건...
- 직원 어두컴컴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불 켜 때!
- 민혜 틀렸습니다.
- 직원 아파 죽겠는데 아무도 옆에서 간호 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 민혜 그것도 틀렸습니다. 자 세 고개 남았습니다.
- 직원 그럼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혼자 잠자리에 들 때.
- 민혜 전혀.
- 직원 (고개를 가우똥 거리며) 진짜 힘든 문제네. 그럼 여자 혼자 산다고 남들이 무시할 때
- 민혜 아니거든요.
- 직원 그럼 다정한 부부들을 볼 때.
- 민혜 마지막 까지 틀렸습니다.
- 직원 그럼 뭐죠? 내 직업보다 진짜 힘든 문제네.
- 민혜 아주 쉬운 문제인데도 못 알아 맞혔네요. 그러면서 무슨 모든 문제든 해결해 주겠다고 그래요?
- 직원 아니, 그것하고 이걸 다르죠.
- 민혜 (화를 내며) 뭐가 달라요.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라면서요? 고객 마음 하나 못 헤아리면서 무슨 사소한 일까지 해결한다고 떠들고 다녀요?

직원 (갑자기 화를 내는 민혜에게 찢찢매며) 아니, 사모님 그게 아니고.

민혜 뭐가 그게 아니예요. 맞는 이야기지.

직원 아, 예. 사모님 죄송합니다.

민혜 뭐가 죄송해요. 당신이 뭐가?

직원 예?

민혜 (한바탕 크게 웃으며) 하하하!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뭐가 죄송하다고 그래요?

직원 아, 예 사모님.

민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준다) 수고 하셨어요.

직원 (의아해 한다) 제가 무슨 수고를 ... 그리고 이거는?

민혜 오늘 서비스에 대한 수고비예요?

직원 (마다하며) 제가 무슨 사모님께 서비스를 했다구 이러세요. 그리고 아직 저는 사모님이 제게 뭘 의뢰 하시는지 이야기도 못 들어 봤는데.

민혜 아뇨. 다 끝났어요. 제 의뢰는 같이 밥 먹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다크써클 이야기도 재미 있었구요. 오랜만에 당신 때문에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직원 그거는……

민혜 (말을 짜르며) 그거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아뇨. 충분히 고객인 제가 만족했습니다. 제가 전화에다 대고 그곳에서는 밥도 같이 먹어 줘니까? 하고 물었다면 당신이 왔겠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미리 같이 밥 먹는 게 주문이었다면 당신이 이렇게 함께 밥을 먹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이런 걸 원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혼자 밥 먹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훌륭히 잘 수행해 내셨어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직원 (어리둥절해 한다)
- 조명 아웃 -

[제4장]

(민혜 전화기를 잡고 있다)

민혜 (친구에게 통화한다) 그래 알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그날은 내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는가봐. 왜 내가 너에게 그런 캐캐묵은 일을 꺼내 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니까. 미안해. 그러니 바쁜 일 없으면 우리 집에 와. 내가 특별히 네가 좋아하는 잡채 해 놓았다니까. 글썸 잘못했다 그러잖아. 우리 그동안 20년 동안 쌓았던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화 풀렴. 속 좁은 나보다는 네가 언니잖아. 응 제발. 그래. 그래. 응? 뭐라고. 내가 사과했잖아. 다 잘못 했다구. 그런데 그걸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친구에게 이야길 했다구.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내가 개를 몇 년 째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 하 참내. 그래 됐다. 됐어. 너희들끼리 잘해봐. 잘 먹고 잘 살아보라니까. 이젠 너도 다 필요없어. 됐다구. 이젠 나도 더 이상 너를 만날 일이 없을 거다. 끊어!(씩씩 거리면서 냉장고에 가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민혜 (언니에게 전화를 한다) 언니야? 형부는? 그럼 잘됐네. 형부한테 전화해 바로 우리 집으로 오라 그리고 언니도 와. 우리 집에서 밥

먹어. 뭐? 저녁에 두사람 다 약속이 있다구. 그럼 형부는 놓아 두고 언니는 취소하고 우리 집에 와라. 응. 오라니까. 오면 언니가 탐내는 그 진주 목걸이 언니 줄게. 다 취소하고 오라니까. 유일하게 형제라고 있는 게 언니 하나인데 그것도 못해주냐. 알았어! 알았다구!! (신경질 나게 전화를 끊는다)

민혜 (남자에게 전화를 한다) 응 나야. 바빠. 약속한 날은 아니지. 그런데 보구 싶어. 오면 안돼? 와서 밥 만 같이 먹고 가주라. 응. 그 때 번 보는 와이프 좀 늦게 보면 안되냐. 응 제발. 와서 딱 10분만 있다가 가라. 지금 당신이 필요해. 그것도 아주 절실하게. 응. 많이도 안 잡을게. 딱 밥 한 숟가락만 같이 뜨구 가라. 응. 뭐? 왜 이러냐구. 언제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나라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면서. 지금 네가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내가 이렇게 미칠 것만 같아 해매는데 너는 일찍 집에 가야 한다구. 뭐, 진정하랴구? 내일 들리겠다구. 나는 지금 필요해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되겠지. 너 같이 가정적인 남자가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네. 아무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당신한테 필요했겠지. 뭐? 사랑 한다구. 개자식이 뭘 사랑해. 네가 안고 있던 그 순간만은 사랑하겠지. 뭐 말 다했냐구? 그래 너 같은 자식은 이제 다시 안 만나. 만날 필요도 없지. 그런 널 이때껏 사랑한 내가 미친년이었지. 잘 살아라. 이 개자식이!

민혜 (직원에게 전화하나 받지 않는다)

민혜 (심부름 센터에 전화한다) 여보세요. 거기 지난번 의뢰한 사람인데요? 예, 혹시 888번과 통화를 할 수 있는지요? 예? 거기 그만

두었다구요. (실망한 채 수화기를 힘없이 내려 놓으며) 알았습니
다.

민혜 (서서히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는 밥을 뜬다. 그리고는 인형을 가
지고 거실에 있는 화분한테로 간다. 인형에게 한 숟가락 화분에게
한 숟가락 그리고 민혜도 한 숟가락 먹는다. 국도 한 숟가락씩 번
갈아 가며 먹여준다) 오늘은 모두가 바쁘다는구나. 나도 바쁘네.
손도 없는 너희들하고 밥 먹으려니 나도 바빠 미치겠네. 우리 오
늘 배터지게 한번 먹어 볼까. (빠른 동작으로 계속 한 숟가락 씹
퍼 먹인다. 점점 빨라진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큰소리로 웃기 시
작한다.)

- 그 웃음을 타고 조명 아웃-

[제5장]

(민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있다. 전화벨이 울리고 상대방
소리만 들린다)

언니 애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받지? 단식 한다더니 아예 전화도 단식
하냐? 민혜야. 아무리 단식도 좋지만 전화는 하구 살자. 그리고 단
식 잘못하면 죽어. 단식을 하더라도 잘 알아보고 해. 돌팔이한테
괜한 이야기만 듣고 하다가 몸 다 망가져. 그런데 이거 무슨 사단
나는 거 아냐. 민혜야 전화는 받구 살자 응?

친구 민혜야,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다고 하잖아.

그렇다고 이젠 전화도 안 받냐? 오늘이 몇 번째 전화인줄 아니? 민혜야. 나 네가 해주는 잡채 먹고 싶어. 언제 해 줄래. 그러니 내 음성메시지 듣거든 바로 전화해.

남자 당신 미안해.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집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바람에 갈 수 밖에 없었어. 알잖아. 껌데기만 집에 가고 항상 마음은 당신이랑 함께 한다는거. 정말 미안해. 당신 진심으로 사랑해. 가정이 제대로 되어야만 당신을 마음 놓고 평생 사랑하지. 불안하면 힘들어져. 이제 당신 만나러 자주 갈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테니 그만 화 풀고 전화 받아. 당신이 이러니 내가 영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 나 좀 살려주라. 중요한 일이 많은데 당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당신 사랑해. 내 맘 알잖아.

직원 사모님. 미안해요. 일부러 없다고 해서요. 사모님 만나고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 동안 내가 이일을 하면서 나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했거든요.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만 생각했더라면 이 일을 통해 좋은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돈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끊게 하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을 준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딸아이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었는데 사모님을 뵈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앞에 못 나섰던 거예요. 저 지금 시골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고향에 가 모친 얼굴 보면서 갈치찌게 맛있게 먹고 새 출발 할거예요. 다시 올라와 자리 잡게 되면 사모님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같이 밥 먹어요. 사실 모친 갈치찌게보다는 사모님이 만드신 게 더 맛있었어요. 자주 밥 같이 먹어요.

택배 (벨소리 들린 후) 계세요. 안에 아무도 안계세요.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없고 이거 어쩐 일이야. 밖에서 보면 불을 켜져 있고. 이게 도대체 며칠 짜야. 안 계세요. (문을 두드린다) 뭐야 이거 사람이 없는거 아냐. (계속 벨 누르고 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민혜 (소파에 숨도 쉬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다)

- 서서히 암울한 음악과 함께 조명 아아웃 -



